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1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11호

차례

중국 조선족의 한국이동에 관한 요인분석	김금연	7
“N+하나”와 “하나의+N”에 대하여 — 조사 「의」의 의미 기능을 검토한다	김금화	31
다언어경관으로 본 재일 코리언의 언어생활	김미선	49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이산가족 정책	김병로	63
일제의 조선경제지배와 략탈	김재서	81
민족고전을 민족의 재보로 빛내인 자랑찬 로정	김정영	89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성에 관한 연구 — 남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경제통합 추진을 중심으로	김중배	95
20세기 50년대 한국문학을 통해 본 대미의식	김춘선	113
학술용어의 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 보장문제	리근용	1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일생교육과 그 전망	리영복	135
전문용어 표준화와 어문규정 상이문제 극복방안	리의재	147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	문영호	163
조선고대유물론의 기본범주인 《기》에 대하여	변정암	181
일본어 ‘naru’와의 비교에서 본 동사 ‘되다’의 의미	송남선	193
‘-더니’와 ‘-었더니’	송재목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민법의 발생발전	안천훈	237
사동문의 유형론	연재훈	243
『文禧廟營建廳謄錄』의 借字 表記 研究(2) — 材木類 어휘를 중심으로	오창명 · 손희하	27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윤정수	309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한반도 영세 중립	이재봉	321
중국연변조선족의 한국유입어사용 현황에 관하여 — 어휘사용을 중심으로	전영남	341
중국 조선족 음식문화심리 탐구	최영금	357
남북 문장 부호의 통일에 대하여	최호철	377

중국 조선족의 한국이동에 관한 요인분석

김 금 연

오사카외국어대학

1.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중한 양국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조선족의 한국 이동이 시작되었다. 조선족이 본격적으로 노동자로서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기이다. 200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의하면, 조선족체류자는 118,3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02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총인구의 19.39%에 달한다. 그 중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79,737명이고, 이는 전체 조선족체류자의 60%에 해당된다. 즉 약 200만 명인 중국조선족 중에 5%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이동하여 일하고 있고, 그중에서 60%이상의 사람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에서는 조선족노동자의 한국으로의 이동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족노동자의 한국이동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양국 간의 소득격차에 관한 논의가 많고 기타 요인이 일으키는 작용의 검토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존 국제노동력이동이론인 「배출-흡인이론」, 「세계체계이론」, 「사회적 연결망이론」, 3개 이론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여, 조선족노동자의 한국 이동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배출-흡인이론에 의한 분석

국제노동력이동의 송출국(지역)-유입국(지역)의 구조 틀에 있어서, 송출국(지역)의 과잉인구, 빈곤, 낮은 소득(임금) 등을 배출요인으로, 더욱이 유입국(지역)의 노동력부족, 높은 소득(임금), 풍부한 고용기회 등을 흡인요인으로 국제노동력이동이 설명된다(戴二彪 2004).

2.1. 비용-편익분석

배출-흡인이론은 개인 행위자에 의해 행해진 합리적 계산의 결과로 국제노동력이동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 이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미시이론에 기반을 둔 비용-편익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용-편익분석에 의하면, 이동의 기대 순수입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이동자는 이동을 선택하고, 음의 값을 갖는다면 현재 있는 곳에 남고, 0이라면 이동이나 잔류에 특별한 선호가 없다.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많을수록, 현지에서의 수입이 적을수록, 이동에 걸리는 비용이 적을수록, 취업기간이 길수록, 기대 순수입의 현재가치가 많게 되어 사람들은 이동하게 된다(설동훈 1999). 즉 국제노동력이동은 소득격차, 이동비용, 취업기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족노동자의 한국이동에 있어서 상술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소득격차를 볼 때 중국 내 소득격차, 중국과 한국의 소득격차, 두 시점에서 이동원인을 찾아본다.

중국 내 소득격차의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전체와 조선족이 가장 밀접하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¹의 소득을 비교해 본다.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에 의해 지역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 이하 '연변'으로 약칭한다.

〈표 2-1〉 중국전체와 연변의 도시, 농촌에 있어서의 일인당 연평균 순 수입비교
(단위: 중국돈 원)

	중 국 전 체		연 변	
	도 시	농 촌	도 시	농 촌
1985년	739	398(1.9)	1,077	495(2.2)
1990년	1,510	686(2.2)	1,886	744(2.5)
1995년	4,283	1,578(2.7)	4,118	1,347(3.1)
1998년	5,425	2,162(2.5)	4,710	1,614(2.9)
1999년	5,854	2,210(2.6)	5,208	2,037(2.6)
2000년	6,280	2,253(2.8)	5,708	1,727(3.3)
2001년	6,860	2,366(2.9)	6,318	1,847(3.4)

주: ()는, 도시 평균수입이 농촌 평균수입의 몇 배인가를 가리킨다.

자료: 『연변통계연감』, 『중국통계연감』에 의하여 작성.

〈표 2-1〉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국전체이든 연변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도농간의 소득격차이다. 그 격차는 매년 늘어나는 경향이다. 중국전체의 데이터를 보면, 그 배율이 1985년의 1.9배로부터 2001년의 2.9배까지, 연변은 1985년의 2.2배부터 2001년의 3.4배까지나 상승하였다.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특히 연변의 경우는 중국전체보다 도농간의 격차가 더 크다. 현재 중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국내 인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변도 마찬가지로 인구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체보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더 큰 것으로 인해 기타 민족보다 인구이동률이 평균적으로 높다. 국가민족위원회(1997)에 의하면, 1990~1996년까지 조선족은 약 10%의 인구가 이동인구인 것에 대해, 한족은 약 6.8%의 인구가 이동인구인 것이 밝혀졌다. 조선족의 국내이동률이 보다 높은 것은 한국으로의 국제이동이 실현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높은 이동률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방향이다. 기타 민족이 국내이동을 할 때 조선족은 한국으로 국제이동을 한 것이다. 왜 조선족은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였는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내 대도시, 연해도시의 소득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표 2-2〉에서는 한국의 소득과 조선족이 이동지역으로 잘 선택하고 있는 중국 내 대도시 및 연해도시의 소득을 추출하여 비교해 본다. 그리고 업종에 관해서는 조선족이 돈벌이하러 객지에 갔을 때 종사하는 비율이 보다 높은 업종을 추출하여 비교한다. 중국 내 대도시, 연해도시의 데이터를 연도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상해의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 업종별 소득은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의 소득에 비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업종별 소득에 있어서 1993년의 약 1/10에서 2001년의 약 1/7~1/6에까지 축소되긴 하였지만, 조선족에 있어서는 한국의 소득이 아직은 매력적이다.

상술한 것과 같이 조선족에 있어서 국내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노동력이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하면, 중국 내 대도시, 연해도시와 한국의 소득격차는 노동력이동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표 2-2〉에서 제시한 한국의 자료는 한국에서 상용종업원의 소득이기에 외국인노동자로서의 조선족의 수입은 한국인의 수입과 다소 틀릴 것이라고 본다. 특히 불법노동자의 경우는 수입이 더욱 적을 것이라고 본다. 2001년 중앙일보가 [서울조선족타운의 111명의 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70만 원~99만 원(중국돈 약 4900원~7000원)이 가장 많아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단순노동자가 많고, 한국통계연감에 의하면 2001년의 단순노동자의 월급은 818,500원(중국돈 6139원)인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월 평균 임금의 4, 5배나 된다.

위와 같이 중한의 소득격차가 확실히 크지만, 이동에 의한 높은 이동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조선족은 아주 높은 이동비용과 리스크를 지불하고 한국이동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매일경제(2003.4.11)에 의하면, 조선족의 경우는 입국비용이 7500달러(중국돈 약 63,750원)²나 된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연평균수입을 1200만 원(월평균 100만 원*12개월)으로 하면 일년간 수입이 거의 입국비용에 의한 빛의 상환으로

2 2002년 연변의 연 평균수입의 약 6, 7배나 된다.

〈표 2-2〉 한국과 중국 대도시, 연해도시의 업종별 임금 비교표

(단위: 중국돈 원)

연 도	업 종	한국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산둥성	광주성
1993	건설업	59,732	4,646	3,763	5,861	4,028	3,433	5,846
	제조업	47,338	4,621	3,979	5,612	3,654	2,909	5,482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2,499	4,483	3,614	5,589	3,041	2,385	4,50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6,261	4,418	3,305	4,846	4,426	3,093	6,457
1998	건설업	123,566	11,011	10,624	13,293	8,250	6,486	9,748
	제조업	105,651	11,706	9,180	13,233	7,474	5,725	10,46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6,896	11,455	7,989	11,836	6,319	4,467	9,170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5,160	14,073	8,616	12,783	7,846	7,763	11,823
2000	건설업	145,074	12,825	12,395	16,013	9,520	7,493	11,570
	제조업	126,278	14,552	11,647	17,294	9,329	7,183	12,703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98,658	13,644	10,099	14,711	7,346	5,388	11,65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8,961	13,795	10,075	17,595	8,382	8,995	12,952
2001	건설업	137,408	13,869	13,570	18,429	10,223	8,311	12,185
	제조업	127,497	17,049	12,739	20,355	10,286	7,978	13,732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00,046	16,202	11,450	16,894	8,282	6,108	13,36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41,845	15,867	9,647	16,821	8,226	10,000	15,103

주: ① 1993년의 한국 데이터는 자료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1990년 데이터를 사용.

② 한국 데이터는 산업별 상용 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을 그 해의 달러와 원, 달러와 중국돈 원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고, 월평균 임금을 연 평균으로 환산.

③ 한국 데이터 중 1998년부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제각기 따로 통계되어 있어, 음식 숙박업 데이터만 차용.

④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한국 데이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중국 데이터에는 조선족 막노동자의 취업비율이 보다 높은 향락업 데이터만을 인용.

자료: 『중국노동통계연감』, 『한국통계연감』, 『한국경제통계연보』에 의하여 작성

쓰여 지게 된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이렇게 국제이동비용이 국내이동비용보다 훨씬 높지만, 아직까지 한국이동이 늘어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대 수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취업기간, 즉 체류기간의 이동결정에 대한 영향을 볼 때, 60% 이상의 조선족이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입국에 불법취업이 다수이기에 취업기간(체류기간)이 이동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불법노동자는 불법신분이기에 언젠가 신분이 밝혀지면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기에 체류기간을 고려하기보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노동자는 합법노동자와 달리 체류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이동결정을 할 때 체류기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업기간의 변화는 조선족노동자가 이동함에 있어서 그다지 큰 제약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상술한 이동요인의 소득격차, 이동비용, 체류기간의 영향에 대해 제각기 분석해 본 결과, 조선족의 경우는 소득격차라는 원인이 이동의 최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전과 경제학이론은 개인이 효용을 최대로 하는 것을 가정하고, 국제인구이동을 본국에 남는 경우와 타국에 이동했을 때의 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로 설명한다. 이 이론에 근거한 국제인구이동의 모델에서는 양국간의 소득격차가 크면 클수록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의 인구이동 규모가 크지만, 소득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동규모가 작아진다(戴二彪 2004). 이와 같이 조선족의 한국이동도 중국과 한국의 개인소득격차가 있는 한 이동이 계속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인소득의 상승에 따라 이동의 규모도 점차로 작아질 것이라고 본다.

2.2.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분석

한편, 배출-흡인이론을 거시이론에 기반을 두면 배출, 흡인이 각각 송출국의 배출요인과 유입국의 흡인요인에 해당된다. 배출-흡인요인은 국제노동력이동을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노동력부족의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2.2.1. 배출요인의 중국노동시장

중국에서 장기간 인구이동, 특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이 호적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거대한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한번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면 상상을 초월한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할 것이다. 1978년 말 중국에서 '경제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었다. 개혁개방의 첫 단계로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2항목으로 나뉜다. 즉 '정부에 의한 농산물의 구입가격의 인상'과 '인민공사의 해체와 농가의 생산도급제도의 도입'이었다. 후자의 인민공사의 해체와 생산도급제도의 도입은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노동생산성의 상승 등을 통한 농민의 일인당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농민의 일인당 생산량의 증가는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켜 2, 3억의 과잉노동력을 산출해 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에 시작한 경제개혁의 2단계로서 도시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개혁은 중국의 도시, 특히 연해지역의 도시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도시 경제의 발전이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이동을 만들어 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伊藤正一 1998). 이리하여 농촌의 과잉노동과 도시 발전에 의한 노동력부족은 농촌의 노동력을 이동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이동노동자가 8000만 명 정도에 달하였고, 이는 농촌노동력의 약 12%에 달한다고 한다(南亮進 2001). 2003년에는 이동인구가 1억을 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2, 3억이나 되는 농촌 과잉노동력의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개혁개방에 있어서 중국 농촌발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향진기업의 '농민이 토지를 떠나더라도 농촌은 떠나지 않는다(離土不離鄉)'라는 발전방식은 하나의 '내부 발전'의 모델이라고 크게 평가를 받았다(宇野重昭, 朱通華 1991). 향진기업이라는 농촌 내 근대부문이 형성되어 농촌 내 이중경제발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농촌 내 이중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지역이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장, 자본, 인적자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부존조건에 격차가 있는 이상 공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에 지리적 편향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1993년 이후

향진기업의 발전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것은 아마 이러한 배경에 있다고 본다(丸川知雄 2002). 그리고 최근에는 후진지역에서 선진지역으로 광범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향진기업에 의한 과잉노동력의 흡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특유의 특징으로 노동시장의 분단화현상이 있다. 분단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호적제도에 의한 인구이동의 제한이다. 이미 이전처럼 호적이 없으면 식량도 거처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호적이 없으면 자녀가 취학하기 어렵고, 신분증 발행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둘째, 호적제도를 배경으로 각 도시의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유입제한을 실시하고, 서로 다른 계층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청도시에서는 외지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도시용량증가비'의 지불을 강요하고 있다. 심양시에서는 3D업종에 외지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내 일시귀휴자나 실업자를 끼워 고용해야 한다(丸川知雄 2002). 이렇게 중국에는 지역에 따라 '노동보호주의' 장벽이 있어 외지노동자의 이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보호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시에 그만큼 농촌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지 않는 한 농민의 수입은 늘어날 수 없고, 잠재실업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상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농촌의 조선족노동자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조선족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태는 조선족이 집중해 살고 있는 동북3성의 국유기업문제이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효율이 현저하게 되어 국유기업이 경영악화에 빠졌다. 이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생겼다. 동북3성은 국유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국유기업이나 제3차 산업의 성장이 현저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리고 일시 귀휴자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2000년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실업 일시귀휴률이 각각 18.1%, 16.1%, 16.9%이고, 요녕성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밝혀졌다. 佐々木信彰(2001)의 『현대중국의 민족과 경제』에서, 鄭雅英은 연변에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잇달아 문을 닫고, 1998년에는 전체

기업의 40%가 조업정지이거나 거의 그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실업노동자가 14만을 넘어 연변지구 전체 노동자의 27%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변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3D노동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연변취업서비스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취업인구가 490,758명, 실업인구가 20,483명, 실업률이 4%, 일시귀휴자가 9,848명이다. 농촌에는 농촌노동자가 37만 명, 그 중에 과잉노동자가 15만 명이다. 구직자 중 실업자의 비중이 62.6%, 일시귀휴자가 11.6%, 농촌과잉노동자가 20.8%이다. 연변의 경우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비록 매년 경제성장률이 8%이상이지만, 일자리가 적어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동력 공급자의 학력을 보면 중학교 이하가 대부분이고 기술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아 경쟁력이 낮고 취업이 곤란한 상황이다. 한편, 연변에는 인재유실이 많아 인재부족 현상이 현저하다. 이렇게 연변노동시장은 질적 면에서 분포가 적당하지 않다. 즉 기술직은 인재난의 상태이고 3D업종에는 초과수요 상태이다.

이렇게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 및 연변지구에는 도시의 실업자, 일시귀휴자와 농촌의 잠재노동자(과잉노동자)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중구조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여하튼 국내 노동시장에서 흡수할 수 없는 도시와 농촌의 과잉노동자가 국제노동력이동의 배출요인이 된 것이라고 본다.

2.2.2. 흡인요인의 한국노동시장

①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 배경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노동력의 송출, 유입을 경험해 왔다.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면,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간 협약에 의해 한국노동력의 해외 진출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 한국경제가 '농촌으로부터의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종결됨을 의미하는 루이스적 전환점을 통과한 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부분적인 인력난이 발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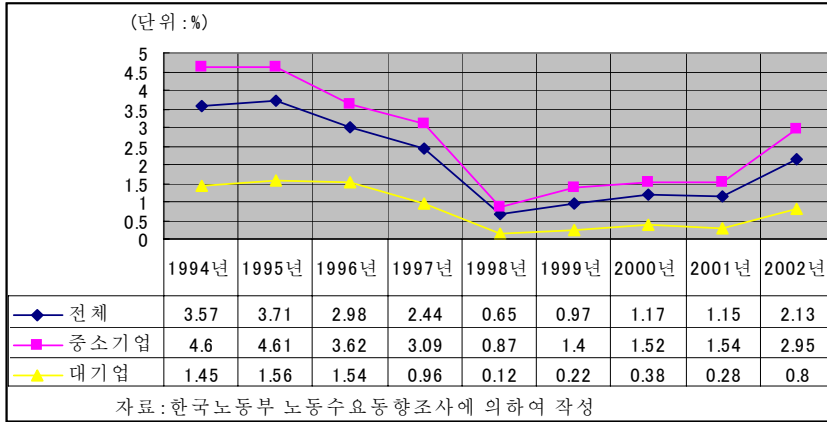
고,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설동훈 1999). 더욱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국내 노동운동이 대폭 활성화되었으며, 더불어 임금수준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국내 노동시장은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한 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노동력 과잉상태에서 부족상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는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이 대폭 감소되었다. 특히 3D업종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한 후 임금의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국내 노동자를 의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유입되었다고 본다.

② 노동력 부족의 실태

노동력 부족은 노동시장 부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외국인노동자는 특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부문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기업의 규모, 업종, 직종에 따라 노동력 부족상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어떤 기업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상술한 것과 같이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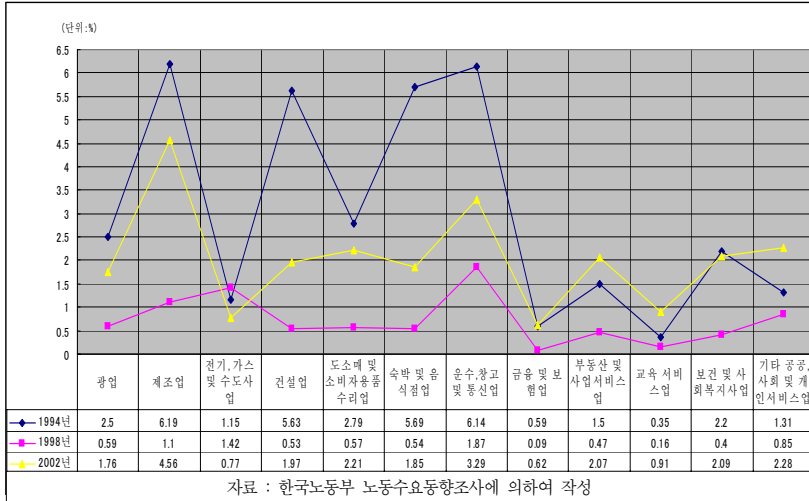
〈그림 2-1〉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개로 나누어 노동력 부족률을 비교하였다.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노동력 부족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한국의 노동력 부족률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률이 낮아졌지만, 그 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부족률도 높아졌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체의 노동력 부족률이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훨씬 낮아진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그림 2-1〉 기업규모별 노동력 부족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탄력적으로 고용하기도 해고하기도 쉬운 외국인노동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조선족노동자의 입국상황을 보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노동력 부족률이 급격히 낮아진 시기에는 입국자수가 적어져 각각 22,605명, 19,065명, 22,544명, 17,780명, 14,641명이었고, 경기가 회복해 부족률이 상승하였을 때는 입국자수도 많아져 1999년에 26,529명, 2000년에 60,176명, 2001년에 67,679명, 2002년에 61,781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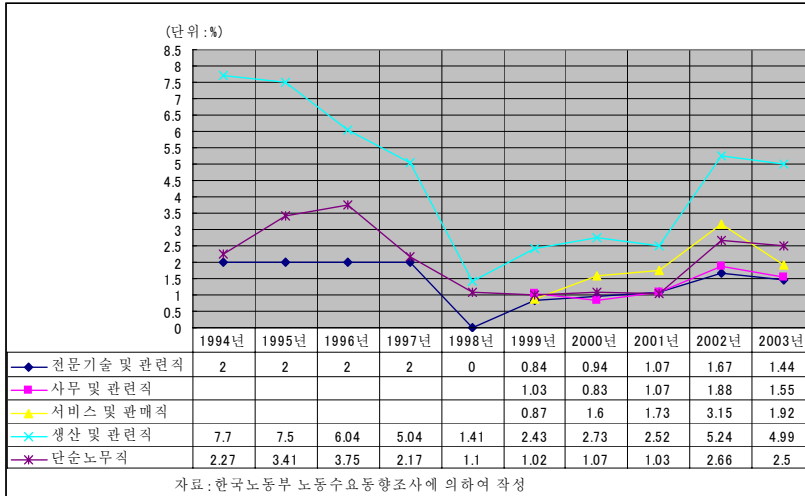
다음은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률을 살펴본다. 〈그림 2-2〉로부터 중소기업의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의 노동력 부족률은 어느 산업보다도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산업들은 노동조건이 보다 열악하기에 국내노동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성과 관계없이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기에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률이 크게 낮아진 점이다. 즉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과 같은 산업은 경기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이 산업들은 불경기에 외국인노동자를 해고하고, 호경기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중소기업 산업별 노동력 부족률

다음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어떤 직종에 노동력이 부족한가를 살펴본다. 〈그림 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 및 관련직에 노동력 부족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이다. 전문기술 및 관리직과 사무 및 관련직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기술, 학력 등과 관계없는 직종이면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쪽이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본다.

2001년 한국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의 노동력 부족률은 4.7%이고, 그 중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소기업생산직의 노동력 부족은 10%정도라고 한다. 1995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직 노동력 부족인원은 13만 5천 명에 달하였는데, 같은 해 한국의 유휴노동력이 289만 9천 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많은 유휴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노동력 부족인원이 13만 5천 명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노동자가 3D업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한국노동시장에는 국내노동자로서 대체할 수 없는 산업, 업종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이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에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이라고 본다.



〈그림 2-3〉 중소기업 직종별 노동력 부족률

조선족노동자의 이동에 있어서 배출-흡인요인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배출-흡인요인이론에 근거한 국제노동력이동 모델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20, 30년 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 년 사이에 이동이 급격히 늘어났는가. 둘째, 한국 이외의 선진국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족은 주로 한국을 선택하였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의 세계체계이론으로 이동원인을 분석하여 본다.

3. 세계체계이론에 의한 분석

세계체계이론은 역사적, 거시적 시점에서 국제인구이동을 고찰하고, 국제인구이동을 외국직접투자 등에 의한 경제활동의 전지구화 및 노동시장의 국제화의 결과로서 보고 있다(戴二彪 2004). 세계체계 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투자 및 정치적 교류는,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사람의 국제이동을 쉽게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세계체계이론에서는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무역, 투자 혹은 정치적 연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戴二彪 2004).

여기에서 무역, 투자, 정치적 연결이 조선족의 한국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유입국은 한국으로, 송출국은 조선족이 집중하여 살고 있는 연변으로 정한다.

한국의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외교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던 1985년부터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형식으로 시작되어서, 1988년부터 직접투자 형식이 되고, 199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1992년 중국과의 정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해서 화남경제권과 상해경제권에 집중된 것과 달리 한국기업은 발해안과 동북3성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과 동북3성에 조선족동포가 집중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75%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손종석 2003).

그 중에서도 연변으로의 직접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변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과정을 보면, 1984~1991년까지는 초기단계로서 투자건수도 적고 규모도 작았다. 직접투자 국가(지역)로는 홍콩, 대만, 일본이고, 국유기업과의 합병사업이 주요였다. 1992~1995년까지는 투자건수,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투자업종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직접투자의 기업은 한국, 홍콩, 일본, 미국, 북조선 등으로 늘어났다. 1996~2002년까지는 조정단계로서 투자건수보다 투자의 질, 투자 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투자국은 주로 한국이었다. 2002년도 한국의 투자기업의 수가 102개, 계약외자금액이 6,640만 달러, 실제이용외자금액이 1,149만 달러, 각각 외국인투자총수의 91%, 65%, 29%이었다. <표 3-1>에서는 6위까지의 국가, 지역의 직접투자 상황을 비교하여 본다.

〈표 3-1〉 2002년까지 연변으로의 직접투자 국가(지역)별 상황표

(단위: 만 달러)

국가·지역	항목수	비중%	계약외자금액	비중%
총계	700	100	67,718	100
한국	515	73.6	40,598	60
홍콩	49	7	13,423	19.8
일본	50	7.1	5,079	7.5
대만	22	3.1	2,265	3.3
미국	21	3	563	0.8
북조선	14	2	263	0.4

주: 비중은 연변에 투자하고 있는 각국의 비율이다.

자료: 연변외국경제무역부 외국기업처

〈표 3-1〉로부터 잘 알 수 있다시피 연변은 한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주력으로 되고 있다. 투자 항목수의 비중이 73.6%, 계약투자금액이 60%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연변의 외자이용이 거의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변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한국의 연변에 대한 의존은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기업의 연변에 대한 투자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기업의 규모로 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둘째, 산업분포로 보면 주로 방직업 등 노동집약형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에서도 방직업 투자가 투자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 투자는 상업, 음식업에 집중하고 있다(朴承完 2003). 이렇게 한국의 연변에 대한 직접투자는 일부 산업,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

다음은 연변과 한국의 경제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92년 중한국교정상화 이후 중한 양국경제의 강한 보완성에 의하여 무역, 투자, 노동, 기술 등 많은 영역에서 협조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3번째 무역상대국이고 2번째 직접투자국이다. 그리고 연변과 한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연변의 경제무역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연변과 한국의 무역액 추이표

(단위: 만달러)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무역액	666	627	3,736	5,906	9,610	7,437	5,394	7,404	8,175	9,103	10,329
비중%	2.1	1.3	9.7	38.2	45.7	32.6	23.6	25.6	26.5	29.6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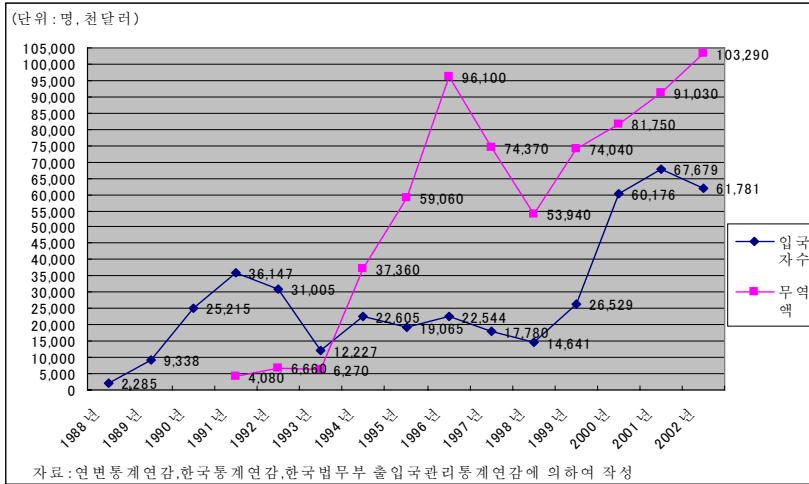
주: 비중은 한국과의 무역액이 연변의 총 무역액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료: 『연변통계연감』 2002년

〈표 3-2〉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연변과 한국의 무역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초기까지 무역액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96년에 무역액이 9,61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무역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1998년에는 5,394만 달러까지 줄어 1996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1999년부터 회복하기 시작되어 매년 10%이상의 속도로 상승하였다. 2002년에는 무역액이 10,329만 달러로 되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연변의 대외무역총액의 30.64%를 차지함으로써 인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연변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다.

연변의 한국으로의 수출품을 보면 1990년대 초기는 한약재료, 건조물(마른 야채) 등 특산물을 중심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량은 극히 적었다. 1994년 이후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방직품, 목재, 알루미늄 등에 의해 수출이 증가하였다. 2001년 연변의 한국으로의 수출품 중에서 목재, 목제품 등의 비중이 22%, 방직품이 16%, 그 다음이 화학공업제품이나 농산품이었다. 연변의 수출품의 대다수가 원재료의 수출이고, 이것은 연변의 풍부한 자연자원이나 삼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변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을 보면 외자기업의 생산용 방직품 원료가 중심이고 적은 양의 기계나 화학공업원료 등이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연변의 한국에 대한 무역은 수출이 75%, 수입이 25%이고, 수출이 수입을 대폭 초과하고 있다(朴承憲 2003). 무역상항도 직접투자자 같이 연변에 있어서 한국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는 하지만, 한국의 연변에 대한 의존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연변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무역의 가장 좋은 파트너이고, 외자도입에 있



〈그림 3-1〉 조선족 입국자수와 무역액의 비교

어서 중요한 국가이다. 투자, 무역에서 연변도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직접투자의 대상이다. 그래서 조선족은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연변과 한국간의 무역발전과 더불어 조선족의 이동자수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3-1〉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8~1991년까지의 무역, 투자정황을 보면 무역액이 아직 적고 직접투자도 초기단계로서 수도 적고 규모도 작았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아주 적었다. 이 시기의 조선족의 이동은 아직 이산가족과의 재회로 친척방문이 다수이고 노동자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다음은 1992~1996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쌍방의 무역이 발전 확대의 시기에 들어갔고,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1993~1996년까지의 무역액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조선족의 이동자수는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1993년을 전환점으로 1996년까지는 거의 정체상태이었다. 이것은 외국 인노동자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용을 초과하였기에, 1991년 11월에 한국법무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화하여 불법입국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의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1997년 이후의 단계에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까지 무역액이 감소하였다. 그 후 점차로 회

복하여 매년 10%이상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리고 직접투자도 이 시기에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의 조선족의 이동도 1998년까지 감소한 후 1999년부터는 과거에 없었던 기세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조선족의 한국이동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쌍방의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입국규제정책에 의해서도 이동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회적 연결망이론

국제노동력이동의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선행이주노동자 및 비이주노동자를 개인적 '회원자격' 및 사회적 '매개자'를 통해 연결시키는 대인연대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설동훈 1999). 즉 인적 네트워크는 송출국 노동자에 유입국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송출국 노동자를 이동하게 하는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 개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개인적 네트워크가 한국생활에서 의존할 수 있는 이유는 조선족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관계가 있다. 초기 조선족의 한국입국은 친척방문으로 가능하였다.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은 한국사회의 발전모습에 놀랐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해 보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친척방문을 하였을 때 선물로 가져 간 한약의 평판이 좋아 현지에서 한약장사를 시작하여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정부의 판매 금지와 가짜 한약이 많이 나와 1990년에 한약장사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당시 판매용 한약을 사기 위하여 중국에서 쓴 자금을 벌기 위하여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선족이 한국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조선족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단 누군가가 한국에서의 취업의 문을 여는데 성공하면 그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조선족이 대량으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 진 것은 미시적으로 개인적 네트워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의 개인적 네트워크는 또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많은 조선족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으로 가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인 원조를 얻고 있다. 한국 입국을 위한 준비는 비자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비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얻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높은 입국비용의 조달은 친척, 지인으로부터 빌리게 되는데³ 친척,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경우는 그 친척, 지인이 한국에서 일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갚을 때는 이자가 없든가 혹은 적기에 친척,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또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한국생활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 등을 가르쳐 받기도 하여,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입국준비와 개인 네트워크는 밀접히 관련되고,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을 위해 개인 네트워크가 크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단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그 후에도 개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설동훈(1999)에 의하면 국제노동력이동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는 개인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네트워크가 국제노동력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자본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불법의 경우, 현지에서의 거처, 일자리 등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조선족에 있어서 이동의 계기로부터 입국과정, 현지에서의 정착까지 개

3 중국 은행에서는 아직 개인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였고,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본다.

5. 기타 원인

조선족의 한국이동 원인은 상술한 소득격차, 노동력의 수요-공급, 투자·무역의 침투, 사회적 연결망 등 경제요인 이외에 정치적, 민족적요인 등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1978년 이후 중국국민은 해외유학, 국제결혼, 친척방문, 재산계승에 의한 사적인 목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戴二彪 2004).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북방정책'에 의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추진되었다. 북방정책에 의하여 조선족은 한국으로 친척방문을 하게 되었고, 초기 조선족은 한국친척에게 중국한약을 선물로 가져갔다. 선물로 사용하던 한약이 요구 하는 사람이 많아 어느새 친척방문에 한약을 가져다 파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고 장사목적으로 친척방문을 빙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1990년에 접어들어 장사가 한계에 부딪히자 일부 사람들은 한국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부터 친척방문, 관광목적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심각한 노동력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의 노동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실상 불법체류노동자를 방치하였다. 이렇게 중·한 양국 간 관계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의 한국이동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도 중요하다. 국제노동력이동은 상품의 이동과 달리 현지에 이동하여 생활하게 되면 언어나 문화, 습관의 문제도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도 조선족의 이동요인 중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본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 또한 영어가 '세계어'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전 세계의 사용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적은' 필리핀인 노동자들을 선호한다

(설동훈 1999). 조선족에 있어서 한국은 같은 민족국가이고, 조선족은 줄곧 자기의 언어, 문화를 계승하여 왔기에 한국으로 이동하더라도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하기에 타국이라도 위화감이 적다. 그리고 '의사소통'면에서도 다른 외국인노동자보다 쉽다. 그리고 필리핀인과 같은 영어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어느 나라라도 언어가 통하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에서도 일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한국보다 임금이 높거나 일하는 환경이 좋을 경우,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는 영어를 그다지 할 수 없기에 한국이 조선족에 있어서는 유일한 일할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언어의 동일성이 조선족으로 하여금 한국으로 이동하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으로의 이동은 조선족사회를 이분화하였다. 즉 해외취업을 실현한 사람과 실현하지 못한 사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해외 취업을 통하여 돈 번 사람은 고소득층에 들어가고,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빈곤층에 머물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족 사회전체의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이동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더욱 이동을 희망하게 되었고, 한국으로의 이동을 한층 더 촉진하게 한 유인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국제노동력이동의 기존이론을 근거로 조선족의 한국이동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배출-흡인이론」에 의한 분석에서는 미시이론에 기반을 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중국 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인구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족을 이동하게 한 원인이 되었고, 3D업종에서 중국 대도시, 연해지구와 한국의 수입격차가 이동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이 보완적 관계로 한쪽의 과잉노동력이 다른 쪽의 노동력 부족에 의해 두 시장이 평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체계이론」의 관점에서는 한국과 연변과의 무역관계, 더욱이 한국기업의 연변에

서의 투자정황 등 자료를 통해 쌍방이 경제상 어느 정도 중요한 거래상대로 됐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조선족에게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교류, 경제시스템의 침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국제적 연결을 가지고 있어 이 연결이 조선족노동자를 보다 쉽게 이동하게 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사회적 연결망 이론」의 관점에서는 조선족노동자의 한국 이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동에 관한 장애가 점차로 적어지면서 이동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이 밖의 원인으로는 정치, 문화, 언어 등 원인도 조선족의 한국이동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격차가 조선족의 한국이동의 중요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타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족노동자의 한국 이동은 소득격차, 투자무역의 침투, 사회적 연결망, 정치, 문화, 언어 등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영향을 끼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본다.

금후 중국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이 이동현상이 정지할 수 있는가, 이동자 내역, 이동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문헌

- 한국은행(2003) 『경제통계연보』.
- 노고훈(2001)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한국 내 조선족 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매일경제 「조선족 한국입국에 7500불 들어」, 2003.4.11.
- 법무부(2003) 『법무연감』.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출판부.
- 손종석(2003) 「중국 동북3성 환발해안 지역의 성장 가능성 높아」, 『수은해외경제』 3월.
- 이광규(2002)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백산서당.
- 『출입국관리통계연보』(1988, 2002) 법무부.
- 『한국통계연감』(2002) 통계청.
- <http://www.hanbal.com/review/review93/review4.html> 「21세기 북방정책의 방향」

중국어문헌

- 国家民委民族问题研究中心(1997) 「对外开放与中国的朝鲜族」, 『民族研究』.
- 朴承宪(2001) 延边经济蓝皮书 2000~2001, 『延边经济形势分析与预测』, 延边大学出版社.
- 朴承宪(2002) 延边经济蓝皮书 2001~2002, 『延边经济形势分析与预测』, 延边大学出版社.
- 朴承宪(2003) 延边经济蓝皮书 2002~2003, 『延边经济形势分析与预测』, 延边大学出版社.
- 『延边统计年鉴』(1997, 2000, 2001, 2002).
- 『中国劳动统计年鉴』 各年.
- 『中国人口统计年鉴』(2002, 2003) 中国统计出版社.
- 『中国统计年鉴』 各年.

일본어문헌

- 伊藤正一(1998) 『現代中国の労働市場』, 有斐閣.
- 宇野重昭・朱通華(1991) 『農村地域の近代化と内発的発展論-日中「小城镇」共同研究』, 国際書院.
- 戴二彪(2004) 『〈中国新移民〉の移出地構造の変動-経済発展の国際人口移動への影響』, 『経済地理学年報』第50巻.
- 佐々木信彰(2001) 『現代中国の民族と経済』, 世界思想社.
- 丸川知雄(2002) 『労働市場の地殻変動』, 名古屋大学出版会.
- 南亮進(2001) 『中国経済入門-目覚めた巨竜はどこへ行く』, 日本評論社.

“N + 하나”와 “하나의 + N”에 대하여

- 조사 「의」의 의미 기능을 검토한다*

김 금 화

오사카오타니대학

1. 문제의 제기

본고에서는 조리어 수사인 “하나”가 명사에 전치할 때(‘하나의+N’)와 후치할 때(‘N+하나’)의 그 “참값”이 같다고 할 수 없음을 화용론적 각도로부터 논리적, 인지적 시점에 입각하여 구체적 예문을 통해 논증하려 한다. “하나의+N”에서의 “하나의”가 “N”에 대한 수식기능이, “N+하나”에서의 “하나”가 “N”에 대한 수식기능과 같다고 할 수 없음은 조사 “의”의 출현에서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수사(수량사)가 명사에 전치할 때와 후치할 때에는 결코 “동의관계”¹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 “의”가 그 수사(수량사)에 다양한 의미기능을 갖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1) 그리하여 생긴 결과는 기계적 우주관이다. 옛날 신앙은 완전히 깨어지고, 우주는 하나의 기계로 되어 버렸다. 신의 창조가 아니다. 물질의 법칙이다.

* 철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표기에 따르며 인용문을 인용할 때 그 인용문 자체의 표기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임흥빈(1979: 191), 이남순(1982: 130), 유동준(1983: 67~71), 채완(1983) 등에서는 셈술말이 명사 앞 수식어인 구조와 명사 뒤 수식어인 구조는 동의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김영희(1984: 131~136)에서 동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H000167)²

a. 우주는 하나의 기계로 되어 버렸다.

b. #³우주는 기계 하나로 되어 버렸다.

(2)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로마는 아리아 인의 자손이 티베르 강 근처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에 마을을 세웠는데 이것이 서서히 성장하여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AH000167)

a. 로마는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b. #로마는 도시 하나가 되었다.

2. 연구방법과 “하나”의 사전적 의미

2.1. 연구방법과 계량조사(計量調査)

언어실천주의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N”과 “N+하나”의 단어결합을 연구대상으로,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1999)에서 1652개의 예문을 추출하여 계량조사하고 논리학과 인지언어학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먼저 “하나의+N”과 “N+하나”가 나타나는 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문장체와 구어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용례를 검토해 보았다. 1652개의 예문을 추출하였는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구어체에서 “N+하나”의 구조형식이 보편적이다. 771개의 예문 중에 318개(41.2%)를 차지하고 “하나의+N”의 구조형식은 86개(11.2%)를 차지한다. 문장체에서는 “하나의+N”의 구조형식이 주도를 차지한다. 881개의 예문 중에 408개(46.3%)를 차지하고 “N+하나”의 구조형식은 130개(14.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하나의+N”의 구조형식은 보다 문장체적이고 “N+하나”의 구조형식은 보다 구어

2 (AH000167) 등과 같은 예문 뒤의 표기는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의 파일번호를 나타낸다.

3 “#”는 화용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적인 것인가? 실로 흥미로운 일이다.

「하나」의 용법 언어체	N+ 하나	∅+ 하나	하나의 +N	하나하나	하나는	~중의 하나	하나도	하나	하나이다
문장체(881문)	130	14	408	48	28	176	30	7	40
구어체(771문)	318	72	86	23	49	69	85	25	44

〈표 1〉

다음은 “N”의 종류⁴로부터 “하나의”와 “하나”가 어떤 종류의 명사와 잘 결합되는
가의 양상을 문장체⁵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 계량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하나
의+N”의 구조형식은 추상명사와의 결합이 보다 활발하다. 408개의 예문 중에 234
개(57.4%)를 차지하고 구체명사와의 결합은 72개(17.6%)를 차지한다. “N+하나”의
구조형식은 그 반대로 구체명사와의 결합이 보다 활발하다. 130개의 예문 중 77개
(59.2%)를 차지하고 추상명사와의 결합은 19개(14.6%)를 차지한다. “수의 맨 처음”
의 의미로 수효를 나타내는 “하나”가 “하나의”의 형태로 불가산명사인 추상명사와
활발히 결합되고 또 구체명사와도 보다 잘 결합되는 것은 그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확장되었는가, 왜 “확장”되었는가는 모두
“문제제기”에서 지직한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과제로 된다.

2.2. “하나”의 사전적 의미

“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확장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하나가 “어휘”로서

4 野間秀樹(1990: 19, 28)의 “명사 분류”에 따라 「N+하나」, 「하나의+N」의 결합양상을 분석
한다. 분석에 필요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의 개념만 소개한다. 구체명사란 비활동체명사·가
산명사 중에 주로 구체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추상명사란 불가산명사 중에 여러 가지
사향·현상·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군을 말한다.

5 명사분류에 의한 구어체에서의 “하나의+N”와 “N+하나”의 구체적 결합양상의 검토는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결합형식 N	N+하나 (예문수130) · %	하나의 +N (예문수408) · %
완 전 명 사	가 산 명 사	동물명사(動物N)	(0)0	(0)0
		인간명사(人間N)	(14)10,8	(12)2,9
		단체명사(團體N)	(0)0	(15)3,7
		장소명사(場所N)	(0)0	(4)1,0
		구체명사(具體N)	(77)59,2	(72)17,6
		사항명사(事柄N)	(14)10,8	(22)5,4
	불 가 산 명 사	위치명사(位置N)	(0)0	(0)0
		시간명사(時間N)	(0)0	(0)0
		수량명사(數量N)	(1)0,8	(0)0
		물질명사(物質N)	(0)0	(0)0
		추상명사(抽象N)	(19)14,6	(234)57,4
		성질명사(性質N)	(0)0	(5)1,2
		활동명사(活動N)	(5)3,8	(44)10,8
		영위명사(營爲N)	(0)0	(0)0
		형용명사(形容N)	(0)0	(0)0

〈표 2〉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표성적인 4개의 사전을 검토 대상으로 그 해석을 표로 작성하면 〈표 3〉과 같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①의 예문: 〈p〉**양말 하나**에서조차 기흥성의 ‘부지런 철학’이 담겨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진한 밤색 모자, 털 달린 밤색의 가죽 점퍼, 밤색 앵글 부츠, 짙은 카키색의 주머니가 많이 달린 공군용 작업복, 밤색 스카프. 이것은 방금 경복궁에서 현장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선 그의 패션이다. (〈p〉BB95Z004)

문장구조: N+하나

“하나”의 사전 해석 사전(출판된 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말대사전” (공화국)	수의 처음.	같음, 통일체, 한결같다.		(체언 아래에서) 한정하여 강조함.	전혀, 조금도의 뜻.	(“하나의” 형으로) 바로 그것.	한가지, 한개, 한사람.
“표준국어대사전” (한국)	수의 처음.	한결 같거나 일치한 상태.	여러 가지 가운데의 어떤 것.	오직 그것 뿐.	전혀, 조금도의 뜻.	일종의 뜻.	
“조선말사전” (중국)	수의 처음.	일치함.		(체언 아래에서) 한정의 뜻.	전혀, 조금도.		한가지, 한개, 한사람.
“朝鮮語大辭典” (일본)	수의 처음.	일치, 동일의 뜻.		그것 뿐.	전혀 조금도.		한사람.

〈표 3〉

②의 예문: 관객들을 운동선수들과 마음이 하나로 되었다.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문장구조: 하나+로 되다 —————▶ 하나+轉成表現⁶

③의 예문: 수능시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BB94Z009)

문장구조: N가운데+하나

④의 예문: 석기 하나만으로 뛰어난 진보를 보여준다. (AH000167)

문장구조: N+하나만

⑤의 예문: 실로 살아있는 생물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삼라만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오직 죽은 자만이 성장을 정지하고 있을 뿐이다. (AH000167)

문장구조: 하나도+없다 —————▶ 하나도+否定表現

⑥의 예문: 지능이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신장이나 체중처럼 하나의 속성이라

⁶ 塚本勳・長谷川由起子(1998: 150)를 참조.

할 수 있다. (AH000167)

문장구조: 하나의+N

⑦ 의 예문: 낯선 사람 하나이 와서 길을 물어본다. 『조선말대사전』(1992: 871)

문장구조: N+하나

①은 본의로 “수의 맨 처음”을 나타내고, ②~⑦은 파생적의미로 어떤 문법수단과 결합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②~⑦의 해석을 “하나”의 의미라고 인식하는 데는 의문을 가진다. 그것은 “하나”가 어떤 “문법적 수단”과 결합할 때 가지는 의미이지 결코 “하나” 자체의 의미는 아니다. 위의 문장구조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하나”가 ② “~로 되다”, ③ “~가운데”, ④ “~만”, ⑤ “~도 없다”, ⑥ “~의”의 문법적수단과 결합될 때의 의미이고, ⑦은 특별한 문법수단이 나타나지 않고 “한사람, 한가지, 한개”의 대치로 “하나”가 쓰인 상황이다. 고로 “하나”는 여러 문법수단에 의해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문법적 기능도 여러 문법수단의 도움을 받아 문맥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가설을 제기하며 본고에서는 조사 “의”의 문법적 수단이 “하나”에 어떤 기능을 입히는가를 연구대상으로 화용론적 각도에서 검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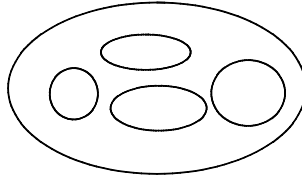
3. “하나의”의 의미기능

3.1. “하나의 + 구체명사(具體N)”의 경우

(3) 다시 말하면 영주와 농노 외에 또 하나의⁷ 다른 계급에 속하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있었다. 혼란한 시대에는 상업이나 수공업은 좀처럼 번성하지 못하였지만, 질서가 잡힘에 따라 차차 이들의 거래는 규모가 커져서 부유하게 되고 그 지위가 날로 높아 갔다. (AH000281)

7 이 예문에서는 “하나의”가 “상인과 수공업자”를 수식할 경우를 검토하였는데 “하나의”가 “다른 계급에 속하는”을 수식할 경우는 과제로 남긴다.

- a. 다시 말하면 영주와 농노 외에 또 하나의 다른 계급에 속하는 상인과 수공업
자가 있었다.
- b. 다시 말하면 영주와 농노 외에 또 다른 계급에 속하는 상인과 수공업자 하나
가 있었다.



〈그림 1〉



〈그림 2〉

먼저 “하나의+N”의 구조형식에서, 개념이 이룬 집합관계의 스키마(scheme)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상인, 수공업자를 $\{\alpha\}$ 라고 하면, 그 외에 $\{\beta\}$, $\{\gamma\}$ 등 집합이 또 존재하고 이들은 상위 개념 “계급”을 류개념으로 하는 중개념으로 된다. “N+하나”의 구조형식에서, 집합은 그 자체 하나뿐이고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alpha\}$ 뿐이다. 이런 개념 간의 집합관계는 화용론에서 판이한 의미전달기능을 하는 것이다. 먼저 문맥 속에서 N이 가산적인 구체명사 일 때 “하나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가를 검토한다.

3.1.1. 비유(은유: metaphor,⁸ 환유: metonymy⁹)의 뜻으로 사용

- (4) 그리하여 생긴 결과는 기계적 우주관이다. 옛날 신앙은 완전히 깨어지고, 우주는 하나의 기계로 되어 버렸다. 신의 창조가 아니다. 물질의 법칙이다. (AH000167)

[= 예문(1)]

8 수사법의 하나로 類推나 공통성의 암시에 따라 사물이나 관념을 대치 外延하는 방법.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사물들 사이에는 외양이나 성질 등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한 사물의 이름을 다른 사물에 적용함으로써 성립된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위와 같이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이라 한다(이정민 외 2000: 522).

9 수사법 가운데 비유법의 한 가지. 한 낱말 대신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표현법, 즉 하나의

- a. 우주는 하나의 기계¹⁰로 되어 버렸다.
- b. #우주는 기계 하나로 되어 버렸다.

단어결합의 각도에서 볼 때 “하나의 기계”와 “기계 하나”는 그 참값을 같이하지만 문맥 속에서는 그렇지 아니다. a문에서의 “하나의 기계”는 구체적인 “기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계와 같은 성질을 가리킨다. “우주”를 “일종의 기계”에 은유하고 있다. b문에서의 “기계 하나”는 구체적인 “기계”가 있고 그것이 “하나 즉 한 대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주가 기계 한 대로 된다는 것은 화용적으로 비문이 된다.

그럼 <기계>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이런 비약을 가져 왔는가? “하나”의 수식을 받을 때는 구체적의미를 나타내지만 “하나의”의 수식을 받을 때는 추상적의미로 전화된다.¹¹ 다시 말하면 “하나의”에서의 “하나”는 수효를 나타내지 않고 “일종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것은 조사 “의”의 기능적 역할을 입어 의미가 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 (5) 그러면 짜장면은 더이상 1500원 짜리 음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중국 역사를 보여 주는 하나의 창으로 변한다. (</p>BHXX0030)
- (6) 심지어 대학원에서조차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1등, 2등 또는 최우등생, 우등생, 열등생, 꼴찌로 구별해서 평가한다. (AA000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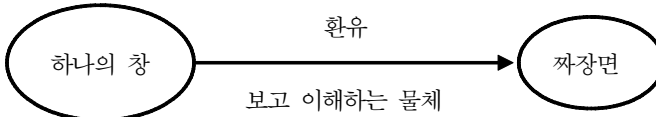
관념을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 그 관념의 표시를 위해 쓰인다. 예를 들면 ‘왕’ 대신 ‘왕관’을, ‘porter’나 ‘MP’대신 ‘red cap’을 사용하는 따위. 이것은 두 대상의 의미 사이의 인접성(contiguity)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이정민 외 2000: 524).

- 10 단어나 단어결합의 의미 해석은 문맥에 의존하는 바 목적어가 “우주”가 아니고 “논발”일 때, 전자는 “우주”와 “기계”가 비유관계에 놓이지만 후자는 “기계”를, 논발을 다루는 다른 요소와 대비시키는 것으로 본다. 고로 이는 3.1.2.의 “대비의 의미로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분석, 이해할 수 있다.

- a. 십여 년간 논발을 하나의 기계로 다루어 왔다.
- b. 십여 년간 논발을 기계 하나로 다루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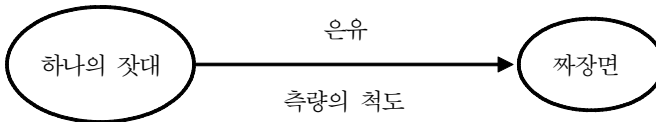
- 11 김영희(1984)는 「Q+N」에서 Q를 명사 앞 수식어로, 「N+Q」에서 Q를 명사 뒤 수식어로 하였다. 그리고 셈술말이 명사 앞 수식어인 구조와 명사 뒤 수식어인 구조는 동의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창”, “하나의 잣대”의 결합은 단어결합의 각도에서 볼 때 이는 구체명사 “창, 잣대”가 둘 이상의 수효가 아니라 “하나”라는 수효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창 하나”, “잣대 하나”와 그 의미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하나의+N”은 “N+하나”보다 구체적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3〉

“창”은 집 안의 사람이 밖을 내다보고 밖의 세계를 인식, 이해하는 즉 밖과 안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물체이다. “짜장면”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즉 소위의 “안”인 한국과 소위의 “밖”인 중국을 연결시키는 물체라면 이는 “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짐으로써 “짜장면”을 “창”으로 은유화하여 “짜장면은 하나의 창이다.”는 은유로 된 문장이다.



〈그림 4〉

“잣대”는 물체의 길고 짧음을 측량하는 척도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측량하는 척도는 다름이 아닌 “시험”이다. 위의 예문 (6)에서는 “시험” 대신에 “하나의 잣대”로 표현함으로써 “시험”을 연상시키는 표현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환유의 수법을 이용하였다.

“하나의”가 구체명사(具體N)와 결합할 때 “N+하나”에서의 “하나”가 일으킬 수

없는 문장효과를 나타낸다.

3.1.2. 대비¹²의 의미로 사용

- (7) 중생대는 그 시종을 통하여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였는데 더구나 그 대륙은 괴형(塊形)으로 생겼고 변화가 작은 것이었다. (AH000167)

단어결합의 각도에서 그 의미 참값은 같다.

하나의 대륙=대륙 하나

하나의 바다=바다 하나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는 그 화용적 의미를 달리한다.

a. 중생대는 그 시종을 통하여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였다.

b. 중생대는 그 시종을 통하여 대륙 하나, 바다 하나였다.

문 a는 “중생대”를, “고생대, 신생대”와 대비하여 지질정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준다. 문 b는 “중생대”에 대한 단순한 서술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N”이 비유의 의미로 화용될 때는 “하나의”가 “어떤”이란 속성이나 성질을 띤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면, 대비의 의미로 화용될 때는 “하나의”가 “몇 개·몇”의 구체적인 수량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다. “물음”이란 개념은 화용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거기에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화자의 “물음”에 청자는 필연코 “대답”을 전달하기 마련이다. 그 때 청자의 두뇌 속은 일련의 인지적과정이 형성된다.

화자: 중생대는 **몇 개의** 대륙, **몇 개의** 바다였는가?

청자: 중생대는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였다.

12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국립국어연구원 2000: 1472).

“몇 개의 대륙, 몇 개의 바다”가 위의 담화에서 화용의 초점¹³으로 된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지만 그 해답에 이르는 과정은 일련의 스키마(scheme)를 거쳐 완성된다. “한 개의 대륙, 한 개의 바다”, “한 개의 대륙, 두 개의 바다”, “두 개의 대륙, 한 개의 바다”, “두 개의 대륙, 두 개의 바다”, …… “여섯 개의 대륙, 다섯 개의 바다” 등 다수의 가능성이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¹⁴를 형성한다. 이는 중생대 지구정황의 해답으로서 가능성을 띤 개념들이며 그것들을 추상화시키면 “지구정황”이란 유개념(類概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가능성을 띤 해답들은 “지구정황”의 종개념(種概念)으로 된다. 이런 종개념들은 유개념과 “포섭(包攝)–피포섭(被包攝) 관계”를 이루며 그것을 공식으로 표시한다면 $A \subset B$ (A는 가능성을 띤 각각의 해답의 집합을 가리킴, B는 “지구정황”이란 집합을 가리킴)이다.

다시 화용적 시점에 되돌아 와 본다면, 이런 가능성을 띤 각각의 해답은 담화에서 교체적 성분(alternatives)으로 출현되어 초점역(focus domain)을 형성한다. 이 초점역 속에서 각기의 교체적 성분들은 경쟁을 벌려 그 중에서 하나가 화자에 의해 선택되고 발화에 나타난다. 선택된 이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는 “두 개, 세 개, 여섯 개”가 아니라 “바다도, 대륙도 각기 하나”라는 다른 수치와 “대비의 의미색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대륙, 바다”의 개수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 역시 “N+하나”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의+N”에서 나타나는데 그것 역시 조사 “의”의 의미기능이 “하나”에 그런 성격을 입혀주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8) 〈그림 5-5〉와 같이 위치한 네 개의 등불이 깜깜한 방에서 차례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가하면, 하나의 등불이 위치를 이동하면서 켜졌다 꺼졌다한다. (AH000167)

이 예문도 위의 예문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약하다. 이

13 金錦花(2004: 116~123)을 참조.

14 亀井孝 외(1996: 1907)을 참조.

용법은 그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

3.1.3. 한정성(definite),¹⁵ 특정성(specific)¹⁶의 기능

- (9)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로마는 아리아인의 자손이 티베르 강 근처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에 마을을 세웠는데 이것이 서서히 성장하여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AH000167) [= 예문(2)]

- a. 로마는 하나의 도시가 되었다.
b. #로마는 도시 하나가 되었다.

예문 a에서 “도시”는 “하나”의 전치로 한정성(definite), 특정성(specific)의 지시 의미를 지니고, 예문 b에서 “도시”는 “하나”의 후치로 비한정성(indefinite), 비특정성(unspecific)의 지시 의미를 지닌다.¹⁷ 때문에 b의 예문은 비한정성의 특징을 갖춤으로 “도시 하나, 도시 둘, 도시 셋……”의 열린 상태로 인지가 가능하다. 고유명사 로마가 도시인 두개 이상으로 인지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문

15 한정성(definite): 名詞句(noun phrase)가 가진 자질(feature)의 하나로, 모든 명사구는 定(definite)이거나 不定(non-definite) 둘 중의 하나이다. 영어에서는, 定名詞句는 ‘定冠詞+名詞’, ‘不定形容詞(indefinite adjective)+名詞’, 또는 ‘ $\emptyset$ +複數形名詞’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She has a car. The car is blue. / The car which she has is blue. / It is blue에서와 같이 쓰인 it을 定代名詞(definite pronoun)라고 하기도 한다(이정민 외 2000: 219).

16 특정성(specific): 名詞句(noun phrase)가 갖는 자질(feature)의 하나로, 모든 명사구는 特定的이거나 혹은 非特定的(nonspecific)이다. 화자가 特定指示物(referent)을 의도하고 있으면 명사구는 특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때는 비특정적이라고 한다. “I’m looking for a pen. Here it is”에서, 화자의 마음속에 특정한 펜이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a pen은 특정적이라고 해석된다. “I’m looking for a pen. Here is one”에서는 특정한 펜이 의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 pen은 비특정적이라고 해석된다. 화자에 의해 의도되는 指示物은 반드시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saw a unicorn. It had a gold mane(이정민 외 2000: 806-807).

17 김영희(1984: 131)는 셈술말이 명사 뒤 수식어라면 그 명사는 ‘비한정성(indefinite)’내지는 ‘비특정성(unspecific)’의 지시 의미를 지니지만, 셈술말이 명사 앞 수식어라면 일차적으로 그 명사는 ‘한정성(definite)’내지는 ‘특정성(specific)’의 지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예문도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243) ㄱ.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 세 여자가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b는 비문이 된다. 고유명사 “로마”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정성, 특정성을 띤 서술어구와 잘 맞물린다. 예문을 더 든다면 아래와 같다.

- (10) 네덜란드 인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여 뉴암스테르담이라 칭했고 뒤에 영국인이 이것을 빼앗아서 뉴욕으로 개명했다. (〈p〉AH000281)
- (11) 같은 시대에 볼테르보다는 젊은 또 하나의 위대한 저술가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장 자크 루소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네바의 큰 자랑거리로 되어 동상까지 세워졌다. (〈p〉AH000167)

위의 3.1.1.~3.1.3.은 개념의 관계로부터 “하나”, “하나의”가 문맥 속에서 그 전후에 나타나는 구체명사에 대한 기능,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대비의 기능”, “한정성, 특정성의 기능”은 개념분류 즉 종개념, 유개념의 분류관계에서 화용적으로 실현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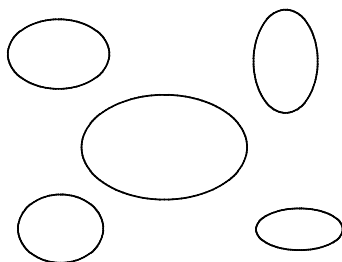
- (12) 그래서 수많은 노동조합은 한 길을 걷게 되고 한 나라의 노동자는 하나로 뭉친 조직이 된다. 그 다음, 각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계가 되는데 그들 역시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또 적은 공통된 하나의 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p〉AH000167)
- a.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또 적은 공통된 하나의 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 b.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또 적은 공통된 적 하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위의 a문과 b문이 서술하는 의미는 판이하다. a문은 “동일한, 같은”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b문은 “수효”를 나타낸다. 이는 “하나의”와 인간명사(人間名詞)와의 결합인데 인간명사와 결합할 때만 “동일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5가지 명사류를 다음과 같은 문장구조 즉 “같은…… 공통된 하나의 N”에 대입시켜 검토해 본 결과 모두가 “동일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하나”를 명사 뒤에 후치시키면 명사 앞 전치할 때와 그 문장의 의미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통사적 견지에서 그 문

장구조의 특징으로 “하나의”와 “하나”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인데 본고에서는 화용적 각도에서의 “하나의”와 “하나”의 문법적 의미, 문법적 기능을 고찰하는 것에만 그치고 통사적 고찰은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3.2. “하나의 + 추상명사(抽象N)”의 경우

- (13) 오대양 · 육대주의 포치를 보면 거기 하나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원리란 곧 수륙의 고른 배치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대의 수륙분포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잘 알 수 있다. (<p>AH000167)



〈그림 5〉

“하나”와 추상명사N과의 결합은 개념의 “집합관계”의 스키마(scheme)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상명사는 외연이 그 자체이므로 종개념, 유개념에 관한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상명사 앞에 어떤 수식적 단어가 놓인다 해도 그것은 “내포에 대한 ‘묘사수식’작용”에 지나지 않고 “내포의 확대” 등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외연도 “축소”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대비의 기능”이나 “한정성, 특정성”의 기능은 실현되지 않는다.

“하나의”가 추상명사에 대해 수식작용은, “일종의”의 의미로 거의 그 전후의 문맥 가운데 “구체적 해석”이 뒤따르는 특징이 보여 진다. 위의 예문을 놓고 볼 때 “하나의 원리”가 도대체 어떤 원리냐는 것을 그 뒤의 문맥에서 “그 원리란 곧 수륙의 고른 배치라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이때 “하나의+N”에서의 “하나”가 결합되

는 추상명사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을 일어난은 조사 “의”의 기능역할을 입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문을 더 보고저 한다.

(14)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한 가지 선발 기준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선발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p>BB94Z009)

(15)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다른 하나의 결론에 수렴된다. 즉 인간과 우주, 삶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이다. (BHXX0030)

하나의 관점 →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문맥 앞 출현)

하나의 결론 → 즉 인간과 우주, 삶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이다(문맥 뒤 출현).

이 유형의 단어결합은 “하나의”와 구체명사와의 결합과 달리 “하나”를 추상명사에 후치시켜도 그 문의 참값은 변치 않는다.

a. 오대양·육대주의 포치를 보면 거기 하나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b. 오대양·육대주의 포치를 보면 거기 원리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볼때, ……

b.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이라는 관점 하나에서 볼때, ……

a.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다른 하나의 결론에 수렴된다. ……

b.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다른 결론 하나에 수렴된다. ……

“하나의”가 추상명사를 수식할 때 개념의 집합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추상명사는 그 외연이 그 자체로 될 수밖에 없다. 고로 “하나”가 전치하느냐 후치하느냐에 따라 그 결합관계를 인지하는 참값은 변치 않는다.

3.3. “하나의 + 활동명사(活動N)”¹⁸의 경우

- (16) 이것이 앤 여왕 통치하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해석은 아닐 테지만, 이것은 일종의 타당한 해석이며, 트리벨리언의 손에 의해 풍부한 해석이 된 것이다. (</p>AH000284)

“하나의”와 활동명사(活動N)와의 결합은 불가산명사에서 추상명사 다음으로 활발하다.¹⁹ “하나”를 활동명사의 뒤로 이동했을 때 추상명사와 같은 정황을 보인다. 그 원인은 여전히 “개념의 집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연이 활동명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a. 오직 하나의 해석은 아닐 테지만, 이것은 일종의 타당한 해석이며……
- b. 오직 해석 하나는 아닐 테지만, 이것은 일종의 타당한 해석이며,

예문을 더 본다면,

- (17)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거의 종류를 말하자면 무한히 많다. 예컨대,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해온 사람들의 논거들을 모아 본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BHXX0030)
- a.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거의 종류를 말하자면 무한히 많다.
 - b. 주장 하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거의 종류를 말하자면 무한히 많다.

4. 마무리

본론은 “하나의+N”과 “N+하나”가 구어체와 문장체에서 쓰인 양상, 부동한 명사류와 의 결합양상, 특히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와의 결합양상으로부터 “하나의”는

18 불가산명사로서 ‘~하다’를 붙이면 동사로 되는 명사 중에 ‘~을/를 가다/오다’와 결합될 수 없는 것이 활동명사이다(野間 1990: 32).

19 <표 2>를 참조.

문장체에서 많이 쓰이고 추상명사와 잘 결합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수의 맨 처음》을 나타내는 “하나”가 조사 “의”와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 어휘적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본다.²⁰ 고로 “하나의”가 구체적 명사와 결합될 때 화용론적으로 비유의 의미, 대비의 의미, 한정성, 특정성을 나타낸다. “하나”가 구체명사에 후치할 때는 이런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구체명사에 전치할 때와 후치할 때 그 참값은 달리한다. “하나”가 추상명사에 전치, 후치할 때는 그 참값은 같다. 그것은 구체명사와 달리 추상명사는 “하나”의 수식을 받을 때 그 외연이 자체인데 있다. 그러나 “일종의” 의미로, 그 전후 문맥에서 거의 “구체적 해석”을 동반하는데 이는 조사 “의”의 기능역할을 입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조선어/한국어 문헌

- 정순기(2002) 「교착접사의 이른바 <단의성>을 논함」, 『국제고려학』 제8호, 오사카: 국제고려학회.
- 김영희(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 성광수(1999)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서울: 월인.
- 신현숙(2001) 『한국어 현상과 의미 분석』, 서울: 경진문화사.
- 이남순(1998) 『格과 格標識』, 서울: 월인.
- 이석주 · 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정민 · 배영남 · 김용석(2000) 『언어학사전』, 3版 改訂増補版, 서울: 博英社.
- 홍사만(1994) 『國語意味論研究』, 서울: 형설출판사.

20 정순기(2002)는 《무릇 단어가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에 있듯이 토 역시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있다. 고정불변한 사물이 없듯이 고정불변한 언어적 현상도 없다》고 지적하였고 조선어 토는 문법적의미가 단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토의 문법적의미를 그가 붙어 쓰이는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 관점을 존중하면서 토의 다양한 문법적 의미는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문법적 기능은 그 토가 붙어있는 단어에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그 단어는 토의 다양한 문법적 기능의 영향을 입어 그 의미, 기능이 확대된다고 본다. 때문에 문맥 속에서 단어와 토는 서로 작용하면서 서로 부단히 변화발전된다.

일본어 문헌

- F. ウングラー・J. シュミット/ 池上嘉彦ほか(訳)(1998) 『認知言語学入門』, 東京: 大修館書店.
- 鯨坂真・有尾善繁・梅林誠爾(1987) 『論理学-思考の法則と科学の方法』, 京都: 世界思想社.
- 大河内康憲(1985) 「量詞の個体化機能」, 『中国語学』 232, 日本中国語学会.
- 亀井孝・河野六郎・千野栄一(1996) 『言語学大辞典』 第6巻術語編, 東京: 三省堂.
- 金錦花(2004) 「焦点理論から朝鮮語の助詞 [의](ui)의 意味機能を探る」, 『EXORIE NTE』 VOL. 11, 大阪外国語大学言語社会学会.
- 佐藤香織(2002) 「イベント名詞句補部からの数量詞遊離現象」, 『日本語文法』 2巻 2号, 東京: くろしお出版.
- 塚本勲・長谷川由起子(1998) 『朝鮮語講座』, 東京: 白帝社.
- 遠山啓(1972) 『数学の学び方・教え方』, 東京: 岩波新書.
- 野間秀樹(1990)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学報』 第135輯, 天理: 朝鮮学会.
- 安井二美子(2003) 「“是(一)个N”의 認知言語学的アプローチ」, 『中国語学』 250, 日本中国語学会.

사전류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초판 2쇄), 서울: 두산동아.
- 新村出(1979) 『広辞苑』(第2版補訂版), 東京: 岩波書店.
-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1986) 『朝鮮語大辞典』, 東京: 角川書店.
- 연변사회과학원언어연구소(1995)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언어자료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1999)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 연구, 교육용 현대 국어 균형말뭉치, (재)한국어세계화재단,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 보급 관리 센터.

다언어경관으로 본 재일 코리언의 언어 생활

김 미 선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을 통해 본 재일 코리언의 호스트 사회에의 언어적 영향을 고찰한 내용이다.

‘언어경관’이란 최근에 사회언어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공유공간에서 행해지는 문자를 통한 언어활동을 말한다(Landry and Bourhis 1997). 언어 경관의 주된 매체는 옥외광고, 상업용 간판, 벽보, 지명, 도로 안내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되며 가시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다언어 경관의 역할은 문자를 통한 정보 전달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그 문자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화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장식성을 의도한 심볼적인 사용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역이나 관공서의 외국어 안내 표기나 벽보 등이 전자의 예이며, 헤어 살롱이나 커피숍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나 프랑스어 광고, 간판 등이 후자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의 다언어 경관은 ‘장식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쇼지(2004)는 다언어 경관에 나타나는 다언어 표시의 배경에는, 일부 다수파에 의한 소수파 언어의 사적 표시에 보이는 심볼적 용법 이외에도 사회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다민족성 또는 다언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언어경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금까지 음성

언어 연구가 중심이 되어왔던 재일 코리언의 언어사정을 문자언어의 관점으로 파악함과 함께, 재일 코리언커뮤니티의 언어사정과 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의식 변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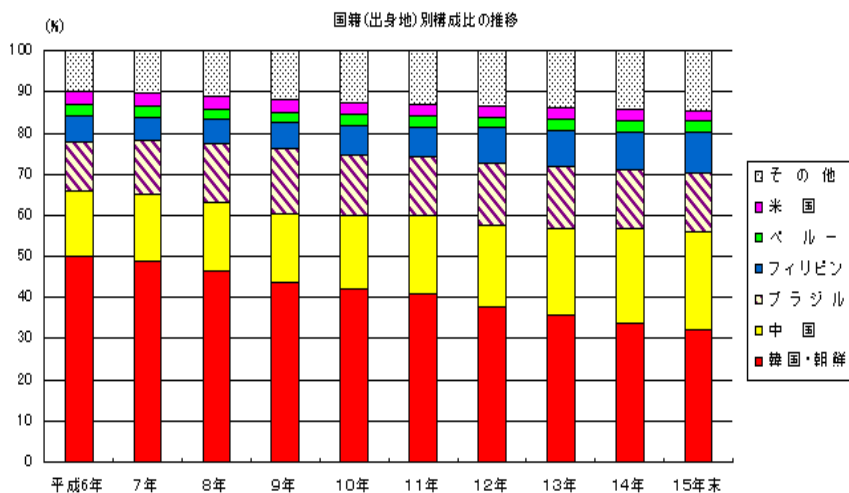
2. 다민족화 하는 일본사회와 다언어 경관

일본 법무성 입국 관리국의 외국인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일본에는 200만에 가까운 외국인이 지역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자의 국적 총 수는 186개 국으로, 이 중 한국·조선 국적자 수가 가장 많은 약 61만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그 외에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순의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 출신자가 전체의 74%를 차지해 인종적으로 본다면 비가시적인 외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한국·조선 국적자는 1991년에 69만 명을 피크로 그 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 당시의 240만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는 1994년 외국인 등록자수 전체에 대한 구성비 50%를 이후로 매년 감소해가고 있다. 재일 코리언의 감소에는 자연 감소와 더불어 일본국적 취득 등 여러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거듭된 입국관리법의 개정 및 외국인정책의 변화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체에 대한 구성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여러 정보를 통해 형성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특히 문자 정보로 구성되는 언어 경관은 호스트 사회에 이국 정서를 제공하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 문자 정보는 음성 정보와는 달리 시각에 호소하는 메세지성이 강한 고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언어경관 면에서 외국인의 존재가 가장 가시화된 곳이 도쿄의 신주쿠 주변이다. 신주쿠 주변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늘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문화 공존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곳에서 생활하는 외국



〈그림 1〉 법무성 입국 관리국(2003)

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종교, 생활 습관, 경제활동과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수용태도와 의식이 신주쿠의 다언어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도시 언어경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일 코리언 커뮤니티이다. 특히 1980년 후반 한국의 외국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뉴커머’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광고, 상업용 간판, 전단지 등에 보이는 문자언어 활동은 단일민족 단일 언어를 국가이념으로 해 오던 일본의 도시 언어경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 재일 코리언 커뮤니티

재일 코리언 커뮤니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계기로 이주를 해온 ‘올드커머’와 1980년대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뉴커머’로 구분되고 있다. ‘강제연행’, ‘돈벌이’ 등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올드커머와는 달리, 한국의 고도성장을 경험한 뉴커머는 관광, 유학, 주재원, 국제결혼

등 생활 이동 또는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 일본 체제의 주된 동기가 된다. 61만의 한국/조선 국적 등록자 중 올드커머가 47만, 뉴커머가 14만으로 점점 감소하는 올드커머와는 달리 뉴커머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뉴커머와 올드커머의 구성비의 역전도 예상되고 있다. 약 5만에 달하는 초과 체류자(overstay)도 뉴커머로 구분할 수 있겠다.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보다는 서로가 경험해온 환경적인 요소와 현재의 생활의 이질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일상적이던 시기에 민족의식 하나로 참고 견디어 왔던 올드커머의 생활 전략과는 달리, 뉴커머는 민족의식이 강하지 않으며, 자신의 민족성을 의식하며 생활해야 할 장면에 조우하는 경우도 드물다. 호스트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항의식도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영주자의 자격으로 1세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일본의 영주를 지향하는 반면 뉴커머는 단지 체제라는 제도적인 이유를 포함해 언제가는 돌아가리라는 의식이 강하며 이러한 귀향의식도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구분되는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대비 요소 이외에 뉴커머와 올드커머가 구분되어지는 가장 큰 요소는 그들의 언어사용에 있다. 1세기에 걸친 시간의 흐름과 일본의 단일 언어주의 이념화에 행해진 동화 정책으로 인해 올드커머의 커뮤니티 언어는 일본어로 교체된 지 오래이다. 현재, 한국어가 가능한 세대는 거의가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로, 활약 세대인 2세, 3세의 경우 가정에서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거나, 민족학교 출신자와 같이 자주적인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 한 한국어가 계승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비해 뉴커머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언어로 하며, 뉴커머가 밀집하는 지역에서는 한국어만으로도 생활 전체가 완결되는 언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모어와 생활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이질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올드커머와 뉴커머를

하나의 코리언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는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언어 교체가 이루어진 재일 코리언 커뮤니티에 한국어가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표 1>은 세대간에 사용되는 모어, 이해언어 사용언어를 정리한 내용이다. 올드커머의 언어 교체는 1세 세대의 이중 언어 사용에서 2세 세대의 비대칭 이중 언어 사용이라는 단계적인 이행과정을 거치며, 3세대에 걸쳐 일본어로의 교체가 완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뉴커머의 경우, 1세 세대가 활약층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중 언어 생활자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재일코리언 커뮤니티의 언어 사정

	세대	모어	이해언어	사용언어
올드커머	1세	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일본어
	2세	일본어	한국어/일본어	일본어
	3세 이후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뉴커머	1세	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

김미선(2001)

4. 언어경관에 비추어진 코리언의 언어 생활

4.1.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언어 경관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재일 코리언이 전인구(약 14만)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 최대의 코리언 밀집지역이다. 1910년 히라노강의 개수작업에 종사하던 조선인들로 인해 형성된 조선 마을은 지금은 코리아 타운으로, 일본의 미디어에 한국적 요소를 대변하는 센터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십수 년 전에만 해도 이쿠노구에서 가시적인 한국적 요소를 발견하기는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커뮤니티의 사용언어는 일본어로 언어 교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630만 해외 코리언(외교통상

부 2003) 거주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 코리언 타운의 한글 사용도 이쿠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쿠노구는 외국인 등록자들의 통계로 생성된 심볼적인 코리언 타운으로, 민족적 요소의 가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뉴커머가 등장한 이후이다.

뉴커머의 등장으로 인한 코리언 커뮤니티의 내실의 변화는 한국어 사용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경관에 보이는 한글의 증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쿠노구의 한글표기는, 발신자 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호스트사회 → 코리언
- 2) 코리언 → 호스트 사회
- 3) 코리언 → 코리언

1)의 호스트 사회가 코리언에게 발신하는 한글 표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나 행정자치 단체에서 발신하는 광고, 공공안내 등을 들 수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법이나, 아파트에서의 생활 주의사항 등도 그 예가 되겠다.

2)의 코리언이 호스트사회에 발신하는 한글 표기는 한글 표기로 인한 언어의 정보전달 기능보다는 한글이 갖는 장식성에 기능을 둔 발신이 되겠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함께 한글 표기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음식점의 한글 간판, 이벤트 정보의 한글 사용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다.

3)의 코리언이 코리언에게 발신하는 한글 표기는 정보를 공유하는 강한 정보전달 기능을 지닌다. 선착자가 중심이 되어 발신하는 구인광고 벽보, 송금안내, 가두에 놓여있는 생활 정보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4.2. 간판조사의 개요

2002년 8월에서 9월에 이쿠노구의 간판조사를 실시했다. 실시 지역은 올드커머

의 상점이 밀집된 조센이치바(朝鮮市場)와 뉴커머가 주로 모이는 신이마자토(新今里 3, 4丁目)로 두 지역의 상업용 간판에 나타난 언어와 문자를 파악하여, 일본의 다언어화를 기록하며, 특히 한국어와 한글이 차지하는 빈도로 일본사회의 다언어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코리언의 수용의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이 조사를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계속해서 종단조사를 할 예정으로 본 발표에서는 뉴커머지역의 정보를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조사 대상으로 한 간판은 독립된 점포형태, 건물 안의 점포, 임시적으로 설치된 옥외 점포 등이 주된 내용이다. 건물이름과 아파트 이름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사를 통해 신이마자토에서 463, 조센이치바에서 126의 간판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4.3. 업종

신이마자토 조사에서 얻어낸 463개의 간판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스낵바류(212), 식당(76), 풍속업(30), 선술집(15), 다방(12), 오피스(11), 미용실(10), 가라오케(7), 잡화점(7), 주차장(7), 미용에스테(7), 비디오대여점(6), 의원(6), 옷가게(4), 담배가게(4), 전기상점(3), 약국(3), 마작(3), PC방(2), 드라이크리닝(2), 주류판매점(2), 신문보급소(2), 테이하우스(2), 꽃집(2), 교회(2), 종교법인(2).

이하(각1)

파청코, 카지노, 인쇄소, 은행, 사진집, 편의점, 제면소, 장의사, 반찬집, 탁아소, 이불집, 서점, 과일집, 문화교실, 부품가게, 민요연구소, 우유대리점, 동양철학연구소, 불명(6)

업종별로 분류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스낵바류(212)로 전체의 45%,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식당(76), 풍속업(30), 선술집(15)으로 전체적으로 요식업이 집중된 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뉴커머 코리

언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뉴커머들의 공통된 거주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조사지역은 남북으로 약 250미터, 동서로 500미터의 한정된 범위내의 지역이지만,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에 오락, 종교 활동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지역 안에서 완결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언어와 문자

기록한 간판의 문자정보를 언어별 문자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간판에 나타난 전달 내용은 예를 들어 「博多ラーメン ばんこつ」, 「焼肉一品料理 おふくろ 어머니」, 「スナック New和泉」처럼 업종과 고유 상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표기도 적지 않다.

언어별로 정리해 보면, 일본어가 최대 빈도를 나타내며, 영어, 한국어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의 간판에 3개 언어의 각자 단독 표기, 그 외에도 2언어 표기, 3언어 표기 등으로 7종류의 표기 패턴을 읽을 수 있다. 빈도별로 보면, 일본어 단독 표기(175), 일본어 영어 병기(110), 영어 단독표기(109), 일본어 한국어 병기(34), 영어 한국어 병기(21), 일본어 영어 한국어 병기(12), 한국어 단독 표기(2) 순이다.

다음으로 문자 종류로 보면, 언어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23종류의 표기 패턴을 읽을 수 있다. 빈도별로 보면 한자 단독 표기가 74점포, 하라가나 한자의 병기가 69점포, 가타카나 단독 표기가 58점포 그 외에 가타카나 한자의 병기, 로마자와 가타카나의 병기 순으로 되어있다.

<표 2> 언어별, 문자별 분류

언어 문자	E	EJ	EJK	EK	J	JK	K	합계
가	39	12		6	1			58
가한		32	2	4	13	2		53

가한K		1	7	1		8		17
가K				5				5
한					71	3		74
한K					4	9		13
K							2	2
히		2			9			11
히가	1	17				1		19
히가한		22	1		4			27
히가K				1				1
히한					69			69
히한K		1				9		10
히K	1							1
R	22							22
R가	44	5		2				51
R가한		8	2		1			11
R가K	2	1						3
R한		5			3			8
R한K		1				1		2
RK				2				2
R히	1	1						2
R히한		2						2
합계	109	110	12	21	175	34	2	463

* 언어) E: 영어계 J: 일본어 K: 한국어

문자) 가: 가타카나 히: 히라가나 한: 한자 R: 로마자 K: 한글

4.5. 언어와 문자의 관계

간판에 나타난 문자와 언어의 관계를 관찰하면, 언어와 문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여러 표기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언어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하와 같은 표기 타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 1) 영어의 가타카나 표기: ラウンジ クレイン
- 2) 영어의 한글 표기: 싸이버 타운 PC방
- 3)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 焼肉零面 夢 YUME
- 4)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チング Chingu
- 5)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 ファンジンテイ 황진이 식당
- 6) 일본어의 한글 표기: 美容室 愛 아이

5. 간판에 표기된 한국어와 한글

5.1. 업종별 빈도

〈표 3〉 업종별로 본 한국어와 한글의 사용상황

한국어 (합계 69)		한글(합계56)	
업종	수	업종	수
식당	26	식당	23
스낵바류	23	스낵바류	10
비디오 대여점, 잡화점	각 4	비디오 대여점, 미용실	각 4
PC방, 선술집	각2	PC방, 선술집, 가라오케, 다방,	각 2
가라오케, 다방, 미용실,	각 1	미용에스테, 잡화점	
미용에스테, 민요연구소,		민요연구소, 동양철학연구원, 불명	각 1
동양철학연구원, 의원,			
불명			

〈표 3〉은 간판에 표기된 한국어와 한글을 업종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한국어를 간판에 도입한 점포는 합계 69점포로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수이다. 한편, 한글 표기를 간판에 도입한 점포는 전체의 12%에 달하는 56점포로, 언어(한국어)와 문자(한글)의 불일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타카나나 로마자 등으로 표기된 경우이다.

5.2. 한국어의 내용

간판에 나타난 한국어의 내용은, 업종명과 상호로 구분 지어진다. 상호를 나타내는 한국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지명으로, 점포명에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으로 여겨지는데(마사이 1983) 신이마자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명은 한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자 표기에 한글이나 가타카나가 병기되는 경우도 있다.

濟州(제주), 泳洞屋(영동옥), 大邱(대구), 釜山(부산), 仁川空港(인천공항), 洛東江(낙동강), 漢江(한강), 慶州館(경주관), 忠南食堂(충남식당), ソウル(서울) …

지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각 지방의 지명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전라도와 북조선의 지명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명명자의 출신이 지명선택에 관련된 것일까.

지명 이외에 가타카나로 표기된 한국어도, 이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다.

エンデウ(앵두), アンニョン(안녕), イモ(이모), アリラン(아리랑), ヘバラギ(해바라기), ハンマダン(한마당), チャンチャンチャン(찬찬찬), ビバリ(비바리)

가타카나로 표기된 한국어는 인명, 지명 등 다양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비바리’와 같은 지역 방언이나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곡명 ‘찬찬찬’ 등 출신이나 시대를 반영하는 한정적인 정보를 갖는 내용도 관찰할 수 있다.

5.3. 한글표기의 내용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글표기가 사용되는 주된 업종은 식당과 스낵바류로, 업종의 비율로 보면 식당의 한글 도입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조사지역의 식당 전체 수는 76점포로, 이 중 한국식당이 50점포임을 따지면 반수에 가까운 식당이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외에도 비디오 대여점, 미용실, PC방 등 뉴커머를 상대로 하거나 뉴커머가 경영하는 업종일수록 한글 표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의 한글 사용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식당 간판에는 대표되는 음식을 간판명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솔뚜껑 삼겹살, 추어탕, 칼국수, 옛날짜장, 떡볶이 등 한국의 거리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현재의 한국을 상징하는 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노우에(2001)는 상업성 다언어 표시를 지적 목적과 정적 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언어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어로 표기된 문자의 역할은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사용의 경우가 많다. 신아마자토의 한글 표기는 이러한 지적 목적과 함께 정적 목적도 대신하고 있음을 이하의 한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스타, 이브, 에스테, 샬롬 등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지적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보다는 커뮤니티 내부의 정적 기능을 중시한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미용에스테, PC방, 커피숍 등에 사용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6. 다언어화화하는 일본사회의 재일 코리언의 중층성

언어 경관으로 본 이쿠노구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공존하는 다언어 공존 지역이기도 하다.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 로마자, 한글 등 표기문자도 다언어화하는 일본의 언어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언어와 문자와의 관계도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한자에 대한 표기의 의존도가 높으며, 그와 함께 한글, 가타카나 등 새로운 표기스타일도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다문자 공존 지역이기도 하다.

이쿠노구에 한글 간판의 미용실 비디오 대여점, PC방 등이 계속 증가해 거리를

장식하고 있음은 이곳에 생활하고 있는 뉴커머들이 올드커머들처럼 개인 단위가 아닌 커뮤니티를 구축해 생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쿠노의 언어 경관에 한국적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뉴커머의 등장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80년대 후반으로, 100년을 맞이하는 재일 한국인의 이주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자리하는 두 곳의 상업용 간판을 비교해 보면 조센이치마에서는 ‘オモニ(어머니)’ ‘アリラン(아리랑)’ 등 가타카나로 표기된 한국어가 눈에 띄며, 신이마자토에서는 한글 표기로 된 간판 들이 많이 보인다. 세대가 바뀌며 사용 언어가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교체된 올드커머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내용을 표기하는 도구가 되는 문자는 한글이 아닌 가타카나이며, 교체의 과정에서 생겨난 ‘가타카나 한국어’는 민족문화의 유지와 세대 간의 언어 이행이라는 올드커머가 현재 직면해 있는 언어 상황을 극명히 상징하고 있다. 한편, 나날이 늘고 있는 한글 간판은 뉴커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뉴커머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발신하는 한글 표기도 해마다 늘어가는 외국인들의 수적 증가에 따른 일본 사회의 인식의 변화, 즉 다민족성, 다언어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의식의 변화가 저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거리에서 장식할 수 없었던 올드커머가 경험했던 이전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많은 대조를 보인다.

현재 일본은 한류붐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민족화, 다언어화를 수용하려는 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타카나 한국어’가 우세했던 올드커머의 지역에도 한글표기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언어경관의 변화는 단지 언어적 사실 뿐만이 아니라 재일한국인 사회의 내실의 변화, 그리고 다민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전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井上史雄(2001) 『日本語は生き残れるか』, PHP新書167.
- 金美善(2001) 『在日コリアンの言語接触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研究-大阪市生野周辺フィールドとして-』, 2000年度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学位申請論文(未公刊).
- 金美善(2003a) 「言語景觀からみた日本の多民族化-看板に現れた新来韓国人コミュニティを事例に-」 平成12年度~平成14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2)) 庄司博史・三島禎子編, 研究成果報告書 『国際移民の自存戦略とトランスナショナル・ネットワークの文化人類学的研究』, 国立民族学博物館・民族社会研究部.
- 金美善(2004) 国立民族学博物館編, 「日本社会と共生めざす新来韓国人」, 『多みんぞくニホン-在日外国人のくらし』, 千里文化財団.
- 庄司博史(2004) 「多言語化と言語景觀-言語景觀からなにがみえるか」, 口頭発表資料 ドイツ日本研究所ワークショップ 「変る言語レジームにおける言語景觀-日本を例として」.
- 曹智鉉(2003) 『曹智鉉写真集 猪飼野 追憶の1960年代』, 新幹者.
- 正井泰夫(1983) 「新宿の喫茶店名-言語景觀の文化地理-」, 『筑波大学地域研究』 1.
- 札埜和男(1999) 『大阪弁看板考』, 葉文館.
- 今津次郎(1999) 『私は目立ちたい-看板・サイン・招牌-』, M P C.
- 大阪市役所労働組合生野区役所支部(1990), 『ヒューマンブックレット 4, 共生の町から-在日韓国・朝鮮人問題を考える-』, 神戸部落問題研究所.
- Landry, R. and Bourhis, R.Y.(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1).
- Peter Backhaus(2004) "Multilingualism in Tokyo-A look into the linguistic landscape", *Paper submitted to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이산가족 정책

김 병 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1. 여는 말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 앞에 화해와 협력의 실천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특히 공동선언 제3항에서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천명한 바에 따라, 남북은 지난 5년 동안 10차례의 상봉사업을 통해 총 9,977명이 상봉을 이뤘고, 23,946명이 생사와 주소 확인을, 679명이 서신을 교환했다. 2005년 8월 15일에는 남북에서 각각 20가족이 화상상봉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8월 26~31일에는 금강산에서 제11차 상봉행사를 갖고, 870명의 가족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산가족문제는 여타 남북관계 현안과는 달리 이산 1세대가 사라지면 해결할 수 없는 시급성을 띠고 있다. 또한 남북에는 적게는 123만 명, 많게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상봉한 사람은 겨우 1만 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생사확인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비극적 현실은 분단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시급

하고도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남북은 1972년, 1985년, 1992년 세 번의 만남에서도 언제나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의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성급한 통일논의 대신 화해와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 현실적인 문제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고, 북측도 이산가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으로 호응하였다. 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고 국내외에 흩어진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오랫동안 표류하던 이산가족문제가 6·15정상회담 이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화상상봉, 그리고 전쟁포로와 남북자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남북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31일의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제도화하는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방향을 살펴보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이산가족 해결 방안을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가족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

2.1. 이산가족의 규모와 상봉 현황

현재 이산가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

적으로 해방 후부터 전쟁 시기까지 월남한 사람들을 500만 명으로 추정¹하며 그에 상응하는 가족들이 북에 남아 있다고 보고 남북 이산가족의 수를 1천 만으로 추산한다. 남측 정부는 현재 남쪽 거주 이산가족을 약 767만 명(이산 2, 3세대 포함)으로 추정하며, 이 가운데 이산 1세대는 123만 명(16%), 6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은 약 69만 명(9%)으로 추정하고 있다.² 그러나 이산가족 1세대를 42만 명으로 적게 추산(1990년 통계청 조사)하기도 하며, 통일부에 등록한 이산가족들은 10만 명 선으로 파악된다.³ 여기에는 ‘행방불명’으로 간주된 월북자 30만, 전쟁기간 중 납북자 8만 5천 명, 휴전 이후 남북 미귀향자 486명과 탈북동포 7천 여 명의 가족들도 이산가족에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는 1971년 8월 적극적인 접촉과 회담을 가졌으나 이산가족상봉이 처음 실현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분단 40년만인 1985년 9월 남북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단공연을 계기로 최초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 이루어졌다. 남북에서 선발된 각 50명의 가족들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35명은 가족과 친척들을 상봉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1990년대 들어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으로 이산가족교류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 6월부터 2004년 말까지 9,388명이 민간차원에서 서신왕래를 했고, 1,441명이 제3국에서 가족상봉을 했고, 25명은 방북길에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2003년에 생사확인 388건, 서신교환 961건, 상봉 284건(제3국 상봉 280건, 방북 상봉 4건)이었으며, 2004년에 생사확인 209건, 서신교환 776건, 상봉 188건(제3국 상봉 187건, 방북 상봉 1건)이 민간차원의 개별 이산가족 교류를 통해 성

1 민병천(1985: 67~70).

2 1970년 현재 가호적 신고자 546만 3천 명 기준, 1971~1996년간 인구증가율 40.34%를 감안한 추정수치로, 60~64세 24만 8,840명, 65~69세 17만 6,802명, 70~74세 12만 1,301명, 75~79세 7만 9,830명, 80세 이상 6만 3,727명을 각각 차지한다.

3 1988년 이후 2005년 7월말까지 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12만 4,339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를 제외하면 생존자는 9만 8천 173명이다.

〈표〉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3,322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9,388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1,441
	방북상봉										1	5	4	5	5	4	1	25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3,506
	서신교환												39	623	9	8	—	679
	방남상봉	30											201	100	—	—	—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1,736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2004년도 이산가족 교류동향」.

<http://reunion.unikorea.go.kr/>

사되었다.

남측 정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98.12 개설)를 통해 국내외 이산가족의 편지사연을 소개하는 인터넷방식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1998년 5월 대한적십자사와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발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1998년 9월 실향민과 6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북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고, 1998년 12월 「이산가족 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을 마련하여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생사확인경비 80만 원, 상봉경비 180만 원, 교류지속경비 40만 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0년 3월에는 이산가족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교류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강화하였다.

2.2. 이산가족문제의 성격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은 ‘가족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볼 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제네바협약」은 전시에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간의 서신교환과 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문제가 본질적으로 인도주의 문제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때마다 이산가족문제를 중심에 놓고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도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분단고통의 상징인 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화해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 국민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인도주의 정신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은 이산가족문제가 민족화해의 징표라는 사실과 인도주의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공통된 인식은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즉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제15조)고 합의하였다.⁴ 이러한 합의는 남북이 함께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회장소를 마련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재결합하며 유골이전까지 허용하도록 합의한 것에서 이산가족문제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도주의문제라는 의식이 남북 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적십자라는 인도적 구

4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구체적 실천사항도 제시하였다. ① 이산가족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가 토의하여 결정하고 ②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은 쌍방이 합의한 왕래절차에 따르며, ③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는 쌍방 적십자가 협의·해결하고, ④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대책을 강구하며, ⑤ 사망자 유품 및 유골이전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호단체가 이산가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합의한 것도 이산가족문제는 탈 정치화되어야 하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데 남북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산가족문제의 인도주의적 보편성에 입각하여 남북한이 합의문까지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산가족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인도주의 문제이지만 이념분단과 전쟁과정에서 월남 및 월북으로 가족이 흩어짐으로써 남북 체제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성격과 정치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는 남북의 현실에서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문제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쪽에서 월남자 이산가족들은 공산주의 억압체제로부터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자유의 용사’로 간주되고 있다. 남쪽에서는 월북자보다 월남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문제를 부각시킬수록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며,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이념·체제를 초월하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적으로 볼 때 남측체제에게 매우 유리하며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면, 북측의 입장에서 월남자 이산가족들은 “전쟁시기에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떠난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들로 간주된다. 북은 전쟁 이후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월남자들을 ‘복잡군중’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차별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월남자 가족들은 국가기관의 승진이나 대학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그 결과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은 북한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⁵ 이러한 현상은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쪽에서도 ‘국민의

5 1999년 8월에 방송된 북의 평양방송은 시사논단 논평을 통해 월남자들을 “우리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악의를 품고 남으로 달아난 악질 반동분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월북자 이산가족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통해 해외출국이나 공무원 임용 등에서 차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아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월북자 가족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적 사회관행을 탈피하여 이산가족들에게 포용정책을 추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월남자, 월북자 이산가족의 상봉이 활성화되면 그 동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었던 이산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됨으로써 사회 내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북의 경우 월남자, 월북자 이산가족의 상봉이 남쪽사회나 외부세계의 개방분위기를 유입하여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때문에 북측은 이산가족교류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도 우려하여 이 문제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3.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남북의 정책 변화

이산가족교류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1998년 3월 1일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에 '주소 안내소'를 설치한 이후 방송을 통한 국내외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8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해내의 각지에 흩어져 생사여부를 모르던 460여 명의 가족, 친척 혈육들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또한 남쪽이 고향인 사촌형제가 주소안내소에 편지를 보내 50년 만에 상봉되었다는 사례와 한국전쟁 때 헤어졌다가 47년 만에 감격적으로 상봉한 형제와 자매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⁷ 또 일제시대에 헤어졌던 황남 재령군과 개성시 판문군에 사는 세 남매의 상봉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⁸

충민중 사이에서는 이산가족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1999.8.2.

6 조선중앙방송 1998.12.17.

7 『로동신문』 1998.4.20 ; 1998.5.7 ; 1999.7.17.

북측이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상봉사업을 실시한 것은 남북이산가족교류의 본격화에 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북측은 이산가족교류의 활성화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내부적인 준비과정을 거침으로써 월남자 이산가족상봉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 추진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목적과 기본임무, 사업체제와 방법을 김정일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도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산가족교류의 추진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월남자 이산가족에 대한 북측의 이러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는 김정일 위원장의 ‘광복정치’⁹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측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여 월북자가족을 ‘신형 이산가족’¹⁰으로 규정하면서 이산가족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지원과 인도적 식량지원 등을 제공하며 신축성 있게 접근하였다. 이산가족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이산가족의 개념을 월남자가족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여러 형태의 흩어진 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정보당국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했던 월북자가족이 이산가족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었다. 전쟁당시 남쪽을 버리고 북쪽체제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아 온 월북자가족들도 북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남북이 함께 6·15공동선언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산가족 교환방문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가장 먼저 8·15광복절에 제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실시되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2005년

8 평양방송 1998.11.27.

9 1990년대 들어 김정일위원장은 과거의 계급적 성분에 의한 정치를 탈피하고 새로운 군중노선인 ‘인덕정치’와 ‘광복정치’를 구호로 내걸고 월남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3.1.28.

10 『경향신문』 1998.7.8.

8월까지 제11차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실시했고,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도 착공되었다. 북측은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전쟁포로지만 가족재결합의 차원에서 송환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2000년 9월에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송환함으로써 변화된 이산가족 정책의 의지를 과시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민족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산가족문제의 포괄적 접근

4.1. 포괄적 이산가족 정책의 원칙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나 남북한 모두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이산가족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에 심화된 갈등구조와 이산가족문제를 보는 남북 간의 시각차이,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화해와 단합이라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이산가족문제를 탈정치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수한 인도적 문제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산가족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 즉 각 체제에 주는 정치적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되 이 문제와 관련된 남북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포용적 자세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남북 정부는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이산가족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상봉사업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월남자와 월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반공포로, 납북자, 비전향장기수, 탈북자의 문제까지도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족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반공포로, 납북자와 비전향장기수, 탈북자는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들이

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족은 남북으로 흩어져 있다. 더 이상 이념 대결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게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고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민족화해의 관점을 중시한다면 남북 간에 논의되었던 기존의 월남자, 월북자, 전쟁포로, 비전향장기수, 납북자 등의 사안을 정치화하는데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급적 월남자, 월북자, 비전향장기수,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범적, 정치적 언쟁을 지양하고 이들을 ‘이산가족’의 범주로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¹¹ 분단과 전쟁으로 최대의 피해자들이 된 사람들을 또 다시 정치적인 언술로 개념화하여 대결하고 갈등한다면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이유로 가족이 흩어졌건 간에 이제는 체제 대결적 논쟁을 그만두고 인도주의 정신과 민족화합, 그리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념분단과 전쟁으로 생겨난 월남자와 월북자에 대해 사상적 편견을 제거하고 이산가족상봉이라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전쟁포로와 비전향장기수와 납북자에 대해서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을 만나게 한다는 자세로 상봉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남북 간에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산가족의 틀에 담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4.2. 민족화합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

4.2.1.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와 정보교류

이산가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현재 월남자와 월북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남측의 경우, 1983년 6월의 KBS 이산가족 찾기 사업에서도 불

11 김병로(2000).

수 있었듯이 전쟁시기 '행방불명'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¹² 북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북측이 방송을 통해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벌인 결과 1998년에만도 460명의 가족, 친척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모두 국내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었다. 이 가족들이 국내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들은 분명히 월남자가족으로 분류되었거나 전사자·피살자가족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남북 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산가족이 많고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측과 북측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주소안내소」에 수록된 자료를 교환하여 생사 및 주거확인 작업을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매 행사 때마다 확인되는 200명의 명단교환 정도로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산가족들에 관한 정보자료를 이제는 사회적, 정책적 차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찢긴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진실로 값진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에 대해 면밀히 작성된 자료를 관리하여 생사확인 and 가족상봉에 활용함은 물론 차후에 재산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남측과 북측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주소안내소」는 서신교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향방문도 주선하는 종합서비스(one-stop service)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특히 남북은 전쟁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월남자와 월북자 외에 국군포로와 반공포로, 납북자와 비전향장기수에 대해서도 사회적 '사면'을 주는 작업이 요청된다. 안타깝게도 남북은 2005년 8월 말에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문제는 지속

12 대한적십자사(1986: 245~246).

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북측이 전후 납북자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남쪽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38명, 납북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두 명과 납북자 가족 11명이 만났다. 비전향장기수를 이산가족으로 해결한 것과 같이 국군포로 문제도 반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교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린 국제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 문제 역시 이산가족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¹³ 납북자에 대해서도 북이 주장하듯이 자진월북인지, 혹은 간첩활동에 연루된 것인지, 진짜 납북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의혹들을 납북은 공동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솔직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일본인 납치에 대해 고이즈미에게 사과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60년의 민족분단을 끝내고 온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려면 가족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남북 정부는 우리 민족을 향해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4.2.2. 60세 이상 고향방문 추진

이산가족의 실태 파악과 전쟁포로, 납북자에 대한 공동조사가 실시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만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고령자에 대한 고향방문 추진이다.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은 가족과 친척의 생사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살았던

13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6월 이승만 정부는 2만 7천여 명의 인민군 출신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고향땅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이산가족들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고향집과 고향땅을 한번 보고 싶은 소원이 크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전의 고향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고향방문은 이산가족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준다.

분단 60년, 해방 60년의 의미 있는 해이니 6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질 것이다. 민족의 명절인 음력설이나 단오, 추석과 같은 절기에 각 지역별로 고향방문단을 꾸려 남북이 상호방문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고향방문 시 생사가 확인된 몇 가족만이라도 상봉행사를 갖고, 그 지역의 변천에 대해 듣고 당시의 유적들과 장소들을 답사하는 행사를 갖는다면 이산가족들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고향땅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산가족들의 맺힌 한은 풀릴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고향땅을 접함으로써 이후 가족상봉에 대해서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4.2.3.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남북 적십자는 2005년 8월 31일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착공하였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되면 처음에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것과 같은 상봉행사 위주로 월 1~2회, 50명 혹은 100명씩 가족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봉행사의 횟수를 점차 늘리고 상봉인원을 확대하면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금강산은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어서 북측이 상봉행사로 인한 부담이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아 좋은 지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판문점'과 같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면회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의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거니와 남북화해와 단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판문점은 남북 간의 분단과 군사적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다. 남북 이산가족간의 서신교환과 상봉의 장소로 판문점

을 선택한다면 대내외적으로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만간 남북 간 철도와 도로도 개통될 것이고, 개성공단의 건설로 관문점을 통한 남북교류가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여 이산가족의 만남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세계에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2.4. 이산가족 왕래의 제도화

이러한 고향방문과 상봉행사, 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고 이해가 커지면 이를 바탕으로 왕래교류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남북 간에 이산가족들의 정기적인 방문과 교류를 실시하려면 인적 왕래와 통행을 규정하는 ‘통행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교통과 통신, 통행을 포괄하는 남북 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도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산가족들의 원활한 상호방문을 위해 방문조건을 구체화하고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전반적인 ‘통행협정’ 체결을 협의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북측방문은 동서독과 같이 우선적으로 이산가족들의 긴급 상황(사망, 결혼 등) 발생시 가족·친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1960년 5월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이후 동서독 간에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지만 동독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적용하여 베를린에서의 한시적 방문을 허용하고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문제, 예컨대 출산, 결혼, 위독상황, 질병, 사망 등에 대해 특별방문을 허용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이산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독 측은 인적인 교류가 가져 올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처음에는 1년에 1번 4주간의 체류기간을 정하여 동독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으며 친척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통행조약」이 발효된 이후 ‘긴급한 용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친척과 친지의 방문이 늘어났고 1년 1회 30일 방문에서 여러 번 총 45일 또는 60일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통일이전까지 25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었으며 단순한 상봉이나 한시적인 재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남북한간에도 긴급한 용건과 관련한 이산가족들의 방문을 제도화해야 한다.

4.3. 정책적 고려사항

현재까지의 당국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월남자, 월북자 이산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상봉과 그 이후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남측 이산가족들 가운데는 혈육간의 상봉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적인 가족상봉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향방문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남측이 소요경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상봉사업에도 일정부분의 재정을 남측이 부담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에 따르는 북측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남북의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열린 우리당 최성 의원은 최근 남측 이산가족이 재북 가족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현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¹⁴ 그러한 이산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배려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남북 간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산가족들의 거주이전, 호적관계, 중혼관계, 상속문제 등 법적인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할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구소련지역을 포함하

14 연합뉴스 2005.8.24.

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 이산가족들도 남북 가족과의 상봉, 재결합, 거주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대비하여 해외동포정책과 연계하여 이산가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¹⁵ 해외동포를 통한 이산가족상봉은 통일 후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통일은 해외동포들의 조국과의 실질적인 유대강화를 바탕으로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남북 및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의 정보수집 및 교환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5. 맺는 말

남북의 7천만 국민들과 해외 6백만 우리민족은 분단과 전쟁으로 지난 6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한국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수많은 가족들과 부상자 가족들,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 그리고 분단체제에 안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친지들 모두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이 땅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해방정국의 혼돈과 전쟁으로 양산된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역사의 비극과 고통을 대변하는 민족문제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분단이 야기한 많은 문제 가운데 흩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는 일만큼 절실한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문제는 본질적으로 인도주의의 문제이지만 이념분단과 전쟁을 겪은 남북의 현실에서 그 출발점은 정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주의와 정치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는 남북에서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화되어 있는 월남자, 월북자, 비전향장기수, 남북자, 국군포로, 반공포로 등 모든 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민족화해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화해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남북에 가로놓인 각양의

15 김병로(1996: 44~45).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간다는 원칙만 합의된다면 그 이후의 구체적 상봉 문제는 남북직접자 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방문단 사업과 면회소 설치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상봉과 방문을 위한 통행협정을 체결하고 이산가족들에 대한 송금 및 부분적 재산이전 허용 등 경제적 지원까지 배려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결실을 맺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처절함을 대변하는 분단시대 고통의 상징. 반세기 동안 혈육과의 생이별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 인간으로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비극적 사회가 어디에 또 있을까. 범죄자들조차도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는 것이 인도주의를 생각하는 현대사회이다. 민족통일, 조국통일을 국시로 내걸고 60여 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온 남북이 이산가족들 간의 방문이나 만남조차 이루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거대한 통일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사무치도록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한 채 버려두었다는 사실은 어떤 이념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계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회합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이 견고한 질곡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귀옥(2004)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서울: 역사비평사.
- 김병로(2006) 「국제적 환경변화와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 『이산가족 재회문제의 전망과 실현 방안』,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학술토론회(1996.6.12).
- _____(2000) 「이산가족문제의 이중성: 인도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토론회(2000.5.26).
- 대한적십자사(1976) 『이산가족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 _____(1986)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대한적십자사.
- 민병천(1985) 『민족통일론』, 서울: 고려원.
- 박찬웅(1991) 「해의동포사회를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유도 방안」, 『통일한국』(1991.10).

- 유용수(1999) 『무궁화꽃 이산가족의 눈물』, 서울: 보이스사.
- 이재운(1992)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인적교류」,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 임순희(1998)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제성호(1999) 「'국민의 정부'의 이산가족정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통일연구원 제31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9.9.21).
- 조동진(2000) 「남북 이산가족 문제 실태 연구조사와 월남 이북5도민에 관한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민족통일예스라운동협의회(2000.3.1).
- 최의철(2001)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 통일부(2005)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69호(2005.7.1~7.31).

일제의 조선경제지배와 략탈

김 재 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과거 일제는 우리 나라를 40여년간이나 강점하고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썩웠다.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감행한 극악무도한 파괴와 략탈, 살륙만행은 력사와 인류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극히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책동하여도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침략과 략탈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도 정당화할수도 없다.

지난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민족경제를 파괴말살하고 경제적지배와 략탈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한것이다.

일제의 조선경제지배책동은 두 단계로 나뉘어 감행되었다.

그 첫단계는 1910년대에 해당된다.

일제는 강점초기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권을 휘둘렀다.

일제는 1910년 12월에 《회사령》을, 1911년 6월에 《조선어업령》과 《조선 산림령》을, 1915년 12월에 《조선광업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일제는 《회사령》에서 조선에서의 일체 기업활동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독》은 《허가》한 회사도 필요한 경우 어느때나 그 활동의 금지, 해산을 명령할수 있

다는것을 《법화》하였다.

일제가 실시한 각종 《총독제령》으로 1910년대에 주요산업부문들에서 조선민족자본은 급속히 쇠퇴하고 조선산업에서 일본자본의 지배적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17년사이에 조선인자본은 회사공청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로부터 15%로 떨어지고 반대로 일본인자본은 26.4%에서 77.2%로 늘어났다.

일제에 의한 조선경제지배책동의 두번째 단계는 1920년대이다.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여 조선에서의 식민지산업의 부식과정을 다그치였다.

일제가 1920년대에 조선경제지배를 위하여 산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를 급속히 늘이게 된것은 이 시기 런이은 경제공황 등으로 일본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과잉자본이 형성된 사정과 관련되며 식민지조선에서 일제의 정치적지배가 실현되고 경제명맥이 일본독점에 의하여 장악되는 등 자본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것과 관련된다.

일제는 식민지조선에로의 자본투자를 늘이기 위하여 1920년 4월 《회사령》을 폐지하고 종래의 기업 《허가제》를 기업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일본의 《관세법》을 조선에서 그대로 실시하게 하고 각종 조세령을 실시하여 식민지산업에 대한 자본투자원천을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체들과 독점체들이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조선에 침투하여 자라난 일본중소기업에 의한 자본투자의 확대를 장려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철도, 채신, 산림경영, 전매업에 대한 총독부의 투자를 늘여 《관영》기업체도 확대강화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1920년대에 조선산업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지배가 완전히 실현되었으며 조선의 산업은 철저히 일제의 식민지 산업으로 전락되었다.

조선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일제는 식민지조선에서 경제적력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식민지조선에서 일제가 감행한 강도적인 략탈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였으며 그 대상에서도 제한이 없었다.

일제는 식민지조선에서 우선 토지와 농산물, 공업원료수탈에 광분하였다.

조선농촌에서 일제에 의한 토지수탈은 두 단계로 나뉘어 감행되었다.

일제는 토지략탈에 앞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농업자원과 경영방법, 토지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리조봉건정부를 사촉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제공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혹은 건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거나 정매할수 있다는것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토지략탈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이에 기초하여 무력과 강권, 고리대공간 등을 리용하여 조선사람의 토지를 략탈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부터 1918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날강도적방법으로 《토지조사》사업을 감행하여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매우 복잡한 《신고제도》를 만들어놓고 조선농민들의 대다수가 이 복잡한 수속절차에 제대로 응할수 없게 함으로써 수많은 토지를 강탈할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마련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조선에서 가장 큰 토지소유자로 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과정에 봉건정부의 국유지 100여만정보를 일본국가의 《국유지》로 전환시켰으며 50만정보의 토지가 일본인지주와 회사들에 집중되었다.

일제는 조선농촌에서 량곡과 섬유원료도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두차례의 《산미증식계획》과 《식량증산대책》을 조작하여 수많은 량곡을 략탈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해마다 일본에로의 알곡반출량을 늘이었는데 쌀총생산량에서 그 량은 1919년에 22.7%에서 1936년에 53%까지 증대되었으며 1943년에는 생산량의 3분의 2가 넘는 1000만석이상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갔다. 일제는 1940년대에 식민지통치기구의 악질관리, 무장경찰까지 파견하여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공출제를 더욱 악랄하게 실시하여 쌀생산량의 43~64%까지 빼앗아갔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 그 량은 3900만에 달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광곡수탈로 일본시장에서 조선쌀의 류통량은 부쩍 늘어났으나 조선인민의 쌀소비량은 대폭 줄어들고 우리 인민은 기아선상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일제는 섬유원료의 수탈에도 광분하였다. 일제가 강점초기부터 섬유원료수탈에 광분한것은 일본공업의 중추를 이루는 방직공업의 늘어나는 원료수요와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수요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섬유원료수입으로 긴장되는 국제수지를 완화시키려 한것과 관련된다.

일제는 《면화증산계획》과 《잠견증산계획》을 조작하고 수많은 목화와 누에고치를 수탈하였으며 수탈한 면화와 누에고치의 대부분을 일본본토의 방직원료로, 일부는 조선에 침입한 일본인경영방직공장과 제사공장의 원료로 리용하였다.

일제는 이외에도 조선의 농촌에서 담배, 인삼, 아편 등 공예작물과 과일, 소 등을 닥치는대로 약탈하였다.

일제는 조선농촌에서 토지와 광곡, 섬유원료 등 농산물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약탈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약탈해간 지하자원은 패망당시 채굴된 광물의 97%에 달하였으며 그 품종은 90여종을 이루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약탈에서 기본을 금약탈에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의 금약탈은 1930년대에 이르러 더욱 악랄해졌다. 일제는 1937년에 《조선산금령》을 조작공포한데 뒤이어 《탐광장려금》, 《착암보조금》, 《선광설비보조금》까지 설정해놓고 금광탐사와 금채취를 적극 장려하였다. 일제가 1939년 한 해동안에 약탈해간 금만 해도 2만 5759kg에 달하였다.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에 약탈당한 금만 해도 근 400t에 달한다.

일제의 철광석약탈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일제는 만주침략과 태

평양전쟁개시 등 침략전쟁의 확대로 하여 부족되는 철문제를 해결할 목적밑에 우리 나라에서 철광석 등 원료략탈을 위주로 하던 중전의 방법으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철을 생산하여 실어가는 방법에 적극 매달리었다. 일제는 1944년 한해동안에만도 조선현지에서 900만t의 선철과 강철을 략탈해갔으며 여기에 일본으로 실어간 철광 석량까지 합하면 그것은 실로 막대하였다.

일제는 이밖에도 공업의 기본원료인 석탄과 함께 연, 아연, 니켈,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코발트, 텅스텐, 망간, 류화철, 린회석, 흑연 등 희유금속광물들도 강그 리 강탈해갔다.

일제는 이처럼 우리 나라의 땅속을 살살이 뒤져 막대한 지하자원을 닦치는대로 대량 략탈해갔다.

일제는 산림자원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산림경찰, 산림보호소, 산림경영소 등 폭압기구들을 늘어놓고 조선의 모 든 산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조선인민들에게 산림자원의 그 어떤 처분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팔프, 합판, 목판, 알콜 등 군수원료용으로 수많은 산림자원을 략탈하였 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1~1942년기간에 3000만m³의 통 나무를 채벌하여갔다. 일제의 대대적인 략탈로 조선의 산림자원은 급격히 고갈되 었다.

일제는 조선의 수산자원을 략탈하기 위한 책동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1930년 5월에 《조선어업령》을 공포하고 《허가제》를 실시하여 조선 인민의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일본인들의 어로활동을 허용함으로써 1935년에 수산 업자의 2.5%에 불과한 일본인들이 수산업생산고의 41.8%를 차지하게 하였다.

일제는 《어업조합》을 조작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물의 위탁판매를 강요함으로 써 물고기판매권을 독점하였으며 그 결과 수산물의 10~15%만이 국내수요에 돌려 지고 나머지는 일본본토로 반출되었다. 일제는 수산물의 가공권을 독점하고 략탈 한 수산물의 대부분을 비누, 초, 글리세린, 어유 등으로 가공하여 침략전쟁에 탕진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조선에서 또한 인적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전사동원령》에 따르는 《징용제도》를 조작하고 《근로보국대》, 《근로봉사》 등의 명목으로 인적자원을 강제수탈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강제런행, 략치한 인원만하여도 무려 840여만명에 달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조선녀성들은 20만명을 헤아리었다.

일제는 강제징발한 조선의 청장년들을 군사시설물공사, 탄광, 광산, 발전소언제 건설 등 가장 위험하고 힘든 부문에 내몰아 고역을 치르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식민지통치시기 일제는 일본본토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60%이상을 조선사람이 캐내게 하였다.

일제는 우익폭력단, 직업군인, 깡패들을 감독으로 배치하여놓고 조선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강제로동을 강요하였다.

식민지조선에서 일제에 의한 경제적략탈은 재정분야에서도 감행되었다.

일제는 재정적수탈에 앞서 조선의 재정체계를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적응하게 편성하는데 광분하였다.

일제는 1904년에 《재정고문》제를 내오고 《고문》을 조선재정의 최고관리자로 만들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고문》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1907년에는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300여명의 일본인들을 재정관리로 내세워 조선재정의 집행권과 감독권을 장악하게 하였으며 1910년에는 총독부에 《탁지부》를 두고 각도에 《재무부》를 조작하여 식민지재정기구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재정적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대에 설정하였던 모든 조세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악법들을 수없이 조작하여 조세수탈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일제가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에게 들쑤운 세금은 무려 58종이나 되었다.

일제는 수많은 채권을 발행하여 강매함으로써 조선사람들을 악랄하게 착취하였

다. 특히 일제는 침략전쟁이 확대될수록 채권발행과 강매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1937년부터 《지나사변국고채권》, 《저축채권》을, 1940년에는 《보국채권》을, 1942년에는 《대동아국채》, 《조선중요산업채권》을 발행, 강매하였으며 조선총독부가 1944년 한해에 발행하여 강매한 공채만도 1941년에 비하여 4배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밖에도 조세와 공채의 변종으로서 《국방헌금》, 《전선원호금》, 강제저축 등 여러가지 재정적부담을 조선인민에게 들썩워 커다란 생활적고통을 강요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가 1941년에 흥남지구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세금, 강제저축, 《전선원호금》 등의 형태로 공제한것은 임금의 30%를 초과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전대미문의 략탈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경제적지배와 략탈행위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민족고전을 민족의 재보로 빛내인 자랑찬 로정

김 정 영

사회과학원

우리 나라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수만종에 달하는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반만년의 창조와 투쟁의 력사가 갈피갈피 아로새겨져있다. 그러나 민족고전유산은 그것을 자지손손 물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낱알이 찾아내여 옹게 보존관리하면서 연구정리하지 않으면 한갓 쓸모없는 휴지더미에 지나지 않게 된다.

민족고전유산을 진귀한 민족의 재보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은 분명 우리 세대에 부여된 참으로 책임적이고도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이 광복된 직후부터 오늘까지 무엇보다먼저 민족고전을 발굴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중시하여왔다. 그것은 민족고전의 보존관리실태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은 오랜 역사적기간을 내려오는 과정에 전란과 화재, 그밖의 여러가지 리유로 하여 불타버리고 류실된것이 많으며 특히 리조말기에 일제침략자들은 물론 서유럽의 략탈자들이 강제적으로 그리고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략탈해간것도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다. 한편 자본주의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선행시기에 수집보존된 민족고전자료 토대가 매우 빈약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고전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수집하고 보

존관리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그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49년 내각결정으로 승인된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과 1991년에 정부원결정으로 승인된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1994년에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들을 비롯한 일련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들에서 민족고전을 문화유물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발굴수집, 보존관리, 취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고전에 대한 발굴수집과 보존관리가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해외에 비법적으로 부당하게 류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돌려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략탈, 절취당한 민족고전 등 유물들을 상환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구들도 나오고 이 사업을 벌려나갔다.

조국광복직후에 중앙도서관이 설립되었고 그후 각도 역사박물관과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이 연이어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하였다. 역사박물관들도 설립초기에는 민족고전유산발굴수집과 보존관리사업까지 함께 맡아보았으며 도서관들인 경우에는 민족고전을 포함한 도서들의 수집과 보존관리를 중요한 사업내용의 하나로 삼고있었다.

이와 같이 법적담보가 마련되고 해당 국가기구들이 창설된데 기초하여 민족고전수집발굴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1947년 북조선립시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론에서 개인들과 기관, 단체들에서 가지고있는 역사자료들을 수집하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1948년에 주신 지시에서는 도서수집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역사와 지리, 문학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귀중한 도서와 자료들을 지난날의 지식인들이나 개인기업가, 상인들도 가지고있을수 있다고,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은 그것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해설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회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 그것을 사들이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 소장되어있는 각종 도서들과 신문, 잡지들을 수집하며 인민들에게 호소하여 도서기증운동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후 전 국가적범위에서 도서들을 구매하는 한편 기관, 기업소들과 개인들에게 호소하여 도서들을 기증, 회사하는 전 군중적운동을 활발히 벌린 결과 민족고전이 본격적으로 수집될수 있었다.

발굴수집과 함께 부수가 적은 민족고전에 대한 필사와 복사사업도 조직진행되어 절대부수를 늘이였으며 책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민족고전수집사업은 대외적범위에서도 진행되였다. 해외교포들의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일부 민족고전들이 기증되어 오거나 영인복사되어 들어왔으며 마이크로필름 화되어 들어온것들도 있다.

이리하여 도서관들에는 일반장서와 함께 민족고전장서의 종류와 부수가 급격히 증대되였다. 중앙도서관인 경우 전쟁전까지 민족고전장서량이 수천여권에 이르던 것이 전후에는 1만여권으로 더 늘어났으며 1960년대초에는 민족고전장서량이 무려 수십만부에 달하고 민족고전열람실이 따로 나오게 되였다.

1982년에는 인민대학습당이 개관되어 민족고전서고가 따로 나오고 여기에 목판본, 활자본, 수사본 등 여러 형태와 각이한 부문의 고전들이 소장되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되게 되였다.

오늘 이미 수집된 귀중한 민족고전유산들은 국가문헌고와 인민대학습당 등 중요 도서관과 박물관들의 민족고전장서실들에 가장 안전하고 믿음직하게 보존되고있으며 신중히 관리되면서 해당 부문의 과학연구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으로 민족고전을 연구정리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왔다.

누구나 알고있는바와 같이 민족고전은 어느것이냐 다 력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들

이지만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과 함께 그 대다수가 한문으로 기록되어있는것과 같은 특성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민족고전연구정리사업은 그 선후차를 정하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민족고전의 번역과 주해, 윤색과 각색을 민족고전연구정리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1960년대에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과 주해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1950년대초에는 병서관계고전을 비롯한 민족고전들과 고전문학작품들에 대한 번역출판사업을 일정하게 진행하여 예로부터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던 고전들이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후 1950년대중엽을 전후한 시기에는 민족고전들, 고전문학작품들에 대한 번역, 주해에 중심을 두고 민족고전연구정리사업을 비교적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 시기 《해동명장전》, 《병학지남》, 《리순신장군선집》, 《동국세시기》, 《약학계법》, 《농가집성》 등과 같은 민족고전들과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토끼전》, 《장끼전》과 같은 고전문학작품들을 번역, 주해하여 출판하였다.

1950년대말엽에 이르러서는 민족고전연구 및 번역전망계획을 작성하고 력량을 많이 동원하여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중엽까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력서관계의 기본고전들과 《성호새설류선》, 《지봉류설》 등 류서관계 고전들, 《징비록》, 《담헌서》, 《목민심서》, 《과농소초》, 《양화소록》, 《택리지》 등 많은 민족고전들을 번역출판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에 고전분과위원회가 나옉고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기구안에 고전문학작품출판을 전담하는 부서가 꾸려져 《고가요집》, 《리규보작품집》, 《박지원작품선집》 등 수십종의 고전문학작품선집들을

번역, 주해하여 출판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0년대이후에는 주로 국보적인 민족고전들에 대한 연구정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이 분야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고 풍만한 결실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족고전인 《리조실록》을 번역하는 사업과 《팔만대장경》을 번역할데 대한 거창한 사업을 몸소 받기하시였다. 그리하여 것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리조실록》번역사업을 길지 않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고 훌륭히 출판하였으며 《팔만대장경》선역도 뒤따라 계속되었다. 그리고 3대의학교전들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이 다시 번역출판되었으며 《의방류취》도 훌륭히 번역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고전문학작품들의 번역, 주해, 윤색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전반기부터 조선고전문학선집출판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켰으며 《패설집》, 《전기설화집》, 《사성기봉》, 《쌍천기봉》, 《보심록》 등 수많은 작품들을 번역, 주해, 윤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전문학작품들을 각색하여 무대에 올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업도 적극 벌리였다.

또한 옛날책들을 평가하고 해제하는 사업도 민족고전연구정리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이 사업은 1970년대에 국가적인 심의위원회를 내오고 짧은 기간안에 끝내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민족고전해제》(실학자문헌편), 1980년대에 《민족고전해석》, 1980~1990년대초에 《고전소설해제》(1~3) 등이 출찬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팔만대장경》해제(전25권)가 집필출판되었다.

이밖에도 민족고전들에 대한 교감과 복각사업도 일정하게 진행하여 《고려사》, 《훈민정음해례》, 《여유당전서》, 《증보문헌비고》를 비롯한 중요한 민족고전들을 복각함으로써 민족고전의 질적구성이 개선되고 부수가 증대되었으며 보존의 안전성이 담보되게 되었다.

그리고 원문에 구두점을 찍으며 색인을 만드는 사업도 일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개별적민족고전에 대한 서지적 및 사료적연구도 진행하여 《경국대전연구》,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한 문헌학적연구》, 《조선식한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많은 책들을 집필 출판하였으며 《새옥편》, 《대중옥편》, 《옥편》(학생용), 《현대옥편》, 《한자말대사전》 등 옥편과 사전을 편찬하는데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사료량이 풍부하고 신빙성이 담보된것으로 하여 리조사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보적인 민족고전 《비변사등록》에 대한 번역을 끝낸데 이어 《팔만대장경》번역도 다그치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올바른 시책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 발굴수집되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고있는 수많은 민족고전들과 민족고전연구정리물들은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여주고 민족사연구의 튼튼한 밑천으로 활발히 리용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애국애족의 사상,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성에 관한 연구

- 남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경제통합 추진을 중심으로

김 중 배

한국경원대학교

1. 머리말

지금 세계는 FTA(자유무역협정) 열풍에 쌓여있다. 세계 각 나라는 FTA체결 없이는 21세기 무한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이 체결된바 있으며 1994년에는 유럽공동체가 확대된 유럽연맹(European Union(EU))이 출범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통상마찰이 커지고 수출환경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FTA체결국 간 무관세조치는 역으로 비회원국에게는 넘기 힘든 관세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2005년은 한국과 주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더기로 체결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통상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 7개 FTA협상 대상(22개 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FTA에 의한 경제통합은 원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무관세의 커다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인 동질감과 지리적인 인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 FTA에 의한 지역경제통합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 중국과 맺으면 동북아에 있어 거대한 단일시장이 출현함으로써 한중일 지역경제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오랜 동안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던 독일과 불란서가 유럽연합(EU)에 통합된 사례이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세계교역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도 문화적인 동질감과 지리적으로 인접국가인 세 나라는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세계의 FTA에 의한 지역경제 통합의 흐름 속에서 우리한민족은 미래에 다가올 통일을 위하여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구상을 생각하여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학술적 연구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대는 국경 없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동안 분단된 우리 한민족의 미완성 과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바탕을 둔 민족국가 구상이 되어야 한다. 이 구상은 세계도처에 산재된 한민족 공동체 즉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한반도 내에 남과 북에 갈라져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1945년 분단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남과 북이 과연 하나의 민족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분단된 한반도 내에서 제로-섬-게임(zerosumgame)을 벌려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민족은 화해와 협력의 동질감 속에서 남과 북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한민족, 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민족 지역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또한 이 변화야말로 하나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북미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람들이 관세가 없는 거대한 공동의 시장을 만들고 비자 없이 자유스럽게 국경을 넘나들며 상호협력하며 살듯이 자유

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남북한이 우리 한민족 지역경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민족의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싶다.

2.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성

2.1.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

현시대는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 민족끼리 살고 자민족 문화만을 소비하며 부국강병논리에 따라 타민족과 대결하며 사는 시대는 지났다. 배타적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가 어느 한 민족내지는 국가의 생존에 전제조건이 되었던 시대는 구시대의 유물로 되었다.

즉 모든 민족들이 더 이상 자기 영토 안에 갇혀 자내지 않고 전 세계로 분산해 나가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의 문화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경을 무너뜨린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벌어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기만 하면 어제의 적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자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의 깃발아래 민족의 재통합을 시도하며, 주변 이웃들을 미래의 동반자로 만들어 가는 데 급급해 있다. 즉 세계화의 모토에 따라 문명의 벽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구촌의 시대를 열면서도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주변 이웃 국가들과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를 만들어나가며 민족을 주요 가치로도 삼고 있다.

이러한 시대, 우리 한민족은 식민지화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동포, 미주 한인 등으로 퍼져나가 다른 민족국가 내에서는 소수 민족화 되어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숫자는 중국, 이스라엘에 이어 제3위의 규모이

다. 한반도 내에서는 남쪽의 한(韓)민족과 북쪽의 한(韓)민족으로 분단되어 있다. 남과 북도 한 지역으로 놓고 글로벌 차원에서 한민족이 퍼져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142개 국으로서 화교 90여개 국, 유대인 94개 국을 훨씬 넘어 최대로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모국 한반도는 이념의 장벽으로 대립되어 있다. 한마디로 21세기 탈근대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한민족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부터 형성해야 하는 19세기적 과제 속에 갇혀 있는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시대는 ‘국경 없는 국가’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한민족의 통일과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에 바탕을 둔 민족국가 형성 구상이 되어야 하며, 이 구상은 한민족 공동체 즉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차원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한반도 내 남과 북을 살펴보면, 남과 북에 갈라져 살고 있는 한민족은 1945년 분단 이후 과연 하나의 민족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벌여왔다. 50여 년 넘게 헤어져 살다보니 서로의 체제이념이 극도로 벌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시일 내에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형성이 어려우며, 빠른 시간 내 제도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국가형성이 불가능하다.

2.2. 한민족경제공동체의 부상

지금 우리 민족은 한 찰흙 ‘한민족=하나의 국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제도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국가의 형성만을 통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민족지역공동체(Korean Community)를 만든다면 바로 이것은 그 또한 하나의 통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치 NAFTA에 속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없는 공동의 시장을 만들고 비자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듯이, 한반도가 지역경제공동체화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의 통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민족공동체 구상은 서로 독자적인 삶을 살되,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한 핏줄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탈근대 시대에 민족국가 형성문제와 통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고자 하는 구상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들은 그 지역 내에서 소수민족이면서도 이미 현지인화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중적 정체성(dual identity)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중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든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및 우리 민족의 현실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여겨진다.

탈근대 민족국가의 구상, 즉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간 경제공동체에 기초한 「한민족경제공동체」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해왔던 남북한은 이제 ‘플러스 게임’을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호의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당장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충돌의 위협부터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舊동서독의 체제경쟁이 ‘복지경쟁’이었다면, 남북한간 체제경쟁은 ‘군비경쟁’이었으며 분단체제 또한 동서독과 달리 단순한 분단이 아니라 휴전체제와 중첩된 분단체제로 존속해 왔다. 그러다 보니 남북한은 지구상 분단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인접해 있는 두 지역간에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거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론’과 ‘대만 독립론’으로 팽팽한 정체적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긴장은 결코 전쟁의 가능성으로 발화할 수 없는, 중화민족의 재앙으로 연결될 수 없는 안전지대 속에 놓여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대만 화교자본은 중국 경제성장에 두 번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중국

의 경제성장에 소중한 존재다. 반면 13억의 거대한 중국시장은 대만에게 제1위의 무역수지 흑자를 넣어주는 중요한 황금알로서 결코 긴장관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오늘날 화교자본은 유대인자본 다음의 세계금융시장의 큰손으로서 '세계화교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공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까지 포함하여 동아시아에는 이미 중화경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지형까지 달라지고 있다. 동아시아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써 동아시아에 19세기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은 이미 96년도에 "중화민족은 통일되었다"라고 까지 말하며 공식적으로 평화통일을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분단이 고통이 아니며 전쟁의 공포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남북한이 하위 정치 분야(low politics)인 경제 분야에서 만이라도 '협력의 게임'을 제도와 일상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분단의 고통을 남북한간 '윈-윈(win-win)게임'의 추진을 통해 하나 하나 줄여나가는 실용주의적 마인드가 절실하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수십 년 격차로 떨어져 있는 남북한 두 지역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설사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회통합 문제를 야기해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한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남북한간의 소득격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한민족경제공동체」 중요 남북협력사업과 남북 FTA

그렇다면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남북한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현재 남북한이 6·15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간 3개 경협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3대 남북경협사업이란, ▷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 금강산관광사업, ▷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업 등을 말한다. 특히 한민족 공동체로서 남북한간에 합의된 개성공단사업이야말로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성의 첫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1. 개성공단사업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15일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남북 경협을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고 할 만하다.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제품을 만들어 온 것은 오래 됐다. 북한 상품도 한국에서 흔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 투자나 남북 교역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 기업들이 조성하고 입주해 관리하는 공단이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가동되는 것은 남북 간에 폭넓은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시제품 생산은 지난 2000년 공단건설 합의 후 4년 만이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건설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온 것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북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다른 분야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순간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의에는 초조감을 보일 정도였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산업관계를 연결하는 시초일 뿐만 아니라, 한번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휴전선이라는 대결의 공간을 국제적인 관광지대를 만들어 ‘완원 게임’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의미를 지니는 우리민족 사업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남북한 구성원의 소득격차를 축소화하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속도 빠르게 ‘북한식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개혁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자원배분기능으로서 시장을 인정하고 적극 육성할 뿐만 아니라, 신의주·금강산·개성 등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놓고 있다.

개성공단은 금년 말까지 시범단지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00만 평을 3단계에 걸쳐 공단으로 개발하게 된다. 1200만 평의 배후도 시도 만들 예정이다. 북한은 공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연간 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임금과 높은 토지비용에 시달리는 한국의 제조업에도 개성공단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북핵(北核)문제가 최대 변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진행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지도 관건이다.

남의 자본과 북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생산한 ‘메이드 인 개성’ 상품이 마침내 탄생했다. 남북한이 갈린 지 반세기를 훌쩍 넘고 개성공단 건설에 남북이 합의한 지 4년 4개월 만의 일이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그 동안 미국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온갖 우여곡절 끝에 출산한 옥동자이기에 더욱 대견스럽다.

‘메이드 인 개성’의 성공은 깊은 뜻이 담겨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이 단순히 인적 교류에 불과했다면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구는 ‘생산 공동체’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섬나라 경제’와 다를 바 없는

남의 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 엔진'을 제공할 것이다.

3.2.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기서 북은 대륙 세력을, 남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남한 경제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북 공동의 물류 기지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철도와 육로의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업은 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의선과 남북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세금도 줄어든 것이다. 이 개성공단사업이야말로 남북한 우리한민족이 평화 속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남북 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한민족이 갈구하는 한민족 지역경제 공동체구성의 첫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남과 육로를 통해 직접 해양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북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내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나아가서 부분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는 동북아지역을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간으로 연결하는 동북아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기도 하다.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가 육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시너지효과는 실제 남북협력사업 건설에 지출되는 비용에 비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현황

구분		우리측		북측	
		구간	추진현황	구간	추진현황
경의선	철도	12.0Km	· 공사 완료('02.12.31)	15.3Km	·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로	5.1Km	· 공사 완료('03.10.31)	7.0Km	· 포장공사 완료('04.11.30)
동해선	철도	7.0Km	· 군사분계선-통전터널(3.8Km) 완료 · 통전터널-저진역(3.2Km) 진행 중	18.5Km	·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로	4.2Km	· 공사 완료('02.12.31)	20.0Km	· 포장공사 완료('04.11.30)

출처: 2005 남북상사중재정책세미나 학술대회, 최수영, 2005. 8

(2005.7.29 현재)

4.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① 문제점

남북경협이 질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남북교역에서의 상업적 거래 정체, 민간주도의 대북 투자사업 부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우선의 남북관계,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북한체제의 특수성 등 제반 환경상의 문제들도 남북경협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

남북교역에서 상업적 거래의 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교역의 인프라 및 관련 법제도의 기반 미비로 인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교역 체제의 미비로 인해 일반교역은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통행·통신 제약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로 계약 불이행 등 분쟁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 위탁가공교역에서는 기업인의 북한 내 통행편의 및 신변보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작업지시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자의 방북 및 통신수단도 제약되고 있다.

남북교역에서는 남북 간 물동량 부족, 북한항의 입출항 수속 지연과 하역설비 미

비에 따른 채선기간 연장 등으로 국제시세보다 훨씬 높은 과도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북쪽에서 반입할만한 품목이 농림수산물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농림수산물물의 반입을 통해 일반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경제의 정상화를 통해 공산품 생산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일반교역에서의 반입 증가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의 외화부족으로 인해 우리 제품의 반출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다.

② 향후과제

남북 간에는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상호간 발효통지문 교환으로 발효(2003. 8. 20)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3통(통행, 통상, 통관)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지난 8월 12일 남북상호보호완전 경협 12개 항이 최종합의 됨으로써 남북경협의 제도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¹ 이런 경협합의서 발효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남북 간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철도운영공동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 공동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3대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적이고 순조로운 진행도 남북경협의 향후 과제이다. 현재 남북경협은 사실 3개 경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합의문.

남북의 자원 자본 기술을 결합해 새 방식의 경협 추진, 9월 중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 의사무소 개설, 개성공단 기반시설 조속 건설 및 15개 시범공장 건설 올해 내 완료, 7월 25일~27일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의 1차 회의 개최(개성)연내, 경의·동해선 철도 개통식, 10월 중 경의·동해선 도로 개통식, 8·15를 전후해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실현 8월 하순,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 8월 초까지,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11월 중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의 구성, 협의남측은 북측에 쌀50만t 차관방식 제공 9월 28일~10월 1일 11차 경추위 회의 개최(평양).

협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상업적 거래의 가파른 확대 및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북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업들의 관심이 개성공단에 쏠려 있는 것은 북한 내 여타 지역의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한 반면 그나마 개성공단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경우 일부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나 생산·운영에 필요한 기본 문제들은 해결하고 본 공단을 조속히 착공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백두산, 금강산관광 사업은 관광객의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단순관광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레저시설 및 숙박시설 확충과 접근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물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남북한 물류비용 절감,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장기적으로는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을 통해 대륙으로의 진출과도 연계되어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5. 요약 및 맺음말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갈등에 중위적(middle p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은 「한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한민족경제공동체」가 동북아지역 내 국가들과 ‘완·원(相生)적 관계」로 될 때 또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구상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남북경협을 “우리 민족끼리의 경제협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북아지역 전체 차원의 경협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탈근대 시대 한민족의 통일은 지역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은 한반도 내 한민족의 역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한민족의 경제적 역량을 네트워크화 하고 통합하는 차원으로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하다. 예를 들면 ‘華商네트워크’에 의해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대만, 홍콩 등 해외 중화민족의 부(富)도 증대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한민족 구성원은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 주체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 한·중·일 3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한 동북아지역 공동체 구축과 상호 연계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국들인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를 제외시킨 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에 열성이다. 이미 화남경제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국이 2010년까지 아세안국가들과 경제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는가 하면, 2001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놓은 일본은 아세안과 포괄적 경제협력구상을 논의 중이다. 미국 또한 APEC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세안을 전략적 지대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동북아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한·중·일 세 나라가 자국의 입장에서 득실을 판단할 때 세 나라가 경제적으로 똑같이 얻어지는 자국의 이익은 3국이 win-win(상생원칙)을 겸허하게 수용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동북아 한·중·일의 지역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우리 남북한 한민족은 한민족지역경제공동체의 구성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와 같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 속에 한반도 반만년을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민족은 불행하게도 지정학적으로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패권주의적 팽창주의 속에서 비참하게도 동족 간에 3년간 전쟁을 하였다. 이제 역사의 세월이 반백 년이 흘러간 지금 우리는 과거사를 서로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서 50여 년 동안 헤어져 고통 속에 살았던 남북의 우리 한민족과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

는 우리 한민족이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 역사적 변화야말로 사실상의 한민족 통일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지난 7월 초 유럽의회단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WTO 사무국장 그린포드(Glyn Ford)에게 북한이 옵서브 자격으로 WTO에 참가를 희망한 바 있다.²

북한이 글로벌경제체제하의 세계무역 경제 질서 체제에 동참하여 북한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하여서는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중국은 2002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러시아는 2006년도 WTO가입을 목표로 가입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WTO라는 세계무역기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과 남한 한민족간의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체결은 외부로부터 큰 저항 없이 이루어 질것이다.

참고문헌

- 권봉상 외(2002) 『남북한 경제협력의 부문별 과제와 정책방향』, 해남.
김대중(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김덕중(1995) 『남북연합의 구성방안/한국의 통일정책』, 나남출판사.
김병오(2001)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의 방도』, 여강출판사.
_____(1985)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한울출판사.
김선광(2002) 「동북아 FTA의 과제와 대응」, 『국제무역연구』 8권 2호(2002.10).
김성후(1977) 「동북아경제통합의 진행과 한국의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6집.
김양희(2003) 『한국의 FTA전략』, 상성경제연구소.
김학준(2000) 『21세기 민족통일의 당위성: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홍사단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3) 『한·중·일 3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
박범순(2003) 「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2003.5), 삼성경제연구소.
박순성(2003)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박하진(2001)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원.

2 Financial Times, *North Korea eyeing observer status at WTO*, July 7, 2005.

- 박희종·정미혜(2003)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28권 2호 (2003.4).
- 손찬현(2003) 「FTA란 무엇인가?」, 『월간무역』(2003.4).
- 심성근(2003)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2003.12), 산업자원부.
- 『월간 한민족』, 2004. 2·3·4월호.
- 윤재희(2001) 「동북아경제협력의 현황과 추진방향」, 『한몽경제연구』 8집.
- 이창재(2002)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향」, 『월간무역』(2002.5).
- 이창진 외(1999) 『동북아경제협력전략연구』, KIEP.
- 정인교(2001) 「FTA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TA연구시리즈』 1(2001.11), KIEP.
- 정인교(2003) 「FTA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월간무역』(2003.2).
- 정재화(2002)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은 가능한가?」, 『월간무역』(2002.5), 한국무역협회.
- 정진상 외(2001) 『동북아경제론』, 선학사.
- 최수영(2005) 『2005년도 남북상사중재 정책 세미나 및 학술발표 논문집』(2005.8), 중재학회.
- KOTRA(2003) 『21세기 동북아시대의 남북경협 전략』(2003. 5).
- 한국토지공사(2002)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수행 방안」, 『통일과 국토』 2002 가을·겨울 호(2002.12), 4~54쪽.
- 현대아산(2004) 『개성공단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2004.3)
- 홍순직(2000)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2000.12), 현대경제연구원.
- _____ (2002)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2002.3), 통일부.
- _____ (2002)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학술세미나(2002.6), 고려대 북한학연구소·학술진흥재단.
- _____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 『통일경제』(2003.2).
- 한국비교경제학회(1995)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 _____ (1996) 『지역주의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박영사.
- _____ (2002)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 이상과 현실』, 박영사.
- Financial Times (2005.7.7) *North Korea eyeing observer status at WTO*.

별첨(1)

〈표 1〉 남북 일반교역의 반출입 품목구조

(단위: 천 달러)

구 분	품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평균
북으로의 반출	전기전자제품	14,268	563	954	4,115	6,153	5,211
	기계류	4,752	2,192	1,105	2,531	4,867	3,089
	광산물	577	233	-	795	3,026	926
	농림수산물	7,889	5,424	1,289	1,691	2,720	3,803
	섬유류	528	508	632	663	1,434	753
	잡제품	-	21	13	35,540	932	7,301
	플라스틱 · 고무가죽	341	165	40	508	843	379
	철강금속	863	365	68	80	708	417
	화학공업제품	2,063	788	133	255	427	733
	생활용품	696	234	148	49	97	245
소 계		31,978	10,492	4,382	46,227	21,208	22,857
북으로 부터의 반입	전기전자제품	11	5	158	302	26	100
	기계류	164	145	57	4	80	90
	광산물	255	3,614	8,599	17,139	5,925	7,106
	농림수산물	66,171	86,737	96,221	125,433	99,577	94,828
	섬유류	181	92	429	333	3,889	985
	잡제품	387	563	42,368	134	397	8,768
	플라스틱 · 고무가죽	-	40	60	61	103	53
	철강금속	10,684	9,315	18,802	32,743	39,188	22,146
	화학공업제품	568	7	458	848	184	413
	생활용품	131	353	258	446	746	387
소 계		78,551	100,897	167,400	177,443	150,117	134,882
합 계		110,529	111,389	171,782	223,670	171,325	157,739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남북교역통계.

별첨(2)

〈표 2〉 북으로부터의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구조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평균
농림수산물	5,418	3,289	3,771	2,413	2,276	3,433
섬유류	53481	54,845	85,420	96,194	91,996	76,387
전기전자제품	8,467	8,329	9,142	8,375	8,771	8,617
생활용품	3,203	556	3,206	3,368	3,026	3,572
기타	1,398	1,059	1,250	1,289	1,677	1,335
합계	71,967	72,578	102,789	111,639	107,746	93,344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남북교역통계.

별첨(3)

〈표 3〉 남북 상업적거래 참여업체수와 업체당 평균교역액 (단위: 개, 천 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 평균
일반교역	참여업체수	309	303	338	308	315
	업체당 평균교역액	360	567	662	556	538
위탁가공	참여업체수	80	71	87	103	85
	업체당 평균교역액	1,562	2,411	2,127	1,708	1,933

별첨(4)

〈표 4〉 상업적거래 참여업체수와 업체당 평균교역액 (단위: 개, 천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상업적거래	256	60	244	61	355	55	425	59	437	63
일반교역	111		111		171		223		171	
위탁가공	129		125		171		185		176	
비상업적거래	169	40	159	39	287	45	299	41	260	37
합 계	425		403		642		724		697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남북교역통계.

junghaekim@yahoo.com

20세기 50년대 한국문학을 통해 본 대미의식

김 춘 선
中央民族大学

1. 머리말

20세기 80년대 한국문학에서 새로운 문학적 현상의 하나로서 주목되는것은 미국 또는 미군을 비판하는 반미문학이 활발히 창작된것이다. 반 외세, 민족자주화 시선 집 『아메리카뚱바다』(1988),¹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상권은 1985년, 하권은 1988년)² 등이 80년대에 공개 출판되었다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미군은 지원군의 자태로 한국땅에 출현하였던것이다. 특히 50년대 6·25전쟁 발발 이후 친미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땅에 공식화되었다. 이로 볼때 8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문학적변화는 80년대 한국 사회 문화의 변화, 특히는 한국인들의 변화된 대미의식의 문학적 반영이 아닐수 없다. 해방 이후 한국과 미국의 특수관계 속에서 형성된 현실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문학작품들에는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이 여러 모로 드러난다. 특히 6·25전쟁이 있는 50년대는

1 임현·이영진(1988). 이 시집에는 총 89명의 시인의 작품 14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 반일시 18편을 제외하면 반미시는 123편에 달한다.

2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은 월남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문학평론가 최원식교수는 『민족문화와 반미문학』이라는 글에서 이 작품의 진정한 성과는 제국주의 전쟁은 그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를 탁월하게 형상화한데 있다고 논한바 있다.

더욱 그러하다. 50년대는 한국에서 한미혈맹관계가 확립되는 시기로서 50년대 문학에서 대미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것은 한국현대문학의 독특성 및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 현대 작가들의 현실인식 등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미있을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50년대 한국문학에서 대미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것을 과제로 삼고 50년대 대미의식의 몇 경향을 대변하는것으로 판단되는 작품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 6·25전쟁의 체험과 절대적 구원자

50년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은 두말할것 없이 6·25전쟁의 발발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서울은 3일만에 함락이 되고 조선인민군은 한국의 남쪽끝인 랑동강까지 신속하게 밀고내려갔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미군을 선두로 한 유엔군의 참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는 구상의 「난중시초」에서 잘 나타난다.

6·25 그 날의 경악과 절망을 맞본 사람은
지구의 종언을 맞더라도 덜 당황해 하리라.
하룻만에 패잔병의 모습으로 변한
국군과 함께 후퇴라는 것을 하며
수원에서 UN군 참전의 소식을 듣고서야
〈노아〉의 방주를 탄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 구상 〈난중시초 1〉 일부

위의 시에서 보듯이 6·25 그날의 경악과 절망을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적 화자는 전쟁에 대한 비극적인식을 하고있다. 그런데 이는 《〈노아〉의

방주》로 상징되는 유엔군의 참전에 의해 그 해결을 보게 되어 시적 화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이처럼 6·25 당시 미군은 한국의 절대적 구원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6·25 당시 한미 《혈맹관계》와 구원자로서의 미군의 역할은 50년대 여러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김동리의 『홍남철수』(1955)는 유엔군 참전에 힘입어 점령한 북쪽 지역에서 중공문화반의 일원으로 수복지구 주민들의 선전활동을 하던 시인 박철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홍남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홍남에서 겨우 배를 얻어타고 철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 겪는 우여곡절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유엔군 참전에 힘입어 조선의 홍남까지 밀고 나갔던 역사적 사건이 형상화되고있다. 실제로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국의 남단까지 밀고나갔던 북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인민군치하에 들어갔던 한국땅을 수복했거니와 6·25전쟁 3년간 유엔군 인명피해가 33만명³을 헤아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6·25의 경악과 절망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삶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미군과 미국은 현실적으로 절대적 구원자로, 그리고 고마움의 존재일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같은 역사적 상황하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우방으로, 《혈맹관계》로 자리잡게 되며 친미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 법적, 심리적 기반을 획득하게 된것이다. 이같은 미군, 미국에 대한 인식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한국의 50년대라는 시대적 산물인 동시에 작가, 시인들의 6·25전쟁체험의 직접적 산물이기도 하다.

3. 떠돌이의 삶과 행운의 은신처

50년대에는 6·25전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이 문학에 수용되어 50년대 문학에는 떠돌이의 삶이 많이 그려

3 김윤식(1991: 16)

지고있는데 이러한 문학작품들에는 미군의 형상이 많이 등장하고있다. 송병수의 『쏘리 킴』(1957), 이범선의 『오발탄』(1959)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쏘리 킴』은 6·25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미군부대의 주변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미군기지촌의 부정적 작태와 미군들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떠돌이들의 밑바닥 삶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쏘리 킴이라는 소년은 6·25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이다. 이제 열살 남짓한 그는 따링누나와 함께 기지촌 움집에 기거하면서 따링 누나에게 미군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맡고 있다. 이들의 생활토대로 되고 있는 미군부대가 리상적인 삶의 터전이 아님은 두말할것 없으나 미군들에게 기생해서 살아가고있는 이들 떠돌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고마움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쏘리 킴이 미군들의 여러 가지 퇴폐적인 생활습성에 대하여 다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호감을 나타내고있다는데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양키들이란 참 재미있는 자들이다. 근처에 얼썬만 해도 뭐 쏘톨이나 해 가는 줄 알고 ‘까뽀뽀이 까라……’고 내쫓는 똥똥보 싸징이나, 김무소의 엠피같은 각쟁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키라면 한국 사람들보다 모두 좋았다. 그렇다고 뭐 먹다 남은 닭다리나 초콜릿 부스러기따위를 얻어 먹는 맛에서가 아니다. 양키들이 어른답잖게 말발굽쇠 던지기랑 화약터치기랑 어떤 놀이든 (돈내기 포커 노름만 말고) 버젓이 한 몫 붙여주는 게 좋단 말이다.⁴

부모형제없는 어린 쏘리 킴에게 있어서 미군부대는 격의 없이 함께 신나게 놀아주어서 좋을뿐만 아니라 궁핍과 시달림에서 벗어날수가 있어서 좋은 곳이다. 《사람사는 곳이라곤 통 없는 일선 지구 산골이지만, 진작 서울서 이곳에 오길 참 잘한 것이다. 예서 양키들에게 양갈보나 붙여 주고 그러저럭 얼려 지내다가 딱부리처럼 하우스보이라도 되지만 하면 그땐 팔자 고치는 거다. 똥보다 이곳엔 뭐 날쳐오라고 야단치는 왕초도 없거니와, 어디서 뭘 날치기나 쏘톨질을 안해도 똥이든 쓸 만한

4 구인환(1994: 358).

건 양키 부대에 쌓여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쏘리 김이다.

그런데 미군부대에 대한 쏘리 김의 이같은 생각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소년의 시각이라는 점이 문제될수도 있겠지만 소설에서 나타나듯이 쏘리 김이 미군기지촌에 오기전까지의 비참한 생활체험이 그로 하여금 미군기지촌의 생활에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낄수 있도록 해준것이다.

쏘리 김은 전쟁때에 아버지가 잡혀가고 어머니가 애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죽는 바람에 고아로 된 슬픔을 겪었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소매치기 조직에 붙잡혀 일하기도 했고 깡통을 들고 밥을 구걸하기도 했었다. 그는 왕초의 학대에 견디다 못하여 역시 피난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고아가 된 14살의 딱부리와 함께 조직을 탈출했으나 교통순경에게 붙잡혀 고아원에 넘겨지고 고아원에서의 배고픔을 견딜수가 없어 보름만에 탈출하여 왕초나 교통순경에게 또 붙잡혀갈까봐 엉겁결에 지나가는 미군트럭에 올라타게 되어 미군기지촌에 온것이다.

이처럼 혹독한 생활의 시련을 겪은 쏘리 김에게 있어서 함께 신나게 놀아주고 또 풍부한 물자가 있는 미군부대는 《한국 사람들보다 모두 좋은》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것이다.

쏘리 김의 친구인 딱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매치기, 구걸행각을 강요당하며 왕초한테 지독히 얻어맞기가 일쑤였고 고아원에서 배를 굶던 그가 기지촌에 와서 캡틴의 하우스보이가 된 후로는 부자집 막내동이나 된것처럼 캡틴이 서울의 피엑스에서 사다준 가죽잠바를 입고 할로모자를 쓰고 금시계를 찻으며 허리엔 장난감 권총과 진짜 단도를 차고 뽀내면서 오래지 않아 캡틴을 따라 미국에 갈 꿈에 부풀어있다.

이처럼 6·25전쟁으로 말미암은 당시의 혼란과 굶주림과 절망적인 현실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미군부대에 호감을 가지게 했고 또 행운의 은신처로 인식시켰던 것이다.

4. 생존을 위한 갈등과 외화획득의 자원

50년대 한국소설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고있는것은 전쟁의 참상과 피해 그리고 전후의 암울함과 궁핍이라고 할수 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하게 되어 여성들에게 성을 상품화하도록 강요했다.⁵ 특히 외국군의 주둔은 여성들에게 외화획득의 자원으로 되었다. 이범선의 『오발탄』(1959)과 송병수의 『쏘리 킴』(1957)등에서는 양공주들의 삶을 통해 50년대 여성들이 직면한 절박한 삶과 아울러 그들의 미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난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월남가족 송철호 일가의 삶을 통해서 1950년대 한국사회의 가난과 만연된 부조리, 그리고 암울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송철호는 계리사 사무소의 말단서기로서 교통비도 안되는 돈을 벌고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전쟁통에 정신이상자가 된 어머니가 있고 만삭이 된 아내와 영양실조로 낮빚이 누렇게 된 어린 딸이 있으며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했다가 상이군인이 된 남동생과 양공주가 되어버린 녀동생이 있다. 굶주리면서도 룰리와 관습을 지키며 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철호에게 있어서 양공주인 명숙의 삶은 슬프고도 수치스럽기 그지 없는것이여서 한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본체만체하면서 지낸다. 그러나 지칠대로 지쳐 방에 쓰러져눕는 명숙의 모습과 송장과 같은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집식구들 몰래 이불속에서 흐느껴우는 명숙의 행동에서 명숙이 미군을 상대로 하게 된것은 생활의 핍박이였고 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고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명숙이가 계란만치 구멍이 뚫린 나일론양말을 신고 있으면서도 형님의 병구환을 위해 섣뚱 돈을 내놓는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스러워했던 철호마저 명숙의 그 구멍뚫린 양말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오래간만에 오퍼

5 한국전쟁후 미군주도의 식민지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전쟁복구라는 불가피한 선택과제인 경제발전을 위해 성상품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부녀자들이 소위 양공주나 일반 매춘행위자로 전락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숫자만도 4만명으로 추계된다(『한국 연감』 1957: 210).

로서의 애정을 느끼게 된다.

송병수의 『쏘리 킴』에서 따링누나는 서울에서 돈벌이를 위해 일선의 기지촌까지 스며들어와 은밀하게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함으로써 달러를 벌어들이는 녀자다. 그러나 따링누나는 아무렇게든지 돈만 모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니다. 부르도크라는 별명을 가진 거칠고 뚱뚱한 흑인병사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래를 거부하는가 하면 미군병사의 흥내를 내어 따링누나에게 성적흥정을 벌리려고 하는 어린 소년 딱부리에 대해서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무슨 짓이냐》고 뺨을 올려부치며 분노를 터뜨린다. 또한 함께 기거하는 어린 쏘리 킴에게는 동요도 가르쳐주고 이 다음에 돈벌면 서울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할 정도로 모성적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간애를 지닌 녀자다. 결국 그의 딸라를 탐낸 찔뚱이의 고발로 따링누나는 미군헌병에게 붙잡혀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헌병에게 붙잡혀갈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기 위해 미군부대를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 한국에서 미군은 외화획득의 자원으로, 절박한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하나의 현실대응방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설들에서는 미국군대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불건전한 영향이나 인간성의 유린이 표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튼리도덕적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문학의 현실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50년대 한국사회에서 먹고사는 생존문제가 보다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현실상황이 당대 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5. 출세의 욕망과 선망의 대상

6·25전쟁을 겪은 이후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정신적 동요를 가져왔다. 모든 가치개념이 붕괴되고 꿈과 이상이 상실되어 버린 참혹한 현실속에서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도 사람들은 그러한 참혹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활에 대한 설계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발달한 미국이 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1955)은 이러한 의식을 잘 보여준다. 소설에 등장하는 《나》의 아버지 대장은 굶지 않으려고 버등대는 제복직공에 불과하다. 일곱식구나 되는 대장의 가족은 안개처럼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간반방에서 살고있다. 그들 가족은 벌써 반년 이상이나 점심이라는걸 잊고 지내는데 그나마 한끼는 유족으로 떼운다. 그럼에도 대장네 식구들은 모두 미국류학열에 들떠있다.

어이없게도 우리집 식구들 원통 미국 유학열에 들떠 있는 것이다. 인제 겨우 열한 살짜리 지현(志賢) 이년만 해도, 동무들끼리 놀다가 걸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난 커서 미국 유학간다누”다. 그게 제일 큰 자랑인 모양이다. 중학교 이학년 생인 지철(志哲)이는 다른 학과야 어찌 되었건 벌써부터 영어 공부만 위주하고 있다. (중략) 지웅(志雄)이 또한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일학년인 그 녀석은, 어느새 미국 유학 수속의 절차며 내용을 뚜르르 꿰고 있다. 미국 유학에 관한 기사나 서적은 모조리 구해가지고 암송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지숙이 역시 나를 노골적으로 멸시할 정도니 더 말할 여지가 없다.⁶

온집 식구가 미국류학열에 떠있는데 법과대학을 다니는 나만이 미국류학희망을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속에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도 그럴것이 《법대를 마치고 미국가 삼사 년만 연구하고 돌아올 말이면 장차 장관 자리 하나는 때어는 당상이라》고 하며 그 출세의 날을 꿈꾸고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류학을 단념하였으니 그저 밋기만 해서 그때부터 그 아들만 보면 대장의 입에서는 《죽어라, 죽어!》라는 욕설이 튀어나오고 따귀를 갈퀴는것이 거의 공식화된다. 대학에 납부금을 제때에 바치지 못해서 국내대학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밥을 굶은 한이 있더라도 미국류학만은 꼭 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만 이 좀 다른 태도를 취한다. 모친에게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것이다. 물론 미국류학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지내느냐 하는것이 더

6 『정통한국문학대계 20』(1994: 133).

절박한 문제인것이다. 그래서 《애, 미국이구 뭐구 밥부터 먹어야 겠다. 목구멍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미국은 다 뭐니》하고 실토를 했다가 미국류학열에 떠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호된 비난을 당한다.

소설에서는 나와 어머니만을 제외하고 부친과 동생들 넷이 모두 미국류학열에 떠있다. 동생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이학년생, 고등학교 일학년생, 여자대학생 등 거의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고있다. 이로 볼 때 대장네 식구들이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선망은 당시 한국인들속에서의 보편적인 인식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장네 식구들의 이같은 미국류학열이 립신양명, 출세영달에 대한 강한 욕망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이해될수도 있겠지만 지철이와 자웅이가 영어실력 여하에 따라 인간의 자격을 평가하고 양행(洋行)을 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려 드는데는 미국류학을 함으로써 쉽게 출세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든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상황에 그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들이 밥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류학만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들이 아는 정계나 학계에 출세한 사람들은 모두가 미국류학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류학은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는 탈출구이며 출세영달할수 있는 성공의 길로서 미국이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되었으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

6. 민족적 굴욕감과 점령군

앞에서 본 작품들은 모두 50년대를 시간적 공간으로 하고있다. 그에 반해 1958년에 발표된 전광용의 『해도초／海圖抄』는 1948년을 시간적공간으로 한 특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단독정부성립이 바야흐로 무르익어가던 1948년 6월 독도 근해에서 한낮에 작업중인 사오십척의 한국 어선단에 대한 미군비행기의 무차별 폭격

사건을 소설화한것이다. 작품속에서 울릉도 경찰서장이 증언하고있듯이 《미군이 독도를 무인도라고 해서 폭격 연습지로 사용》했다는것이며 무수한 인명피해를 빚어내어 사오십척의 어선단에서 생존자는 늙은 어부와 젊은 기관사 단 두명뿐이다.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 두 생존자가 《때마침 출어나간 배에 구조되어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그들까지 없어졌다면 영영 알길이 없》을뻔 했다. 한국의 섬을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면서 대낮에 작업하는 어선단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다는것은 한국의 국권에 대한 야만적인 유린이 아닐수 없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두사람 가운데 젊은 기관사 준구는 팔십년전에 흥년을 만나 울릉도로 이민한 집안의 후손으로 발동선선장이 되어 섬을 떠나는것이 그의 꿈이다. 그러나 폭격사건으로 그의 꿈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시설이 없어 수혈도 하지 못한채 고통에 모대기다가 비명속에 죽어갔다. 《비행기, 아, 저기 양키 비행기가.....》 준구의 이 마지막 절규는 미군의 만행에 대한 저주와 원한의 집약적 표현이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군의 형상은 한국을 일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준 해방군, 지원군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제멋대로 만행을 저지르는 점령군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한국 과도정부 비서실에 출입하는 정치부기자로 설정되어있다. 그는 전날 기사취재에서 민족적 굴욕감을 체험했다. 과도정부 비서실에서는 새로운 기사를 《대체 외국통신에 먼저 알리고, 외인 기지를 국내기자 몰래 초청하여 제 나라 일의 중대한 이야기를 먼저 토설하고, 정작 그 새로운 정책의 직접 관계자가 될 자기 나라 기자에게는 은폐하》는것이다. 사대주의의 부활에 울분을 참지 못하던 그는 어부들의 처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면서 《명나라 때의 조공시절이나 일제 시대의 침략자에 대한 아침과 자기들끼리의 모함 분열을 되돌이하던》 치욕스러운 과거력사를 곱씹어보게 되고 또 《깨끗한 한 표를 굶어모은 주인공들이 정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우리 모두들 잘 살 수 있는 새나라를 이룩하겠는지》하고 곧 수립되게 될 단독정부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 비판해보고 현재의 모순과 문제점을 조명해 보면서 느끼는 주인공의 이같은 회

의에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군정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 깔려있다.

작가 전광용은 있는 현실을 자신의 언어로 육화시켜 작품화한 철저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것은 전광용이 쓴 작품에는 현지의 답사에서 힌트를 얻거나 취재된것이 적지 않기때문이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해도초』는 독도 근해 어부에 대한 미군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의 현지조사에서 소재를 구하고 소설로 형상화한것이다.⁷ 전광용 자신이 기자로 일했었고 또 작품이 실제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형상화한것임을 감안하면 이 소설에서 주인공 《나》가 체험하는 민족적 굴욕감과 분노의 감정은 미군정하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부정적 시각이 드러난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드러난 작가의 태도는 5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한 부류를 대표한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50년대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이며 6·25전쟁의 체험으로 미군과 미국에 대해 대체로 호감을 보이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전광용이 해방기를 배경으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한 그 의도는 무엇일까? 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패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의 격화와 함께 문학이 사회적 관심을 회복하게 되면서 전광용과 같은 작가들은 적어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외세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도초』는 많은것을 시사하는 돋보이는 작품이다.

7. 맺는 말

위에서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50년대 한국문학에서 한국인들의 대미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몇 편의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50년대 한국인들의 대미의식은 대체로 소박했던것 같다.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은 50년대의 6·25전쟁, 랭전이데올로기의 영향, 분단이 주는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운데서도 처절했던 전쟁의 체험과 전후의

7 김우종(1992: 430).

비참한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전쟁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시여지고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패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의 격화와 함께 문학이 사회적 관심을 회복하게 되면서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외세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60년대에 이르러 4.19학생의거와 순수.참여문학논쟁을 거치면서 점차 뚜렷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의 작업으로 남긴다.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본고에서는 극히 일부의 작품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보다 객관적인 엄정한 연구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구인환 엮음(1994) 『고교생이 알아야할 소설. 4』, 신원문화사.
 김우중(1992) 「전광용과 그의 작품」, 『학원한국문학전집 22』, 학원출판공사.
 김윤식(1991) 「6·25전쟁문학」, 문학과 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임현영·이영진 편(1988) 『아메리카똥바다』, 인동.
 『정통한국문학대계 20』(1994) 어문각.
 『한국 연감』(1957).

학술용어의 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보장문제

리 근 용

국어사정위원회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며 지난 세기에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대로서 오늘날 사람들의 활동과 나라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응용과 한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고 그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전문학술용어들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그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학술용어를 직접 다루는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언어규범화사업을 맡아보는 언어규범화부문의 일군들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나가야 할 과업의 하나로 된다.

1. 학술용어의 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이 가치는 중요성

첫째로, 언어생활 그 자체의 기본사명과 관련된다.

언어생활이란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매 민족성원들이 언어생활을 옹바로 하자면 하나의 대상, 현상에 대하여 공동으로 리해되고 인식되는 하나의 언어요소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언어생활 그 자체는 치밀한 규

범성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규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의대로 언어생활을 하게 된다면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 없고 언어교제가 잘 실현될수 없으며 중당에는 언어생활이 자기의 기본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특히 과학적개념을 정확히 담을것을 요구하는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서 단일성, 규범성을 요구한다. 학술용어도 언어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언어요소의 하나인것만큼 학술용어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는 문제도 역시 언어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규범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것이다.

둘째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힘있는 추동력으로, 밑천으로 된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의 순조로운 발전에 대하여 말할 때 학술용어의 통일적인 사정, 사용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생발전은 과학기술적개념들을 정립하고 그것을 언어수단으로 용어화하여 고착시키고 활용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밑에 진행된다. 그런것만큼 학술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쓰이지 못하면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 응용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술용어들이 통일적으로 정립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개념에 여러개의 말이 있다거나 제정된 용어가 과학적개념을 정확히 담고있지 못하거나 인민대중이 알수 없는 말들로 용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한 과학기술적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전도되어 듣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게 될것이며 결국 학술용어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장애를 주는 걸림돌로 되게 될것이다.

특히 대외관계가 넓어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학술적교류와 협조가 늘어나는 환경은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선진과학기술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사정하고 그에 맞게 써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셋째로,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의 대명제아래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학술용어분야에서도 전 민족적이고 통일적인 학술용어체계를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자기들이 쓰고있는 전문분야의 학술용어들을 재검토하고 단일화, 통일화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된 민족의 학술용어체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여 조선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우리들도 한몫 기여할수 있을것이다.

2. 학술용어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

2.1. 학술용어사정원칙에 관한 문제

학술용어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자면 먼저 학술용어의 사정원칙이 정확히 정해져야 한다. 학술용어사정원칙이 정확히 정해져야 학술용어사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실천적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갈수 있다.

△ **학술용어에 대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주체성, 민족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술용어사정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말을 적극 살려쓴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어를 기본으로 하여 언어생활을 진행하는것만큼 학술용어사정도 민족어의 풍부한 언어수단과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술용어가 대중이 파악할수 있는 용어로 되어 널리 쓰일수 있으며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갈수 있다.

외국말학술용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 감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을 원칙으로 해나가야 한다.

둘째로, 인민성, 평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술용어사정에서 인민성, 평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인민대중의 감정과 지향에 맞고 인민대중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든다는것이다.

말과 글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직접적사용자도 역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찬동하고 받아들이는 용어만이 우리 식의 학술용어로 될수 있다.

셋째로, 과학성, 용어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술용어사정에서 과학성, 용어화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학술용어가 해당하는 개념들을 과학적으로 집약적으로 담을수 있도록 명사화해나간다는것이다.

학술용어를 사정함에 있어서 과학성을 보장하고 용어화하는것은 학술용어로서의 자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때문에 학술용어를 사정할 때 그 용어가 과학적개념들과 기술적내용을 정확히 담을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용어맛이 나게 사정해야 한다.

넷째로, 공인된 국제공용어를 적극 받아들이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인된 국제공용어를 적극 받아들이는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며 국제기구 등에서 공인되고있는 과학기술적용어들을 적극 받아들여 쓴다는것이다.

우리가 세계속에서 살고있고 과학기술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가 나날이 넓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국제공용어를 받아들여 쓰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우리 말에 없거나 당장 우리 말로 용어를 바꾸기 어려운 외국말학술용어들은 얼마간 받아들여 써야 한다. 국제공용어를 받아들여 쓰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여기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이 원칙의 적용을 대하여야 한다.

2.2. 학술용어의 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문제

학술용어의 사정과 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문제가 명백히 밝혀져야 그것이 파악있는 용어, 대중속에 깊이 침투될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자기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 ① 학술용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쳐쓰기 위한 사업에 목적의식적인 힘을 넣는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운데서 해당한 학술적개념을 담을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어 쓰는것이다.

고려약재에서는 식물의 이름가운데서 《개미취(자완)》, 《남가새열매(백질려)》, 《참깨기름(호마인)》, 《오징어뼈(해표초)》, 《돼지열(저담)》과 같이 우리 말속에 있으면서 인민대중이 쓰고있는 고유어휘를 그대로 학술용어로 쓰는것이다.

둘째로, 고유한 우리 말 어근에 토대하여 새말을 만들어쓰는것이다.

우리 말에는 새말을 만드는 수단과 수법이 매우 발달되어있으므로 그에 의거하면 이름답고 훌륭한 새말을 많이 만들수 있다.

《바다나물, 흙깎이, 단묵, 단고기국, 맛내기, 졸인젓, 풀김치, 옥쌀기름, 고기떡, 물고기순대...》등과 같은 말들은 고유한 우리말어근에 기초하여 새로 만든 말들이다.

전문분야의 학술용어를 만드는데서 우리는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속에 깊이 침투되고 굳어진 한자말들도 새말을 만드는데 적극 리용해야 한다.

한자말가운데는 지금에 와서 한자말인가 하고 의심할정도로 우리 말화된 단어도 있고 《학생, 학교, 정부, 국가...》와 같이 우리의 언어생활속에 깊이 침투된 한자말도 있는것만큼 이런 부류의 한자말들도 새말만들기의 재료로 리용하여 새 단어들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이미 있는 한자말학술용어, 외국말학술용어를 다듬어 우리 말 용어를 만드는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복고주의와 취미본위적인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 말 어법과 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스케기 → 얼음과자, 자견탕 → 고치삶은물, 적석총 → 돌각담무덤, 환제 → 알약, 화아 → 꽃순, 외눈 → 겹입술, 포스톤뺨 → 러행가방》등과 같이 용어의 개념이 잘 반영되도록 다듬어 용어를 만드는것이다.

② 외국말학술용어들을 우리의 학술용어로 받아들여 쓰는 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잘해야 한다.

첫째로, 새로 들어오거나 이미 들어와있는 외국말가운데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 말이 없거나 다듬을수 없는 용어는 받아들여 써야 한다.

례를 들면 《비타민, 컴퓨터, 볼반, 보링, 피트, 마일, 카로리, 미싸일...》 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냥 쓸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악기이름, 단위기호들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들과 국제기구들에서 통일적으로 쓰도록 한 외국말학술용어는 그대로 받아들여 써야 한다.

둘째로, 외국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우리 말이 있거나 능히 우리 말로 다듬을수 있는 용어들은 다듬어야 한다.

례를 들면 《테스트필름 → 시험필름, 테블그로스 → 책상보, 템포 → 속도, 파싱가 → 복실길잡이흙, 포에마 → 서사시, 핀타크 → 접어박이》 등과 같은 외국말들을 쓰지 말고 우리 말로 다듬어 써야 한다.

셋째로, 외국말학술용어에 대한 표기는 철저히 우리 글자로 하면서도 《외국말 적기법》에 준하여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금 적지 않은 경우에 영어식으로 표기하거나 제3국의 언어로 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표기하는 현상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그 용어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용어인가를 확인하고 원어대

로 표기하여야 한다.

2.3. 학술용어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문제

학술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사업은 파악있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일단 학술용어로 사정한 다음에는 중앙집권제적인 강한 통제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정된 학술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통제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학술용어정리의 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그 통일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어사정위원회가 있어 어휘정리사업과 통제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있다.

첫째로, 학술용어사용을 통일하기 위한 통제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해나가야 한다.

- 사정된 학술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하는것이다.

사정된 학술용어가 늘 쓰지 않던 말이라고 하여 받아들여 쓰려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규범적이고 비문화적인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사정된 학술용어를 쓰지 않고 종전에 쓰던 비규범적이고 비문화적인 용어를 계속 쓰는것이 통제를 받아야 할 기본대상으로 된다.

- 자의대로 용어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술용어는 아래에서 지어내는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어서 내려보낸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들이나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의대로 학술용어를 만들어쓰거나 받아들여쓰는것과 같은 일들이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회의 여러 부문들에서 사정된 용어를 정확히 쓰도록 하는 통제사업을 선후차를 갈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학술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통제는 사회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상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 국가의 중앙기관들과 출판보도기관들, 교육문화기관들이 그 성격상 첫 대상 기관으로 될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언어생활에 대한 통제형식으로는 강연 등과 같은 형식이 리용될수 있으며 그 기관들에서 내는 문건들, 출판물들, 교과서, 참고서 등을 검열하여 사정된 용어가 정확히 쓰이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상업기관들, 사회급양단위들도 중요한 통제대상으로 될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언어생활에 대한 통제형식은 강습이나, 자료통보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서 내보낸 상표명, 요리명, 해설 글 등을 검열하며 비규범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전사회적으로 학술용어사용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끝으로 북과 남, 해외의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다.

올해는 조국광복 60돐을 맞는 민족의 력사에서 뜻깊은 해인 동시에 나라가 분렬되어 민족적비극을 안고있는 60년이 되는 해이다.

6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북과 남, 해외의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술용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고있는 가슴아픈 현실이 빚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술용어분야에서 온갖 외래어적인요소와 비문화적이며 북고주의적인 언어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고유어를 기본으로 한 주체적인 학술용어체계가 섰으며 그 방향에서 계속 발전해나가고있다.

남측에서도 학술용어가 자기의 발전방향에 따라 우리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동포들이 쓰고있는 과학기술부문의 학술용어도 자기 식의

발전방향에 따라 북과 남의 학술용어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변화되어가고있다.

실례를 들어 정보과학기술용어인 《컴퓨터》는 북과 남, 해외에서 《콤퓨터, 컴퓨터, 킴퓨터……》 등 여러가지 변종으로 쓰이고있다.

하나의 민족어에 뿌리를 둔 학술용어들이 사회제도가 다르고 해외에서 쓰인다는 이유로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기 쓰인다는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은 6·15시대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대명제아래 북과 남, 해외의 규범전문가들, 언어학자들, 과학기술분야의 학자들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사업에 나서고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학술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단과 의지를 안고 학술용어분야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민족적인 통일학술용어를 탄생시키는 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북과 남에서 존재하는 학술용어가 결코 이질화되었다고 볼수 없다.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내보낸 《다듬은 말》(1978년판, 총어휘수 5만개)와 한글학회에서 내보낸 《쉬운말사전》(1984년판, 총어휘수 3만 2천개)의 《ㄱ》부문을 대비분석한 결과, 두책에서 똑같은 대상을 다듬은 어휘수 920여개가운데서 :

— 북과 남의 대안이 같은것 540개(59%)

가내 → 집안

가축 → 집짐승

궤도 → 걸그림

가잠 → 집누에

— 서로 협의하면 쉽게 일치할수 있는것 300개(약 33%)

계사 → 닭우리, 닭장

각질 → 뽕질, 뽕성질

건제품 → 말린제품, 마른제품

— 다듬은 대안이 완전히 다른것 80개(약8%)

권운 → 비단구름, 새털구름

괄약근 → 오무림살, 늪음치근

가분수 → 분자큰수, 꺼꿀분수

이 자료를 통하여 북과 남의 학술용어분야에서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많으며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압도적다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북과 남, 해외의 이 부문 학자들과 일군들이 힘을 합쳐 협의해나간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나갈수 있다고 본다.

북과 남, 해외가 학술용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① 학술용어통일사업의 목표와 원칙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학술용어통일사업의 단계와 그 기간에 해야 할 사업을 옹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 ③ 북과 남, 해외가 용어통일을 합의하고 통일적인 용어를 써나가기야 한다.

이외에 세부적으로 제기되는 실무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해야 할 사업이 숭고한 사업이고 민족적의무감이 담긴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제생각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공동의 재부인 민족어를 지켜내고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통일학술용어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안고 발벗고 나선다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 생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평생교육과 그 전망

리 영 복

교육과학원

시대의 변천과 사회발전에 따라 인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사람들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욕망과 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사회발전의 이러한 요구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더욱 힘있는 존재로 살며 일하려는 사람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는 평생교육(혹은 생애교육, 지속교육)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학술적인 논의단계를 거쳐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1960년대중엽 UNESCO(유네스코)에 의하여 《일생을 통한 교육》문제가 정식 제기된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범위로 확산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게 전민 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을 주체교육건설의 리념으로 내세우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하여 옴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포괄하는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있을뿐 아니라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한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 모두에게 중단없이 지속적인 교육을 주는 평생교육을 실현해나가고있다.

1. 평생교육의 중시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하여 전민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을 사회주의교육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교육시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시켜주려는데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으로 표현되는 사람의 이러한 속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적실천활동과 함께 교육을 통하여 형성, 발전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려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유한 지향이고 요구이며 이 세상에서 교육을 필요로 하며 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존재도 사람뿐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상의식과 품격, 지적능력과 소양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평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일생교육은 바로 어려서부터 늙을때까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는것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다 힘있는 존재로 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실현시켜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중시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변천하는 시대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이 한생을 마칠때까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려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확대심화되고있으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발전풍부화되고있다.

특히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과

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정보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지식의 갱신속도는 매우 빨라지고있다.¹

새 세기에는 지식의 량이 급격히 늘어나는것과 함께 지식의 갱신속도가 또한 빨라지고있다. 60년대의 지식갱신주기가 10년이였다면 80년대에는 5년으로, 오늘은 그보다 더 줄어들고있으며 지식의 로화주기는 19세기에 30~40년이였던것이 20세기에는 5~10년으로, 최근에는 3~5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제날의 지식과 경험이 오늘에는 벌써 낡은것으로 되고 오늘의 지식도 래일에는 다시 갱신보충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한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과학기술발전의 추이에 맞게 끊임없이 배우고 수양하면서 자신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일생교육을 중시하고 일관한 정책으로 관철하여 나가는 또 하나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2. 일생교육의 방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한생을 통하여 교육을 주어야 하는 일생교육은 일정한 연령기의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 비할바없이 그 포괄범위가 넓고 대상의 나이와 수준, 직업과 희망 등이 다양할뿐아니라 교육기간도 장기성, 지속성을 띠는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1 UNESCO(유네스코)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학지식의 년평균 장성률은 12.5%이며 한 화학전문가가 1년 동안에 발표된 해당 분야의 논문과 도서들을 한번 읽자고 해도 48년이 걸릴것이라고 한다. 어느 한 학자의 예측에 의하면 오늘 태어난 어린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세계적으로 지식의 총량이 5배로 늘어나게 되며 그가 50살이 될 때에는 그것이 33배로 늘어날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평생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틀어주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평생교육의 사명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난 경험에 기초하여 평생교육의 주요 방도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첫째로,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옹게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연속적과정이다.

이 세 교육단계를 잘 맞물리고 다같이 발전시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늙을때까지 누구나 이 연속적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면 평생교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년제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제학교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누구나 중학교과정을 마치게 되어있는 조건에서 중학교 졸업이후 성인교육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된다.

물론 학교교육에서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완성하고 질적수준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둘째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는것이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특히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의무교육을 마친 다음 정규적인 고등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치게 하는것은 사람의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몫을 해결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교육체계만으로는 사회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평생교육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학교교육이후의 성인교육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도는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여러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면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 평생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직업과 생활환경, 나이와 지식수준 등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내오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망라되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을 잘 마련해주는것이다.

셋째로, 사회적관심속에서 사회교육을 널리 조직하며 온 사회에 누구나 공부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일생동안 공부시키는 일은 국가의 몇가지 시책이나 교육행정적조치도 다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며 학습의 당사자, 주인도 어디까지나 그들자신이다.

국가적지도와 책임밑에 일생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하고 사회교육 교양시설들을 늘여나가는 한편 각계 각층의 사회성원들을 망라하고있는 정당, 단체들이 높은 사회적관심속에서 사회교육을 활발히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학습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옳바른 학습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언제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이처럼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옹게 결합, 병진시키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며 여러가지 사회교육을 널리 조직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것을 일생교육을 위한 원칙적인 근본방도로 정립하고 정책화하였으며 그를 시종일관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일생교육의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3. 공화국의 일생교육체계와 전망

— 우리 나라에서 일생교육의 첫 공정은 학교전교육이다.

《세살적버루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 시기교육은 사람들의 한생과 일생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과 품격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것만큼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며 지능을 개발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동무들과의 집단생활과 공동규율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그들의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 어왔다. 우리는 광복직후 어려운 형편에서도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속에서 보육교양하는 학교전보육교양체계를 세워놓았다. 전후 나라의 자립 적민족경제세대가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현대적시설 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 도가 확고히 수립되어왔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적지 않은 나라들에 서 학교전교육 특히 유치원교육에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일반적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학교전교육, 유치원교육은 자기발전력사와 교육방식에서는 물론 일생교육의 전지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유치원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일생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는것이다.²

만 4살까지의 어린이들은 부모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 여 키울수도 있고 가정에서 데리고 보살펴줄수도 있다. 그러나 5살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유치원(높은반)에서 1년동안 학교전교육을 받고 학교교육으로 넘어가게 되 여있다.

2 지금 탁아소를 거친 75만여명의 어린이들이 1만 4천여개의 각종 유치원에서 학교전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둘째로, 우리의 학교전교육, 유치원교육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함으로써 일생교육, 일생학습의 첫 걸음을 착실하게 내어디디게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학교전보육교양기관으로서 옹당 어린이들의 영양 및 건강관리와 문화정서적, 육체적발육에 깊은 배려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치원이 어린이들의 자연적인 성장발육과정을 보살펴주는 단순한 〈아이보개장소〉나 〈놀이터〉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조속조달하고 총명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난 세대의 어린이들에 비해 비할바없이 높아진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지능수준에 맞게 유치원시기에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교육하는데 힘을 들이고있다.

실천적경험은 우리의 학교전교육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일생교육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롭게 누리면서 먼길을 이어가야 하는 인간완성의 로정에서 그 첫 걸음을 착실하게 내어디디게 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며 앞으로의 일생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능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빨리 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 지적발전에 결정적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은 일생교육의 한고리로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뿐아니라 일생교육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생교육, 일생학습에 절실히 필요한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 관습을 키우고 학습방법을 체득하게 되며 정신도덕적품모와 지적능력, 문화정서적소양 등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학교교육기관은 또한 문화혁명의 거점, 과학기술지식보급의 기지로서 학생들뿐아니라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예술을 선전보급하고 교육적영향을 줌으로써 일생교육의 성과적실현에 적극 이바지한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전반적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국가적, 전인민적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그후 1967년에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1972년부터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새 세대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자학습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마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것으로써 일생교육을 높은 경지에서 추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의의있는 사변이었다.

우리는 또한 대학, 전문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고등교육을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광복직후 대학이 하나도 없었던 빈터우에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1946년에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대학이 대학을 새끼치는 방법>으로 1949년에는 벌써 15개의 대학과 55개의 전문학교들을 일떠세웠다.

오늘 공화국에는 중앙에는 물론 돌르 단위로 하여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건설에 소요되는 인재를 자체로 육성할수 있는 종합적간부양성기지가 믿음직하게 꾸려져있다.³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과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 일생교육에서 더없이 중요하고 절실한것은 근로자들, 사회성원들을 위한 교육 즉 성인교육, 사회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일생을 통한 교육은 말그대로 어려서부터 청소년시기를 거쳐 늙을때까지의 지속

3 지금 300여개의 대학과 430여개의 전문학교들에서 60만명의 학생들이 유능한 민족간부, 기술인재로 자라고 있다.

적인 교육이다. 여기에서 교육교양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의 관심속에서 전통적인 교육체계와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학교교육 이후 늙을때까지의 교육과 학습은 흔히 본인의 열성과 노력에 일임되어왔다.

근대에 와서 사회성원들을 위한 성인교육, 사회교육이 이러저리한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나 그것은 문맹퇴치, 직업기술기능의 전수, 문화정서생활의 요구 등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매우 일면적이고 한정적인것이였으며 다분히 기업적, 상업적성격을 띤것이였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학교졸업이후의 사회성원들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데 일생교육문제해결의 초점을 맞추고있다. 일생교육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학교제도밖에서의 교육》, 《여가에 하는 교육》으로 생각하는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나라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발전시켜왔다.

광복직후 230여만명의 문맹을 퇴치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에서의 성인 교육사업은 새 사회건설이 추진되고 새세대들에 대한 학교의무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는데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리하여 1989년에는 지난날에 배우지 못하였거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근로자들이 모두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고등중학교》를 마치게 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문화지식수준을 중학교졸업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였다.

우리는 성인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전문 및 대학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여러가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있다.

여기서 주되는 교육형태가 공장대학과 공장전문학교, 통신 및 야간교육망 등이다.

우리의 특색있는 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에 의하여 1951년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났으며 전후 복구건설시기에 급격히 확대발전하였다.

공장대학은 이름 그대로 기술자, 전문가들이 집결되어있고 학생원천이 많은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 병설되어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이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 현직 일꾼들이며 교육일꾼들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도 쉽게 해결할수 있는 유리한 점이 많다.

우리는 공장대학의 우월성을 살려 현대적인 농장들과 수산기지들에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내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대학 및 전문교육을 계속 받을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주고있다.

이밖에도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학교, 어머니학교 그리고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화교양시설들이 구색에 맞게 꾸려져 각계각층의 근로자들과 사회성원들의 일생교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 주고있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돕고 이 끝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고무격려하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통성변영을 위한 이 거창하고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보람찬 한생을 빛내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쉬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는 정열적인 독학가,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미 마련해놓은 일생교육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그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

첫째로, 학교전교육의 특성에 맞게 유치원교육을 더욱 개선하고 학교교육과의 계승성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게 할것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과 학교준비교육을 유기적으로 잘 맞물리며 사상도덕교양과 생활관습교양, 지능교육과 문화정서교육, 영양 및 위생관리와 체력단련 등을 과학적리치와 동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을 세움으로써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서 더없이 귀중한 첫 디딤돌을 든든하게 바로 놓아주게

할것이다.

둘째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학교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이 기간에 새 세대들에게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필요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이다.

사상도덕교양을 앞세워 건전한 사상의식과 고상한 도덕풍모,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게 하며 과학지식교육과 컴퓨터교육을 강화하여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적인 기본개념과 법칙 등을 확고히 체득하고 정보기술수단들을 잘 다루게 할것이다.

또한 의무교육전과정에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사고력과 판단력, 표현력을 키우며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 의지와 습관을 형성시키고 학습방법을 체득시킴으로써 자체학습, 자체수양, 자체교육의 능력을 갖추게 할것이다.

셋째로, 새 세기의 요구와 변화된 현실정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앞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추진시켜나갈것이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개진현대화되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공장대학교육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그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교육형태들을 나라의 경제발전전망과 지역적특성, 교육조건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더 늘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밀고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의 운영을 다양화, 활성화하며 앞으로 텔레비존방송대학과 록화교육,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갈것이다.

전문용어 표준화와 어문규정 상이문제 극복방안*

리 의 재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1. 드는 말

광복 60주년을 맞아, 올바른 우리 말글살이[語文生活]를 위한다는 취지로 기본법령인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최근에 공포¹되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런대로 기틀은 만들어진 셈이나,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 이 법이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의 말글살이 합리적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방송, 언론, 잡지, 정부 각 부처, 기업 등 구성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능동적 실천이 충실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는 1) 우리말 표기규정 네 가지가 원칙적으로 모두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계속적 정리정돈, 2) 외국어 대신 우리말 쓰는 분위기 고양과 감독 제재 강화, 3) 외국말을 외래어로 인정하려면 그 표기는 인위적 조작 없이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적는 방식을 채택하여 모순을 제거하는 것(보기: scenario [씨내리어], 현행규정에 따른 표기로는

* 본고는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의 과제번호 03-GP-1-0010으로 수행된 과제의 결과물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1 법률 7368호 및 대통령령 제18973호.

2 맞춤법, 표준발음,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임.

‘시나리오’)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고, 또 그리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문장에 적을 때는 달리 하라는 엉뚱한 모순적 강요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세계의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구촌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국제 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산업기술과 통상의 기반으로서 각국의 전문용어도 표준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심지어 세계 체육대회(Olympic) 등 국제행사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이러한 요구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초차 전공분야별로, 학업장 또는 사업장 수준별로, 심지어는 개인별로 별도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어(특히 영어) 선호현상이 큰 몫을 차지한다. 조기 영어 교육의 광풍, 간판 및 표지판, 상품명 및 포장지, 노랫말, 영화, 광고, 각종 언론매체, 심지어 일상 대화 및 강의시간 등에 사용되는 외국어가 외래어라는 미명하에 어지럽게 넘쳐흐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이 통일을 앞둔 우리들에게 조속히 정돈되어야 할 긴급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랜 동안 분단으로 인한 남북언어의 이질화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말글살이에서 효과적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막대한 지장과 불편이 예견된다. 국제연합(UNESCO) 보고서에서 2100년에 우리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겨레 사회에 다양한 공동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문규정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각 전문분야의 대표들끼리 공동으로 용어를 심사/제정할 필요도 있겠다. 우선 전문용어 표준화 부문에서 남북의 어문규정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전문용어 표준화의 현실적 문제

전문용어의 현실적 문제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시안은 용어집 표제에 올린 말의 3할 이상에 외국어를 차용³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백여 년간 서양문물이 쇄도하면서 미처 우리말로 다듬지 못해 생긴 부작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나라와 겨레의 위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을 수만도 없는 것이, 기능은 세계 최고이고 운동, 경제 및 과학 분야에서 각각 평균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면서 더욱 서양인들의 질시 섞인 비웃음을 사고 결국 조롱감이 되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자면, 미국의 도움으로 줄부가 되어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상스런 경제적 동물/짐승 같은 놈들,⁴ 그러나 이상하게도 [ㄷ]과 [ㅁ]발음을 바꾸어 하고 [f, v, θ, *, ʃ, ʒ, ʌ] 등의 정확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뿔뿔이들, 영어의 뜻을 제멋대로 바꾸어 사용⁵하는 횡포한 훈족[Huns] 후예로 형편없는 돌팔이들, 심지어는 마구잡이 영어터리 영어를 만들어 써서⁶ 고상한 영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족속, 찌꺼기 일 본 문화를 현재도 받들어 모시는⁷ 얼빠진 식민 노예근성…… 이런 모욕적 표현들이 서양의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대중 언론매체나 망역(website)에 오르는 글 등에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일례로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 聯合會[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남북공동 과학 기술 용어집’, 참고문헌 리의재(2003e) 참조

4 ‘Ugly Korean!’이라는 말이 근래 쓰이고 있는데, 실상 이 말은 처음 나온 1960년대엔 ‘Ugly American!’이었고 1980년대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인정받으면서 ‘Ugly Japanese, economic animal!’로 나타나게 된 것이 원조격.

5 보기: each → [수령], merit → 장점, time sharing → condominium/콘도, 은급/pension → 민박, 저택/mansion → 고급 공동주택, 셋방/apartment → 대형 공동주택, 별장/villa → 소형 공동주택/다가구 주택, 집/house → 온상 등.

6 보기: hand phone, people first, opinion corner, Hi Seoul, Love Hotel ; 폰카, 디카폰, e강좌, u-러닝 등.

7 보기: 시루바씨타/silversitter, 스킨시뽀/skinship, 예끼쓰/extract, 레비/television 등.

이런 공격적 포악한 언사를 접할 때면 자성이나 부끄러움에 앞서 당장 반박해 주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우리만 추하게 될 것이므로, 일그러진 맘에서 나온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다고 무심히 넘어갈 수만도 없는 노릇이니, 우리가 외국어를 쓰려면 제대로 하되 가장 좋은 대책은 국민 개개인이 우리 말글삶에서 될수록 외국어를 섞어 쓰지 말고 뚝뚝하게 그리고 꾸준히 우리말(단어와 표현방식)을 찾아 쓰는 노력과 습관을 기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2.1. 전문용어 표준화의 주체

실상 국어기본법 17조에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형식적 문장으로 공허히 박혀있지 않으려면, 당연히 행정 당국이 우선 나서서 솔선 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님이 우리의 비극적 현실이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사용이 고질화된 로마자모들⁸은 제쳐놓고라도 우리 전통용어가 없는 화학물질 이름,⁹ 광물질 이름,¹⁰ 도량형 단위,¹¹ 기타 새로운 과학 기술 기반 전문용어¹² 등 당장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우리 자존심을 짓누르며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음운 중심이라며 인위적 요소를 가미한 현 ‘외래어 표기법’의 한글적기 체계¹³로서는 외국인명을

8 보기: 혈액형 이름(A, B, AB, O형), 정오 표기(O, X), 성적(A, B, C, D, F학점), 축이름(X, Y, Z축) 등.

9 보기: ether, vinyl, aluminum, NOX 등.

10 보기: dolomite, martensite 등.

11 보기: meter, gram, acre, liter, cm³, ha, w, ℓ 등.

12 보기: blog, DMB, RFID 등.

13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역지 인위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참고문헌 리의재(2001a,

왜곡¹⁴하여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적지 못하는 현실적 근본문제는 훈민정음이 세계 제일이라는 본연의 자부심을 상하게 하며, 심지어 존립 자체에 치명적 이기까지 한 자가당착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2.2.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교육부와 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으로 학술단체 聯合會(연합회)¹⁵ 안에 전문용어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18개 분야 연구반을 선정하여 1차 사업(2003~2005년)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2차 사업(2005~2007년)을 위해 새로운 연구반들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이것을 단지 과제비 획득의 수단으로 여겨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다투는 모습이 나타남은 이 사업의 장애요소로 인식되며, 그러면 중국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성공의 요체로 1) 참여자 모두 소명의식을 갖고 2) 서로 간 합리적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며 3) 개개인의 희생적 노력이 따라야 하고 4) 인화 및 내용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002d, 2003b) 참조.

14 왜곡 표기된 경우들 보기: Faraday 파라데이, Macbeth 맥베스, Poison 포이즌 ; Einstein 아인슈타인 등.

15 본문에서 ‘뜻글’[漢字(간지)]라 함은 일본인들의 오칭이며, 또한 우리글의 일종이기도 하므로, 이렇게 바로잡음을 사용함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한글로만 썼을 때 발생하는 의미의 혼동을 막기 위해 보조적으로 쓴 것이며, 또 하나는 ‘두음규정’에 의해 본음이 잊혀져 훼손됨을 피하기 위함으로 이때 뜻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배려로 규정상의 표준발음을 꺾쇠표 안에 병기해 주기로 한다.

2.3.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물

결과물로 나타나는 용어집으로는 첫째로 나랏말을 중심으로 한 ‘나랏말 용어집’을 가져야 할 것이나, 우리네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영한 용어집’과 ‘다국어 용어집’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설명을 실은 용어사전도 필요한 바, 이런 작업의 배경에 놓여있는 공통된 문제가 바로 각종 어문규정의 문제와 사회 인식/통념의 문제들인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의 근저에 우리 사회의 뒤틀린 심리적 ‘외국어 선호현상’과 ‘신 사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정신문화적으로 예측되어 있음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 한마디로 사회심리 철학의 결여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는 점이 몹시 안쓰럽다.

3. 어문규정의 제 문제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남북이 함께 ‘겨레말 큰사전’을 만들기로 했더니 남북 간 이질화로 괴리된 말글살이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정돈이 될 듯하고, 따라서 어문규정들도 손을 보게 될 것이라 이번에는 제발 올바르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실질적 통일에 대비한 작업들이 각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겠는 바, 관련자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3.1. 로마자 표기법

이는 본래 한글자모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주로 우리말 고유명사(사람이름, 상호/상표이름과 길 표지판 등에 사용하는 길이름, 강이름, 산이름, 다리이름 등)를 소개함에 그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발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배려와 취지에서, 로마자모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¹⁶이다.

그러나 2000년에 개정된 현행 표기법도 그에 따라 적어놓은 단어들은 영어와 구별이 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무슨 암호를 써놓은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며, 아직 발음도 영어식으로 읽혀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일반인들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당’이라는 평범한 지명이 실상은 미국인을 위시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쎄딩]으로 엉뚱하게 읽혀져 내국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이 이렇진대, 조금 복잡한 경우에 이르면 두말할 필요조차(보가: Meongeumsageori, Muryangsujeon 등) 없겠다. 이와 함께 복측은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 서로 잘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리성과 거래의 번영임을 명심해야 한다.

3.2. 외래어 표기법

이 규정은 부끄럽게도 그 이름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말이 이미 있거나 우리말로 정착되지 않은 외국어는 외래어라고 할 수 없음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이름하면서, 그러한 외국말들을 적는 방법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니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상, 엄밀히 말하면 ‘외래어 표기법’이란 불필요한 것이다.

대신 ‘외국어휘 한글 표기규정’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표기법의 전반적인 문제로는¹⁶ 첫째, 소라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소리적기]와 “어원을 살리는” 원칙만을 지키면 그만일 것을 쓸데없이 여러 조목, 국가별로 나누어 번다해졌고

둘째, 보기의 대부분이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들로서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일반명사와 동사의 활용 등으로 현안명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실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16 한글의 연장으로로서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리의재 (1996a~1999a, 2000a, 2002d, 2004f, 2005c) 참조.

17 참고문헌 리의재(2001a, 2001b, 2002a, 2002c, 2002d, 2003b) 참조.

3.3. 맞춤법과 표준발음

남북의 어문규정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두음규정, 띄어쓰기, 사이시옷의 문제,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 사전/용어집 및 전산기 자판에 있어서 자모순 배치의 차이 등이다. 이 중에서 두음규정은 사실 남측만의 문제이긴 한데, 맞춤법 속에 소위 ‘두음법칙’이라며 발음관련 항목을 잘못 넣어 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앞으로 바로잡혀야 할 사항이다.

4. 남북 언어 동질화

지난 55년 동안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은 각각 새로운 어휘들을 구사하게 되어 일견 이질화가 심하게 진행된 듯하나, 그 뿌리는 역시 하나이기에 조금의 배려와 설명이 따른다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보기: 얼음 보숭이(ice cream), 자유주의 왕초(바람둥이).

그러나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대로 어문규정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적지 않아,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남녘에서는 법적 서류에 표기되는 성씨와 관련하여 ‘류’씨들이 ‘두음법칙’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비슷한 처지의 ‘리, 라, 로, 랑, 림씨 등 무려 16개 성씨들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어, 바야흐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게다가 근세까지 잘 써오던 ‘류 관순, 라 윤규, 리 승만’의 성씨를 부득 바뀐 적으라는 강제 규정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며, 근래 連續(연속) 방송 사극에서도 ‘류 성룡’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어 선호현상을 잠재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겠다. 한세 연구회의 ‘우리말 찾아쓰기 운동’(www.HanGeulSeGye.com)을 비롯하여 근래 국립 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와 왜색어 순화운동 그리고 시민단체들 및 개인들의 ‘고운 말 쓰기’등 다양한 언어정화 노력들은 남북언어 동질화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

5. 공생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

사회심리적 문제이건, 행정 편이주의적 발상이건 또는 정치적 견해차이건, 철학이 기초를 든든히만 할 수 있다면 인생사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행히 적어도 함께 단계¹⁸를 국조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단계의 개국 기본철학은 ‘홍익사상’¹⁹으로서 이는 최고 상위개념¹⁹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 아래 합리적 해법을 추구한다면 공생(win-win), 상부상조, 공존공영은 물론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 특정집단 또는 개개인의 조그만 손익득실은 대아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마땅하겠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예측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일 없이 성숙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단계의 자랑스런 후예로서 당당히 자주정신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국수주의가 아닌 순수한 문화 민족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서양의 장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의 문화 속에 흡수하여 더욱 풍요롭게 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진정 세계를 이끌고 나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1. 로마자 표기법의 근본적 개선책

내외국인에게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해결책은 한세 연구회에서 2000년에 발표한 쉬운 표기법²⁰을 활용하고, 보조설명이

18 임검은 처음 국호를 ‘단’(나중에 ‘조선’으로 바꾸었음)이라 하였고 천제국이었기 때문에, ‘단군’이라 부름은 후세에 편하한 호칭이 되어 옳지 않으며, 옛 관습을 따라 ‘단계’ 또는 ‘환임 천제’로 부름이 옳겠다.

19 각 종파에서는 이 말을 각각 참사랑(agape), 대자대비, 어절[仁] 등으로 표현하나, 모두 최고 상위개념이다.

필요한 경우 제대로 된 영어를 병서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보기를 들면, 'HanGang(river), HanNam DaeGyo(brdige), SeoUl SiCheong(city-hall), GuCheong(admin.), SeJong DaeWang(the great), GeoBugSeon(Turtle Ship, armoured with steel plates and spikes)'처럼 하는 것이다. 'JangSeong, PyeongChang'과 같은 몇몇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여지가 있다.

5.2. 전문용어 표준화와 외래어 표기법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²¹ 하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위한 순차적인 접근 과정을 <도표 1>로 나타내기로 하겠다.

이리하여 결정된 전문용어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있어서 용어의 모범적 사용 및 표기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본고에 곁들여 제시하기로 한다.

1) 당연히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채용/사용한다.

가) 뜻글과 소릿글이 같이 쓰이고 있을 때, 될수록 소릿글을 사용하고 그렇게 표기하기로. 보기: 강도[強度] ⇒ 세기

나) 마땅한 소릿글이 없을 때, 뜻글을 허용한다. 보기: 강철[鋼鐵]

2) 외국어는 될수록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가) 대등한 우리말을 찾아 쓴다. 보기: 예끼쓰 ⇒ 진국, 농축액

나) 필요하면 적절히 만들어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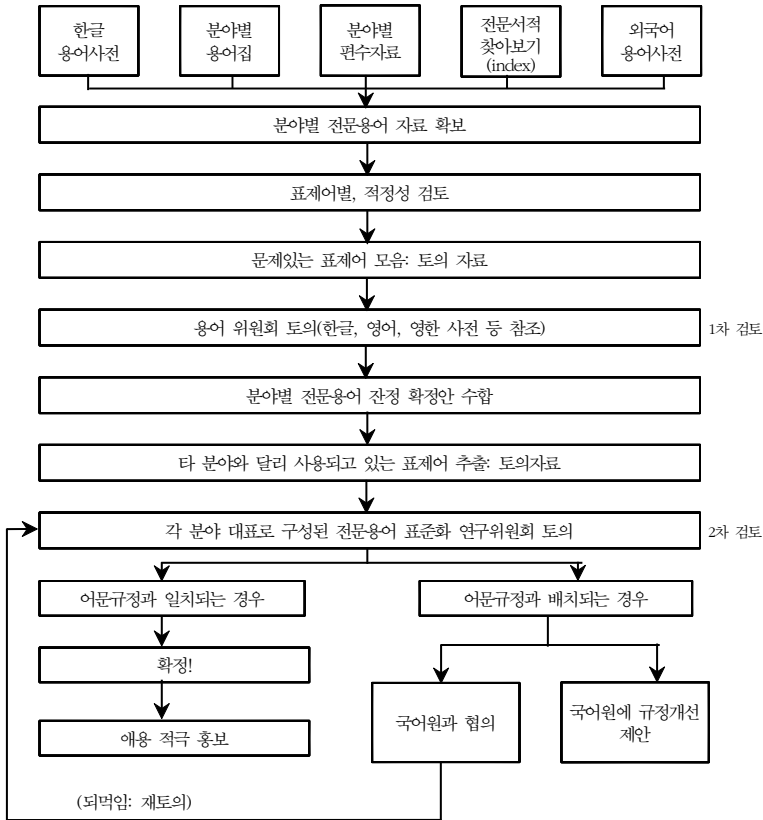
보기: 핸드폰/handphone ⇒ 손/휴대 전화

3) 부득이 외국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20 www.HanGeulSegye.com/SuiUnPioGiBeob.htm 참조.

21 참고문헌 리의재(1999b~2005d)를 참조. 모든 내용문은 www.issuetoday.com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리의재'를 치면 나타나는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도표 1〉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술적 접근



가) 고유명사일 때, 정확한 외국어 표기규정이 만들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어를 로마자(표기)로 먼저 적고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대괄호(격쇠표) 안에 병기한다.

보기: Poison[뱀썩], Berlin[베를린], Italia[이탈랴]

나) 로마자/원어 없이 한글표기를 할 때에는 원음을 빗쓰기(italicization)로 구분 타자하거나, 손으로 쓸 때는 격쇠표 또는 따옴표로 묶어 적어서 우리말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보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다) 일반명사로서 꼭 필요한 경우, 대응되는 한국어를 먼저 제시하고 원어는 괄호 안에 로마자(표기)로 병기하고, 속어(구 또는 절)인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주되, 반복하여 쓸 때에는 원어 표기를 생략해도 좋다.

보기: 포복(slip), ‘가진 자의 책무[noblesse oblige]’

5.3. 남북 어문규정의 차이 극복방안

학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합리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므로, 규정의 차이는 학문적 탐구와 미래지향적 태도로부터 그 극복방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없거나 박약한 주장만으로는 학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토론에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다수가 수용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도 합의/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서로를 포용하고 양보하는 어진 마음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항상 유연하고 경계해야 할 점으로, 우리가 협력/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주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6. 맺는 말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 말글살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 겨레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기하였다. 외국어 선호현상, 전문용어, 어문규정 및 남북 언어 이질화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보기를 들어 그 심각상도 보였다. 그리고 공생의 기본철학을 앞세워 이들을 원만히 해결 짓기 위한 근본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결론으로는 내부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한글체계를 바탕으로 국제적 교류증진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려는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며 미래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단제 시대처럼 세계적 지도국가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재일(2000)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국어생활』 10권 4호.
- 김기중(1999) 『언어문자의 전사표기론』, 반도.
- 김교헌, 이민수 역주(1994) 『신단실기』, 한뿌리.
- 김교헌, 고동영 역주(1992) 『신단민사』, 한뿌리.
- 김동춘(1986) 『천부경과 단군사화』, 가나출판사.
- 김복문(1996)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무역출판사.
- 김부식, 이병도 역주(1989)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 김세중(200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청회 발표 論文[논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김진용 외(2003) 『전문용어 정리와 표준화 추진방향』, 한국 과학기술 정보원.
- 김혜숙(2001)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표기의 통일」, 『영어학』 1권 3호, 한국 영어학회.
- 계연수 편, 김은수 역주(1991) 『환단고기』, 기린원.
- 남신(2000) 『말 잘하려면 국어부터 잘하고 외국말 잘하려면 한국말부터...』, 리수.
- 라동현(1993) 『중국 북방 동이족과 조선상고사』, 흥문당.
- 리의재(1996a) 「On the Romanization of Korean」, SICOPS'96 논문집, 제1회 서울 국제 음성학술 대회, 대한 음성학회.
- 리의재(1996b) 「공유하는 삶, 더불어 사는 이웃」, 『월간 세라믹스』.
- 리의재(1996c)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하여」, 『말과 글』 69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1997a) 「국어의 로마자 “쉬운 표기법” 일람표」, www.HaGeulSeGye.com.
- 리의재(1997b) 「사용하기 쉬운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말과 글』 71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1997c) 「실용적인 국어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조사」, 문화체육부, 보고서.
- 리의재(199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인식조사와 쉬운 표기법을 위하여」, 논문집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집, 한국어 표기법 연구회.
- 리의재(1999a)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 쉬운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각도 검증」, 『신과학 연구』 제1집, 대전대학교 신과학연구소.
- 리의재(1999b) 「외국 전문기술 용어의 사용과 연구 분위기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 1999년도 한국 재료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 리의재(1999c) 「국어의 쉬운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각도 검증, 『말과 글』 78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0a) 「국어의 쉬운 로마자 표기법의 올바른 개정시안 만들기」, 문화관광부 주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공청회(2차) 발표 論文[논문].
- 리의재(2000b) 『세계화의 길목에서 공상으로부터 실행으로』, 울타리 없는 모임.
- 리의재(2001a) 「외국어 용어를 빨리 순화」, 『말과 글』 제86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1b) 「외국어 대신 우리말 찾아쓰기」, 『말과 글』 제87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2a) 「한글세계화의 전제조건」, 『Digital POST』 9월호, 정보통신부.
- 리의재(2002b)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로서의 금속/재료 용어에 관하여」, 『재료마당』 15권 6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2c) 「세계수준 촉구, 그러나 유감스러운 우리 말글살」, 『말과 글』 92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2d) 「과학기술용어 통일은 국가발전의 주춧돌 ; 외국용어의 우리말 정착 시급」, 『과학과 기술』 36권 11월호, 한국 과학기술 단체 총 聯合會.
- 리의재(2002e)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2)」, 『재료마당』 15권 7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2f)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3)」, 『재료마당』 15권 8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3a)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4)」, 『재료마당』 16권 1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3b) 「어문 규정의 일부 모순점과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말과 글』 제 95호, 한국어문 교열기자 협회.
- 리의재(2003c)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5)」, 『재료마당』 16권 2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3d)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6)」, 『재료마당』 16권 3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 외(2003e) 「남북공동 과학기술 용어집: 금속공학」, 한국 과학기술 총 聯合會.
- 리의재(2003f)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7)」, 『재료마당』 16권 4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3g)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8)」, 『재료마당』 16권 5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3h)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9)」, 『재료마당』 16권 6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4a)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10)」, 『재료마당』 17권 1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4b)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11)」, 『재료마당』 17권 2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4c)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12)」, 『재료마당』 17권 3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4d)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로서의 금속/재료 용어에 관하여(13)」, 『재료마당』 17권 5호, 대한 금속학회.
- 리의재(2004e) 「생산기술 발전의 기반인 전문용어 표준화의 기본원칙」, 『말과 글』 98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4f) 「발음위주 표기 어문규정의 모순」, 『말과 글』 99호, 한국 어문교열 기자협회.
- 리의재(2004g) 「환경박막 기술」, (주)도서출판 Book's Hill.
- 리의재(2005a) 「말글살이의 우선순위」, 『말과 글』 102호, 한국어문 교열기자 협회.

- 리의재(2005b)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로서의 금속/재료 용어에 관하여(14)」, 『재료마당』 18권 1호, 대한 금속재료학회.
- 리의재(2005c) 「개정 표기법의 실효성 점검」, 『말과 글』 103호, 한국어문 교열기자 협회.
- 리의재(2005d) 「[용어산책] 과학기술 용어로서의 금속/재료 용어에 관하여(15)」, 『재료마당』 18권 3호, 대한 금속재료학회.
- 림균택(1993) 『한철학 사상사』, 문경출판사.
- 문화관광부(2000a) 『로마자 표기 용례사전』. 국립 국어연구원.
- 문화관광부(2000b)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 제2000-8호,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부(1996) 『어문정책 자료집』.
- 박문기(2001) 『한자는 우리글이다』, 도서출판 양문.
- 박문기(1987) 『맥이』, 전신세계사.
- 박제상, 김은수 역주(1986) 『부도지』, 가나출판사.
- 박창범(1995), 『인간과 우주』 가람기획.
- 반재원(2002) 『한글의 세계화 이대로 좋은가!』, 한배달.
- 복애자, 심학균 역(1975) 『규원사화』, 명지대학출판부.
- 소준섭(1997) 『서양보다 앞선 동양문화 91가지』, 산하.
- 손목(2003) 「계림류사」, 계림류사 900주년 기념 고려조어 연구 국제 학술대회, 서울 명지 건물(building).
- 송호수(1983) 『한민족의 뿌리사상』, 기린원.
- 안호상(1992) 『겨레 역사 6천년』, 기린원.
- 오재성(1997) 『밝혀질 우리 역사』, 리 민족사 연구회.
- 오재성(1990) 『동이문자(속칭 한자) 옛 음과 작법』, 리 민족사 연구회.
- 유만근(1992) 『한글로마자 대조표기 서울말 발음 독본』,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 유만근(2000) 『중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새 국어생활』 10권 4호.
- 이기동·신현숙 옮김(1996) 『언어학 개론』, 한국 문화사.
- 이미수(1992) 『대한 만년 정통사』, 도서출판 성동문화.
- 이병도와 최태영(1989) 『한국 상고사 입문』, 고려원.
- 이상억(1994) 『국어 표기 4법 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 국어생활, 7권 2호.
- 이성구(1998) 『훈민정음 연구』, 훈민정음 연구소.
- 이중재(1997) 『새 고려사』, 명문당.
- 이현복(1998) 「로마자 표기법의 실상과 허상」,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권, 한국어 표기법 연구회 논문집.
- 이현복 외(1997) 『한글 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인터넷 국어교육 연구소(2000), 『문장 바로 쓰기』, 국어 닷 컴.

- 일연, 이민수 역주(1990)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 임승국 번역(1997)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 정경일(200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인식과 교육실태」, 『이중 언어학』 18호.
- 정연종(1996)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조이정 인터내셔널.
- 정용석(1997)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 동신출판사.
- 정인지 외, 박시형 외 역주(1997) 『고려사』, 신서원.
- 조남호(2003) 「한국 학술용어의 한글표기 원칙」, 2003년도 한국 학술단체 연합회, 정기 학술대회 및 공청회.
- 최용기(2001) 『국어순화 자료집 2001』, 국립 국어연구원.
- 최현배(1999) 『한글만 쓰기의 주장』, 정음문화사.
- 한국고대사 연구회 편(1996)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신서원.
-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1998) 『영한·한영 과학기술 용어집』.
- 한국역사 연구회 고대사분과(1994) 『문답으로 엮은 한국고대사 산책』, 역사비평사.
- 한소리(2002) 『우리의 소원은 한글날 국경일이오』.
- 허웅(1999)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 허철구(2000) 「성의 로마자 표기방안」, 『새 국어생활』 10권 4호.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

문 영 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5년 2월 조국광복60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금강산에 모여 민족어통일대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편찬할데 대하여 약속하고 《겨레말큰사전》북남공동편찬위원회결성을 내외에 알리는 결성식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그에 뒤따라 제1차편찬위원회를 금강산에서(2005년 2월 21일), 제2차위원회를 평양에서(2005년 7월 10일), 제3차위원회를 서울에서(2005년 8월 16일) 가지고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요강과 작업요강 여러건을 합의발표하고 북과 남에서 본격적인 사전편찬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본 《겨레말큰사전》북남공동편찬의 언어학적의미와 그것이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에서 노는 역할문제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것이 이 논문의 기본취지이다.

1. 현시기 우리 말의 동질성과 이질성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개념은 사물현상의 질적상태가 하나로 유지보존되는가 아니면 둘이상으로 분화되는가를 식별하는 성질을 표현한다. 오늘 우리 말의 경우에도 하나의 《겨레말》로 남아있으면 이질화되지 않고 동질성이 보존된것이고 《조선어》(평양말), 《한국어》(서울말), 연변말(중국식조선

말), 고려말(로씨야식조선말), 코레안(유럽식조선말)으로 분화되었다면 《겨레말》의 동질성은 파괴되어 이미 이질화된것이다.

1.1. 오늘의 조선말은 이질화되지 않은 하나의 겨레말이다.

오늘 북과 남, 해외에서 쓰는 우리 말과 글은 《차이》의 한계를 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질화》된것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일부 있으나 그것은 현상적인것이고 질적상태에서 볼 때 현시기 우리 말은 이질화되지 않았다.

일반언어학에서 공인된 언어구조적지표로 보거나 언어교제의 지표를 놓고 분석 평가할 때 우리 말은 이질화되지도, 분열되지도 않았으며 동질성이 유지보존되고있다고 명백히 말할수 있다.

1.1.1. 일반언어학의 언어구조적지표

① 기본어휘체계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말에서 기본어휘체계는 철저히 유지보존되고있다. 우리 말에서 기본어휘체계는 철저히 민족고유어로 이루어져있으며 그것은 어휘구성론적, 단어조성론적, 언어기능적측면에서 기초를 이룬다. 일반언어학에서는 기본어휘와 문법구조가 가장 견고한 언어현상으로 알려지고 공인되어왔으며 우리 말에서는 특히 그것이 한자말과 외래어를 비롯한 외래적요소가 상반되는 민족고유어체계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그 견고성은 보다 강하다. 오늘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자연과 사회, 사람의 사유활동을 반영한 민족고유에 기초한 기본어휘-례하면 《사람, 하늘, 땅, 바다, 눈, 비, 바람, 머리, 얼굴, 눈, 코, 살다, 좋다, 나쁘다, 가다, 오다, 크다, 작다...》와 같은 기본어휘를 쓰지 않거나 달리 쓰는 현상을 찾아볼수 없으며 그에 토대하여 새말을 조성, 파생시켜 어휘구성을 풍부화시키는데서 차이점을 찾아볼수 없다.

민족고유어에 토대한 우리 말 기본어휘체계는 수천년동안 우리 인민이 공동으로 창조하고 가꾸어 풍부화시킨 우리 말 유산으로서 그것은 이질화되지도, 될수도 없는것이다.

② 문법구조

매개 민족어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도 문법구조이고 또 가장 오래동안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문법이다. 우리 말 문법구조는 문법적의미를 가진 교착물(토 또는 《조사, 어미》)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으로서 오랜 역사적기간에 그리고 시대마다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거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보존, 정밀화되어 왔다. 현시기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말 문법역시 문법해석에서 리론적차이는 있어도 그 어떤 본질적변화는 없다.

③ 음운체계

조선사람의 고유한 발음토대에 의하여 형성된 음운체계는 오늘 북과 남의 사람들이나 해외 그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조선사람이라면 누구 다 같이 인식하는 40개의 음운이다. 발음과 문자표기에서는 변화와 차이가 있어도 음운의 변화나 이질화는 있을수 없다.

④ 민족글자

민족글자는 민족어의 주요구성부분이며 음성언어의 유일한 표현수단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글자체계내부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있어도 고유한 음운체계를 표현하는 민족글자는 변하지 않는다. 문자개혁, 철자법변화, 국문전용과 한자병용, 외국글자혼용 등과 같은 인공적인 작용은 있을수 있어도 민족어음운에 대응되는 문자체계는 변화지 않는다.

이상의 4개요소 즉 기본어휘체계, 문법구조, 음운체계, 민족글자는 해당 민족어의 본질적속성이며 민족적특성을 이루고 계승발전하는데서 기본 언어적수단, 언어

적실체로 된다.

때문에 이 4개요소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언어의 동질성은 절대로 파괴되지도, 이질화되지도 않는다. 우리 말과 글이 지난 100여년간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의 세파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을 굳건히 고수하면서 이질화되지도, 분열되지 않은 언어구조적요인은 바로 민족고유어에 기초한 기본어휘체계와 문법구조, 음운체계, 민족글자를 북과 남이 다같이 변함없이 고수하고 써왔기 때문이다.

1.1.2. 언어교재의 사회언어학적지표

① 언어동화지표

민족어 또는 종족어들의 이질화와 사멸과정은 다른 언어에 의한 동화에 의하여, 강제적방법에 의하여 빚어진다. 과거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과 오늘 《세계화》책동에 의한 《영어화》가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다. 이때 일질화, 동화의 사회언어학적기준은 해당 종주국의 언어에 의한 약소민족의 언어의 《먹힘률》 즉 어휘, 어법, 억양에서와 언어사용빈도와 교제기능에서 어느쪽의것이 더 우세한가를 관정하여 얻은 비율에 의하여 평가된다.

우리는 《세계화》의 책동에 의한 영어와 영문자 침투를 철저히 막았을뿐 아니라 과거 일제가 그토록 악착하게 감행한 조선민족어말살책동의 후과도 철저히 가셔냈다. 그리하여 지난 100여년이상 감행된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동화책동은 철저히 저지파탄되고 우리 말의 순결성은 확고히 보장되었다.

② 언어규범화지표

언어규범화는 언어시책의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언어와 언어생활변화에 크게 작용한다. 광복후 60년간 북과 남, 해외에서 서로 다른 언어시책에 의한 언어규범화가 실시된 결과 글자사용, 맞춤법, 어휘의미와 표기, 외래어사용과 표기, 띄어쓰기, 발음법, 문장부호법 등에서 큰 차이를 빚어냈다.

이것이 우리 민족어의 동질성보존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작용을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언어규범화로 하여 우리 말이 이질화되었는가 하는것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회언어학적인 방언수평화지표에 대한 평가이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어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언어규범화가 장기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기초방언들의 차이가 지역방언들의 차이보다 큰가, 작은가를 입말수단에 의하여 평가한다음 그것이 크면 이질화되었고, 작으면 동질성이 유지된것으로 보고있다. 이 원리를 우리 말에 적용하면 오늘의 평양말(문화어)과 서울말(표준어), 연변말(중국식조선어)의 호상 차이가 우리 나라의 동북방언, 동남방언, 서북방언, 서남방언, 중부방언, 룡진방언, 제주방언들사이의 차이보다 더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를 계측평가하는것이다.

시험수치계산에 의하면 결코 오늘의 평양문화어와 서울표준어와의 차이가 룡진방언, 동북방언, 서북방언 등과 제주방언, 남부방언들과의 차이보다 훨씬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방법은 철저히 입말비교에 한정된것이기때문에 서사방식과 글말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대화문 장애지표

북과 남의 겨레가 서로 편지한장 인사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채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 만나도 아무런 장애없이 말이 오가고 대화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부터 출발하여 어느 정도의 언어장벽이 가로 놓이는가에 따라 대화문 장애지표가 설정평가되는데 오늘 북과 남의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에서는 일부 어휘 특히 외래어에 의한 장애밖에 제시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화과정에 통역을 쓰지 않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실상 어감, 말투, 개별어휘, 억양에서의 차이에 불과한것이다.

이 지표 역시 서사문이나 글말은 제외되고 입말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이다.

1.2. 북과 남의 언어차이는 매우 심하며 그것은 우리 말의 이질화를 가져올수 있는 위험성을 조성하고있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 말이 동질성이 유지되고있는 언어학적근거에 대하여 다시 말하여 북과 남의 사람들이 완전히 격폐된 상태에서 60년이 흘렀지만 스스로없이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원인에 대하여 언어리론적으로 해부하였다. 이것은 결코 북과 남의 언어차이가 크지 않으며 무시될수 있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지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오늘 북남의 언어차이는 대단히 크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수천년 하나의 민족어로 발전하던 우리 겨레말이 둘로 갈라져 민족분열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언어학자들의 시각으로 북남의 언어생활과 언어규범실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놀랍게도 북남의 언어차이는 수백가지 항목에서 나타나고있다. 가장 초보적인것만 보아도 소학교 학생들의 국어교과서 첫머리에서 맞다드는 자모수, 자모차레, 자모 이름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어체계전반에 나타나고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에서 나타나고있는 언어규범상의 차이를 자료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2.1 자모자의 차이

(1) 자모자수에서의 차이

북: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21개)

자음자: ㄱ, ㅋ, ㆁ, ㄷ, ㄸ,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ㅠ, ㅡ,
ㅗ, ㅛ, ㅜ, ㅠ, ㅡ, ㅣ (19개)

자모자계: 40개

자모자계: 24개

1.2.2. 맞춤법의 차이

(1) 형태부적기에서 서로 다른것

① 물음을 나타내는 형태부의 적기에서 다른것

북: -르가, 르소냐, 르손가, 르고

남: 르까, 르쏘냐, 르쏸가, 르꼬

② 말뿌리에 뒤불이 《이》가 붙어 명사가 되는데서 다른것

북: 오토기, 푸서기, 살사리

남: 오횇이, 푸석이, 살살이

③ 말뿌리에 뒤불이나 토가 붙을 경우에 다른것

북: 길죽이, 길직하다, 아릿답다

남: 길쭉이, 길찍하다, 아리맏다

(2) 합성어의 적기에서 다른것

① 형태와 표음에 따라 서로 달리 적는것

북: 가랑이, 금이, 송곳이

남: 가랑니, 금니, 송곳니

② 사이시옷소리의 적기에 의하여 차이나는것

북: 가게방, 가위밥, 거불

남: 가갸방, 가윳밥, 갸불

(3) 준말의 적기에서 다른것

① 모음으로 끝난 말뿌리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뒤불이와 어울려 소리가 줄어든 경우에 다른것.

고이여 보이여 쓰이여

북: 고여 뵈여, 보여 씌여

남: 괴어, 궤어 뵈어, 뵘어 썌어, 썌어·썌여

② 말줄기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깨끗치 않다. 섭섭치 않다. 생각컨대

남: 깨끗지 않다. 섭섭지 않다. 생각건대

(4) 한자어의 적기에서 다른것

① 한자어에서 모음 《에》가 들어있는 음절의 적기에서 달리 적는것

북: 개폐기, 금속화폐, 밀폐

남: 개폐기, 금속화폐, 밀폐

② 한자어 《나,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녀류, 녀자, 년간

남: 여류, 여자, 연간

③ 한자어 《라, 러, 료, 류, 리,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렬차, 량심, 살륙

남: 열차, 양심, 살육

④ 한자어 《라, 로, 루, 르, 래, 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라, 로임, 루락, 래일, 뢰관

남: 나사, 노임, 누락, 내일, 뇌관

⑤ 한자어 《렐, 룰》이 모음이나 《ㄴ》받침뒤에 오는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규룰, 대렐, 분렐, 선룰

남: 규율, 대열, 분열, 선율

⑥ 한자어에서 같은 음절이 본음으로도 발음되고 변음으로도 발음될 경우에 달리 적는것

북: 곤난, 망녕, 론난, 망녕되다

남: 곤란, 망령, 논란, 망령되다

(5) 일부 고유어의 적기에서 다른 것

북: 널판지, 날자, 손벽, 안간힘, 닭알, 소고기

남: 널빤지, 날짜, 손뻥, 안간힘, 달걀, 쇠고기

1.2.3. 어휘표기의 차이

(1) 어휘정리과정에 북과 남에서 달라진것

① 한자어정리에서 달라진것

본래말: 객토 내파음 범선

북: 흙갈이, 깔이흙 속터침소리 돛배(범선)

남: 객토, 탄흙 단음소리 돛단배(범선)

② 외래어정리에서 달라진것

템뿌라 윈피스 케이프

북: : 기름튀기 달린옷 날개옷

남: : 튀김 통옷 케이프

(2) 문화성과 관련하여 달라진것

① 《개》와 관련하여 달라진것

북: 들이마, 갯도요, 향오동

남: 개아마, 개도요, 개오동

② 《젓-젓》과 관련하여 달라진것

북: 노젓(노구멍을 얹어놓는 쇠못) 잡젓(쟁기의 몸의 손잡이 나무)

남: 낫젓 잡젓

③ 《지지-자주》와 관련하여 달라진것

북: 자주빛, 자주(紫朱) 자주물(자주색의 물감)

남: 자줏빛 자주, 자지 자줏물

④ 기타 상스러운 말(쌈, 불알, 오줌, 똥)과 관련하여 달라진것

북: 골무단추, 자낭화, 소응두리(소의 정갱이뺨) 잔잎쭉

남: 개쌈단추, 개불알꽃, 개쌈응두리, 개똥쭉

(3) 합성어의 표기에서 달라진 것

북: 큰아버지, 찻눈, 구기자, 구기자고, 계측기

남: 큰-아버지, 찻-눈, 구기-자, 구기자-고, 계측-기

1.2.4. 문법규범의 차이

(1) 문법용어에서 다른것

① 형태론적측면에서 다른것

북: 속격 대격 형태부

남: 관형격(속격) 목적격(대격) 형식형태소

② 품사론적측면에서 다른것

북: 수량수사 단위명사 비활동체명사 활동체명사 차례수사

남: 량수사 단위성의존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 서수사

③ 문장론적측면에서 다른것

북: 규정어구 규정어 직접보어 술어 추김문 문장론

남: 관형구 관형어 직접목적어 서술어 청유문 통사론(문장론)

(2) 학술적견해와 내용에서 다른것

① 토에 대한 견해와 내용에서 다른것

북: 토, 격토, 도움토, 이음토, 규정토, 맺음토

남: 조사, 격조사, 보조사, 연결어미, 관형사형어미, 종결어미

② 문장성분의 설정에서 다른것

북: 주성분(주어, 술어) 부성분(보어, 상황어, 규정어) 외단성분

남: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성분(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상의 자료는 언어규범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것들이고 어휘와 의미, 외래어표기, 발음과 억양,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에서의 차이들을 비롯하여 언어구조와 언어생활전반에 걸쳐 조사분석하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것이다.

2. 《겨레말큰사전》의 의미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가 대대로 창조하고 북과 남이 다같이 써온 민족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북과 남의 언어적차이도 그에 기초하여 단일화한 민족어대사전이다.

오늘 우리 말이 하나의 민족어로서의 단일성과 순결성을 지켜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길은 고유조선말을 기초로 하여 말과 글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고유조선말은 민족어의 동질성을 이루는 기본 언어수단이다.

《겨레말큰사전》이 민족어의 동질성을 살리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언어적차이를 줄인다고 할 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쓰는 민족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북남이 차이나는 언어현상은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것이다.

북과 남, 해외에서 쓰고있는 우리 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겨레말큰사전》편찬의 시각으로 보면 《동질성=민족고유어》, 《이질성=외래적요소+지역적차이》라고 형식화될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민족어의 동질성은 살리고 민족어의 차이와 이질성은 동질성에 융해시켜 하나의 겨레말사전을 엮어내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2.1.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어의 동질성을 살리는 사전이다.

2.1.1. 우리 말 사전의 분석종합

광복후 북과 남, 해외에서 지금까지 편찬발행한 우리 말 사전들을 비교분석한 다음 공통적으로 쓰이는 고유어, 우리 말로 굳어진 한자말, 외래어들을 종합체계화하는것이다. 지금까지 사전편찬집단이 이 작업을 해온데 의하면 기본어휘체계에 속하는 민족고유어 100%로 공통인수로 얻어지고있다.

래: 높다, 낮다, 가다, 오다, 하다, 붙다, 잘, 더, 꼭, 하나, 둘, 학교, 공업, 펜, 컴퓨터(컴퓨터)

2.1.2. 고유어유산의 수집정리

지금까지 우리 말 사전들에 오르지 않은 인민들속에 묻혀있거나 쓰고있는 수많은 고유어들을 전면 조사발굴하여 정리하는것이다.

－ 문헌자료들에 쓰인 새말과 고유어

- 작가, 시인들이 문예작품들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썼거나 새롭게 만들어 쓴 어휘

례: 알락지, 거마우리하다. 어림치다, 꼬리번

- 과학자, 전문가들이 각종 전문도서, 논문들에서 새롭게 만들어썼거나 대중들이 쓰는 입말을 서사어로 등록한 어휘와 술어표현들

례: 바람날개, 단군틀, 손칼, 까나리, 호미씻이...

－ 언어현장에서 지역적으로나 부문별로 많이 쓰이는 지혜롭고 귀중한 입말고유어들을 전면 조사정리한다.

- 방언 복과 남이 방언조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 지금까지 조사등록되지 못한 좋은 고유어방언들을 찾아 심의정리한다.

례: 장재기(땀나무), 거러지(거지), 먹통(귀머거리)

- 재래식 물고기잡이

례: 통살, 갯살, 끝화리, 수물, 강도낙시

- 산짐승사냥

례: 디디개창, 지게코, 물코, 덧틀, 벼락틀

- 동식물의 이명과 속칭

례: 향알치, 알방개, 떡붕어, 닭개비, 산콩

- 민속적인 로동도구, 놀이, 복장, 음식, 주택, 부업세간, 가구, 관혼상제 등에서 쓰는 고유어

례: 보귀, 더팽이, 딸각방아, 꽃다림, 부름패기, 올챙이묵, 칼제비국수, 사슬이영, 까치구멍, 신방엿보기

- 장사군들속에서 쓰는 말

례: 허리꺾기, 몰아치기, 뺨뺨기, 외돌이, 딱지

2.2. 북과 남의 언어적차이는 우리말의 민족적특성을 고수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단일화한다.

2.2.1. 절대적단일화대상

하나의 언어학사전을 만들자면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언어규범, 언어현상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전을 만들수 없는것들이다. 이것을 절대적단일화대상이라고 한다.

례: 자모차레,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사전부호 등

2.2.2. 상대적단일화대상

하나의 대상, 현상에 대하여 북과 남이 서로 다르게 쓰는 언어현상과 언어규범가운데서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아도 사전을 엮을수 있는것들이 많다. 이러한것들을 상대적단일화대상이라고 한다.

례: ㄱ) 늑다(북)/싸다(남), 일없다(북)/괜찮다(남), 인민(북)/국민(남), 낙지(북)/오징어(남)

ㄴ) 콤퓨터, 전자계산기(북)/컴퓨터, 전산기(남), 지주(착취자-북)/지주(땅의 주인-남), 교양(북)/교화(남)

ㄷ) 제대군인(북)/재향군인(남), 군사분계선(북)/휴전선(남), 흠어진가족(북)/리산가족(남)

언어의 통일을 위한 목적에서 만드는 《겨레말큰사전》에서 북남의 언어적차이를 그대로, 다시말하여 복식으로 올려 민족어분렬을 고착시키는 일은 절대로 할수

없다. 북과 남의 언어교제에 도움을 준다는 의도에서 서로 다르게 쓰는 말을 그대로 사전에 올리면 그것은 통일사전이 아니라 분렬사전이다. 이것은 《겨레말큰사전》편찬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에서 레로 든 ㄱ) 항목의 어휘부류는 어휘표현과 관습의 한계에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줄수 있고 ㄴ) 항목의 어휘부류는 표기상통일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으로 합의선정할수도 있다. ㄷ) 항목의 어휘부류는 우리 말 통일사전에서 절대로 복식으로 올려서는 안되고 북의 말다듬기와 남측의 국어순화를 거쳐 단일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겨레말큰사전》의 의미를 튼곽적으로 해부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

첫째,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어유산을 전면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집대성한 겨레말총서이다.

둘째, 《겨레말큰사전》은 북남의 언어적차이를 언어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하나로 단일화한 통일사전이다.

셋째, 《겨레말큰사전》은 북과 남의 우리 말 사전들을 기계적으로 합쳐놓거나 차이나는 언어현상을 그대로 다 반영하여 언어분렬을 고착시키는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화해와 협력, 호상리해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는 6·15시대의 겨레말사전이다.

3. 민족어의 통일적발전과 《겨레말큰사전》의 북남공동편찬

조국통일에 앞서 언어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이고 념원이다. 력사적인 6·15평양상봉과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에서는 그 이전시기에는 생각할수조차 없었던 획기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흐름은 북남의 언어적차이를 줄이고 민족어의 단일성을 고수발전시키는데서도 실질적이고 확신성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웅당한 요구를 제기하고있

다. 언어분야에서 겨레의 념원과 6·15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것이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사업이다.

오늘날 민족어통일사전편찬사업이 겨레의 단합과 통일, 민족문화의 통일적발전에 어떤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겨레말큰사전》의 북남공동편찬이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데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1)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은 북남간의 언어적차이와 언어생활실태를 조국광복후 60년만에 처음으로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로출시켜놓고 심의평가할수 있는 력사적인 언어실천작업이다.

지금까지 북과 남, 해외의 개별적인 언어학자 또는 학술집단이 개별적인 목적과 의도에서 북과 남의 언어비교나 언어차이를 조사연구한 자료와 저술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차이의 전모와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북남공동편찬사업은 그 사업 자체의 목적과 특성으로부터 어휘, 의미로부터 글자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의 차이와 특성을 다 조사하여 함께 내놓고 심의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언어학분야에서 광복후 60년만에 처음이며 그것은 분명 언어통일을 위한 첫걸음에서 언제건 꼭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차이를 없애자면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통일을 이루자면 통일되지 않은 것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일은 분명히 민족어통일에서 하나의 력사적인 사업이다.

2) 《겨레말큰사전》북남공동편찬사업은 조국광복후 60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언어실태를 전면 조사, 발굴,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언어는 문화의 형식이다. 반세기이상 북과 남이 서로 제도와 리념이 다른 사회에서 그 어떤 사소한 언어교류조차 막혀버린 상태에서 살아오는 과정에 언어문화에서도 많은 차이가 생겼다. 언어문화의 차이는 주로 부름말, 인사말, 사물현상에 대한

표현과 정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겨레말큰사전》북남공동편찬은 북과 남의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언어표현과 방언을 비롯한 입말들을 수집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문화의 차이를 전면적으로 로출시키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언어학적방도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것은 우리 말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겨레의 공통된 언어문화와 언어의식을 깊이 새길수 있게 하며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문화적바탕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3)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에서 《겨레말사전》북남공동편찬이 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말의 동질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갈수 있는 힘있는 수단을 가질수 있게 된것이다.

지금 북남의 언어차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감각으로 보면 60년만에 북과 남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도 아무 거침없이 말이 통하니 북남의 언어적차이란 별것이 아니라고 보는가 하면 문헌어에서 나타나는 250항목이상의 심각한 언어규범상의 차이를 놓고는 과연 그것을 하나로 단일화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와 회의감을 가진다. 바로 이 두가지 상반되는 측면에서 앞의것은 《동질성》이고 뒤의것은 《차이》이다. 여기에서 동질성은 살리고 차이는 동질성에 융해시키는데것이 《겨레말큰사전》편찬의 근본원리이다.

우리는 오늘에 와서 것처럼 북남간의 언어적차이가 심각한데도 서로 만나면 스스럼없이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 언어적바탕-겨레말의 동질성의 실체를 정립하게 된다. 눈으로 볼수 있고 한손으로 만져볼수 있는 겨레말의 생명인 《동질성》의 실체가 바로 《겨레말큰사전》이다.

이것만 튼튼히 틀어쥐면 아무리 북남간에 수백항목에 걸치는 심각한 언어적차가 있다하여도 그것을 언어적으로 해소시킬수 있다. 왜냐하면 겨레말의 동질성은 수천년에 걸치는 긴 력사적과정에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창조되고 언어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발전풍부화된것이라면 북남간의 언어적

차이는 몇십년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언어외적요인에 의하여 빚어진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회문화적현상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지혜와 자주적요구에 따라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언어현상도 절대로 어느 한 시기 인공적으로 가해진 비언어적간섭에 따라 그 발전방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말 발전의 합법칙성, 민족어의 동질성을 집대성하는 언어학총서인것으로 하여 6·15시대를 대표하는 민족어대사전으로 완성되어 우리 말 발전과 문화창조에 훌륭히 기여할 것이다.

조선고대유물론의 기본범주인 《기》에 대하여

변 정 압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 동방일각에 보기도문 문화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린 재능있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철학적사유의 발전사도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인민은 고대에 《기》를 기본범주로 하는 유물론을 비롯한 철학사상들을 제가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으며 자주적인 삶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고대유물론의 기본범주인 《기》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우리 나라고대 철학과 나아가서 철학사전반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기》개념의 출현

《기》에 대하여 전하는 옛 문헌자료로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지》, 《론형》 등 여러건이 있다.

《삼국지》는 고리국(단군조선의 소국으로서 후에 부여로 발전한 나라)전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옛날 북방에 고리국이 있었는데 그 왕이 데리고있던 시비가 임신을 하였다. 그 녀자를 죽이려고 하니 시비가 말하기를 <닭알과 같은 기가 있어서 아래로 나에게 내려왔다. 따라서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후에

아들을 낳으니 왕이 그 애를 돼지우리에 버렸다. 돼지들이 입김으로 덮혀주고 말우리에 놓으니 코김으로 덮혀주어 죽지 않았다. 왕이 천자가 아닌가 이상히 여겨 그 어머니에게 카우도록 하였는데 이름을 동명이라고 하였다.》¹

여기에서 《기》 개념과 관련하여 음미해보아야 할 부분은 《닭알과 같은기》(氣如鷄子)와 입김, 코김에 관한것이다.

필요상 입김, 코김에 대한 문제부터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설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동명이 왕의 박해속에서도 죽지 않은것은 돼지와 말(물론 이것은 력사학적으로 볼때 돼지나 말로 대표되는 종족 혹은 정치세력이라고 단정할수도 있을것이다.)이 입김, 코김을 불어 덮혀 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입김과 코김이 바로 생명과 밀접하게 련관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입김, 코김은 생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생명문제, 생명의 근원에 대한 문제는 일찌기 원시인들속에서 논의되었다.

초기에 원시인들은 쉽게 직관할수 있는 구체적인 인체조직들 레하면 눈동자, 피 나아가서 심장같은것들을 생명활동의 주요인자로 간주하였으며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회적실천이 증대되고 자기자신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생명에 대한 리해도 전진하였다. 원시인들은 장기간의 생활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로부터 인간의 삶과 죽음이 눈동자나 피와 같은 외상적요인보다는 호흡이라는 가늠할수 없는 어떤 기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사실 사람은 피를 어느 정도 흘려도 살수 있지만 숨이 끊어지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것이다. 이러한 직관적사실은 오늘이나 아득한 옛날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1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원시시대에 생명은 호흡 즉 숨을 의미하였다.

생명의 고유명사는 《목숨》이다. 《목숨》이란 목에 붙어있는 숨 즉 호흡을 가리킨다.²

원시인들은 당대의 통례적인 사고방식대로 호흡-생명의 근원을 령혼이라는 신비적인 실체에 기탁하여 설명하였다.

그들에게서 령혼의 존재는 모든 불가사의한 현상의 유일한 해석자였으며 따라서 그들이 주되는 관심사였던 생명의 근원을 령혼에 귀착시킨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우리 민족이 태고시기부터 호흡, 생명의 근원을 령혼으로 보았다는것은 원시말기의 인형조소품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무산 범의구석유적과 연길현 소영자무덤 등 원시말기유적들에서 나온인형들중에는 얼굴부분에 다른 특별한 형상이 없고 다만 눈, 코, 입을 의미하여 세개의 점을 찍어 놓은것들이 있다. 당시 원시인들은 기본상 우상을 필요로하여 인형을 만들었던것만큼 얼굴에 령혼의 흔적 즉 령혼이 나드는 문을 형성하는것으로 만족하였던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눈과 함께 코, 입은 령혼의 출입구, 다시말하여 생명의 근원이었다.³

원시인들의 사유속에 굳어져있는 호흡-생명-령혼의 관념적구조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점차 깨여지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고대사회가 시작되면서 령혼관념의 변화 즉 령혼소멸관념의 출현은 그러한 붕괴과정을 가속화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사람들, 고대인들의 사유수준은 생명의 근원을 매개로 하지 않고

2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목숨》의 숨은 옛말로 《후》(숨쉴 때의 소리모양)에서 유래되었다고 볼수 있다. 우리 말의 소리변화법칙에 따르면 《ㅎ》는 《ㅅ》로 변화할 수 있다. 실례로 《해》는 《새》로 변화되어 해뜰 무렵을 의미하는 《새벽》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후》는 《수》로 변화되어 《후하다》가 《수하다》로 다시 명사화되어 《숨》으로 되었다.

3 령혼을 호흡과 동일시하는것은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나타나고있다. 그리스어의 령혼을 의미하는 단어 《Psyche》는 《호흡》의 뜻이며 인디아어의 《Atman》(령혼)과 헤브라이어의 《Nesamah naphasl ruah》(령혼)도 모두 《호흡》을 가리키고 있다.

도 현실 그 자체로서 능히 가능하다고 단정할만큼 이미 성숙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고대인들은 령혼을 대신하는 새로운 존재를 내세워 미지의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입김, 코김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령혼관념에서 차츰 벗어나 현실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그들은 숨을 쉴때 코나 입을 통하여 몸밖으로 나가는 어떤 《무혈적 존재》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그것을 생명의 근원과 연관시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시한 생명의 근원적요소는 《김》이었다.⁴

고대인들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해에서 보다 현실적영역에 접근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당대인들의 해당한 사고에서 령혼의 존재가 배제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들은 생명을 좌우하는 호흡이 령혼이라는 신비적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몸안에 내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감득할수 있는 《김》(입김 혹은 코김)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간주하였던것이다.

그후 서사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김》이 가지고있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의미는 보다 일반화되어 《기》(氣)로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생명의 근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서사적으로 령혼과 더 뚜렷이 구별하려는 지향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문자인 한자를 접하여 그것을 학문연구에 적용한 당대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져보면 당시 《김》이라는 말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호흡을 통하여 밖으로 방출되거나 혹은 들어오는 기체상태의 비정형적 물질 즉 오늘날 현대인의 표상으로는 공기흐름이며 둘째는 인체에 잠재하면서 생명

4 《김》이라는 말은 《기추다》 《깃다》에서 나온 고유조성어로 예상된다. 고대인들이 입과 코를 통하여 방출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것은 일부 민족학적자료들을 통하여 류추해볼수 있을것이다. 단적인 실례로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을 지나면서 세 번 침을 뱉은 것은 자기 생명의 일부를 성황귀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한례의의 표시였다고 한다.

력으로 나타나는 에네르기 즉 기운이다.

이 두가지 의미로 하여 《김》은 장차 《기》라는 개념으로 전화될수 있었을 것이며 《기》 개념이 세계에 대한 철학적파악의 기본수단으로 정착함에 있어서 관건적역할을 놀았을것이다.⁵

《김》, 《기》의 련관성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말이 기(氣)로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고 한 《삼국지》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이처럼 《기》 개념은 생명의 근원인 호흡, 입김으로부터 변화발전한 개념이라고 말할수 있다.

고대인들이 입김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그것을 《기》로 규정한것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한걸음 전진한 견해였다.

사실 그들이 입김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았다는것 자체가 인간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및 외적요인의 통일에 대하여 감촉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존에서 필수적인 호흡(숨)은 비단 호흡기나 기도(숨길) 등 육체적 기관, 기능이 일정해야 할뿐아니라 외부로부터의《에네르기》공급 즉 공기의 보장이 동반되어야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다.

이러한 리치는 고대인들의 사회적실천속에서 자연히 파악된것인데 중요한것은 여기로부터 입김과 공기의 근원적동일성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산생된데 있다. 즉 고대인들은 인간의 육체의 안팎을 넘나드는 《김》, 《기》라는 무령의 존재가 생명 및 기타 자연사물들의 동일한 근원으로, 공통의 기초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사색했던것이다.

고대인들이 실천활동과정에 생명의 견지에서 입김(내부의 《기》)과 공기(외부

5 앞에서 언급한 《김》, 《기》를 련결하는 두가지 개념적의미는 다시 불가침투성과 가능성으로 규정할수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세계의 물질적시원으로서의 《기》개념의 내포를 형성하였다. 조선철학사에서 《기》개념의 발전과정을 고찰해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통일되어 작용하면서 《기》개념의 변화를 추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 실례로는 리규보(1168~1241)의 《자화 (自化)하는 《원기》(元氣)와 서경덕(1489~1546)의 《기자이》(機自爾)를 들수 있다.

의 《기》)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새로운 리해를 가질수 있게 된것은 세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중대한 발단이였다.

우리 민족에게서 세계의 물질적시원을 의미하는 철학적개념인 《기》는 생명문 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여 고대인들의 사회적실천이 심화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깊 어지는데 비례하면서 점차 인간과 자연의 통일적근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 한다.

2. 《기》개념의 의미

설화에 의하면 락리국왕의 시비가 임신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닭알과 같은 《기》가 하늘에서 내려온데 있다.

여기서 우선 따져봐야 할것은 《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다.

이에 대하여 《삼국유사》에는 명백히 《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⁶라고 기록 되어있다.

결국 설화에는 《기》에 대한 서로 다른 두개의 규정이 동시에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고찰한 말(혹은 돼지)이 《기로 불었다》고 한 입 김으로서의 《기》이며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 즉 《천기》이다.

설화에서 《천기》는 시비(부여왕 동명의 어머니)를 임신케 한 근본요인이며 이 때문에 《천기》는 입김으로서의 《기》에 비하여 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취급되고 있다.

당대 고대인들의 신화적사고로 볼때 하늘신이 내려보낸 《기》가 말이나 돼지의 입에서 나온 《기》와 지위상 동일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신화적으로 나타난 두 《기》의 이러한 지위상 차이는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 은 단계으로 발전한 《기》개념의 변화과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6 《삼국유사》 권 제 1, 기이 제 2, 고구려.

《기》개념은 처음에 생명의 근원인 호흡, 입김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후 철학적사유의 발전과 더불어 인체를 초월하여 자연일반의 물질적시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던것이다.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기》는 극히 신화적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벗기고 보면 《하늘의 기》, 천기는 확실히 입김이 아닌 광대한 우주자연의 《기》이며 자연과 인간을 다같이 포괄하는 그리고 양자를 하나의 근원적진대로 연결하는 (《천기》에 의한 시비의 임신과 그로부터의 새생명의 탄생) 보다 일반화된 개념임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을 요하는것은 《닭알과 같은 기》이다.

설화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 즉 《천기》는 본질에 있어서 《닭알과 같은 기》이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닭알은 하나의 소우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들은 소박한 자연적직관에 기초하여 그 어떤 형체도 찾아볼수 없는 비구조적인 액체상태의 혼합물속에서 새로운 생명체인 병아리가 생겨나는것이나 우주만물이 형성되는것은 원리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사실 사물현상이 무형으로부터 유형으로, 작은것으로부터 큰것으로, 하나로부터 다에로의 전개과정을 거친다는것은 반드시 고도의 철학적사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다.

더우기 세계에 대한 전일적인 표상이 형성되어 가던 고대에 있어서 무형의 존재로부터 유형적사물이 발생한다는 원리는 닭알의 부화와 같은 직관적사실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고대인들은 닭알에 있어서나 우주에 있어서 유형적사물의 출현이전 무형의 상태는 양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처럼 생명, 사물형성의 그 어떤 징조도 없고 모든것이 뒤섞여 있지못하나 필경은 만물을 산생시키는 무형의 존재를 《혼돈》(渾沌)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혼돈》 개념은 《기》와 결합되어 그의 시원성, 근원적의미를 보다 뚜

렸이 부각시켰다.

《기》와 결합된 《혼돈》개념은 물질적실체인 《기》의 시원상태(《기》가 구체적사물로 나타나기 이전 상태), 원시물질로서의 《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결국 부여건국설화의 《기는 닭알과 같다》는 말은 시원적존재인《기》는 닭알과 같은 혼돈상태의 물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 알(혼돈), 생명(사물)의 주제는 우리 나라 건국설화에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전설에서는 《이상한 기》가 땅에 드라우더니 그 곳에 자주빛 알 한개(박혁거세는 이알에서 태어난다.)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가야국건국설화에서는 자주빛노끈이 드리워 여섯개의 둥근알이 하늘로부터 내려졌다고 하였다.⁷

이러한 사실은 《기》 즉 《혼돈》에 관한 우리 민족의 유물론적사고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었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중세에 이르러 고려의 저명한 시인이며 유물론철학자인 리규보는 서사시 《동명왕편》의 첫머리에서 《원기는 혼돈에서 갈라진다.》⁸라고 썼는데 이것은 명백히 고대 《기》 유물론의 계승이라고 볼수 있다.

고대 《기》 개념과 관련하여 《천부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군조선시기의 경전이라 전해지고있는 《천부경》은 구성의 간결성이나 논리적책임새를 보아 후세에 가미된 점이 다소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 원형은 고대에 마련된것으로서 거기에는 고대시기 철학사상이 일정하게 담겨져있다.

대표적인것이 《1》은 세계의 근원적본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다.⁹

여기서 문제는 세계의 본체로 제시되어있는 《1》의 성격에 관한것인데 그것은

7 《삼국유사》 권 제 2 기이 제 2 신라시조 혁거세왕, 2 가야 참고.

8 《동국지상국집》 권 3, 동명왕편.

9 《하나로 시작되어 시작이 없는 하나를 이루되 하늘, 땅, 사람 세극으로 갈라지니 그 근본은 무한하느니라》(一始無始一折三極無盡本).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 각이하게 규정될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해당한 평가가 논리적타당성을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1》이 당시 고대조선에서 유물론의 기본범주로 되어있었던 《기》를 상징한것이라고 단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1》이 자연을 량적측면에서 추상하여 그 기초로 설정된것이라면 《기》는 자연을 질학적으로 추상하여 그 기초로 파악된것이다. 따라서 실재하는 우주자연을 동일한 대상으로 할 때 인간의 논리적, 추상적사고에서 《1》과 《기》는 호상 전환할수 있다. 이러한 리해는 《1》은 《기》로, 《기》는 《1》로 표시될수 있다는점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중세유물론에서 《1》과 《기》는 하나로 결합되어 《일가하나의 기》라는 개념이 중요한 철학적개념으로 광범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유물론의 전제로 되었던 고대유물론에 《하나의 기》에 대한 관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판단을 제기해볼수 있을것이다.

《천부경》의 《1》을 《기》로 단정하는 주장은 류다르게 새로운것이 아니다. 이미 수세기전에 우리보다 더 과단성있게 《하나의 기》가 주장되었는바 전병훈(1860년~?)은 《정신철학통편》에서 《천부경》을 해석하여 《천지는 허무속으로부터 유가 태여났다. 천지에 앞서 오직 혼돈한 하나의 기만 있었는데 멀끔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므로 말하기를 〈무시〉(無始)라 하였다. 시작이 없은즉 무주이다. 무주이면서 태극이니 태극이 움직여 알을 놓고 정지하여 음을 낳는다. 그리하여 천지가 비로소 일어서므로 말하기를 〈일시무시〉(一始無始)라 하였다.》¹⁰라고 하였다.

여기서 명백한바와 같이 전병훈은 확고히 《1》을 《혼돈1기》로 규정하였다.

한편 《1》을 《기》아닌 그 어떤 신비적존재로 가정하는 경우 불합리를 피할수 없다.

10 《정신철학통편》 천부경, 주해.

이 시기 《기》와 대치된 개념은 신비적, 절대적주재자로서의 《천》(하늘신)이며 그것은 고대조선의 지배사조였던 하늘신숭배사상의 핵심범주였다.

하늘신숭배사상의 《천》 절대주의적신앙고리하에서 자연 그 자체로서의 하늘(天)에 대한 관심이나 그것을 밝혀보려는 견해는 추호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천》의 명칭을 이론적으로 제시함에 있어서조차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방식도 불필요하였을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적존재들인 환인과 환웅을 《제석》(帝釋 하늘신의 불교적명칭) 《천왕》(天王)으로 명시한 단군신화를 상기하면 생동할것이다.¹¹

이것은 당시 《천》, 《조물》이 관념론의 주요개념으로 되어있었으며 그때까지 우리 나라에 《천》을 가리키는 리론화된 상징적개념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더우기 1생3(천, 지, 인)의 생성구조를 펼쳐보이고있는 《천부경》에서 《천》은 명백히 《1》 아래에 위치하고있으며 《1》을 구태여 《천》으로 본다면 이러한 리해는 천신외에 그와 대치되는 그어떤 《천》의 명칭도 승인하지 않는 하늘신 숭배관념과 뚜렷이 모순되는것이다.

이로써 확실한 것은 《천부경》의 《1》이 표현하고있는 세계의 본체는 다름아닌 《기》이며 따라서 《1》의 본질을 세계만물 형성이전에 그 시초도 종말도 없이 우주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물질적인 《기》로 해석할수 있다는것이다.¹²

이렇게 놓고볼때 고대조선의 《1》에 관한 사상은 세계의 시원은 하나의 물질적인 《기》이고 그 시초도 종말도 없는 《기》로부터 하늘, 땅, 인간이 생기고 만물이 발생한다는 유물론적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11 우리 나라 철학사를 살펴보면 세련된 관련론철학인 리일원론이 등장하기전까지 《천》은 철학리론상에서 그 명칭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단적으로 리규보의 《원기》설은 《천》, 《조물》(조물주)에 관한 신비주의적 견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그는 《천즉무의》(天則無爲, 천은 목적과 의지력이 없다), 《조물부지》(造物不知, 조물주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주장하여 《천》(하늘신)의 전능성을 부정하였다.

12 《철학연구》 1995년 1호 단군조선의 철학사상에 대하여 참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고대유물론의 기본범주인 《기》개념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기본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는 고대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사색한 《입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점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화된 개념 즉 《천기》로 발전하였다.

둘째로, 《기》는 사물형성이전 모든것이 뒤섞여있는 무형의 혼돈물질이며 시초도 종말도 없는 하나의 물질적시원이다.

셋째로, 《기》는 당대 종교관념론철학의 원범주인 《천》과 대치하여 유물론적우주자연관의 초석으로 되어있었다.

우리 나라 고대유물론의 기본범주인 《기》 개념은 극히 직관적인 자연적관찰에 의거하여 제기된것으로서 소박성과 미숙성을 띠고있으며 신비주의적색채가 농후한 것 등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고대조선민족은 자기자신을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장구한 실천활동속에서 부단한 자연관찰과 진지한 철학적사색을 통하여 세계의 통일적인 물질적시원을 탐구하고 그것을 《기》라는 개념으로 명명하였으며 《기》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유물론철학을 제기하였다.

《기》 개념은 그 유구성에 있어서나 인간생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을 포괄한 독특성, 철학적일반화수준에 있어서 세계에 드문 개념이다.

실로 고대 《기》 개념의 제기는 동방철학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철학유산을 풍부하게 한 귀중한 성과이다.

3. 결론

어느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철학하는 목적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데 있다.

동방의 북단에서 삶의 뿌리를 내린 우리 민족은 엄혹한 자연을 맞받아 운명개척의 발자국을 힘있게 내짚어왔으며 그 과정에 온갖 종교적, 신비주의적세계관도 배척하면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는 현실주의적관점을 키워왔고 이것은 그대로 유물론적세계관의 믿음직한 토양으로 되었다.

《기》 개념은 바로 이러한 조선민족의 강毅한 개척의지와 실천적지향, 현실주의적관점을 토대로 하여 형성발전한것이며 《기》를 원개념으로 하여 구축된 고대 《기》 유물론은 신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인간의 무능력을설교하는 지배계급의 반동적세계관과 대립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투쟁을 추동하였다.

오늘날 떠나면 과거에 태어나 수천년동안 하나의 줄기를 이어 련면히 발전되면서 민족과 숨결을 같이 한 《기》 유물론과 같은 전통철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큰 자랑으로 되며 그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어야 할것이다.

일본어 'naru'와의 비교에서 본 동사 '되다'의 의미

송 남 선

大阪経済法科大学

1. 서론

언어가 사물의 존재와 운동·변화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면 매개 언어가 사물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분절하며 허용된 가능성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각 언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기술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모든 언어에는 상태 변화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 일본어의 'naru', 영어의 'become', 우리말의 '되다'와 같은 동사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동사들의 의미와 그것들이 가지는 구문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언어들 사이의 유형적 차이를 이해하는데서 또한 유익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말의 '되다'와 일본어의 'naru'의 의미와 그 쓰임을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가 '되다' 의미의 바람직한 기술에 시사하여 주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두 동사가 보이는 구문적 차이에 입각하여 '되다'가 취하는 이중주격구문에 대한 종래 설명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그 대안을 제시한다.

2. 동사 '되다'가 취하는 이중주격구문

(2ㄱ, ㄴ)와 같은 '되다'를 가진 이중주격구문은 흔히 (1ㄱ, ㄴ)과 같은 이중주격구

문과 이질적이거나 구별되는 구문으로 취급되어 왔다.

- (1) ㄱ. 영애가 코가 예쁘다.
 ㄴ. 그 애가 마음이 곱다.
- (2) ㄱ. 구름이 비가 되었다.
 ㄴ.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임흥빈(1974)은 (1)의 이중주격구문들은 기저에서는 속격 명사구인 “영애의”와 “그 애의”가 각각 주제화되어 주격을 얻은 결과 이루어진 것이지만, (2)의 구문들은 주제화를 거치지 않는 이중주격구문이라 하였다. 서정수(1996)는 (1ㄱ,ㄴ)과 같은 구문을 ‘일반 겹주격 문장’이라 하고, (2ㄱ,ㄴ)과 같은 구문을 ‘특수 겹주격 문장’이라고 하여 각각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1)과 같은 유형을 제1 유형, (2)와 같은 유형을 제2유형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특히 달라지는 것이 두 번째 주격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과 그 의미에 관해서이다. 유동석(1998)은 ‘되다’를 가진 이중주격구문의 두 번째 명사구(NP2)를 ‘결과역’을 지닌 ‘서술 보어’라고 하였다. 또한 서정수(1996)는 NP2를 ‘전성격’을 가진 부사어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에게 공통되는 점은 먼저 첫 번째 주격 명사구(NP1)가 문장의 주어이며, 또한 NP2를 예문(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NP로’로 대체될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것이다.

- (3) 철수가 대학생으로 되었다.

김영희(1978)는 예문(4ㄱ,ㄴ)은 (5ㄱ,ㄴ)과 같은 시원격(source)과 도구격(instrument)을 가진 구문에서 각각 유도된다고 보았으며 이행격(goal)을 가진 NP2가 NP1과 함께 문장의 주어임을 주장하였다.

- (4) ㄱ. 꽃이 열매가 된다.
 ㄴ. 누룩이 술이 된다.

- (5) ㄱ. 꽃에서 열매가 된다.
 ㄴ. 누룩으로 술이 된다.

이상에서 본 모든 견해들은 김영희(1978)를 제외하여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변화를 변화하는 대상(theme),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source), 변화가 일어난 다음의 상태(source)로 분석한다면 첫째 공통점은 NP2를 goal의 의미 역할을 지닌 명사구로 본 것이며 둘째로는 그 주격 명사구가 'NP로'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분석한 점이다. 아래에서 이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다음 예문들은 NP2가 'NP로'로 대치되는 일이 아주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6) ㄱ.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ㄴ.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
 (7) ㄱ. 철수가 노예가 되었다.
 ㄴ. 철수가 노예로 되었다.
 (8) ㄱ. 공옥진이 인간문화제가 되었다.
 ㄴ. ?공옥진이 인간문화재로 되었다.
 (9) ㄱ. 철수가 사내가 되었다.
 ㄴ. ??철수가 사내로 되었다.
 (10) ㄱ. 계절이 봄이 되었다.
 ㄴ. ??계절이 봄으로 되었다.
 (11) ㄱ. 철수가 승진이 되었다.
 ㄴ. *철수가 승진으로 되었다.

말뭉치자료(corpus)에서 'NP이+NP이+되다'로 예문을 찾아보더라도 거의 모두가 아래와 같은 정지된 상태를 뜻하는 문장들이며 (6)~(11)처럼 변화 자체를 나타내는 예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 (12) ㄱ. 지하실은 직원실과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ㄴ. 그 제안서는 첨부자료 17C로 되어 있고...

- ㄷ. 그런 스즈키의 이번 방한은 “휴가차로”되어 있다는 것.
 ㄹ. 시간은 26일 새벽 1시 전후로 되어 있어.

위의 예들은 현대어에서 실제로 ‘NP이+NP이+되다’가 ‘NP이+NP로+되다’로 대체 되는 일이 아주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이 사실은 후자에서 전자가 유도되거나 파생된다는 견해와 어긋난다.

‘되다’가 취하는 이중주격구문이 전성격 구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는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홍운표(1994: 376)는 (13)과 (14)에 서처럼 ‘NP이+NP이+되다’는 중세국어에서 널리 쓰였으나 ‘NP이+NP로+되다’는 별로 보이지 않고 16세기 한국어에서부터 나타나지만 실제로 빈도가 매우 작았다고 지적하였다.

- (13) 몸이 손이 되연는디라.
 (14) 네 君子人需이 되고 小人人需이 되디 말라.

이상에서 검토한 자료들은 ‘되다’가 취하는 이중주격 구문은 그것이 바로 원래 형태이며 그것이 전성격 구문에서 파생된 구문이라는 주장의 논거를 부정하여 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NP2의 의미 해석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일치하는 점은 NP2를 ‘변화가 일어난 다음의 상태’ 즉 도달점의 의미역을 지닌 명사구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3ㄴ)은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가진다.

- (15) 철수가 대학생이 된다.
 Theme Goal

이 견해의 문제점은 주격 조사 ‘이’가 도달점(goal)을 나타내는 명사구 표지로 쓰이는 일이 동사 ‘되다’와 어울리는 경우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통사

관계와 의미역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들은 문법의 절약성 원칙에서 당연히 타의(多意)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조사가 다른 의미역의 표지로 쓰인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조사 ‘로’는 (16ㄱ)에서처럼 도달격 표지로 쓸 수 있으며 또한 (16ㄴ)과 같이 도구격 표지로 쓸 수도 있다.

- (16) ㄱ. 철수가 학교로 간다.
 ㄴ. 철수가 도로 집을 지었다.

마찬가지로 (15)의 NP1은 대상을, NP2는 도달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조사가 하나의 의미역 표지로 쓰인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가진 명사구와 어울리는 다른 명사구나 술어에 관하여 어휘적 제한이 없이 공통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예문(17ㄷ)은 장소 변화를 나타내며, (17ㄴ)은 소유관계 변화, (17ㄷ)은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 (17) ㄱ. 영애는 미국으로 갔다.
 ㄴ. 영애는 그 책을 제 것으로 하였다.
 ㄷ. 영애는 철수를 친구로 삼았다.

위의 예문들에서 ‘로’가 주어진 명사구들은 예외 없이 어떤 변화의 도달점을 나타내며 그 명사구는 문장 안의 통사환경에 관하여 특별한 어휘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만 조사 ‘로’는 도달격의 표지로 쓰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NP이+NP이+되다’의 NP2를 도달격 또는 전성격을 나타내는 명사구로 해석하는 견해는 그와 같은 설명력을 갖지 않는다.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NP2를 도달격 혹은 전성격 명사구로 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조사 ‘이’는 오직 어휘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두 번째 명사구에 붙었을 때만 도달격 표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극히 구체적이며 특수한 통사적 및 어휘적 제한이 있는 한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조사 ‘이’는 전성격 표지로서의 기능

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주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정수(1997)와 유동석(1998)은 (18ㄱ)과 같은 제1유형 이중주격구문이나 (18ㄴ)과 같은 제2유형 구문 할 것 없이 NP1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 (18) ㄱ. 철수가 이가 아프다.
- ㄴ.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연재훈(2003)과 목정수(2004)는 한 명사구가 주어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대화 요소 ‘시’의 방아쇠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 이가 아프시다.
- ㄴ. 김선생님이 명예교수가 되시었다.
- ㄷ. ??학생이 선생님이 되시었다.

위의 예문들은 제1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유형에서도 NP1이 ‘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것이 문장의 주어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연재훈(2003)은 어떤 명사구가 주어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주어 존대화와 함께 대등접속 구문에서 삭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의 예문들은 둘 다 NP1이 주어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 ㄱ. 김선생님은 마음이 고우시고 〇 부지런하시다.
- ㄴ. 철수가 과장이 되고 〇 그만해졌다.

필자는 존대화 요소 ‘시’의 유발과 대등접속 구문에서의 삭제 가능성이 어떤 명사구가 주어임을 입증하는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나 그것들이 꼭 제2유형 구문의 NP1이 문장의 주어임을 입증하여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존대요소 ‘시’에 의한 실험은 (21)에서처럼 NP1과 NP2의 외연(外延)이 다른 경우에는 유

익하다고 하겠다.

- (21) ㄱ. 김선생님이 돈이 많으시다.
 ㄴ. 철수가 어머니가 미인이시다.

연재훈(2003)을 따르면 (21 ㄱ)에서는 NP1이 주어가 되며 (21 ㄴ)에서는 NP2가 주어가 된다. 반면 제2유형에서는 많은 경우 NP2의 외연은 NP1이 가지는 외연의 속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 특성으로 말미암아 존대요소를 유발할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문(19 ㄴ)에서 “명예교수”는 “김선생님”에게 새로 주어진 속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존대요소를 유발할 수 없는 것이다. ‘되다’ 구문과 유형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니다’와 ‘맞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22) ㄱ. 김선생님이 명예교수가 아니시다.
 ㄴ. ??그 젊은이가 명예교수가 아니시지?
(23) ㄱ. 김선생님이 명예교수가 맞으시다.
 ㄴ. ??그 젊은이가 교수가 맞으시지?

예문 (22 ㄴ)과 (23 ㄴ)에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NP2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존대화를 유발시킬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NP2의 외연이 단지 NP1이 가지는 외연의 한 속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존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후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NP1과 NP2의 외연이 각각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한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눈앞에 서 있는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24) ㄱ. 이 어린애가 교수님이 아니시죠?
 ㄴ. 이 어린애가 교수님이 맞으시죠?
 ㄷ. ?이 어린애가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존대화 요소 ‘시’ 유발의 가능성으로만 주어의 결정을 한다면 ‘아니다’와 ‘맞다’가 가지는 이중주격 구문에는 NP2의 외연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NP1이 주어가 되며 어떤 경우에는 NP2가 주어로 된다는 모순되는 결론을 낳게 한다.

대등접속 구문에서의 삭제 가능성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20ㄴ)에서처럼 NP2가 NP1의 새로운 속성을 가리킬 경우 그것이 삭제된 대등접속 구문의 주어라고는 볼 수 없으나 (24ㄱ)과 (24ㄴ)이 발언된 같은 상황에서는 (25)에서처럼 NP2가 대등접속 구문의 삭제된 주어가 된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워진다.

(25) 이 어린이가 교수님이 되어서 ◦ 지금 교단에 서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여 존대요소 ‘시’ 유발과 대등접속 구문에서의 삭제 가능성은 제2 유형의 NP1이 문장의 주어임을 입증하여 주지 않는다. 필자는 존대요소 ‘시’의 유발, 대등접속 구문에서의 삭제가능성이 주어 확인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재귀대명사와의 호응, 관계사절 만들기 등과 함께 주어성(subjectness)이란 원형(prototype)을 이루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2유형의 NP1을 시원격을 나타내는 명사구로 보는 견해를 간단히 살펴본다.

(26) ㄱ. 꽃이 열매가 된다.

ㄴ. 꽃에서 열매가 된다.

김영희(1978)은 (26ㄱ)이 (26ㄴ)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NP1은 시원격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미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NP2를 ‘NP로’로 대체될 수 있는 전성격 보어나 부사어로 보는 견해의 타당성을 부인하였다. 그 첫째 근거가 ‘NP이+NP로+되다’의 분포가 ‘NP이+NP로+되다’의 분포에 비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26ㄴ)의 NP1을 ‘NP에서’와 대체될 수 있는 시원적 명사구라고 하는 주장도 역시 같은 이유로 수용될 수 없다. 필자가 접한 우

리말 화자들에 의하면 예문(26ㄴ)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아래 예문들은 ‘NP에서+NP이+되다’가 제2유형구문에 비해 아주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후자가 전자에서 변형되어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부인한다.

- (27) ㄱ.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
 ㄴ. ?포도에서 포도주가 된다.
- (28) ㄱ.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
 ㄴ.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다.
- (29) ㄱ. 계절이 봄이 된다.
 ㄴ. *계절에서 봄이 된다.
- (30) ㄱ. 철수가 대학생이 된다.
 ㄴ. *철수에서 대학생이 된다.

지금까지 ‘NP이+NP이+되다’의 NP1과 NP2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첫째로, NP2를 전성격 또는 도달격 의미를 가진 명사구로 볼 수 없고 동시에 NP1을 문장의 주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 대안으로 NP1을 시원격 명사구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절의 논의는 ‘되다’와 일본어의 ‘*naru*’와의 비교를 통하여 ‘되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의미해석과 제2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다.

3. ‘되다’의 의미와 이중주격구문

3.1. 우리말의 이중주격구문과 일본어 이중주격구문의 차이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우리말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이중주격구문이 있다.

- (31) ㄱ. 영애가 눈이 곱다. (제1유형)
 ㄴ.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제2유형)

두 유형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보인다. 홍윤표(1979)는 제1유형과 제2유형에서는 주격조사 생략의 가능성이 거꾸로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2)~(33)의 예문들은 제1유형에서는 NP1의 조사는 생략될 수 있어도 NP2에서는 생략될 수 없으며 제2유형에서는 조사 삭제 가능성이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2) ㄱ. 할머니 머리가 하얗다.
 ㄴ. *할머니가 머리 하얗다.
- (33) ㄱ. 꽃이 열매 된다.
 ㄴ. *꽃 열매가 된다.

송남선(1993)은 또한 제1유형과 제2유형은 통사적 팽창 가능성에 관하여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1유형은 실은 이중주격구문이 아니라 (34ㄴ)과 같은 통사구조를 가진 다중주격구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2유형은 그러한 통사적 팽창을 허용하지 않는다.

- (34) ㄱ. 영애가 눈이 그 눈동자가 색깔이 곱다.
 ㄴ. [s1 NP-nom [s2 NP-nom ……[sn NP-nom Adj/V]]]

‘되다’ 이외에 용언 ‘이다’, ‘아니다’, ‘맞다’도 이 두 가지 특징을 갖추었으며 제2유형구문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5)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언들이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에서도 NP2의 조사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구문들은 (34ㄱ)와 같은 통사적 팽창을 보이지 않는다.

- (35) ㄱ. 철수가 박사(이)다.
 ㄴ. 철수가 박사(가) 아니다.
 ㄷ. 철수가 박사(가) 맞지?

일본어도 조사 삭제와 통사적 팽창 가능성에서 보아 제1유형에 속하는 이중주격구문을 가진다.

- (36) ㄱ. Hanako-ga me-ga kireida (하나꼬가 눈이 곱다)
주격 눈-주격 곱다
ㄴ. Hanako me-ga kireida
ㄷ. ?Hanako-ga me kireida
ㄹ. Hanako-ga me-ga hitmi-ga iro-ga kireida
눈-주격 눈동자-주격 색-주격 곱다
(하나꼬가 눈이 그 눈동자가 색깔이 곱다.)

한편 일본어는 (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유형 이중주격구문을 가지지 않는다.

- (37) ㄱ. *hanako-ga daigakusei-ga nat-ta
주격 대학생-주격 과거
‘하나꼬가 대학생이 되었다’
ㄴ. *hanako-ga daigakusei-ga nai
주격 대학생-주격 아니다
‘하나꼬가 대학생이 아니다’

우리말과 일본어의 이와 같은 이중주격구문 형성에서의 차이는 ‘되다’와 일본어의 ‘naru’의 의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다음에 논하려고 한다.

3.2. ‘되다’와 ‘naru’

‘되다’와 ‘naru’는 통사 기능상 두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 ‘naru’는 ‘되다’와 달리 이중주격구문을 가질 수 없으며 주격 명사구와 여격 명사구를 논항으로 가진다.

- (38) ㄱ. kisetu-ga haru-ni nat-ta
계절-주격 봄-여격 과거
‘계절이 봄이 되었다’

ㄴ. doo-ga	kin-ni	nat-ta
동-주격	금-여격	과거
'동이 금이 되었다'		

둘째, '되다'는 한자리 술어동사로 쓰일 수 있으나 'naru'는 그럴 수 없다.

- (39) ㄱ. 봄이 되었다.
 ㄴ. 설렁탕이 되었소? 설렁탕이 되었습니다.
 ㄷ. 식사 준비가 되었다.

- (40) ㄱ. haru-ni nat-ta
 봄-여격 과거
 '봄이 되었다'

ㄴ. *kooori-ga/ni nat-ta
 얼음-주격/여격 과거
 '얼음이 되었다'

예문(40ㄱ)은 주격 명사구 없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일본어 화자들에게는 봄이란 상태로 이행하는 무엇인가가 빠져있다고 느껴진다. 이는 '되다'가 주격 명사구와 여격 명사구를 요구하는 두 자리 술어동사임을 말하여 준다. 일본어의 여격 조사 'ni'는 아래와 같이 처격이나 도달격 표지로 쓰인다.

- (41) hanako-wa gakkoo-ni it-ta
 주제 학교-여격 가-과거
 '하나코는 학교에 갔다'

그러므로 'naru'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42) cond (x GO TO y)

(42)는 대상(theme) x가 도달점(goal) y에 이르는 상태변화(conditional change)

를 겪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예문(40ㄱ)에 적용하면 그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43) cond (SEASON GO TO SPING)

한 자리 술어동사인 ‘되다’는 ‘naru’와 달리 어떠한 시원점이나 도달점을 그 논항으로 가지지 않으므로 (42)를 적용할 수 없다. 일본어 예문(40ㄱ)에서는 “봄”이라는 개념이 계절이 한때 머물다 지나가는 장소 또 상태로 파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0ㄱ)의 의미는 “계절이 봄이란 상태로 들어갔다”로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 자리 술어동사 ‘되다’를 가진 (39ㄱ)에서는 봄이란 개념이 계절이 잠시 들어갔다 나가는 장소나 일시적 상태라기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또는 ‘존재하기 시작하는 상태’로 파악되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르면 동사 ‘되다’의 의미구조는 (44)와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44) cond (x GO TO EXIST)

(44)는 대상 x가 존재(exist)하기 시작하였다고 읽는다. (44)를 예문 (39ㄱ)에 적용하면 의미구조 (45)가 얻어진다.

(45) cond (SPRING GO TO EXIST)

의미구조 (45)는 “봄이란 상태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다. ‘되다’와 유사한 일본어 동사로 ‘dekiru’를 들 수 있다. 일본어의 ‘dekiru’ 역시 ‘되다’와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술어동사로서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46) gohan-ga	deki-ta
밥-주격	과거
‘밥이 되었다’	

반면 ‘dekiru’는 ‘되다’와 두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첫째 ‘dekiru’는 구체적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구와는 어울리지만 (47)에서 알 수 있듯이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구와 어울리지 않는다.

- | | |
|---------------|---------|
| (47) *haru-ga | deki-ta |
| 봄-주격 | 과거 |

또한 ‘dekiru’는 ‘되다’와 달리 이중주격구문을 이루지 못한다.

- | | | |
|---------------|----------|---------|
| (48) *mizu-ga | koori-ga | deki-ta |
| 물-주격 | 얼음-주격 | 과거 |

이상에서 본 ‘되다’와 일본어 동사 ‘naru’, ‘dekiru’와의 비교는 ‘되다’가 가지는 두 가지 특성을 시사해 준다. 하나는 ‘되다’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다’ 또는 ‘존재하기 시작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진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이루어지는 대상으로서 구체적 사물과 함께 추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되다’의 이와 같은 의미특성이 제2유형 이중주격구문의 해석에 무엇을 시사하여 주는지를 살펴보자.

3.3. ‘되다’ 이중주격구문의 의미

이계가미(1981)는 언어가 변화를 나타낼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 변화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실체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변화는 x가 -y에서 +y까지 움직이는 운동으로 이해되므로 (49)와 같이 형식화된다.

- (49) x GO FROM -y TO +y

두 번째 가능성은 변화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실체를 상정하기는 하나 변화 자체는 'x가 -y에 있는 상태'로부터 'x가 +y에 있는 상태'로의 이행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는 (50)과 같이 형식화된다.

(50) (x WITHOUT y) GO TO (x WITH y)

남은 가능성은 변화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상을 상정하지 않고 변화를 -y에서 +y로의 이행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51) -y GO TO +y

이계가미(1981)에 의하면 'John went from his house to the station'과 같은 장소, 공간에 관한 변화는 (49)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John'은 그 운동 과정에서 다른 속성을 얻는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에 관한 변화는 x의 속성을 변화게 한다고도 볼 수 있고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49)와 (50)의 어느 쪽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계가미(1981)는 상태의 변화는 변화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상을 상정하지 않는 (51)이 그 전형이라 하였다. 다음과 같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 해석에서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떠한 사물을 상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52) ㄱ. Spring became summer.

ㄴ. Copper became gold.

ㄷ. The pumpkin turned into a handsome young man.

다음 영어 예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53) ㄱ. The egg hatched into a little chick.
Theme Goal

ㄴ. <u>A little chick</u>	hatched	<u>from the egg.</u>
Theme		Source

위의 두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에서 ‘the egg’나 ‘a little chick’이 변화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의 두 문장과 장소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 사이의 유사성은 영어가 상태 변화를 현실 세계가 어떠한 하나의 사물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장소 변화의 패턴에 따라 표현하는 언어임을 알려 준다. 이상의 고찰은 일본어와 영어가 논리적으로는 (51)로 표현되어야 할 상태 변화를 원래는 장소 변화에 쓰일 (49)의 유추로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54ㄱ)과 같은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의미를 어떻게 기술하여야 할 것인가?

- (54) ㄱ. 철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ㄴ. 철수가 대학생으로 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되다’의 이중주격구문의 NP2는 (54ㄱ)에서처럼 도달격 표지로 널리 쓰이는 ‘로’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되다’가 ‘NP로’와 함께 나타날 때 그 의미는 일본어나 영어에서나 마찬가지로 (49)의 유추로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55) cond (철수 GO TO 대학생)

그러나 이미 지정한 바와 같이 주격을 가진 NP2가 ‘NP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한정되어 있다.

- (56) ㄱ. 왕자는 마녀의 마법에 걸려 야수로 되었다.
 ㄴ.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

- ㄷ. ?철수가 사내로 되었다.
- ㄹ. ??계절이 봄으로 되었다.

위의 예문들은 (49)의 의미 패턴은 ‘되다’에 관해서는 아주 한정된 경우만 적용되며 그것을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두 번째 가능성은 ‘되다’ 이중주격구문에 (57)과 같은 의미 구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NP1에게 시원격(source), NP2에게 대상(theme)의 의미역을 주는 것이다.

- (57) 포도에서 포도주가 된다.
- Source Theme

그러나 이 의미 패턴은 위의 ‘대상-도달점’ 패턴보다 심한 제약을 받는다.

- (58) ㄱ.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었다.
- ㄴ. *계절에서 봄이 되었다.
- ㄷ. *철수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의미 패턴 역시 ‘되다’의 이중주격구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의미 패턴 (51)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되다’가 일본어의 ‘dekiru’와 같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한 자리 술어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59)에서처럼 ‘되다’가 ‘dekiru’와 달리 ‘이루어지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 (59) ㄱ. 밥이 되었다.
- cond (밥 GO TO EXIST)
- ㄴ. 봄이 되었다.
- cond (봄 GO TO EXIST)

필자의 제안은 (60)의 이중주격구문도 (59)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술어 동사

‘되다’가 취한 구문이며 그것은 “철수가 대학생”이라는 상태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동사 ‘되다’는 $\text{cond}(x \text{ GO TO EXIST})$ 라는 의미 구조를 취하며 ‘x’자리에는 ‘A=B’라는 계사형식의 명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되다’의 이중주격구문을 계사형식의 명제를 그 대상역으로 가지는 구문으로 본다면 (60ㄱ)은 “계절이 봄이라는 상태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60ㄴ)은 “올챙이가 개구리라는 상태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란 해석을 받게 된다.

- (60) ㄱ. 계절이 봄이 되었다.
 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60ㄴ)의 의미해석이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다”는 명제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우리는 영어와 일본어에서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상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치 그것이 있듯이 변화를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바로 영어와 일본어의 유형론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A=B란 계사형식 명제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게까지 그 의미 패턴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의 유형론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되다’의 이중주격구문이 계사 명제를 내포한 의미 구조를 가진다는 해석은 ‘되다’ 이중주격구문과 통사적 특징을 공유하는 제2유형 이중주격구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 (61) ㄱ. 철수가 박사(이)다.
 ㄴ. 철수가 박사(가) 아니다.
 ㄷ. 철수가 박사(가) 맞다.
 ㄹ. 철수가 박사(가) 된다.

신창순(1976: 11)은 (61)의 예문들은 $\text{NP1}=\text{NP2}$ 라는 등식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

임을 밝히면서 (61ㄱ)은 그 관계를 그대로 지정하여 표현하며, (61ㄴ)은 확인하며, (61ㄷ)은 그 관계를 과정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61ㄴ)은 그 등식 관계를 부정한 표현이라 하겠다.

위에서 제시된 제2유형 구문의 의미해석은 일본어와 우리말 사이에 있는 기본 명제 형식에 관한 차이점과 부합된다.

일본어의 계사 명제는 문어체나 낱은 형태로는 ‘nari’로 표현된다.

(62) kono miki-wa waga miki nar-azu(古事記)

이 술-은 우리 술 아니다

‘이 술은 우리 술이 아니다’

이 ‘nari’는 처격 조사 ‘ni’에 존재 동사 ‘ari’가 붙어서 만들어졌으며(ni+ari → nari) 원래는 (63)에서처럼 어떠한 인물이나 사물이 한 장소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63) ware nara nar-eba...

내 나라에 있-으니..

‘내가 나라에 있기 때문에’

‘nari’의 형성과정과 그 쓰임은 일본어의 계사 명제형식이 (64)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를 표현하는 구문의 유추에서 성립되었을 알려 준다.

(64) posit(x BE IN y) posit=position

현대어에서는 ‘de-aru’나 그 줄인 형태인 ‘da’가 쓰인다.

(65) hanako-wa gakusei-de-aruda

하나코-는 학생-이다

‘de’ 역시 (66)에서와 같이 처격표지로 흔히 쓰인다.

(66) hanako-wa tosyokan-de benkyoo-shi-ta

하나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과거

‘하나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어는 계사 명제를 나타내기 위해 언제나 존재 동사와 더불어 처격 표지를 쓴다. 이것은 일본어가 계사 명제를 ‘x는 y에 있다’라는 공간 존재에 형식을 추상화함으로써 표현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naru’가 나타내는 변화과정도 공간 이동을 추상화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기본계사 명제와 상태변화의 형식을 (67 $\neg$, $\neg$)으로 집약할 수 있다.

(67) $\neg$, cond (x BE IN y)

$\neg$, cond (x GO TO y)

반면에 (61)에 제시된 우리말의 제2유형 구문들은 어떠한 처격이나 도달점 표지를 갖지 않으며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기본 계사 명제와 ‘되다’가 나타내는 상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68) $\neg$, cond (x BE IN EXIST)

$\neg$, cond (x GO TO EXIST)

4. 결론

이 글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동사 ‘되다’가 가지는 이중주격구문의 NP1을 시원격 명사구로 보거나 NP2를 전성격 명사구로 보는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2) 일본어의 ‘naru’는 ‘cond (x GO TO y)’의 의미구조를 가지는 두 자리 술어동

사로 쓰이며 ‘되다’는 ‘cond (x GO TO EXIST)’라는 의미구조를 가지는 한 자리 술어동사로 쓰인다. 즉 일본어에서는 상태의 변화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실체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우리말에서는 어떤 실체나 상태가 새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3) ‘되다’가 가지는 의미구조 ‘cond (x GO TO EXIST)’의 x자리에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상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중주격구문은 x자리에 ‘A=B’라는 계사명제가 들어간다고 본다.
- (4) 우리말의 제2유형 이중주격구문은 ‘A=B’라는 계사명제를 유일한 논항으로 가지는 구문들이다.

우리말의 제2유형 이중주격구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의미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통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희(1978) 「접주어론」, 『한글』 162, 37~73쪽.
- 지은(1998)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1, 361~393쪽.
- 목정수(2004) 「이중주어의 신해석」, 제2회 세계코리아학대회 발표논문.
- 서정수(1996) 『개정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한국문화사.
- 신창순(1976) 「국어의 조사 연구(II)-격조사의 의미기술-」, 『국어국문학』 71, 2~41쪽.
- 유동식(1998) 「국어의 격 중출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308~337쪽.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 태학사.
- _____(1978) 「국어의 조사·공동연구」, 『언어』 2~4, 143~180쪽.
- Shibatani Masayoshi(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Nam Sun(1993) *Thematic Relations and Transitivity in English, Japanese, and Kore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Yeon, Jaehoon(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Saffron Korean Linguistics Series NO. 1*.

池上嘉彦(1981) 『「する」と「なる」の言語学-言語と文化のタイポロジーへの試』, 大修館書店.

久野暲(199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더니’와 ‘-었더니’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 머리말

선어말어미 ‘-더-’는 전통적으로 회상의 표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여러 논문들에서 양태적(modal) 의미가 지적되어 왔다(장경희 1983, 서태룡 1987, 송재목 1998). 이 글에서는 송재목(1998)을 따라 ‘-더-’를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증거성(evidentiality)의 양태표지로 본다. ‘-더-’는 화자가 기술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하여 발화시점 이전에 감각적으로 직접 관찰한 증거가 있다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더-’는 종결어미와 함께 사용될 경우 1인칭 주어와는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더-’는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관형사형어미와도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종결어미와 함께 사용될 경우와는 다른 문법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 ‘-더니’와 ‘-었더니’에서 보이는 통사-의미적 불일치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니’와 ‘-었더니’는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둘 다 선어말어미 ‘-더-’와 연결어미 ‘-니’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었-’의 존재유무이다. 그렇지만 이 둘은 이러한 형태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형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점이 생겨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종결어미와 함께 사용될 경우 선어말어미 ‘-더-’에서 관찰

되는 증거성의 양태적 의미가 연결어미 ‘-더니’와 ‘-었더니’에서도 관찰되는지 살펴 보겠다.

2. 종결어미에서의 ‘-더-’

종결어미에서 선어말어미 ‘-더-’는 ‘-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상황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 (1) 철수가 학교에 갔다.
- (2)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었-’이 관련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시제(tense) 의미를 주로 나타내는데 반해, ‘-더-’는 화자가 사건에 대해 과거의 감각적 관찰에 의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직접지식(direct knowledge)의 증거성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1)은 화자가 철수의 행위를 직접 관찰했는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고 다만 [철수가 학교에 가대리는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시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 (2)는 화자가 철수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만 적합하다. 아래의 예문들에서도 ‘-더-’는 화자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과 같은 감각 기관에 의해 관련 사건들을 발화시 이전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3)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
- (4) 자동차 소리가 나더라.
- (5)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더라.
- (6) 날씨가 무척 춥더라.
- (7) 냉면이 맛있더라.

‘-더-’는 과거상황을 기술할 경우 단독으로도 사용되지만 ‘-었-’과 함께 사용되

기도 한다.

(8)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9)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예문 (8)과 (9)는 모두 과거상황을 기술하며 그 과거상황에 대해 화자가 감각적으로 관찰했다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양상(aspect) 의미에 차이를 드러낸다. (8)은 과거 미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반해 (9)는 과거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더-’가 가지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는 화자의 시점을 사건의 내부에 놓게 하고 이는 사건에 대한 미완료적 해석을 불러온다.¹ 즉 (8)의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는 과거의 사건을 화자가 관찰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그 사건 전체를 모두 관찰했다기보다는 그 사건의 내부구조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문 (9)와 같이 과거/완료표지 ‘-었-’이 있을 경우 이는 과거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각적 관찰이 아니라 완료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낸다. 즉 예문 (9)에서 ‘-더-’가 나타내는 것은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는 사건을 그 사건의 내부의 특정시점에서 관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완료된 다음의 결과 상태를 관찰했다는 것이다. 예문 (9)는 화

1 ‘-더-’가 ‘-었-’ 없이 단독으로 과거상황의 기술에 사용될 경우 종종 과거 진행상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과 문맥에 따라 다른 미완료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휘내재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진행상 보다는 ‘반복상’, ‘지속상’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a) 철수가 요즘 수업을 배우더라.

(b) 철수가 요즘 학교에 다니더라.

그러나 술어가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 ‘-더-’는 ‘미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예문들은 오히려 완료상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c) 철수가 재채기를 하더라.

(d) 철수가 눈을 감아 버리더라

‘-더-’가 나타내는 미완료상의 의미는 ‘-더-’의 중심적 의미가 아니다. ‘-더-’의 예문들에서 보이는 미완료상의 의미는 ‘-더-’의 양태적 의미와 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 문맥 등에 의해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 철수의 집에 갔더니 이미 철수가 학교에 가고 없었고 철수의 어머니로부터 철수가 학교에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나 화자가 철수의 집에 전화를 했더니 철수가 학교에 가고 없었을 경우 등에 적합한 발화가 된다.

‘-더-’는 종결어미에서 일반적으로 과거 상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지만 미래 상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0) 다음 달부터 버스 값이 오르더라.

(11) 철수가 이번에는 합격하겠더라.

(12) 둘이서 금방 싸우겠더라.

위의 예문들에서 관련된 상황의 시제(미래)는 ‘-겠-’이나 영(zero) 형태소에 의해 표시되는 반면 ‘-더-’가 나타내는 것은 관련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증거를 과거에 감각적으로 관찰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10)에서 [버스 값이 오르더라는 사건은 시간부사구 ‘다음 달부터’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로 화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서 화자가 ‘-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버스 값이 오르더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과거에 감각적으로 관찰했다는 것이다.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 등을 통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화자가 관찰하였을 경우에 (10)의 발화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가 종결어미와 함께 사용될 경우 주어제약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3) *나는/너는/그는 소주를 마시더라.

(14) *나는/너는/그는 운동장을 달리더라.

(15) *나는/너는/그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더라.

이러한 주어제약현상은 ‘-더-’의 기본의미로 시제나 양상을 설정하고서는 설명

할 수 없다. ‘-더-’에 대한 주어제약현상은 ‘-더-’가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와 1인칭 주어의 행위기술에서 함의되는 양태적 의미 사이의 마찰에 기인한다. ‘-더-’는 어떤 명제에 대해 화자가 과거에 감각적으로 관찰하였다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을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찰의 중심에 있는 화자의 행위는 관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화자 자신의 행위는 행위수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된다. ‘-더-’를 1인칭 주어의 행위기술에 쓰는 것은 화자 자신의 진행 중인 행위를 화자가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처럼 관찰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 청자에게 혼동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더-’와 1인칭 행위기술 사이의 이러한 양태적 모순으로 인해 ‘-더-’와 1인칭 주어가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²

‘-더-’와 1인칭 주어 사이에 이러한 양태적 모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모순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더-’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화자가 자신을 제3자처럼 객관화하여 관찰대상으로 만들거나 화자의 과거의 행위가 화자의 인식체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아래 예문 (16)~(17)에서 1인칭 주어는 모두 제3자처럼 객관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의 의미와 1인칭 주어행위 사이의 의미론적 마찰이 해소되어 ‘-더-’는 1인칭 주어가 함께 쓰일 수 있다. 예문 (18)은 화자가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정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책을 펼쳐 보니 자신의 필체로

2 증거성(evidentiality)의 의미범주는 크게 직접지식(direct knowledge)과 간접지식(indirect knowledge), 전언(report)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다시 여러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지식은 다시 직접경험(direct witness)과 직접관찰(direct observ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관찰의 표지와 달리 몽골어나 터키어 등에서는 같이 직접경험의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표지들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의 행위는 경험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관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송재목 2003). 증거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Chafe & Nichols (1986), Aikhenvald & Dixon (2003) 등 참조.

내용이 요약되어 있거나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았든지, 그 책에 대한 감상을 적은 일기를 보았든지, 아니면 도서관대출카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든지 등과 같이 나중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게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예문 (18)에서 [내가 그 책을 읽었다라는 사건은 원래 화자의 인식체계 속에 들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는 그 객관적 사건에 대한 감각적 관찰을 화자가 과거에 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16) (주위를 둘러보니), 나만 소주를 마시더라.

(17)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운동장을 달리더라.

(18) (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 그 책 읽었더라.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심리형용사들이다. 심리형용사는 화자가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고 1인칭 주어와만 사용된다. 아래 예문 (19)~(21)에서 보듯이 심리형용사들은 ‘-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19) 나는/*너는/*그는 소주가 제일 좋다/좋았다/좋더라.

(20) 나는/*너는/*그는 춥다/추웠다/춥더라.

(21) 나는/*너는/*그는 무섭다/무서웠다/무섭더라.

심리형용사들이 기술하는 것은 화자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가 행한 관찰의 결과들이다. 심리형용사들이 기술하는 관찰은 화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제3자의 관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더-’와 관계없이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오직 1인칭 주어와만 사용된다. ‘-더-’가 1인칭 주어의 행위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화자 자신의 행위는 자연히 화자의 인식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주를 마시

대와 같은 상황의 경우는 1인칭 주어의 경우 행위의 수행과 더불어 화자의 인식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자의 관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소주를 마신 결과 [소주가 좋더라는 것은 화자 자신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대상에 대한 관찰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의 양태적 의미의 영역 속에 들어온다. 따라서 심리형용사는 ‘-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심리형용사가 ‘-더-’가 붙지 않은 형태로 사용될 경우에는 화자의 일반적인 관찰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더-’와 함께 사용될 경우 이것은 화자의 과거의 감각적 관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문 (22)는 소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맥주나 막걸리, 와인과 비교해서 소주를 선택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23)은 소주를 포함해 여러 가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다. 즉 예문 (23)에서 ‘-더-’는 여전히 화자의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인칭 주어를 취하는 심리형용사의 어휘적 의미와 전혀 모순을 드러내지 않는다.

(22) 나는 소주가 제일 좋다.

(23) 나는 소주가 제일 좋더라.

이러한 예들은 ‘-더-’가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며 ‘-더-’에 대한 주어제약현상은 ‘-더-’와 1인칭 주어 사이의 통사론적 제약이 아니라 ‘-더-’의 양태적 의미와 1인칭 주어 그리고 술어들의 어휘 내재적 의미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미론적 제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더니’

‘-더니’는 전체적으로 종결어미의 ‘-더-’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더니’에서도 종결어미의 ‘-더-’에서 관찰되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나타

나며, 또한 1인칭 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3.1. ‘-더니’의 양태적 의미

‘-더니’에는 종결어미에서의 ‘-더-’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관찰된다. 아래의 예문들이 나타내는 상황을 화자가 직접 관찰하지 않았다면 적합한 발화라고 할 수 없다.³

- (24) 그들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니 일제히 불을 켜다.
- (25) 그는 눈을 한 번 굴리더니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 (26) 여자는 가위를 집어 들더니 거침없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 (27)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구나.
- (28) 철수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더니 배가 쑥 들어갔네.
- (29) 바쁘다고 하시더니 결국 나오셨네요.
- (30)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덥네.

예문 (24)는 [그들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상황을 화자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경우에만 적합하다. 자기가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과 같은 간접경험에 의해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예문 (24)는 올바른 발화가 아니다. 예문 (25)~(30)에서도 ‘-더니’의 선행절에 기술된 상황은 모두 화자가 직접 관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화자가 행한 과거의 관찰대상은 어디까지나 ‘-더니’가 붙는 선행절이 기술하는 상황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후행절이 기술하는 상황은 화자의 관찰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예문 (24)~(26)의 경우에는 후행절의 상황도 화자의 직접관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행절의 상황과 후행절의 상황이 시간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두 행위를 분리해서 관찰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화용론적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더니’와 ‘-있더니’의 예문은 대부분 KAIST 한국어 용례색인 <http://morph.kaist.ac.kr/kcp/>를 통해 발췌한 것이다. 일부 예문은 필자가 편익상 수정하였다.

다. 그러나 예문 (27)의 경우에는 선행절의 [그렇게 술을 마셔대대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병이 나고 말대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일 필요가 없다. 후행절의 상황은 화자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현재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문 (28)~(30)에서 후행절의 상황은 화자의 현재의 감각적 관찰로 해석된다.

3.2. ‘-더니’와 주어제약

연결어미 ‘-더니’가 종결어미에서의 ‘-더-’와 마찬가지로 주어제약을 보여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예문 (24)~(26), (28), (30)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3인칭이고, 예문 (27)의 경우는 주어가 2인칭일 수도 3인칭일 수도 있으며, 예문 (29)의 주어는 2인칭이다. 아래의 예문들 (31)~(33)은 ‘-더니’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나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니 불을 켰다.

(32) *나는 눈을 한 번 굴리더니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33) *나는 가위를 집어들더니 거침없이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더니’에 대한 주어제약현상은 종결어미에서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더니’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지만 이 경우 화자 자신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관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화자 자신의 행위는 행위수행과 함께 자동적으로 화자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화자의 관찰대상이 아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더-’에 대한 주어제약에는 예외가 있다. 1인칭 주어가 객관화되어 화자의 관찰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예문 16~17). 또한 심리형용사들의 경우에도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허용된다(예문 19~21). 아래 예문들 (34)~(36)은 비슷한 상황에서 ‘-더니’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4) a. 꿈속에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
b. 꿈속에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더니 새처럼 하늘을 나는 거야.
- (35) a. 나는 소주가 좋더라.
b. 나는 옛날에는 소주가 좋더니 요즘은 못 마시겠어.
- (36) a. 조금 전에는 배가 너무 아프더라.
b. 조금 전에는 배가 너무 아프더니 이제는 괜찮아.

‘-더니’의 경우에도 화자의 행위가 제3자와 같이 객관화되는 경우나(예문 34), 심리형용사들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예문 35~36).

3.3. ‘-더니’의 의미기능 및 후행절과의 관계

‘-더니’는 전형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순차적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예문 24~26). ‘-더니’는 또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거나(예문 27~28), 대조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예문 29~30).

종결어미의 ‘-더-’는 주로 과거상황의 기술에 사용되지만 예문 (10)~(12)에서 보았듯이 미래상황의 기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종결어미의 ‘-더-’와 달리 연결어미 ‘-더니’가 붙는 선행절은 항상 과거의 상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후행절이 현재시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문 (35b), (36b)에서 후행절은 현재상황이지만 선행절은 과거상황을 기술한다. 물론 이들 예문들의 선행절 속에는 ‘조금 전에는, 옛날에는’과 같은 과거임을 명시하는 시간부사어들이 있다. 그러나 예문 (37)~(38)에서와 같이 과거시간부사어들이 없는 경우에도 ‘-더니’의 선행절은 항상 과거 상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7) 어디론가 급히 가더니만 이제부터 또 다른 행사가 있는 모양이군.⁴

(38) 배가 살살 아프더니 이제는 괜찮아.

‘-더니’의 경우 선행절의 상황은 후행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후행절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앞선다. 예문 (24)~(28)에서와 같이 순차적 접속관계나 인과관계를 기술할 때는 상황전개의 시간적 흐름에 있어서 선행절이 후행절을 앞서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문 (29)~(30)에서 보듯이 대조관계를 나타낼 때도 ‘-더니’의 선행절이 시간적으로 후행절을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었더니’

‘-었더니’는 ‘-더니’와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여준다. ‘-었더니’는 ‘-더니’와 달리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며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더니’는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표현하는 상황의 순차적인 접속을 나타내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개 일치한다. 그러나 ‘-었더니’의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4.1. ‘-었더니’와 주어제약

‘-더니’가 주로 2·3인칭의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1인칭 주어와는 일반적으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었더니’는 주어제약에 있어서 ‘-더니’와 정반대이다. 즉 ‘-었더니’는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2·3인칭 주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9) 너를 씨암탉이라고 오랫동안 살려두었더니 나를 죽이려 들어.

(40) 제가 공을 들고 내려가서 주었더니 그대로 갖고 가 버렸어요.

4 ‘-더니’에 연결어미는 경우에 따라 ‘-마는/만’을 취해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 (41) 맥을 짚어 보았더니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42)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파.
 (43)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별로 당기지 않는데.

위의 예문들 (39)~(43)에서 선행절의 주어는 모두 1인칭 주어이고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2·3인칭 주어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었더니’가 다음 예문들과 같이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44) (그가) 부엌 쪽으로 돌아갔더니 그쪽 문도 잠겨 있었답니다.
 (45) (그가) 그 회사에 들렀더니 사무실에 전화 한 대만 달랑 있더라고요.
 (46) 철수가 문을 열었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와 있는 거야.
 (47) 철수가 기침을 했더니 영화가 휴지를 건네주었어.

예문 (44)~(45)와 예문 (46)~(47)은 서로 성질을 달리한다. 예문 (44)~(45)는 간접인용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술동사 ‘있었답니다’와 ‘있더라고요’는 모두 ‘있었다+합니다’와 ‘있더라+합니다’의 축약형이다. 이들은 원래 상위문의 서술동사인 발화동사가 인용절을 내포하는 구문으로 인용절의 주어는 원발화자(인용절의 화자)이다. 즉 이 두 문장에서 ‘-었더니’는 원래 1인칭 주어(원발화자)와 함께 사용된 문장들이었으나 이들이 간접인용문화하면서 원발화자인 주어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화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었더니’가 2·3인칭 주어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문 (46)~(47)은 예문 (44)~(45)와 달리 통사적으로 인용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 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4.3.)에서 다시 다루겠다.

일반적으로 ‘-더니’와 ‘-었더니’에 대해서는 선행절에 대한 주어제약의 차이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차이점은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의 일치여부이다. ‘-더니’의 경우 주로 중심의미가 순차적 접속관계를 나타내며 이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대개 일치한다. 그러나 ‘-었더니’는 ‘-더니’와 달리 주로 인과관

계나 선행절에서 배경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달라야 한다.

- (48) *내가 다리 밑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불을 켰다.
- (49) *내가 눈을 한 번 굴렸더니 (내가)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 (50) *내가 가위를 집어 들었더니 (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문 (48)~(50)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후행절의 주어를 선행절의 주어인 1인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위의 문장들은 모두 예문 (51)~(53)과 같이 타당한 문장들이 된다.

- (51) 내가 다리 밑으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불을 켰다.
- (52) 내가 눈을 한 번 굴렸더니 그가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 (53) 내가 가위를 집어 들었더니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도 있다.

- (54) 궁녀들은 잣을 따먹으며 지냈더니 배고픔을 들 수 있었다고 한다.
- (55) 그녀는 침대를 다시 끌어 보았다. 사력을 다해 끌었더니 방의 중간쯤까지 그것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
- (56)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파.
- (57) 매일 맥주를 마셨더니 살이 쪼어.

이들 예문은 얼핏 보기에 ‘-었더니’의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동일주어구문이 아니다. 예문 (54)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궁녀’이다. 후행절에서 ‘-르 수 있었고’를 서술동사에 붙는 하나의 문법표지로 본다면 후행절의 주어는 ‘궁녀’가 되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

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실제 후행절은 관형절을 취하는 불완전명사구문으로 ‘궁녀’는 관형절의 주어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불완전명사인 ‘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문 (55)는 예문 (54)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예문 (56)~(57)의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으로 해석된다. 후행절을 ‘(내가) 머리가 아파’와 ‘(내가) 살이 찢어’의 이중주어구문으로 본다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예문 (56)~(57)과 같은 예문들이 ‘-었더니’ 구문에 존재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주어제약규칙에 대한 예외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구문들이 ‘내가 머리가 아파, 내가 살이 찢어’와 같은 이중주어구문에서 진정한 주어가 두 번째 명사구리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4.2. ‘-었더니’의 의미기능 및 후행절과의 관계

‘-더니’의 중심적인 의미는 순차적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인과관계나 대조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었더니’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순차적 접속관계나 대조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었더니’는 또한 후행절의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문 (39)~(41)은 배경설정을, 예문 (42)~(43)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이 순차적 접속관계나 대조관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문에서 ‘-었더니’는 부자연스럽다. 아래에서 예문 (58)과 (60)은 각각 ‘-더니’가 순차적 접속관계나 대조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이는 반면 예문 (59), (61)은 ‘-었더니’가 이러한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58) 그녀는 뒷걸음을 치더니/치고/치며/쳐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59) 나는 뒷걸음을 *치더니/치고/치며/쳐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60) 어제는 영수가 가더니/갔고/갔으며/갔는데 오늘은 철수가 갔다.

(61) 어제는 내가 *갔더니/갔고/갔으며/갔는데 오늘은 철수가 갔다.

‘-더니’와 마찬가지로 ‘-었더니’의 선행절은 항상 과거 상황을 기술한다. 후행절도 대체로 과거 상황을 기술하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과거가 아닌 경우도 있다.

(62) 밖으로 달려나가 봤더니 건물이 곧 무너지겠더라.

(63)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이번에는 김박사가 당선되겠더라.

(64)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아파.

(65)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별로 당기지 않는데.

예문 (62)~(63)에서 선행절은 모두 과거의 상황을 기술하지만 후행절의 [건물이 무너지다]와 [김박사가 당선되다]는 모두 미래의 상황이다. 예문 (64)~(65)에서는 선행절이 과거 상황을 나타내지만 후행절은 현재의 상황을 기술한다.

‘-더니’의 경우 선행절의 상황은 시간적으로 항상 후행절의 상황을 앞선다. 즉 선행절의 상황이 후행절의 상황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었더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아래의 예문들 (66)~(68)에서 후행절의 상황은 내용적으로 모두 선행절의 상황보다 앞서 일어난 것들이다.

(66) 학교에 갔더니 철수는 벌써 돌아간 다음이었다.

(67)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더라.

(68) 지갑을 열어 봤더니 돈은 이미 없어지고 없었다.

앞에서 우리는 ‘-더니’가 순차적 접속을 주로 나타내며 인과관계나 대조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 데 반해, ‘-었더니’는 배경설정과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더니’와 ‘-었더니’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차이는 행위의 완료성이다. ‘-더니’의 선행절에 기술된 행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느낌을 주며 후행절에 연관된 행위의 계속을 기대하게 한다. ‘-었더니’의 선행절에 기술된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료된 행위의 느낌을 준다. 다음 예문 (69)는 ‘-더니’와 ‘-었더니’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었더니’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서로 별개의 인물(고르바초프 대통령, 대처 수상)로 선행절의 행위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다. ‘-더니’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인(부시 대통령)의 연속적인 행위를 기술하고 있으며 선행절은 미완료의 의미를 드러낸다.

- (69)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벗겨진 이마를 자랑하면서 <광활한 대지> 했더니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가슴을 활짝 열어보이면서 <풍부한 자원>이라고 자랑하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바지를 벗더니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하는데, ……

‘-더니’와 ‘-었더니’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었-’의 존재, 즉 ‘-더-’와 ‘-었더-’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더-’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의 과정에 대한 직접관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반해, ‘-었더-’는 과거의 행위 자체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 상태나 흔적을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 (70) 철수가 밥을 먹더라.

- (71) 철수가 밥을 먹었더라.

위의 예문에서 (70)은 철수가 밥을 먹고 있는 과정을 화자가 직접 목격했을 때 적합하며, (71)은 철수가 밥을 먹고 난 다음의 결과 상태나 흔적, 예를 들어 철수 앞에 놓여 있는 빈 밥그릇을 보았을 때 적합한 발화이다. ‘-더-’와 ‘-었더-’의 이러한 의미차이에서 ‘-더니’와 ‘-었더니’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더-’는 행위의 과정에 대한 직접관찰의 의미를 가지므로 ‘-더니’는 그 행위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행위나 상황의 기술이 뒤따를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에 ‘-었더-’는 행위의 결과상태에 대한 관찰을 나타내므로 ‘-었더니’의 선행절의 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다. 따

라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별도의 분리된 행위나 상태로 이해되는 것이다.

4.3. ‘-었더니’의 양태적 의미

3.1.절에서 우리는 종결어미의 ‘-더-’에서 보이는 직접관찰의 양태적 의미가 ‘-더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다. ‘-더니’가 보이는 1인칭에 대한 주어제약을 우리는 종결어미의 ‘-더-’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 ‘-더니’에 들어 있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었더니’에서는 어떤가? ‘-었더니’는 ‘-더니’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2·3인칭 주어를 허용하지 않고 1인칭 주어와만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주어제약의 차이는 ‘-었더니’에도 ‘-더니’와 같은 감각적 관찰의 양태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었더니’에는 증거성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가정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봉착한다. 첫째, ‘-었더니’에서 1인칭 주어만 사용되는 주어제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더니’에서 관찰되는 감각적 관찰의 증거성의미가 ‘-었더니’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 글에서 우리는 ‘-었더니’에도 여전히 증거성의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었더니’는 기본적으로 화자 본인의 행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의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었더니’에는 직접지식(direct knowledge)의 증거성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직접지식의 증거성 의미가 ‘-더니’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감각적 관찰의 증거성의미로 본다. 이렇게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었더니’가 ‘-더니’와 달리 1인칭 주어만 허용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더-’와 ‘-더니’에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존재하고 이들의 양태적 의미로 인해 1인칭 주어의 행위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었더니’에도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존재한다면 왜 이들은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었더니’가 1인칭 주어와 사용된다는 것 자체

가 과거의 감각적 관찰의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2절에서 종결어미의 ‘-더-’와 연결어미 ‘-더니’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거나 심리형용사의 경우에는 ‘-더니’가 1인칭 주어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심리형용사구문은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만 허용하고 2·3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심리형용사구문이 1인칭 주어를 허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화자 자신이 행한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행한 관찰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은 화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화자 자신밖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찰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2·3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19~21). 어떤 행위나 상태를 다른 사람이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을 화자가 알 수는 없다. 대신 화자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보고 그 사람의 내적인 심리상태(관찰의 결과)를 추론해 표현할 수는 있다.⁵ 즉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관찰의 증거성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행위나 상황이 화자의 감각적 관찰의 대상으로 적합한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더-’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와 1인칭 주어로 서술되는 상황이 의미론적 마찰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 ‘-더-’의 양태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있더니’는 화자 자신의 완료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어지는 발화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있더니’가 기술하는 상황·사건은 하나의 완료된 상황·사건으로 객관화되어 화자의 관찰대상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더-’가 나타내는 화자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5 이러한 표현에 우리는 ‘-하다’ 심리동사를 사용한다.

(a) *나는/너는/그는 추워하더라.

(b) *나는/너는/그는 무서워하더라.

종결어미에서도 ‘-더-’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잘 사용되지 않지만 ‘-었더-’는 1인칭 주어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예문 18). 종결어미에서 ‘-었더-’는 화자의 인식체계 속에 들어 있지 않았던 화자 자신의 과거의 상황, 행위에 대해 별개의 감각적 관찰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1인칭 주어행위의 기술에 사용된 종결어미의 ‘-었더-’에서도 화자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72) 나 그 책 *읽더라/읽었더라.

(73) 나 그 영화 *보더라/봤더라.

남은 문제는 ‘-었더니’가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쓰이는데 왜 2·3인칭 주어와는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완료된 행위로서 보다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찰된다는 화용론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3인칭 주어가 일반적으로 ‘-었더니’와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했고 또 그 완료된 행위를 배경적 사실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드물지만 ‘-었더니’와도 함께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 예문들은 4.1.절에서 예문 (46)~(47)로 ‘-었더니’에 대한 주어제약의 예외로 제시되었던 것들이다.

(74) 철수가 문을 열었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와 있는 거야.

(75) 철수가 기침을 했더니 영희가 휴지를 건네주었어.

위의 예문들 (74)~(75)는 모두 화자가 철수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찰한 경우에 쓸 수 있으며, ‘-었더니’는 철수의 행위를 완결된 것으로 후행절의 배경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우리는 ‘-었더니’에도 ‘-더니’와 마찬가지로 감각적 관찰의 증거성의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선어말어미 ‘-더-’를 포함하는 연결어미 ‘-더니’와 ‘-있더니’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니’와 ‘-있더니’는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과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더니’는 2·3인칭의 주어를 취하여 순차적 접속관계를 주로 나타내지만 인과관계나 대조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반면에 ‘-있더니’는 주로 1인칭 주어를 취하고 배경적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더니’와 ‘-있더니’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더니’의 경우 중심적인 의미인 순차적 접속관계를 나타낼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개 일치하지만 ‘-있더니’의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더니’의 경우에는 선행절에서 기술된 상황이 후행절의 상황을 앞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지만 ‘-있더니’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또한 ‘-더니’뿐만 아니라 ‘-있더니’에도 종결어미에서 선어말어미 ‘-더-’가 가지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더니’와 ‘-있더니’의 통사-의미적 특성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7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76) ‘-더니’와 ‘-있더니’의 통사-의미적 특성

	‘-더니’	‘-있더니’
선행절의 주어	2·3인칭	1인칭
중심의미	순차적 접속관계	배경설정, 인과관계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동일)	상이
시간적 선후관계	선행절 > 후행절	존재하지 않음
증거성의미	과거의 감각적 관찰	과거의 감각적 관찰

참고문헌

- 송재목(1998) 「안맺음씨끝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국어학회, 135~169쪽.
- (2003.10.18)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이중언어학회 제1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북경외국어대학(중국).
- 서태룡(1987)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서울: 탑출판사, 83~84쪽.
- 최동주(1996) 「선어말어미 [-더-]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19호, 한국언어학회, 375~409쪽.
- KAIST 한국어 용례색인 <http://morph.kaist.ac.kr/kcp/>
- Chafe, Wallace and Johanna Nichols (ed.) (198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Series 20, Norwood, New Jersey: Ablex.
- Aikhenvald Alexandra and R. M. W. Dixon (ed.) (2003) *Studies in Evidentialit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54,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민법의 발생발전

안 천 훈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우리 나라에서 통일적인 민법전이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한것은 주체71(1982)년부터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민법규범들과 민법제도들은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발전과정을 거쳐 마련된것이다.

광복후 우리 나라에서의 첫 민법규범들의 발생은 《조선민사령》을 비롯한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악법들을 완전히 폐지한데 기초하고 있다.

주체34(1945)년 11월 19일에 제정된 북조선사법국 포고 제2호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은 일제의 모든 법과 규정들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한다는것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질서와 법도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사법국포고 제2호에 의하여 일제의 모든 법과 규정들이 일시에 철폐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관계들을 확립시킬수 있는 민주주의적법규범들을 전면적으로 제정실시하여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일제의 모든 법규정들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낡은 사회경제관계들은 의연히 존재하고있었다. 낡은 사회경제관계들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관계들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첨예한 계급적대립속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더우기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한데 이어 계속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적인 민법전에 앞서 민주주의적개혁들을 힘있게 담보할수 있는 분야별 민법규범들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이 새조선건설과 함께 힘있게 전개되었다.

이시기 제정된 민법규범들은 내용상 크게 3가지 체계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로, 토지개혁 및 토지관리와 관련한 민법규범들의 체계이다. 여기에는 주체 35(1946)년 3월 5일의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그 세칙, 5월 22일의 《토지소유권증명서교부에 관한 세칙》, 이밖에 《상전(桑田)관리령》과 그 시행세칙, 《북조선림야관리령》, 《북조선토지개간법령》 등이 속한다.

이러한 규범들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관계와 국가소유관계가 규정되었고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됨으로써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토지소유관계가 고착되었으며 농촌에서 자본주의적요소의 발전은 억제되었다.

둘째로, 국영경제창설 및 국영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민법규범들의 체계이다. 주체35(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채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채택되고 주체36(1947)년 12월 《북조선지하자원, 산림지역 및 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창설된 국영경제를 올바르게 관리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35(1946)년 11월 30일 《국영기업장관리령》이 채택되었고 그해 11월 25일에는 《물품거래 및 현금절용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계속하여 《북조선의 국가, 사회단체, 소비조합재산보호에 관한 법령》(1946.12.26),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호상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확립에 관한 결정서》(1948.2.29) 등 수많은 규범들이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된 이러한 규범들은 민법적성격보다 행정법적성격이 강한 규범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들에 의하여 국가소유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보호, 국가경제단위들의 법인격과 권리능력의 범위, 국가경제운영에 적용될 상업적형식들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었다.

셋째로, 봉건적인 신분관계와 낡은 사회문화관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격적관

계들과 문화관계들을 규정한 규범들의 체계이다. 그 대표적인것으로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1946.7.30)과 그 시행세칙,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1947.1.24)을 들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과 시행세칙에 따라 녀성들은 남성들과 대등한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자유결혼과 리혼의 권리, 리혼과 양육비청구에 관한 소송상 권리들이 녀성들에게 부여되고 일부다처제, 인신매매가 금지되었으며 녀성들의 재산권과 상속권, 결혼년령 등이 규정되었다.

이밖에도 《공민중에 관한 결정》(1946.8)을 비롯하여 《개인재산보호에 관한 법령》(1947.1.24),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1947.10.4) 등이 제정·실시되었다.

이시기 제정된 민법규범들은 비록 완비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관계들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되고있던 헌법초안이 주체37(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식 승인되어 실시된것은 우리 나라 민법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헌법제정을 통하여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주의개혁의 성과들을 반영한 규범들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중요하게는 차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법률적 담보가 마련되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전후시기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내각결정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하여》(1954.3.11), 《생산협동조합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1954.6.4) 등이 채택되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국가의 지도와 방조밑에 당사자들의 자원성의 원칙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시기 해당한 민법규범들은 민주주의개혁시기와는 달리 사회주의적제관계들이 확립되는데 따라 수정·보충되었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규범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인경리와 관련된 채권채무제도들도 없어지게 되었다. 생산수단은 자연히 상속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소유권제도와 그 연관제도들은 오늘의 소유권제도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 추게 되었다.

1958년에 이르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 80년대 초까지 민법체계와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의 실현과 관련한 규범들은 예외로 되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된 현실은 그에 맞는 경제관리제도와 연관민법규범들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 자재공급과 상품공급에 관한 민법적규제들이 심화되고 계획적계약규범들이 개선되었다.

우리 나라 민법의 발전에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현행 공화국민법의 기본내용들이 원칙적으로 규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민법규범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새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난세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사회경제관계의 규모와 범위는 지난날과는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대외정치경제관계들도 급격히 증대되었다.

현실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민법전의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실무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그 결과로 주체71(1982)년 12월 7일 《민사규정》이 제정되고 주체72(1983)년 3월부터 《민사규정실행세칙》이 잠정적으로 실시되었다.

《민사규정》은 일반규정과 결혼 및 가족관계, 민사거래행위, 손해보상, 부당리득의 처리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사규정》이 채택된후 본격적인 상의와 토의를 거쳐 통일적인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주체79(1990)년 9월 5일 드디어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민법》이 제정되었다.

공화국민법전은 4개편 13개장 271개조로 구성되었다. 제1편에서는 민법의 규제 대상과 원칙, 권리능력제도와 행위능력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있으며 제2편에서는 소유관계에 관한 종전의 규범들을 종합체계화하였다. 제3편은 거래관계를 규제한 채권채무제도로써 일반계약제도와 국가계획에 기초한 계약제도를 구별하고 부당리득의 반환제도를 설정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민사책임제도와 사회제도를 예견하였다.

새 민법전에서는 현재까지 법전화되지 못하였던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제도와 무임관리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을 설정하였다.

한편 미성인의 부분적행위능력의 연령을 16살로 확대하였고 결혼가족관계와 상속관계는 민법전에서 분리시켰다. 그리하여 민법전에서 인격적관계는 배제되었으며 공화국민법은 전적으로 독자성을 가지는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만을 규제하게 되었다.

그후 공화국민법은 1993년과 1999년에 수정보충되었으며 현실발전에 맞게 민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사동문의 유형론

연 재 훈

런던대학교 SOAS

1. 머리말: 사동의 정의

사동(causative)이란 사역주(causer)가 피사역주(causee)로 하여금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게 만드는 태(voice)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역주가 도입되는 사동 표현은 대응하는 비사동 표현보다 1개의 명사구 논항을 더 가지고 있다. 사동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두 상황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동 상황(causative situation)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소상황(micro-situation)을 하나의 복합상황(macro-situation)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omrie (1981: 158)의 다음 설명을 음미해 보자.

“사동 상황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소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버스가 연착해서 내가 회의에 늦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버스가 늦은 것은 원인으로, 그래서 내가 회의에 늦은 것은 결과로 작용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소상황이 결합하여 사동 상황이라는 하나의 복합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¹

1 “Any causative situation involves two component situations, the cause and its effect (result). Let us imagine the following scene: the bus fails to turn up ; as a result, I am late for a meeting. In this simple example, the bus’s failing to turn up functions as cause, and my being late for the meeting functions as effect. These two micro-situations thus combine together to give a single complex macro-situation, the causative situation.” (Comrie 1981: 158).

이러한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방법을 사동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정의는 전형적인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사동법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정의의 문제는 ‘사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어외적 개념(extra-linguistic concept)이라는 데에 있다. 실제로 인간 언어에서 사동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동의 개념이 형태-통사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예를 들면,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거나 사동 조동사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사동문의 특성을 살필 것이다.

2. 사동문의 유형

2.1.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사동문은 그 형태-통사적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Comrie 1989, 권재일 1992 등 참고).

- 가) 어휘적 사동법
- 나) 형태적 사동법
- 다) 통사적 사동법

어휘적 사동법은 형태적으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동사가 사동 표현을 수행하는 경우이고, 형태적 사동법은 파생적으로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법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동사가 분리되어 실현되는 경우이다.

2.1.1. 어휘적 사동법

어휘적 사동은 사동의 의미가 동사의 의미 속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영어에서 동사 ‘die’에 대하여 ‘kill’로써 사동 표현이 실현되고, 러시아어에서 ‘umeret’

에 대하여 ‘ubit’로써 사동 표현이 실현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법이라고 분류되기도 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Sohn 1999: 374).

- (1)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를 보냈다.
- (2) 가. 영수가 일을 한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일을 시킨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비사동 표현 (가)를 사동화하여 (나)와 같은 사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휘적 사동은 그 본질상 비생산적이다. 비사동동사와 사동동사 사이의 형태론적 관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문법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² 오히려 사동의 의미는 동사에 내재되어 있는 어휘적 의미라고 간주하여 어휘 부에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2.1.2. 형태적 사동법

전형적인 형태적 사동법은 범언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동사는 비사동사와 형태론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론적 파생의 기제는 접사화이다.

둘째, 전형적인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 비사동사에서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절차는 아주 생산적이다. 많은 언어들에서 생산적인 형태적 사동법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도 터키어와 일본어가 잘 알려진 예이다.

2 역사적으로 어휘적 사동은 형태적 사동에 소급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kill’은 역사적으로 cwellan에서 왔는데, 이것은 cwelan ‘die’와 형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Kulikov 1998). 또 fell-fall, lay-lie 등도 현재는 어휘적 사동의 범주에 들지만 형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3) 터키어

- a. Hasan ben-i agla-t-ti.
 Hasan me-Acc cry-Caus-Past
 "Hasan made me cry."
- b. Hasan kasab-a et-i kes-tir-di.
 Hasan butcher-Dat meat-Acc cut-Caus-Past
 "Hasan made the butcher cut the meat."

(4) 일본어

- a. Taroo-ga Ziroo-o tomar-ase-ta.
 Taroo-Nom Ziroo-Acc stop-Caus-Past
 "Taroo made Ziroo stop."
- b. Taroo-ga Ziroo-ni e-o mi-sase-ta.
 Taroo-Nom Ziroo-Dat picture-Accs ee-Caus-Past
 "Taroo made/let Ziroo look at the picture."

Syeed(1985)에 의하면, Kashmiri어도 아주 생산적인 형태적 사동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근이 ‘-i’로 끝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사동형을 가지고 있다.

(5) Non-Caus	Caus
pi ‘fall’	p’av ‘to cause to fall’
di ‘give’	d’av ‘to cause to give’
ni ‘take’	n’av ‘to cause to take’
hi ‘buy’	h’av ‘to cause to buy’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형태적 사동법은 사동 접미사에 의해 실현된다.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결합하여 실현한다.

- (6) 가. 순이가 영수를 울-리-었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책을 읽-히-었다.

한국어도 터키어나 일본어처럼 생산적인 형태적 사동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터키어나 일본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아주 생산적인데 반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생산적이지 않다.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법은 한국어에서 그 분포가 아주 제한적이다. 또 어떤 종류의 동사(형용사) 어간이 사동 접미사를 취할 수 있는지는 음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동사들에는 사동 접미사가 첨가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음운, 통사,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³ 사동사의 파생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법은 어휘적 사동법과 형태적 사동법의 중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이 터키어나 일본어의 형태적 사동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사동사가 파생동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동사로서의 의미 이외에 특수한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먹이다’는 ‘먹다’에서 파생된 사동사이지만, ‘먹다’에 대한 사동의 뜻이 아니라 ‘사육하다’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파생 사동사는 단순히 보통 타동사와 같은 통사적 행태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가. 영수가 생각을 돌렸다.

나. 순이가 이름을 속였다.

‘돌리다’라는 동사는 자동사 ‘돌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사동사이지만, (7가)와 같은 문장에서는 ‘-이 돌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고 ‘생각을 바꾸다’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나)의 ‘속이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사동 접미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신 타동 접미사가

3 사동 접미사가 첨가되지 못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라다’ ‘나무라다’처럼 2음절 이상 되는 동사들이 많다. 또 ‘주다’, ‘가르치다’처럼 3항 술어는 사동 접미사를 첨가하여 파생 사동사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처럼 통사적 사동법을 통해 사동 표현을 실현시킨다.

(1) 가. 순이가 영수에게 철수를 나무라-게 하-였다.

나. 순이가 영수에게 철수를 수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사동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Estonia어에서는 ‘-Ta’가 타동 접미사인데 이것이 다음과 같이 사동의 뜻으로 해석된다(Wachowicz 1976: 68).

- (8) so-(eat): soTa(feed),
 opi-(learn): opeTa-(teach),
 kustu-(extinguish, intr.): kustuTa-(extinguish, tr.),

2.1.3. 통사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통사적 사동법을 실현하는 (조)동사로 ‘make, cause, have’와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 (9) a. I made him write a letter.
 b. I caused him to write a letter.
 c. I had the letter written by him.

불어에서는 ‘faire’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 (10) J’ai fait courir Paul.
 I’ve made run Paul.
 “I’ve made Paul run”.
 (11) Je ferai lire le livre à Nicole
 I will-make read the book IO
 “I will make Nicole read the book.”

불어의 사동 조동사 ‘faire’는 독립된 하나의 동사이지만 어떤 면에서 내포문의 동사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어의 사동문 구성을 ‘유사-형태적’(quasi-morphological) 사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불어의 faire 사동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중간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타이어에서는 사동 조동사 ‘tham’에 의해서 사동법이 실현된다(Moreno 1985: 171).

- (12) Saakhaa tham kracok taeæk
 Caus mirror break
 “Saka caused the mirror to break.”

한국어에서는 내포 어미 ‘-게’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 ‘하다’에 내포된 구성으로 통사적 사동법이 실현된다.⁴

- (13)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를 가-게 하-었다.
 (14) 가. 영수가 약을 먹었다.
 나. 의사가 영수에게 약을 먹-게 하-었다.

통사적 사동법은 형태적 사동법과는 달리 분포에 제약이 없다. 형태적 사동법으로 실현된 사동 표현은 거의 예외 없이 통사적 사동법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1.4. 중복 사동

이제 중복 사동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사동 접미사나 사동 형태소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소위 2차 사동 파생법은 흔하지 않은데 몇몇 언어에서 이러한 중복 사동형이 발견된다. 중복 사동을 허용하는 언어들도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다(Wachowicz 1976: 69).

4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의 통사적 파생법은 동사의 융합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Song(1996)은 여러 유형의 사동태를 AND type, PURP(ose) type, COMPACT type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Song(1996: 35~67) 참고. 이에 대한 논의는 Moore and Polinsky (1998: 235) 참고.

I 유형: 똑같은 접사가 두 번 사용되는 경우

- (15) Quechua: huanu-(die), huanu-chi(kill), huanu-chi-chi(make make die, make kill).

또 다른 예는 카쉬미르어(Kashmiri)인데, 여기서도 중복 사동을 만들기 위해 똑같은 접미사가 사용된다.

- | (16) Non-Caus | Caus1 | Caus2 |
|----------------------|---------------------------|--|
| pakun 'walk(intr.)' | pakinavun 'walk(tran.)' | pakinavnavun 'make s.b. walk(tran.)' |
| hechun'learn(intr.)' | hechinavun 'learn(tran.)' | hechinavnavun 'make s.b. learn(tran.)' |

II 유형: 중복 사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접미사가 사용되는 경우

- (17) Turkish: 'ol-(die)', 'ol-dur'(kill, make die), 'ol-dur-t'(make kill):
- | | | | |
|--------|---------|--------|--------------------|
| Mehmet | Hasan-i | Ali-ye | ol-dur-t-tu. |
| | Acc | Dat | die-Caus-Caus-Past |
- "Mehmet made Ali kill Hasan."

III 유형: 중복 사동이 특수한 접미사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경우

- (18) Buriat-Mongolian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생은 허용하지만:
- zogso-(stop intr.), zogs-oo(stop tr.), zogs-oo-lgo(make stop).
- 사동 접미사 '-uul-' 다음에는 다른 사동 접미사가 사용될 수 없다:
- bajarla-(to be happy), bajarl-uul(make happy)

따라서 'cause to make happy'라는 의미는 반드시 통사적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에서 중복 사동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형태적으로 파생된 사동시는 통사적 방법으로 한 번 더 사동화될 수 있다. 그 역은 불가능하다.

- | | | |
|-----------|--------|-----------|
| (19) 비사동사 | 파생 사동사 | 통사적 중복 사동 |
| 죽다 | 죽이다 | 죽이게 하다. |

그렇지만 터키어의 중복 사동이 형태론적 중복 사동임에 비해서 한국어의 중복 사동은 통사적 방법에 의해 형성된 중복 사동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1.5.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

생성 의미론이 한창 유행하던 1960년대에, McCawley(1968)와 같은 생성 의미론자들은 어휘적 사동 'kill'과 통사적 사동 'cause to die'의 기저구조가 아무 차이도 없고, 둘 다 'CAUSE to BECOME NOT ALIVE'의 공통된 기저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⁵ 그 중 재미있는 것은 부사 수식의 영역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음 예문 (20)에서 보는 것처럼, 'cause to die'는 시간 부사를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동사 'cause'를 수식하고 다른 하나는 동사 'die'를 수식하고 있다.

- (20) John caused Bill to die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반면에 동사 'kill'은 하나의 시간 부사밖에 가질 수 없다. 따라서 (21a)는 영어에서 좋은 문장이지만 (21b)는 비문이다.

- (21) a. John killed Bill on Saturday.
 b. *John killed Bill on Sunday by stabbing him on Saturday.

즉, 통사적 사동은 어휘적 사동과는 달리 두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거나 (unity of place), 직접적·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축(implication of physical contact)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5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체계적인 반론은 Wierzbicka(1975)를 참고할 수 있다.

생성 의미론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한국의 많은 언어학자들도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관계를 생성 의미론의 틀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의미적으로 동일하고 통사적으로도 동일한 기저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일 기저설에 입각한 연구로 이정민(1973), 양인석(1974), 손호민(1978) 등이 있고, 서로 상이한 기저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견해는 송석중(1978)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구조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되었다. Shibatani(1976: 1~40)가 지적한 것처럼, ‘동일 기저 구조 가설’에는 여러 가지 반증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⁶

2.2. 의미론적 차이에 따라: 직접 사동 대 간접 사동

사동 사건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사역주가 피사역주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느냐 간접적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눌 수 있다.⁷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간의 인지·인식적 거리 차이는 여러 언어의 형태 구조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고 있다. 직접 사동이란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므로 그 인식 상의 거리가 간접 사동에 비해 짧다고 할 수 있다. 간접 사동에서는 사역주가 피사역주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피사역주의 독립성이 직접 사동의 그것에 비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직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짧고, 간접 사동은 인지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 언어에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 공존할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짧은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그리고 긴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현한다는

6 Shibatani의 반증 논의들은 재귀화 현상, 주어 존대화 현상, 부사 수식의 영역 문제 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세한 것은 Shibatani(1976) 참고.

7 Direct causative와 indirect causative라는 술어 이외에 manipulative vs. directive causation, contact vs. distant, immediate vs. mediated causation 등의 술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범언어적 보편소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Haiman 1983, H. Lee 1985, Knott 1988 등 참고). 예를 들어, 필리핀어인 Cebuano에서는 어휘적(synthetic) 사동형은 직접 사동을 표시하고, 접두사 ‘-pa’와 함께 나타나는 분석적(analytic) 사동형은 간접 사동을 표시한다(Haiman 1983: 785).

힌디어(Hindi)에서는 직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 접미사 ‘-aa’를 사용하고, 간접 사동을 표시하는 데는 접미사 ‘-vaa’를 사용하여, 어근 ‘parh-’에서 파생된 두 가지 사동형 ‘parh-aa’(teach)와 ‘parh-vaa’(have someone study, have something read)이 각각 직접 사동의 의미와 간접 사동의 의미를 표현한다(Saksena 1980). 다음 예문을 보자.

- (22) a. mai-nee larkee-koo parh-aa-yaa,
 I-Agt boy-Dat/Acc study-Dir.Caus-Past
 “I taught the boy.”
 b. mai-nee larke-koo parh-vaa-yaa,
 I-Agt boy-Dat/Acc study-Indir.Caus-Past
 “I taught the boy.”

(22a)는 직접 사동을 나타내고 (22b)는 간접 사동을 나타낸다.

또 아무르강 상류와 사할린 지역에서 사용되는 Nivkh말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동문이 관찰된다(Knott 1988).

- (23) a. If p’az-d’
 he undress-Finite
 “He undressed(intr.)”
 b. 직접 사동(‘-u-’ suffix plus consonant change in root)
 emek p’o:la faz-u-d’
 mother her child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undressed her child.”

c. 간접 사동(‘-gu-’ suffix)

emek p'o:la-ax p'az-gu-d'
 mother her child-Cause undress-Caus-Finite
 “The mother made her child undress.”

Knott(1988)에 따르면, (23b)와 (23c)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직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이지 못한 반면, 간접 사동형 접미사는 생산적인데, 이것은 우리말의 어휘적 사동과 형태적 사동에 각각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두 유형은 통사적 행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바, 직접 사동형의 피사역주(causee)는 일반적 타동 구문의 직접 목적어와 같이 아무런 형태적 표지도 갖지 않는 반면, 간접 사동형의 피사역주는 유정 명사일 경우 예문 (23c)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격표지를 받는다. 셋째, 직접 사동 동사는 일반 타동사와 별 차이가 없고 논항의 의미 기능도 사역주가 전형적 타동사의 행동주 역할과 같다는 점에서 타동사와 큰 차이가 없다.

네팔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베토-버마어인 Newari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규칙적으로 구별하고 있다(DeLancey 1984). 이 언어에서 직접 사동은 사동 접미사 ‘-khal’의 첨가로 표시하고, 간접 사동은 접미사 ‘-khe’⁸에 조동사 ‘yat-’(do)를 결합시킨 일종의 분석적 형태로 표시한다.

- (24) a. mæca cahil-o
 child walk-Perf
 “The child walked.”
 b. misa-no wo mæca-yato cahi-k^hal-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Perf
 “A/the woman walked the child.”
 c. misa-no wo mæca-yato cahi-k^he yat-o
 woman-Erg the child-Dat walk-Caus do-Perf
 “A/the woman made the child walk.”

8 이 접미사도 사동 접미사 ‘-k^hal’과 기원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한다.

(24b)와 (24c)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걷는 행위에 있어서 아이의 의도(volition)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DeLancey(1984: 194)에 의하면, (24b)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길로 잡아끌어 걸리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고, (24c)에서는 여자가 아이에게 걸으라고 명령·권유해서 아이가 그 말에 따라 행동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의미상의 함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22)~(24)에 제시한 예들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차이는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행위 사이의 인지적 거리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거리상의 차이가 언어 상으로는 짧은 사동형과 긴 사동형이라는 형태 길이 상의 차이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별해 주는 사동 접미사가 따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언어에서는 피사역주에 첨가되는 격표지의 차이가 종종 이러한 의미 차이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대격이나 여격이 직접 사동을, 사격이 간접 사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들이 이것을 보여 준다.

(25) Bolivian Quechua:

- a. nuqa Fan-ta rumi-ta apa-ci-ni,
 I Juan-Acc rock-Acc carry-Caus-1sg.
 “I made Juan carry the rock.”
- b. nuqa Fan-wan rumi-ta apa-ci-ni,
 I Juan-Inst rock-Acc carry-Caus-1sg.
 “I had Juan carry the rock.”

(26) Kannada:⁹

- a. Avanu nanage bisketannu tinnisidanu,
 he-Nom me-Dat biscuit-Acc eat-Caus-Past
 “He fed me a biscuit.”
- b. Avanu nanninda bisketannu tinnisidanu,
 he-Nom me-Inst biscuit-Acc eat-Caus-Past
 “He caused me to eat a biscuit.”

9 Kannada는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Dravidian)이다.

(27) Hungarian:

- a. KÜhÜgtettem a gyerek-et.
 I-caused-to cough the boy-Acc
 "I made the boy cough."
 b. KÜhÜgtettem a gyerek-kel,
 I-caused-to cough the boy-Inst
 "I had the boy cough."(by asking him to do so)

우리말에서도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이의 의미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직접 사동은 어휘적·형태적 사동형으로, 간접 사동은 분석적·통사적 사동형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이러한 의미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28) 직접 사동

- 가. 엄마가 아이에게/를 옷을 입혔다.
 나. 의사가 환자를 침대에 눕혔다.

(29) 간접 사동

- 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나. 의사가 환자를/에게 침대에 눕게 했다.

다른 나라 말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간접 사동은 생산적이고, 직접 사동은 비생산적이다. (28)과 (29) 사이의 차이는 피사역주인 ‘아이’나 ‘환자’의 의도(volition)가 옷을 입는 행위나 침대에 눕는 행위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문에서는 사역주(causer)나 피사역주가 의도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 명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¹⁰ 피사역주가 무정물(inanimate)인 경우에는,

10 김백련(1964: 157~9)같은 학자는 피사역주가 유정물인 경우만 사역동사로 보고, 피사역주가 무생물인 경우는 일반 타동사로 보는 『조선어 문법』(1949: 267)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타동사도 피사역주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도 되고, 사역동사도 된다는 것인데, ‘어머니가 아이 옷을 벗긴다’의 경우는 아이가 옷을 벗을 수 있으므로 사역동사이고, ‘사과 껍질을 벗기

간접 사동의 사역주(causer)가 미술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간접 사동의 피사역주가 무정물인 다음 예문을 보자.

- (30) 가. 영수가 나무를 살게 했다. (cf.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게 했다. (cf.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위 문장들이 이러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간접 사동이라는 것이 사역주와 피사역주 간에 물리적 접촉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접촉이 없고, 행위를 일으킬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 명사가 중간자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마치 미술적 힘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 함축이 영어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Haiman(1983: 784)은 기술하고 있다. 다음 예문이 그 예이다.

- (31) a. I caused the tree to fall.
b. the chicken to die.
c. the cup to rise to my lips.

특히 (31c)의 경우에는 사역주의 미술적 힘이 강력하게 함축되는 듯 하다. 그러나 (30)~(31)에서 관찰되는 미술적 힘이라는 함축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문 (32)나 영어의 어휘적 사동문 (33)에서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가. 영수가 나무를 살렸다.
나. 영수가 의자를 돌렸다.
(33) a. I fell the tree.
b. I killed the chicken.
c. I raised the cup to my lips.

피사역주가 유정명사이거나 특히 인물명사일 경우에는 사역주에게 미술적 힘을

여 먹어라의 경우는 사과가 자체로 껍질을 벗지 못하므로 타동사라는 것이다.

부여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간접 사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역주의 명령에 의해 사동 행위를 피사역주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간접 사동이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를 피사역주로 요구한다는 언어 사실을 기능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3. 피사역주의 격표지 유형¹¹

3.1. 피사역주의 격표지에 대한 콤리의 통사적 설명

사동문에서 피사역주(causee)가 형태론적으로 어떤 표지를 취하며, 어떤 통사-의미적 특징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여러 문법 이론의 틀 속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다(Shibatani 1976, Song 1996). 능동문에 새로운 주어인 사역주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사동문이라고 본다면, 원래의 주어인 피사역주는 원래 문장의 통사구조에 따라 그 격표지가 정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콤리(Comrie 1981, 1989)는 자기가 제시한 문법관계 위계(hierarchy of grammatical relations)에 따라 피사역주의 다양한 형태-통사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문법관계 위계란 다음과 같다.

(34)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blique Object

그의 주장의 요점은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이 위계상에서 충족되지 않은 가장 왼쪽의 문법관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문이 사동화되어 새로 도입된 사역주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면 피사역주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오고, 직접 목적어 자리가 채워진 타동문이 사동화되면 피사역주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오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자리가 모두 채워진 3항 술어-예를 들어, 수여동사-

11 피사역주의 격표지 유형에 대한 문제는 '사동문 피사역주의 격표지 중첩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문법과 텍스트』에도 발표된 바 있다(연재훈 2002 참고).

구문 등이 사동화되면, 피사역주가 사격보어 자리에 온다는 일반화를 주장하였다. 콤리는 이러한 위계를 가장 잘 지키는 ‘모범적인 경우’(paradigm case)로 터키어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들은 콤리가 말하는 ‘모범적인 경우’에 들어맞지 않는다 (Song 1996: 160). 일견 이러한 위계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불어도 예외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다음 예를 보자.

- (35) 가. Je ferai manger les gateaux a Jean, (IO)
 ‘I shall make Jean eat the cakes.’
 나. Je ferai manger les gateaux par Jean, (Oblique)
 ‘I shall make Jean eat the cakes.’

(35가)는 문법관계 위계에 따르는 모범적인 예이지만, (35나)와 같이 모범에서 벗어나는 예들도 불어에서 허용된다. (35나)에서는 피사역주 Jean이 간접 목적어가 되어야 할 텐데, 피동문의 행위자를 표시하는 전치사 ‘par’를 취해 사격보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문법관계 위계에 따르면 직접 목적어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으므로 피사역주는 간접 목적어로 나타나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36) Sanskrit (Song 1991)
 bhupyam/bhupyena katam karayati
 servant(DO/Inst) mat(DO) prepare-Caus
 “He makes the servant prepare the mat.”
 (37) Hindi (Saksena 1980: 813)
 mai-nee raam-see/*koo peer kat-aa-yaa,
 I-Agt Ram-Inst/*Dat tree cut-Caus-Past
 “I made Ram cut the tree.”

피사역주가 산스크리트어 (36)에서는 간접 목적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도구격

을 가질 수도 있고, 힌디어 (37)에서는 간접 목적어로는 나타날 수 없고 도구격으로만 나타나야 한다.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의 격표지를 문법관계 위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설명은 적지 않은 예외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Song 1996, Yeon 1998). 이외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코진스키와 폴린스키(Kozinsky & Polinsky 1993)는 피사역주의 격표지가 직접목적어와 같은 표지를 가짐으로써 격표지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문법관계의 중복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특히 한국어와 네덜란드어(Dutch) 자료를 토대로 비록 격표지의 중첩이 일어나지만 문법관계의 중복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콤리의 문법관계 위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콤리의 위계 설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 후에, 격표지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3.2. 격표지 중첩의 문제: 문법관계의 중첩인가?

한국어에서 타동문이 사동화될 때 피사역주는 보통 여격표지를 갖는다. 즉 원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피사역주는 (38)처럼 여격 표지를 갖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 (38) 가. 아이가 약을 먹었다.
나.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39)처럼 비사동문에서도 이중 목적어를 허용하는 구문이 있고, (40)처럼 사동문에서도 피사역주가 대격표지를 가짐으로써 직접 목적어 자리에 중복을 허용하는 구문이 가능하다.

- (39) 가.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나. 개가 토끼를 다리를 물었다.

(40) 엄마가 아이를 약을 먹였다.

이 경우 피사역주는 원래의 목적어와 똑같은 대격표지를 가짐으로써 소위 ‘격표지 중첩’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여기서 과연 피사역주의 문법관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 (i) 대격표지를 받은 두 개의 명사구가 모두 직접 목적어일 가능성.
- (ii) 피사역주가 직접 목적어이고 대격 표지된 원래의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가 아닐 가능성.
- (iii) 원래의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이고 대격 표지된 피사역주는 직접 목적어가 아닐 가능성.

(i)의 경우에는 문법관계 중복(통사적 중복)의 경우로 이것은 콤리의 문법관계 체계에 어긋나는 예외가 되지만 (ii)나 (iii)의 경우에는 비록 표면적인 격표지는 중첩이 일어나지만 문법관계 상으로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콤리의 가설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ozinsky & Polinsky(1993)은 한국어의 이중 대격 구문과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의 문법관계를 논하면서 피사역주가 문장의 직접 목적어이고 원래의 목적어는 사격 목적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피사역주와 원래의 목적어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41)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예문 (33)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의미기능 :	causer	causee	patient
문법관계 :	TS	DO	non-term
	(Transitive subject)		

그런데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이하 코와 폴이라 지칭함)가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는 통사적 테스트들이 믿을만한 것이 못되고 그들의 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서 자세히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를 느낀다.

코와 폴은 한국어에서 직접목적어의 문법관계를 확인하는 통사적 절차로 다음과 같은 테스트들을 제시하고 있다(Kozinsky & Polinsky 1993: 185~187).

- (i) Control of the resumptive element across the twui-clause.
- (ii) Control of the null copy and resumptive pronoun across the se-clause.
- (iii) Passivization.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는 직접목적어나 제3의 인물과 공지시 관계에 있다. 또 ‘-어서-’절 뒤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생략된 주어(null copy)¹²나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는 직접 목적어와 공지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수동화 절차는 이미 직접 목적어를 판별하는 통사적 테스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코와 폴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예문들을 우선 살펴보자. 먼저 (i)과 관련된 예문이다.

(42) (코와 폴의 예문 11)

그 학생이_i 이웃을_j 때린 뒤, 그가/그 남자가_i 떠났다.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대명사적 요소는 직접 목적어나 제3의 인물을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42)에서 ‘그 남자’가 이웃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공지시 관계는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이것은 PRO와 같은 것이다.

(42') 철수가 영수를 때린 뒤 그가 떠났다.

철수가 영수를 만난 뒤 그가 떠났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도 주절의 '그'는 영수를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철수'를 가리키는 것 같다. 사실 이 지시 관계는 다분히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 즉 앞 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는 선행절의 철수나 영수를 선택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ii)와 관련된 예문이다.

(43) 가. 그 사람이_i 이웃을_j 때려서 $\emptyset$ _{j/*i} 떠났다.

나. 그 사람이_i 이웃을_j 때려서 그가_{j/*i} 떠났다.

(43가)에서 주절의 생략된 주어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가리키고, (43나)에서 주절의 지시대명사는 선행절의 직접목적어를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다만 (43가)는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이 그 해석에 동의했고 (43나)는 주절의 지시대명사가 제3의 인물을 가리킨다는 해석을 선호하는 화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Kozinsky & Polinsky 1993: 186).

우선 필자의 직관으로는 코와 폴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43)의 경우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경우의 해석은 다분히 화용론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통사적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43)에서 주절의 동사와 선행절의 동사를 대체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생략된 주어나 지시대명사가 선행절의 주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¹³

13 송재정(1995: 216~7)에서도 코와 폴의 통사적 테스트들이 순수히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화용론적 내지는 통사외적인 지식(the knowledge of the world)에 좌우되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 든 예문도 상황에 따라 누구를 지칭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생략된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

- (44) 가. 그 사람이 이웃을 때려서 감옥에 갔다.
 나. 그 사람이 이웃을 때려서 그가 감옥에 갔다.
 (45) 가. 그 사람이 이웃을 죽여서 떠났다.
 나. 그 사람이 이웃을 죽여서 그가 떠났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 (46) 가. 철수가 영희를 때려서 벌을 받았다.
 나.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서 떠났다.

(46)에서도 주절의 생략된 주어는 선행절의 주어를 동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코와 폴은 이와 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동문에서 피사역주와 피동작주(patient)의 문법관계를 판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선택한 예문은 피사역주가 ‘아버지’, 피동작주가 ‘아저씨’인 다음과 같은 예문이다.

- (47) (코와 폴의 예문 33)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코와 폴도 (47가)가 (47나)보다 훨씬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47나)에는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피사역주와 피동작주가 모두 대격표지를 갖고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에 관심이 있으므로 일단 (47나)를 수용 가능한 예문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코와 폴은 (47가)의 각 논항이 지닌 문법관계를 판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하고 있다.

- (48) (코와 폴의 예문 34)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저씨k를 때리게 한 뒤 $\emptyset_i$ 떠났다.

(1)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서 ()_i/*j 그 일을 자진해서 했다.

나. 그 사람_i이 아버지_j에게 아저씨_k를 때리게 한 뒤 그_k/*_j는 떠났다.
 다. 그 사람_i이 아버지_j에게 아저씨_k를 때리게 한 뒤 아버지_j가 떠났다.

(48가)에서 주절의 생략된 주어(null copy)는 선행절의 주어와 공지시된다. (48나)에서 지시대명사(resumptive element)와 공지시되는 것은 선행절의 피동작주인 ‘아저씨’라는 주장이다. (48다)에서 주절의 주어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략이나 지시대명사로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명사가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뒤’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요소가 선행절의 직접목적어인데, (48나)에서 보듯이 직접목적어는 이 경우 ‘아저씨’라는 주장이다.

또 ‘서’절에 이어지는 주절에서 생략된 주어와 공지시되는 요소가 직접목적어라는 논의를 앞에서 봤는데, 다음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저씨’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¹⁴

(49) (코와 폴의 예문 35)

그 사람_i이 아버지_j에게 아저씨_k를 때리게 해서 $\emptyset$ _k 떠났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코와 폴은 (47가) 문장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47가') 그 사람_i이 아버지_j에게 아저씨_k를 때리게 했다

causer causee patient

TS non-term DO

14 이 밖에도 코와 폴은 직접목적어를 구별해 내는 테스트로 채귀대명사의 해석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직접목적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1) (코와 폴의 예문 36)

그 사람_i이 아버지_j에게_j 아저씨_k를 자기(의)_i/k/*_j 방에서 때리게 했다.

이 경우에도, 코와 폴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채귀대명사 ‘자기’와 동지시되는 것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물론 주어인 ‘그 사람’이 동지시될 가능성은 가장 크다).

반면에, 피사역주가 대격표지된 (47나)의 문장에 똑같은 통사적 테스트를 적용하면 피사역주가 직접목적어의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보자.

(50) (코와 폴 예문 38)

그 사람이_i 아버지를_j 아저씨를_k 때리게 해서 $\emptyset_j/*_k$ 떠나섰다.

‘-어서-’절 뒤의 생략된 주어와 동지시되는 명사구가 직접목적어인데, 이 경우에는 피사역주인 ‘아버지’가 직접목적어의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코와 폴은 (47나) 문장의 문법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47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causer	causee	patient
TS	DO	non-term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코와 폴이 사용한 통사적 준거들이 직접목적어를 판별해 주는 증거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절의 생략된 주어와 동지시되는 선행절의 명사구는 다분히 화용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한국어의 피사역주와 피동작주의 문법관계를 각각 직접목적어와 사격보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코와 폴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격표지의 중첩이 문법관계의 중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맥에 따라 피사역주와 피동작주가 직접목적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법관계의 중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Comrie(1976: 276~7) 자신은 이러한 중복 현상이 문법위계 설명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단서들을 달고 있다. 즉, 언어에 따라서는 문법관계 위계상에 중복(doubling on grammatical relations)이 일어나는 일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사역주가 문법관계 위계에 따라 격표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사구 논항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문법관계와 동일

한 격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콤리에 의하면, 편잡어와 불어(Comrie 1975)는 간접 목적어 위치에서 중복이 가능하고, 랍어(Southern Lappish), 에벤키어, 아랍어(Comrie 1976: 285~6), 몽고어(Comrie 1976: 275) 등¹⁵은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중복이 가능한 언어라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중복현상이 왜 허용되며 이것이 사동문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일반적인 비사동문에도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사역주의 격표지 변화를 문법관계 위계로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예외가 있는데,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예는 피사역주가 중복된 격표지만을 허용함으로써 콤리의 설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가 된다.

- (51) 가. 아이가 옷을 벗었다.
 나. 어머니가 아이를 옷을 벗겼다.
 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벗겼다.

콤리를 따르자면, (51가)가 사동화되면, 피사역주는 대응하는 사동문에서 직접 목적어 자리는 벌써 다른 명사구에 의해 채워졌으므로 여격 표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만 (51나)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 피사역주는 반드시 대격 표지를 받고, 여격 표지 피사역주가 나타나는 (51다)는 비문이 된다.¹⁷

15 직접 목적어 자리에서 중복을 보여 주는 특수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 유키아(Yukian)어군의 하나인 와포(Wappo)의 예를 더 들 수 있다(Li and Thompson 1977). 이 언어의 형태적 사동에서는, 사동사가 몇 개의 명사구 논항을 갖든지, 무슨 격표지가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피사역주는 항상 대격표지를 갖고 표현된다. 와포어에서 대격은 표면상 무표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확실히 콤리의 문법관계 위계에 위배되는 예가 될 것이다(지면 관계상 예문은 생략한다. 실제 예문은 Li and Thompson(1977)이나 Yeon(1998: 220~1)을 참고할 것).

16 이 밖에 산스크리트어(Aissen 1979 ; Comrie 1976: 294, 312), 헝가리어(Hetzron 1976: 395) 등에서 직접 목적어 위치에 중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7 독일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Nedjalkov & Silnitsky 1973).

Er liess seinen Sohn/*von seinem Sohn die Jacke ausziehen.
 he let/had his son *by his son the jacket take off

Comrie의 설명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직접 목적어 자리는 이미 다른 명사구가 차지하고 있

Comrie(1981: 171)는 중복 현상과 관련하여, 사격 보어 위치에서는 중복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간접 목적어 위치에서는 제약이 조금 있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는 제약이 꽤 많지만 중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동문의 주어 위치에서는 어떤 언어에서도 중복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단문에서 두 개의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향에 토대를 둔 관찰인 것 같다.¹⁸ 한국어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중복이 가능한 언어에 속하고, 일본어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서의 중복이 불가능한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콤리의 위계 설명은 피사역주가 경우에 따라 격표지가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힌디어에서 일부 동사들은 사동문에서 피사역주가 여격 표지 ‘-koo’나 도구격 표지 ‘-see’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Saksena 1980).

- (52) mai-nee raam-see/koo kitaab parh-vaa-ii
 I-Agt Ram-Inst/Dat book read-Caus-Past
 “I had Ram read the book.”
- (53) mai-nee raam-koo/see masaalaa cakh-vaa-yaa,
 I-Agt Ram-Dat/Inst spice taste-Caus-Past
 “I had Ram taste the seasoning.”

이 경우 격표지의 차이는 의미 차이를 수반한다. Saksena(1980: 816)에 따르면, (52)에서 피사역주가 ‘koo’로 표시되면, 사역주의 사동 행위의 목적은 피사역주가 독서하

으므로, 피사역주는 간접목적어나 사격 보어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독일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피사역주가 반드시 직접 목적어(대격)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벗다’라는 동사의 어휘의 미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18 그런데, 다음의 한국어 사동문 구성에서는 사역주와 피사역주가 모두 주격표지를 갖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형론적으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 가. 영수가 갔다.

나. 순이가 영수가 가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포문을 포함하는 복잡한 구성에 의해 형성된 사동문이기 때문에 콤리의 가설에 반증이 되지는 못한다.

게끔 하는 것이고, 피사역주가 ‘-see’로 표시되면, 사역주의 목적은 책이 읽히게끔 하는 것이어서 피사역주는 그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 (53)에서도, 피사역주가 ‘-koo’로 표시되면 맛보는 것이 피사역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see’로 표시되면, 맛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콤키의 위계 설명은 순전히 통사적 관점에 선 설명이기 때문에 격표지의 의미 기능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격표지의 차이는 많은 경우에 의미 차이를 수반한다. 다음에서 격표지의 차이에 대한 의미적 설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로 하자.

3.3. 피사역주의 격표지 기능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콤키의 문법관계 위계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려는 대안으로 피사역주의 격표지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 있는데, 이것은 Cole(1983)에 의해 대표되며 Saksena(1980) 등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그 행위에 관여하는 통제성·의도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문법 행태 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은 콤키의 문법관계 위계와 같은 순수한 통사적 접근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의미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피사역주의 경우 사역주의 사동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피사역주가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가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 차이도 언어 구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의미 기능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일본어에도 피사역주의 두 가지 형태 표지에 따라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omrie 1981: 54).

19 ‘의도성’이나 ‘통제성’이라고 하는 의미자질이 문법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그러한 인지 차이가 문법에서 달리 표현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행태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거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의도성이 있는 주어의 행위와 의도성이 없는 주어의 행위는 인지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형태론적으로 문법에 반영되는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Comrie(1989), DeLancey(1984), 연재훈(1985) 등을 참고할 것.

(54) 가. Taroo-ga Zi-roo-o ik-aseta,
 Nom Acc go-Caus
 “Taroo made (forced) Zi-roo go.”

나. Taroo-ga Zi-roo-ni ik-aseta,
 Nom Dat/Inst go-Caus
 “Taroo got (persuaded) Zi-roo to go.”

(54가)는 피사역주인 Zi-roo에게 최소의 통제력만을 부여하고 있고, (54나)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2.2.에서 언급했던 다음과 같은 언어들에서도 발견된다(Saksena 1980: 820). 위에서 언급했던 예문들을 반복해서 제시하기로 한다(cf. 2.2. (25)~(27)).

(25) Bolivian Quechua

가. nuqa Fan-ta rumi-ta apa-ci-ni
 I Juan-Acc rock-Acc carry-Caus-1Sg
 “I made Juan carry the rock.”

나. nuqa Fan-wan rumi-ta apa-ci-ni
 I Juan-Inst
 “I had Juan carry the rock.”

(26) Kannada

가. Avanu nanag bisketannu tinnisidanu
 he-Nom me-Dat biscuit-Acc eat-Caus-Past
 “He fed me a biscuit.”

나. Avanu nanninda bisketannu tinnisidanu
 he-Nom me-Inst
 “He caused me to eat a biscuit?”

(27) Hungarian

가. Köhögtettem a gyerek-et
 I-caused-to cough the boy-Acc
 “I made the boy cough.”

나. Köhögtetem a gyerek-kel

boy-Inst

"I had the boy cough."(by asking him to do so)

위 예문들에서 (가)는 피사역주의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피사역주가 통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사역주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충고나 설득에 의해서 피사역주로 하여금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 사동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Cole(1983)은 유형론적으로 통제력이 있는 피사역주와 통제력이 없는 피사역주를 형태론적으로 구별 표지함에 있어 어떤 보편적 형태론적 기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간단히 말하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피사역주는 보통 도구격으로 표시되고, 통제력이 없는 피사역주는 보통 피동작주를 표시하는 격과 동일한 대격이나 여격으로 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격은 전형적인 피동작주를 표시하는 격표지로서 아주 낮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도구격²⁰은 높은 통제력을 가진 논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경험주(experiencer)나 수혜자(recipient)를 표시하는 여격은 보통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명사구 논항의 통제력이라는 의미 자질의 관점에서 형태론적 격표지 위계를 '도구격>여격>대격'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경우, 형태적 사동 구문에서는 이 위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문의 피사역주는 통제력이 거의 없는 것 같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어의 형태론적 사동사가 일반 타동사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도, 피사역주가 대격과 여격의 교체를 보이는 경우, 격표지의 차이는 피사역주의 통제력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55) 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20 혹은 피동문에서 사격 보어로 나타나는 행위주를 표시해 주는 격도 이 부류에 들어간다.

나. 어머니가 아이를 옷을 입혔다.

위 예문에서 대격표지된 피사역주는 여격표지된 피사역주에 비해 사건을 통제하는 힘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분석적(통사적) 사동에서는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피사역주를 표시하는 대격과 여격 사이에 상당한 의미 차이를 수반하는 것 같다. Lee(1985)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다음 예문에서 피사역주의 격표지는 통제력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56) 가. 아버지가 아이를 마당에서 놀게 했다.

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당에서 놀게 했다.

다. 아버지가 아이가 마당에서 놀게 했다.

(56)에서 보는 것처럼, 피사역주에 표시된 대격은 사역주의 강력한 강요를 함축하고, 여격은 그보다는 약한 명령이나 권유, 그리고 주격은 단순한 허락이나 분위기 조성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Lee(1985)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동 구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주격>여격>대격’의 순으로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주로 사동문의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가 형태적으로 상이하게 표시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은 피사역주의 격표지 차이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콤리의 가설은 기본적으로 형태적 사동을 염두에 두고, 단문 구조 내에서 문법관계 위계를 가설로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 반드시 중복을 요구하는 예문 (51)과 같은 경우가 콤리의 가설에 치명적인 반례가 될 것이다. 통사적 사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문 구조를 상정하면 격표지 중첩에 따르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 (57) 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PRO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나. 그 사람이 아버지를 [PRO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다. 그 사람이 PRO [아버지가 아저씨를 때리게 했다].

이와 같이 보면 그것이 격표지의 중첩이든 문법관계의 중첩이든 단문 내에서의 중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을 유형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사동문 피사역주의 문법관계와 관련하여 격표지 유형의 행태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사동문은 외부의 행위주를 사역주로 문 구조에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만들어진 다. 사역주가 사건 구조에 새로이 도입되면, 그것이 사건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행위주로 해석되면서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건 발생에 책임을 덜 갖는 원래의 주어 즉 피사역주는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의 위치로 하강한다.

사동문은 두 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또는 형태-통사적 변수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변수이다. 의미적 분류의 예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구분이 한국어에서 형태적으로 반영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은 일반적으로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각각 표현된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중요한 차이는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 차이에 있다. 간접 사동에서의 피사역주는 행위에 대한 통제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직접 사동에서의 피사역주는 행위에 대한 통제성이 전혀 없이 전형적인 피동주처럼 기능한다. 달리 말하면, 직접 사동의 사역주는 사역주가 직접 행위를 유발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타동 구문의 행위주와 같이 기능한다.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관련하여, 한국어 사동 구문에서 피사역주가 행사하는 통제성의 정도라는 자질은 ‘대격>여격>주격’의 순서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피사역주의 형태론적 표지와 관련하여, Comrie(1981, 1989)의 문법관계 위계 가설이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가설에 들어맞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중복 현상을 보이는 언어가 많다는 것을 보였다. 한국어도 직접 목적어 위치에서 중복 현상을 허용함으로써 콤리의 가설에 문제점을 시사한다. 격표지의 중첩을 문법관계의 중첩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코진스키와 폴린스키의 한국어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콤리의 가설은 왜 어떤 경우에 피사역주에 나타나는 격표지가 의미차이를 갖고 쓰이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를 가질 때와 여격 표지를 가질 때는 의미 차이를 보여주는데, 콤리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격표지의 의미 기능은 무시한 채 순전히 통사적 관점에 기초한 가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백련(1964)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상 범주』, 평양: 과학원 출판사.
- 손호민(1978) 「긴형과 짧은 형」, 『어학 연구』 14-2.
- 송석중(1978) 「사동문의 두 형식」, 『언어』 3.2.
- 양인석(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어학 연구』 10-1.
- 연재훈(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제17호. 한국 언어학회.
- _____(2002) 「사동문 피사역주의 격표지 중첩에 관한 문제」, 고영근 외, 『문법과 텍스트』, 411~430쪽.
-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Aissen, J. L. (1979)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New York: Garland.
- Cole, Peter (1983) "The grammatical role of the causee in universal grammar",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49.2, pp.115~133.

- Comrie, B. (1975) Causatives and Universal Grammar,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74, pp.1~32.
- _____ (1976) The syntax of causative constructions: Cross-languag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in: *Shibatani(ed.)*, pp.261~312.
- _____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lackwell.
- DeLancey, Scott (1984) Notes on Agentivity and Causation, In: *Studies in Language* 8-2, pp.181~213.
- Haiman, John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pp.781~819.
- Hetzron, R. (1976) On the Hungarian causative verb and its syntax, In: *Shibatani(ed.)*, 1976, pp.371~398.
- Knott, Judith M. (1988) The Leningrad Group for the Typological Study of Languages: Introduction and translations by J. M. Knott, SOAS Typology Project 1, University of London.
- Kozinsky, Isaac and Maria Polinsky (1993) "Causee and patient in the causative of transitive: Coding conflict or doubling of grammatical relations?" In Comrie, B. & M. Polinsky(eds.), *Causatives and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Kulikov, L. I.(1998) Causatives. ms.
- Lee, Hyosang (1985) Causatives in Korean and the binding hierarchy, In: Eilfort et al.(eds.) *CLS 21-2*,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138~153.
- Li and Thompson (1977) The causatives in Wappo: A special case of doubling, *BLS* 3, pp.175~181.
- McCawley, James D. (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In: darden, Bill J. et al.(eds.), *Papers from the 4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71~80.
- Moore, John and Polinsky, Mary (1998) Review of: Song1996, *Linguistic Typology* 2,2, pp.231~251.
- Moreno, J. C. (1985) Anticausatives: A Typological Sketch, In: *CLS 21-2*,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172~181.
- Nedjalkov and Silnitsky (1973) The typology of morphological and lexical causatives. In: Kiefer, F.(ed.), *Trends in Soviet Theoretical Linguistics*, Dordrecht: Reidel, pp.1~32.
- Saksena, A. (1980) The affected agent, *Language* 56, pp.812~826.
- Shibatani, Masayoshi (ed.)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Syntax and semantics, 6), New York etc.: Academic Press.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ng, Jae Jung (1991) Causatives and universal grammar: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I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Vol. 89-1, pp.65-94.
- _____ (1995) Review of Causatives and Transitivity, (eds.) Comrie, B. & M. Polinsky, *Lingua* 97, pp.211-232.
- _____ (1996) *Causatives and causation: A universal typological perspective*, London etc.: Longman.
- Syed, S. M. (1985) *Morphological causatives and problems of the transformational approac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Wachowicz, K. (1976) Some Universal Properties of Morphological Causatives,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No. 20, Stanford University, pp.59-106.
- Wierzbicka, Anna (1975) Why 'kill' does not mean 'cause to die': The semantics of action sentences, *Foundations of Language* 13, pp.491-528(Reproduced as Ch. 5 in: Wierzbicka, Anna (1980), *Lingua mentalis*, Sydney: Academic Press).
- Yeon, Jaehoon (1998) "A Typological Study on the grammatical encoding of the causee in causative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Vol. 9*, pp.211-230.
- _____ (2003)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Books ; Eastern Art Publishing, London.

『文禧廟營建廳謄錄』의 借字 表記 研究(2)*

- 材木類 어휘를 중심으로

오창명 · 손희하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序論

이 글은 『文禧廟營建廳謄錄』(1789)의 한자 차용 표기 가운데에서 재목류 어휘를 해독하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文禧廟營建廳謄錄』은 정조(正祖)의 맏아들이었던 문효 세자(文孝世子)의 신위(神位)를 모실 문희묘(文禧廟)의 영건(營建) 과정에서부터 신위를 이봉(移奉)할 때까지의 일련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문희(文禧)는 세자 책봉까지 받은 정조의 맏아들 문효 세자가 5살로 요절한 뒤에 붙여진 묘호(廟號)다. 문효 세자는 정조 6년(1782) 음력 9월 7일에 탄생하여 5살 때인 정조 10년(1786) 음력 5월 11일에 독살을 당했는데, 그 해 음력 5월 22일에 왕세자에게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같은 해 음력 6월 20일에 문효 세자의 묘호를 문희라 하였다. ‘영건청(營建廳)’은 조선 시대 때에 궁궐 건축 공사를 담당했던 기관으로, ‘영건도감(營建都監)’이라고도 했다. 이곳에서는 궁궐 건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궁궐 건축 과정을 ‘의궤(儀軌)’나 ‘등록(謄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는데, 이 등록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필요한 목재, 석재, 철물, 기와, 창호 등을 비롯한 군정(軍丁), 장인(匠人), 요포(料布), 각종 물품 등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이 등록은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한자 차용 표기를 해독하면 18세기의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음(KRF-2004-005-A00005).

다양한 고유 건축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

『文禧廟營建廳謄錄』에 쓰인 건축 관련 어휘는 대부분 고유어를 한자 차용 표기로 나타냈다. 이 어휘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그 표기를 해독하는 것이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이 어휘들이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어떤 어휘 변화를 입고 어떤 의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글의 2차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각종 건축 사전과 국어 사전류의 ‘표제어’와 ‘어휘 설명’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도 살피려고 한다. 근대 국어 시기에 쓰였던 어휘가 현대 국어에서 그대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어휘 변화(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를 거쳤거나 거치는 것도 있다. 이 글에서 차차 표기로 쓰인 건축 관련 어휘를 살펴보았다.

의례류 차자 표기를 제대로 해독하면 고유어를 재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연구가 알차게 진행되면 국어 어휘사 연구에 매우 의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2. 本論

『文禧廟營建廳謄錄』에는 여러 종류의 건축 관련 어휘가 한자 차용 표기로 쓰였다. 건축 관련 어휘는 재료에 따라 크게 재목류 어휘, 철물류 어휘, 석재류 어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흙으로 만든 것, 종이로 만든 것, 유리로 만든 것, 모래로 만든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건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가 재목류와 철물류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목류 어휘(材木類語彙)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¹

우선 재목류 어휘가 쓰인 문장을 먼저 보이고, 개략적인 목록을 확인한 다음, 하나하나 해독하고자 한다.

1 철물류 어휘는 이미 국어사학회 제19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正堂退并九間新建所入 大樑二介長十六尺 高柱二介長十一尺六寸體木二介 平柱十介長九尺體木十介 童子柱六次體木一介半……合長樑四介長 十一尺體木四介 從樑四介次體木四介 退樑二介長六尺體木一介 昌方十五介長九尺體木十五介 仇兀道里十五介長九尺體木十五介……長舌十五介長九尺厚正板七立半 初立工八介次體木一介 平道里十五介次體木十五介 無立工八介裁餘取用 單立工四介裁餘取用 樑阿只四介裁餘取用……案草工二介次體木一介 行工二介次厚正板一立 臺工四介次厚正板四立 小累九十五介裁餘取用 柱頭十八介次厚正板四立 畫引壁四介次厚正板四立 中防十介次厚正板十立 引防七介次厚正板七立 榱單二介次厚正板二立 分閣引防三介次厚正板三立 壁榱六次厚正板三立……土壁榱二十六介次邊板九立……中矜七十二介次邊板十立 板壁次補階板十立……栢子板三立 厚正板一立 長椽七十介次緣木七十介……短椽七十介次大緣木七十介……仇累臺四介次體木一介……付緣七十介次體木四介……平交臺四介次邊板二立……盖板七十立次邊板十立……累里介次邊板六立……木只五十六介裁餘取用……散子板八立次邊板四立……連含十四次邊板七立……風遮板七十八立……松竹七十八介次邊板二十立……斜木十介次劈鍊材木五介……風遮懸任掌朴只九寸頭釘十八介……朴工四次體木一介……西芝次吐木六百介……賊心次吐木一百介 飛木十駄 刀叱兒朴只七寸頭釘一百介 椽枕柁木三丹 班子大欄三十九介次厚正板十立……童多欄一百二十介次邊板十立……小欄六百介裁餘取用……班子廳板一百五十立次內[邊板十八立 頭折正板五十立] 班子大欄付接六次邊板三立……斜窓三隻次邊板五立……先佐耳十二隻次邊板十二立……蘆簾月里大圓環排具十四介……龍脂板二次補階板二立……梁次眞長木一百十五介……根木八十丹 樑心次大椽木四介 「文禧廟營建廳膳錄」(26ㄴ~31ㄴ)

龕室一坐新造所入 柱梁并楸木三尺二寸五分 楸板九立一尺 板次假板十二立 栢子板三立 小欄及盖板蓮峯朴只一寸釘五百介……內立木朴只二寸釘二十介……穢月里長鬚金兩排具四介 上流音月里長加莫金兩排具二介 鷄子脚次別大廣厚板半立 「文禧廟營建廳膳錄」(32ㄴ)

移安廳一間所入……柱木四介長八尺體木四介 樑木二介長九尺五寸體木二介 道里三介長九尺五寸材木三介 昌方二介長九尺體木二介 長舌三介高七寸厚正板一立半 柱頭四介裁餘取用 小累十二介裁餘取用 大工二介裁餘取用……椽次大緣木三十介……平交臺四介邊板二立……執介椽朴只八寸頭釘四介……童大欄二十介次厚正板四立……班子板五十立次體木頭折板二十立 邊板十立 古士叱朴只二寸釘六十介 『文禧廟營建廳膳錄』(33ㄴ~35ㄴ)

祭器庫三間合九間新建所入……月乃朴工四次補階板二立……引中防四十八次劈鍊材木二十介半……分閣壁榱六次以前排取用……上地方三次前排取用 三門崙骨九次材木四介半……耳機十四次體木四介半 廳板八十八次體木四介半……散子吐木一百介……仰遮朴只中

廣頭釘一百二十介 神三門板門十二隻次厚正板二立 邊板六立……帳貼木六介裁餘取用……斜籠三間所入 丐里次 體木二介……箭次邊板四立……合廣窓六隻所入邊板十立……𦵏骨次前排材木三介取用……廉隅板次補階板六立 『文禧廟營建廳謄錄』(37ㄴ~41ㄴ)

祭器庫所上三層櫺二坐新造所入 柱橫板并邊板八立……帶朴只中甘佐非釘具四十介 足帶朴只四寸頭釘八介 付枕朴只二寸頭釘六十介 『文禧廟營建廳謄錄』(41ㄴ)

守僕八接處三間合九間新建所入……宣單四次體木二介 門壁楨六介體木三介 『文禧廟營建廳謄錄』(44ㄴ~45ㄴ)

門六隻所入補階板二十四立 帶十八次邊板二立……上下屯太六介次邊板三立……紗籠三次邊板四立……月箭小欄朴只一寸釘四十介……前排柱道里補孔朴只五寸釘十二介……守宮房分閣二隻前排取用……障子之介具一浮前排取用 左右壁楨二介前排取用……獨窓一隻𦵏骨具前排取用 『文禧廟營建廳謄錄』(45ㄴ~47ㄴ)

抹樓一間所入 耳機四 次體木二介 廳板二十七立前排取用 『文禧廟營建廳謄錄』(48ㄴ)

正堂 東邊二木只門一處 西邊二木只門一處 合二處新建所入 柱四次劈鍊材木四介 信防四次樑木裁餘取用 柱頭四介裁餘取用 道里二次劈鍊材木二介 方椽十八次前排材木四鉅取用 長方椽十八次前排材木取用 小累四十四介裁餘取用 中 橫木二介裁餘取用……上下地方四次前排材木取用……中心次前排材木一介……四面抹樓心前排材木取用 『文禧廟營建廳謄錄』(51ㄴ)

御齋室修補所入 春舌二次前排樑木二介取用……蛇羅二次前排材木二介取用……散防四次前排材木一介取用……馬蹄椽四十五介前排中椽木取用……耳尾叱朴只五寸頭釘八介 『文禧廟營建廳謄錄』(55ㄴ)

獨窓一隻𦵏骨具前排取用 『文禧廟營建廳謄錄』(48ㄴ) 廣窓四隻於骨具前排取用 『文禧廟營建廳謄錄』(50ㄴ) 雙窓二隻及𦵏乙骨前排取用……獨窓一隻𦵏骨并前排取用(65ㄴ) 門𦵏骨四介前排取用(76ㄴ)

典祀廳中門 香大廳中門 合二間所入 柱四介前排取用 道里二介前排取用 信防四介前排取用 方椽十五介前排取用……引中防四介前排取用 門𦵏骨四介前排取用……盖板十二立次補階板十二立 『文禧廟營建廳謄錄』(76ㄴ)

雙窓二隻及𦵏乙骨前排取用……獨窓一隻𦵏骨并前排取用(65ㄴ) 箭窓五間所入補階板五立(83ㄴ) 舉乙窓三隻前排取用(84ㄴ)

合之介四隻前排取用(88ㄴ) 障子支介具一浮前排取用(88ㄴ) 障子之支具一浮前排取用(92ㄴ)

宜嬪宮造果廳退并四間半新建所入 柱木十二介 道里九介 樑四介 臺工四介 短道里四介 短樑二十六介 長椽五十二介 已上前排木取用……中防七介 短中防二介 引防五介 短引防二介 已上前排取用(90ㄴ~91ㄴ)

2.1. 樑[들보·보], 大樑[대들보] / 樑·袱[보], 長樑[장보], 合長樑
[맛장보>맛장보], 短樑[더른보·더른보], 從樑[종보], 退樑[뒷
보], 樑木[보목]

樑은 ‘들보’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의 ‘들보(들보 過樑<역해 상 17>, 樑
들보 냥<칠류 14>, 들보 梁<물보, 제택>’ 또는 ‘들스보(樑 들스보 랑<왜해 상 32>,
들스보 過樑<동문해 상34>), ‘보(梁上塵 보 우희 들글<동의, 탕액1, 토부>)’로 실현
되었다. 현대 국어의 ‘들보’에 대응한다. 樑(樑 보, 樑也 들보 見戶曹定例<신자전,
조선속자보, 13획>) 또는 樑(들보 북: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경우)으로
도 표기된다. 樑은 주로 ‘들보’ 또는 ‘보’의 훈독자(訓讀字) 표기로 쓰고, 樑은 주로
‘보’의 음독자(音讀字) 표기로 썼다. ‘들보’ 또는 ‘보’는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
너질러 도리와는 ‘ㄴ’ 자 모양, 마룻대와는 ‘十’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를 이른다. ‘들
보’는 ‘들-〔擧〕+뿔·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大樑은 ‘대들보(엇던 남근 大明殿 大들보 되고<고시조, 청구>)’의 한자 차용 표기
이다. ‘대들보’는 ‘큰 들보’ 또는 ‘큰 보’를 이른다. 大樑대들보는 음독자 大(大 큰
대<유합-하47>)와 훈독자 ‘들보’로 구성되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
는 大樑대들보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大樑대들보로, 『中和殿營建都
監儀軌』(1907)에는 別大樑별대들보, 大樑대들보, 民大樑민대들보, 小大樑소대
들보, 短大樑더른대들보 등으로 표기했다.

長樑은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合掌樑[맛장보], 『垂恩廟營建廳儀軌』
(1764)의 合掌樑[맛장보]를 고려할 때, ‘당보(長 긴 당<석천 8>)>장보(長 긴 장<왜
해 하31>)>장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合長樑도 앞의 合掌樑[맛장보]와 合掌樑
[맛장보]를 고려할 때, ‘맛당보(합 모듈 합, 맛당 합, 마줄 갑<註千>)>맛장보>맛장
보’의 한자 차용 표기라 할 수 있다. 長樑·掌樑·掌樑장보는 현대 국어의 ‘장보’에
대응하는데, ‘중간에 기둥을 받치지 아니하고 길게 짠 들보’를 이른다. ‘맛장보’는 장
보를 마주 연결한 보를 이른다.

從楸는 ‘종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從은 ‘종(從 조를 종<유합 하 19>)>종’의 음가자 표기, 楸는 ‘보’의 음독자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종보’에 대응하는데, ‘마룻보(대들보 위의 동자기둥 또는 高柱에 얹히어 중도리와 마룻대를 받치는 들보)’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從楸종보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從楸종보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宗櫟마룻보>마룻보로 표기했다.

退楸는 ‘뒷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退는 ‘퇴(廊 퇴<동문해 상 34>, 廊 퇴ㅅ집<한청 9: 70>))의 음가자 표기, 楸는 ‘보’의 음독자 표기이다. ‘뒷보’는 뒷기둥과 안기둥에 얹는 짧은 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退楸뒷보로, 『華城城役儀軌』(1796)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退櫟뒷보로 표기했다.

短楸는 ‘더른보·더른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긴보(① 보통보다 길게 된 보 ② 한 칸 반 또는 두 칸 이상의 칸 사이에 기둥이 없이 길게 건너지른 보)’와 상대되는 ‘짧은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보인다. 短은 ‘더르·더르-(短 더를 단<유합 하 48>, 短 더를 단<석천 8>))의 관형사형을 나타낸 훈독자 표기이다.

楸木은 ‘보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 ‘보목’에 대응한다. ‘보를 만들 나무’ 또는 ‘대들보가 기둥에 얹히는 부분(대들보 양쪽 끝에 건이를 쳐서 목이 지게 함)’을 이른다.

2.2. 柱[기둥], 柱木[기둥목], 高柱[높은기둥], 平柱[평기둥], 童子柱[동즈기둥]

柱는 ‘기둥(柱 기둥<한청 9: 69>)>기둥’의 한자 차용 표기로, 훈독자 표기이다.

柱木은 ‘기둥목>기둥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기둥목(-木)’에 대응한다. 곧 기둥감이 될 만한 굵고 곧은 나무를 이른다.

高柱는 ‘높은기둥>높은기둥’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서는 ‘높은기둥’ 또

는 ‘고주(高柱)’라 한다. 곧 대청의 한가운데에 선 기둥으로, 다른 기둥보다 특별히 높은 것을 이른다.

平柱는 ‘평기둥>평기둥’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평기둥’에 대응한다. 곧 한 층 높이의 기둥을 이른다. 현대 국어에서는 ‘평주(平柱)’라고도 한다.

童子柱는 ‘동즈기둥>동자기둥’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근대국어의 ‘동즈기둥(短柱 동즈기둥<역해 상 17>)', 현대 국어의 ‘동자기둥’ 또는 ‘조구미’에 대응한다. 곧 들보 위에 세워 중도리와 마룻보를 받는 짧은 기둥을 이른다. 현대 국어에서는 ‘동자주(童子柱)’라고도 한다.

2.3. 昌方 · 昌防[창방]

昌方과 昌防은 ‘창방(昌 창성 창<유합 하 62>, 方 모 방<석전 7>, 防 마글 방<유합 하 10>)’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창방’에 대응하는데, 한식 나무 구조 건물의 기둥 위에 건너질러 장여나 소로, 화반을 받는 가로재를 이른다. 오랑(五樑) 집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단다. 현대 국어사전에는 ‘昌枋 · 唱榜 · 昌防’ 등으로 차차 표기한다고 하였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昌防창방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昌方창방으로 표기했다.

2.4. 道里[도리], 仇兀道里[구울도리 · 굴도리], 平道里[평도리], 柱道里[기둥도리], 退道里[뒷도리], 短道里[더른도리]

道里는 ‘도리’, 仇兀道里는 ‘구울도리 · 굴도리’, 平道里는 ‘평도리’, 柱道里는 ‘기둥도리’, 退道里는 ‘뒷도리’, 短道里는 ‘더른도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道里는 중세국어의 ‘도리(桁 도리 횡<훈몽-중 5>)’에 대응하는데, 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놓는 나무를 이른다.

道는 ‘도’의 음가자 표기,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仇兀은 한자음이 ‘구울’이지만 ‘굴’의 음가자 결합표기로 추정된다. 平은 ‘평’의 음독자 표기, 柱는 ‘기둥>기둥’의 훈독자 표기, 退는 ‘퇴’의 음가자 표기이다. 短은 ‘더른·더른’의 훈독자 표기로 추정된다.

‘굴도리’는 둥글게 만든 도리를 이른다. ‘평도리’는 현대 국어의 ‘납도리’에 대응하는 말로, 모나게 만든 도리를 이른다. ‘기둥도리’는 현대 국어의 ‘주도리(柱-)’ 또는 ‘주심도리(柱心-)’에 대응하는 말로, 기둥의 중심 위에서 서까래를 받치고 있는 도리를 이른다. ‘뒷도리(退-)’는 물림간에 얹는 짧은 도리를 이른다. ‘더른도리’는 짧은 도리를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굴도리’에 대응하는 표기를 圓道里[원도리?]/둥근도리[?]로 표기했다.

2.5. 長舌[당혀·장혀]

長舌는 ‘당혀>장혀’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의 ‘당혀(托樑 당혀도리<역해 상 17>), 당혀(桁條 당혀<역해 하 17>), 장혀(托樑 장혀도리<한청 9: 68>), 현대 국어의 ‘장혀·장여’에 대응하는 말로, 도리를 받치고 있는 길고 모진 나무를 이른다. 현대 국어의 ‘장여’는 ‘장연(長椽)’을 뜻하는 ‘장여’와 음상이 같으나, 표기는 長舌[장혀]과 長椽[장연]으로 다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 등과 다른 의궤에도 대부분 長舌[장혀]로 표기했다.

2.6. 立工[입공], 初立工[초입공], 無立工[무입공], 單立工[단입공]

立工은 ‘입공’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익공(翼工)’에 대응하는 것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初立工[초입공], 二立工[이입공]으로 표기되었는

데,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立工[입공], 無立工[무입공]으로,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翼工[익공]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翼工[익공], 物翼工[물익공], 半翼工[반익공]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입공’에 가까운 소리였는데, 나중에 ‘익공’에 가까운 소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初立工은 ‘초입공’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初立工[초입공]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草立工[초입공]으로, 『華城城役儀軌』(首卷, 圖說)에는 初翼工[초익공]으로 표기했다.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서, 포살미한 집의 기둥 위에 얹히는 한 개의 촛가지가 달린 나무를 이른다.

無立工은 ‘무입공’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無立工[무입공]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物翼工[물익공]으로 표기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中道里毛里工四 樓柱半條”에 보이는 毛里工[모입공]도 無立工[무입공]에 대응하는 표기로 보인다. ‘무입공’은 끝이 쇠서 모양으로 뾰족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조각된 익공의 꾸밈새를 이른다.

單立工은 ‘단입공’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전작이나 궁궐처럼 포살미한 집의 기둥 위에 얹히는 한 개의 촛가지가 달린 나무를 이른다. 장기인(1998: 118)과 『한국한자어사전』(권1: 882)에서는 初立工[초입공]과 單立工[단입공]을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자료를 볼 때 다른 것으로 보인다.

2.7. 枓阿只[보아지]

枓阿只은 ‘보아지(阿 의지힐 아, 고블 아, 두딘 아(註千))’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보아지’에 대응한다. 只은 차자 표기에서 ‘기’ 또는 ‘ㄱ’, ‘지’의 음가자로 쓰인다. ‘보아지’는 기둥머리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部材)를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浮阿只·浮阿[부아지], 枓阿只[보아지]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甫兒支[보아지]로

표기했다.

2.8. 草工[초공 > 초공], 案草工[안초공 > 안초공]

草工은 ‘초공>초공(初 처업 초<유합 상 1>, 工 바치 공<석천>)’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초공(草栱/草工)’에 대응한다. 큰 규모의 목조 건축물에서, 도리가 좌우로 구르지 아니하도록 기둥 위와 도리 사이에 설치하는 기둥 받침을 이르는 데, 풀잎 무늬를 새겨 넣는다.

案草工은 ‘안초공’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안초공(按草工)’에 대응한다. 기둥머리에 끼워서 주심포를 받치는, 꽃무늬가 새겨진 널빤지를 이른다. 宗樑에 대응하는 것은 宗樑按草工마룻보안초공이라 한다(『華城城役儀軌』 1796).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案草工·案初工[안초공]으로,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按草工[안초공]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按推工[안추공]으로 표기했다.

2.9. 行工[행공]

行工은 ‘행공>행공(行 널 행<훈몽 하 11><석천>)’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행공(行栱)’에 대응한다. 주심포에서, 외목도리와 장여를 받친 침차(檐遮)를 이른다. 『우리말큰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도 行工[행공]으로 표기되었다.

2.10. 臺工·大工[대공·대공>대공]

臺工·大工은 ‘대공>대공(臺 더 더<유합 상22>, 大 큰 대<유합 하47>)’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중세국어의 ‘대공(桧 대공 절<훈몽 중, 6>), 근대국어의 ‘딴공(桧 딴공 절<왜해 상32>), 현대 국어의 ‘대공’에 대응한다. 쪼구미, 막대기, 동자기둥, 들보 위에 세워서 마룻보(上櫓)이나 오량(五梁) 따위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이르는데,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한자를 빌려 ‘大共/臺工/大工’으로 적기도 한다고 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大工[딴공]으로,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臺工[딴공]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臺工·圻工[딴공]으로 표기했다.

2.11. 小累[쇼루>소루]

小累는 ‘쇼루(小 자글 쇼<유합 하 47>)>소루’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소루(小累)·소로(小櫓)·접시받침’에 대응하는 말로, 두공, 첨차, 한대, 제공, 장여, 화반 따위를 받치는 네모진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小路[쇼리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小露[쇼리로]로 표기했다.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小累[쇼루]와 大接小累[대접쇼루]가 보이는데, 大接小累[대접쇼루]는 대접과 같이 큰 소루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에는 ‘소로>소로, 쇼루>소루’로 불리다가, 현대에 이르러 ‘접시받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12. 柱頭[기둥머리]

柱頭는 ‘기둥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기둥머리·주두(柱頭)’에 대응하는 말로, 기둥의 맨 윗부분을 이른다.

2.13. 畵引壁[화인벽]

畵引壁은 ‘화인벽’의 표기로, 화인방(畵引防)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곧,

그림을 그린 인방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畵引方·畵引栱화인방으로,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畵引陴화인방으로 표기했다.

2.14. 中防[둥방], 短中防[단둥방], 引防[인방], 引中防[인둥방], 短引防[단인방/더른인방], 長引防[당인방>장인방/긴인방], 分閣引防[분합인방]

中防은 ‘둥방(中 가운데 뚝<유합 상2>, 가운데 뚝<석천>), 短中防은 ‘단둥방’ 또는 ‘더른둥방’, 引防은 ‘인방’, 引中防은 ‘인둥방’, 短引防은 ‘단인방’ 또는 ‘더른인방’, 長引防은 ‘인방>장인방’ 또는 ‘긴인방’, 分閣引防은 ‘분합인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둥방’은 현대 국어의 ‘중방(中枋)’, ‘중인방(中引枋)’, ‘문중방(門中枋)’ 등에 대응하는 말로, 벽의 중간 높이에 건너지른 인방을 이른다. ‘인방’은 현대 국어의 ‘인방(引枋)’, ‘액방(額枋)’, ‘인방 도리’에 대응하는 말로,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 의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나무를 이르는데, 문작의 아래위 틀과 나란하게 놓는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도 中陴둥방, 引陴인방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中方·中栱둥방, 引栱·引方인방, 上下引方상하인방, 中引方둥인방, 短中方단둥방/더른둥방, 短引方단인방/더른인방으로 표기했다.

2.15. 檀單·宣單[선단>선단]

檀單·宣單은 ‘선단>선단(宣 베플 선<석천>, 單 홑 단<유합 하 44>)’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선단’, ‘문설주’, ‘문결설중방’, ‘문기둥’, ‘문선’ 등에 대응한다. 문작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이른다. 檀은 한자음이 ‘훤(檀 ㄱ뫼 훤 俗呼檀頭<훈몽-중 11>)’인데, ‘선(문설주 선)’의 음독자로 쓰였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檀丹·檀單[선단],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檀單[선

단, 槿柱선기둥으로,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槿端선단으로 표기했다.

2.16. 壁槿[벽선], 分閣壁槿[분합벽선], 門壁槿[문벽선], 土壁槿[토벽선], 左右壁槿[좌우벽선], 同介壁槿[동개벽선]

壁槿은 ‘벽선(壁 ㅅ람 벽<유합 상 23)>’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벽선[壁線]’에 대응하는 말로, 기둥에 붙여 세우는 네모진 굵은 나무를 이른다. 벽 속에서는 인방과 중방을 버티게 되고 문호에서는 문짝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分閣壁槿분합벽선, 門壁槿문벽선, 土壁槿토벽선, 左右壁槿좌우벽선, 同介壁槿동개벽선 등이 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壁縵벽선, 土壁縵토벽선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壁縵·壁槿벽선, 土壁縵·土壁槿토벽선으로,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壁縵벽선으로 표기했다.

2.17. 同介[동개]

同介는 ‘동개(同 ㅎ가지 동<유합 하 49>, 介 ㄴㅈ 개<유합 하 44>)’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문동개(門-)’에 대응하는데, 대문의 아래 돌쩌귀나 문장부 따위를 뜻하 반치는 문둔테의 구멍을 이른다. 同介壁槿동개벽선으로 쓰인다.

2.18. 分閣[분합], 西分閣[서분합], 抹樓分閣[말루분합]

分閣은 ‘분합’, 西分閣은 ‘서분합’, 抹樓分閣은 ‘말루분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分閣분합은 현대 국어의 ‘분합’, ‘분합문’에 대응한다. 대청 앞쪽 전체에 드리는 긴 문을 이른다. 西分閣서분합, 抹樓分閣말루분합 등이 있다.

2.19. 中衿[등깃]

中衿은 ‘등깃(衿 衣領 옷깃<신자전 3: 65>, 領 깃 녕<석천 41>)’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의 ‘등깃(등깃 排山柱<한청 9: 69>)’, 현대 국어의 ‘중깃’, ‘벽주’, ‘벽중깃’, ‘중계’에 대응한다. ‘중깃(中-)’은 벽 사이에 윗가지를 대고 엮으려고 들성들성 세우는 가는 기둥을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華城城役儀軌』(1796)에도 中衿등깃, 中衿木등깃뒹으로 표기했다.

2.20. 椽[셋가래/연], 長椽[장연], 短椽[단연], 付椽[부연], 執介椽[집게셋가래/집게연], 方椽[방연], 長方椽[장방연], 馬蹄椽[말굽셋가래/마데연], 椽木(연목)

椽은 ‘서(椽 서 연<훈몽-중 6>)>셋가래(椽 셋가래<동문해 상 35>)>헛가래의 훈독자 표기 또는 ‘연’의 음독자 표기로 쓰인다.

長椽과 短椽은 각각 현대 국어의 ‘장연·장여’와 ‘단연·단여’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각각을 ‘긴셋가래(긴 서까래)’, ‘더른셋가래(짧은 서까래)’의 표기로도 볼 수 있으나,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의 “上端椽盖板”의 ‘端椽’과 같은 표기를 고려할 때는 短椽이 ‘단연’의 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短椽단연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 上短椽상단연과 中短椽중단연 등으로 나뉜다.

馬蹄椽마데연은 馬足椽(『華城城役儀軌』와 『昌慶宮營建都監儀軌』, 『中和殿營建都監儀軌』 등)으로도 표기되어, 현대 국어의 ‘말굽추녀=말굽서까래=말굽’을 고려할 때 ‘말굽서까래’의 이전형으로 추정되는 ‘말굽셋가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마데연>마제연’으로 읽지 않는다. 안쪽 끝을 말굽 모양으로 만들고 추녀 양쪽으로 붙이는 서까래를 이른다.

執介椽은 ‘집게연(箝 집게<사해 하 81>, 鉗 집게 검<훈몽 중 16>)’ 또는 ‘집게셋가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아직까지 보고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데, ‘집게 모양의

서까래가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合閣椽朴只八寸頭釘二十五介 執巨椽朴只八寸頭釘十二介”에서 확인되는 執巨椽[집게연]이 執介椽[집개연]과 같은 음성형을 표기한 것이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도 執介椽[집개연/집게섯가래]으로 표기했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執破椽[집파연?]도 확인된다.

付緣은 ‘부연’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부연(附椽/婦椽)’ 또는 ‘며느리서까래’에 대응하는데, 처마 서까래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처마 끝을 위로 들어 올려 모양이 나게 한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付綴부연으로,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浮椽부연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婦椽부연으로 표기했다.

椽木(연목)은 현대 국어의 ‘연목(椽木), 서까래에 대응하는 말로,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통나무로, 그 위에 산자를 얹게 된다.

2.21. 信防[신방]

信防은 ‘신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 ‘신방’에 대응하는 말로, 일각대문의 가동 밑에 가로놓인 짧은 베갯목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信𠵿신방으로 표기했다.

2.22. 仇累臺[구루대]

仇累臺는 ‘구루대’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 ‘굴대’에 대응한다. ‘굴대’는 보통 수레바퀴의 한가운데에 뚫린 구멍에 끼워 수레가 바로 놓이게 하는 나무나 쇠를 이르는 데, 여기서는 ‘둥근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仇老蠶구로[ㄷ] · 仇累臺구루대[ㄷ]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九累臺구루대[ㄷ],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屈竹굴대로 표기했다.

2.23. 平交臺[평교대], 加平交臺·髡平交臺[덧평교대]

平交臺는 ‘평교대’, 加平交臺·髡平交臺는 ‘덧평교대’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근대국어의 ‘평교조’(平교조 亮橋<동문해-하 19>), 현대 국어의 ‘평교대(平高臺), 평교자(平高子), 평교대(平交臺), 평교자(平交子)’에 대응한다. 차마에 얹힌 서까래 끝에 가로로 길게 얹힌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平古代[평교대]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平交臺[평교대]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平交臺[평교대], 加平交臺[덧평교대], 初平交臺[초평교대], 再平交臺[재평교대]로 표기했다.

2.24. 盖板·盖板(개판), 盖板蓮峯[개판연봉], 散子板[산자널], 風遮板(풍차판/풍차널), 班子廳板[반자청판/반자청널], 龍脂板[용지판/용지널], 楸板[추판/가래널], 椶板[가판/헛널], 栢子板[백자판/백자널], 班子板[반자널], 邊板[가널/변판], 廳板[청판/청널], 廉隅·廉隅板[여모·여모널], 初廉隅[초여모], 壁板[벽널], 懸板[현판/걸이널]

盖板·盖板은 ‘둑개널(盖 개 개, 두플 개<유합 상 19>, 蓋 더플 개<註千>’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개판’이라 하기 때문에 한자음 ‘개판’으로 읽어둔다. 서까래, 부연, 목반자 따위의 위에 끼는 널빤지를 이른다. 연봉(蓮-)은 방 초박이 못의 대가리를 감추기 위하여 연꽃 봉오리처럼 만든 꾸밈을 이른다. 그러므로 盖板蓮峯[개판연봉]은 ‘개판 위에 연꽃 봉오리처럼 만든 꾸밈’을 이른다.

散子板은 ‘산자널’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산자널, 산자판(散子板)’에 대응한다. 지붕 서까래 위에 끼는 널빤지를 이른다.

風遮板(풍차판)은 마루귀틀 밑이나 하인방 밑에 바람막이로 막아 댄 널을 이른다.

廳板(청판>청판·청널)은 마루청의 널, 마루에 끼는 널을 이른다.

班子[반자]는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천장을 이른다. 班子廳板과 班子板은 班子에 쓰이는 널을 이른다.

龍脂板[용지판]은 현대 국어 ‘용지판(-板)’에 대응하는데,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문지방 옆에 대는 널빤지 조각을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龍地板용지판으로 표기다.

廉隅는 ‘여모(廉 청렴 림<유합 하4>,隅 모 우<유합 상2>), 廉隅板은 ‘여모널’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여모’에 대응한다. 서까래나 관장 마루 등의 옆을 가로 대어 가리는 널빤지를 이른다. 初廉隅초여모도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斂衣板여미널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長斂隅장여모/긴여모, 短斂隅단여모/더른여모, 斂衣板여미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余隅여모,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廉隅여모로 표기했다.

板壁은 ‘널벽’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널벽(-壁)’에 대응하는 말로, 널빤지로 만든 벽을 이른다. 懸板은 ‘현판’ 또는 ‘걸이널’의 표기이다.

2.25. 欄干[난간]

欄干은 ‘난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중세국어의 ‘란간(欄 란간 란<훈몽-중 5>), 근대국어의 ‘난간(檻 난간 함<유합 상 23>)’에 대응한다. ‘난간(欄干, 欄杆)은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세워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장식으로 삼는 물건을 이른다.

2.26. 法首[법슈]

法首는 ‘법슈’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법수’에 대응한다. ‘법수’는 난간 귀퉁이나 다리 양쪽 끝에 세운 기둥머리를 이른다.

2.27. 累里介[누리개]

累里介는 ‘누리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누리개, 누르개’에 대응하

는 말로, 수평재, 경사재의 위 끝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눌러 대는 나무를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累里介·纍里介[누리개]로 표기했다. 春舌累里介[춘혀누리개], 付緣纍里介[부연누리개], 木只累里介[모끼누리개], 中同累里介[중동누리개] 등이 있다.

2.28. 木只[모끼]

木只는 ‘모끼’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木은 ‘목’의 음가자 표기,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모끼연(-椽)’에 대응하는 말로, 박공지붕, 합각지붕에서 박공에 직각으로 거는 짧은 서까래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隅只[모끼], 隅椽[모끼연/모끼섯가래]로 표기했다. 한편 이 책의 “隅知項朴只八寸頭釘三十介”에 보이는 隅知는 隅只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隅知는 ‘모끼’의 표기인 隅只의 음 ‘우지’의 표기가 아닌가 한다. 『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木只椽[모끼연/모끼섯가래]로 표기했다.

2.29. 散子[산즈]

散子는 ‘산즈(散 호틀 산<유합 하 43>, 子 아들 즈<훈몽 상 32>)’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근대국어 ‘산즈(鋪望板 산즈 퍼다<한청 12: 10>), 현대 국어 ‘산자(散子), ‘산자발’, ‘산자널’에 대응한다. 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흙을 받기 위하여 나뭇개비 또는 수수깡 따위로 엮은 것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의 “蓮峯散支朴只一寸五分釘三十一介”에서 확인되는 散支[산지]로 현대에 ‘산자’에 대응하는 표기로 보인다.

2.30. 連舍[연함]

連舍는 ‘연함(連 나올 연<유합 상6>, 舍 머구믈 함<유합 하 47>)’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연합(椽檻)’에 대응한다. 서까래 끝의 암키와를 받기 위하여 평고대 위에 덧대는 나무로, 암키와의 밑면에 맞게 톱니같이 깎아 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連合[연합]으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과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椽合[연합]으로 표기했다.

2.31. 松竹[솔대]

松竹은 ‘솔대(松 솔 송<유합 상8>, 竹 대 독<훈몽-상8>)’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솔대, 솔대목’에 대응한다. 판장의 틈이나 문설주 따위에 가늘게 오려 붙인 나무오리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所乙竹·松竹[솔대],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松竹[솔대]로 표기했다.

2.32. 斜木[샤목 > 사목]

斜木은 ‘사목(斜 빳길 샤<유합 하 62>) > 사목’의 표기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士目·斜材[스목 > 사목]으로 표기했다. 『한국한자어사전』(권2, 682)에는 “斜木(사목): 틀을 짤 때에 견고하도록 비껴 대는 나무”라 하고, 장기인(1998: 389)에는 “사목(斜木): 풍관을 붙여대는 뼈대가 되는 재. 흔히 경사재를 씀 → 풍판 사목(風板斜木)=집부사(執扶舍)”, “장사목(長斜木): 길게 경사로 건너지르는 띠장, 받침대 따위”, “풍판사목(風板斜木): 풍관을 받는 띠장이나 경사재=사목. 집우새(執扶舍)”라고 했다.

2.33. 懸任掌[걸임장]

懸任掌은 ‘걸임장(懸 들 현<유합 하 46>)’의 한자 차용 표기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懸掌[걸임장]으로 표기했다.懸은 보통 ‘들-’의 훈독자 쓰이는 것인

데, ‘걸-’의 훈독자로 쓰인 것이다. 현대 국어의 ‘걸음장’에 대응한다. 들보 위에 동 자기등을 세울 때 밑에 대각선으로 내는 두 개의 축을 이른다. 보통 風遮懸任掌 · 風遮懸掌 風차걸임장과 같이 표기했다.

2.34. 朴工[박궁], 月乃朴工[들넉박궁 > 달넉박궁], 短朴工[단박궁/더른박궁]

朴工은 ‘박궁’, 月乃朴工은 ‘들넉박궁 > 달넉박궁’, 短朴工은 ‘단박궁/더른박궁’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중세국어의 ‘박궁(搏 박궁 박<훈몽 중 6>)', 근대국어의 ‘박궁(搏風 박궁<역해 상 17>)'과 ‘박궁(風面 박궁<역해보 13>), 搏風 박궁<물보, 제택>)', 현대 국어의 ‘박궁(搏拱/搏拱)’에 대응한다. 박궁지붕의 옆면 지붕 끝머리에 ‘^’ 모양으로 붙여 놓은 두꺼운 널빤지를 이른다. ‘박궁널 · 박궁판 · 박풍’이라고도 한다. 月乃朴工들넉박궁 > 달넉박궁은 현대 국어에 찾을 수 없고, 장기인(1998)에서는 ‘다리박궁 · 달내박궁 · 달개박궁’ 등으로 되어 있다. 短朴工단박궁/더른박궁은 짧은 박궁을 이른다.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朴工[박궁], 達乃朴工달넉박궁으로 표기했다.

2.35. 西𦵑[서술 > 서술]

西𦵑은 음이 ‘서술’이지만 근대국어 ‘서술(鋪板 널로 서술 𦵑다, 鋪簾 발로 서술 𦵑다<역해 상 17>)'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산자(檣子)’에 대응한다. 西𦵑은 *서살>서살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西는 ‘서>서’의 음가자 표기, 𦵑은 ‘살’의 음가자 표기이다. ‘서살’은 현대 국어의 ‘발비(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라나 싸라나무 따위로 엮은 것 또는 그런 재료)와 ‘산자 · 산자발(지붕 서까래 위나 고미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 또는 그런 재료’에 대응하는 것이다. 근대국어에서는 ‘서슬(補板 널로 서슬 쏘다, 鋪簾 발로 서슬 쏘다(역해 상 17), 서슬 葦箔 又 반죽(동문해 상 35))’로 실현되었다. 현대 국어 사전에도 ‘서살목’과 ‘서사을목’을 등재하였으나, ‘발비’와 같은 것으로 처리한 사전(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도 ‘발비’의 잘못으로 처리한 사전(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있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西芝, 西芝豆里木으로 표기했다.

2.36. 賊心[덕심], 樑心[양심?], 中心[등심], 抹樓心·林樓心[말루심], 四面抹樓心[스면말루심], 舂舌抹樓心[춘혀말루심]

賊心은 ‘덕심’, 樑心은 ‘양심’, 中心은 ‘등심’, 抹樓心·林樓心은 ‘말루심’, 四面抹樓心은 ‘스면말루심’, 舂舌抹樓心은 ‘춘혀말루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賊心(덕심)은 현대 국어의 ‘적심’에 대응하는데, 산자를 엮은 위에 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하여 서까래에 가로 덧대는 잡목 따위를 이른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積心木(덕심목)으로 표기했다.

樑心은 ‘양심’의 표기인지 ‘들보심’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樑心은 고건축사전이나 국어사전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양심’으로 읽어둔다. “樑心次大椽木四介”, “樑心次前排材木九介”와 같이 쓰인다.

中心(등심)은 현대 국어 ‘중심’에 대응하는데, 부재의 중간점을 이르고, 심(心)은 부재의 중심을 이른다. 대개 椽木中心(연목등심), 산자편중심(산자널등심)과 같이 쓰였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中心木(등심목)으로 표기했다.

抹樓心·林樓心(말루심)은 ‘마루의 중심’, 四面抹樓心(스면말루심)은 ‘사면 마루의 중심’, 舂舌抹樓心(춘혀말루심)은 ‘추녀마루(당마루에 이어 추녀를 기와로 덮은 부분=활개장마루)의 중심’을 뜻한다.

2.37. 橡枕杵木[연침뉴목]

橡枕杵木은 ‘연침뉴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橡枕은 현대 국어의 ‘연침’(聯針/橡針)에 대응하는데, 서까래의 끝머리에 구멍을 뚫고 연달아 꿰어 연결하는 가늘고 긴 나무를 이른다. 杵木은 ‘싸리나무’를 이른다. 장기인(1998: 390)에서는 ‘연침추목’(聯針杵木·橡針杵木): 서까래의 위 끝 구멍에 가로 꿰어 연결하는 싸릿개비’라 했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橡針杵木 연침뉴목으로 표기했다.

2.38. 班子[반즈]

班子는 ‘반즈’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 ‘반자’에 대응한다.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천장을 이른다. 『孝宗寧陵山監儀軌』(1659)에는 盤子[반즈],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班子[반즈]로 표기했다.

2.39. 班子大欄[반즈대란], 童多欄·童大欄[동대란], 小欄[쇼란], 月箭小欄[달살쇼란]

大欄은 음이 ‘대란’이지만 현대 국어 ‘다라니’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다라니’는 천장 귀틀에 그린 단청을 이른다. 小欄은 현대 국어의 ‘쇼란(小欄)’에 대응하는데, 반자 판을 받치거나 양판문의 양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대는 가는 나무오리를 이른다.

班子大欄반즈다라니는 현대 국어 ‘반자’에 ‘다라니’가 합성된 ‘반자다라니’에 대응하는 것으로, 종이나 나무로 평평하게 만든 천장 귀틀을 이른다.

童多欄·童大欄은 ‘동다란·동대란’의 한자 차용 표기로, 등근 다라니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盤子大欄[반즈대란], 小欄[쇼란]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班子長大欄[반즈장대란], 列大欄[열대란], 同大欄[동대란], 班子小欄[반즈쇼란]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多欄[다란]·多案[다안] 長多欄[장다란]·長多案[장다안], 同多欄[동다란]·同多案[동다안], 小欄[쇼란]·小案

[쇼안]으로,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斑子多欄반즈다란,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長多欄장다란/긴다란, 間多窠셋다안, 同多欄동다란, 小欄쇼란으로 표기했다.

2.40. 斜窓[사창/빗창], 廣窓[광창], 合廣窓[합광창], 獨窓[독창], 雙窓[쌍창], 箭窓[살창], 舉乙窓[들창]

斜窓은 ‘사창’ 또는 ‘빗창’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문살을 가로세로 비껴 넣어서 짠 창문으로, 현대국어의 ‘빗살창(-窓), 교전창(交箭窓)’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廣窓은 현대국어의 ‘광창(넓은 창)’에 대응하는 것이다. 合廣窓은 ‘합광창’ 또는 ‘맞광창>맞광창’의 표기이다. 獨窓과 雙窓은 각각 현대국어의 ‘독창’과 ‘쌍창’에 대응하는 것이다. 箭窓과 舉乙窓은 각각 ‘살창’과 ‘들창’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살창(-窓)’은 좁은 나무오라나 대오리로 살을 대어 맞추어서 만든 창문을 이르고, ‘들창’은 ‘들어 올려 여는 창’ 또는 ‘벽의 위쪽에 낸 작은 창’을 이른다.

2.41. 先佐耳[선좌귀 · 선자귀]

先佐耳는 ‘선자귀>선좌귀 · 선자귀’의 한자 차용 표기로, 반 칸 퇴의 두 짝으로 된 분합문을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先佐耳선자귀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植佐耳[선자귀]로 표기했다.

2.42. 月里[드리>다리], 蘆簾月里[노렴드리>노렴다리], 櫺月里[장드리>장다리], 流音月里[흘림드리>흘림다리], 上流音月里[웃흘림드리>웃흘림다리]

月里는 ‘드리>다리’의 한자 차용 표기로, 기물을 지지하는 기둥을 이른다. 蘆簾月里는 ‘노렴드리>노렴다리’, 櫺月里리는 ‘장드리>장다리’, 流音月里는 ‘흘림드

리>홀림다리’, 上流音月리는 ‘웃홀림드리>웃홀림다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문희묘영건청등록』에 ‘鷄子脚(계자각: 난간두겹대를 받치는, 짧고 가느스름한 기둥. 위는 구부정하게 내밀고 당굴무늬가 새겨져 있다)’으로 됐던 것이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鷄子多里계즈다리로 표기됐다.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多里다리로 표기되었다.

2.43. 𪛗骨[엇골], 𪛗骨[얼골], 於骨[얼골·엇골], 𪛗乙骨[얼쑤], 門𪛗骨[문엇골]

𪛗骨은 ‘엇골’, 𪛗骨은 ‘얼골’, 於骨은 ‘얼골’ 또는 ‘엇골’, 𪛗乙骨은 ‘얼쑤’, 門𪛗骨은 ‘문엇골’의 한자 차용 표기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얼골(型 얼굴 형 鑄器之範模 얼굴 모 模範規模 法也<훈몽-초, 하: 7>, 門框 門얼골<박해, 하: 12>, 門框 門얼골<역해, 상: 18>)’로 실현된다. ‘얼골’은 ‘엷-’에서 파생된 말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𪛗骨·於乙骨[얼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𪛗骨[얼쑤], 門𪛗骨[문얼쑤], 雙窓𪛗骨쌍창얼쑤로 표기했다.

2.44. 地方·地防[디방], 上地方·上地防[웃디방/샹디방], 下地方[알디방/하디방], 上下地方[샹하디방], 門上下地方[문샹하디방]

門上下地方四次體木二介(62ㄱ) 上地防一介前排取用(66ㄴ)

地方·地防은 ‘디방’의 한자 차용 표기, 근대국어의 ‘디방(門 디방<동신 열 1: 8>, 門坎 門 디방<역해, 상 18>), 현대 국어의 ‘지방, 문지방’에 대응한다. 문지방(門地枋)은 문설주 사이의 문 밑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 댄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地防디방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地枋디방,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支防지방, 加支防가지방으로 표기했다.

2.45. 亏里[우리]

亏里는 ‘우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문어리·문얼굴·문틀(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댄 테두리)’ 또는 ‘울거미(문틀과 같이, 뼈대를 짜서 맞춘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가 비고 위가 트인 물건의 가를 둘러싼 부분’에 대응한다. 보통 板門亏里[널문우리], 亏里板門[우리널문]의 형태로 표기했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亏里우리, 內亏里안우리, 四面亏里스면우리> 사면우리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亏里板門[우리널문]으로 표기했다.

2.46. 莫古里[막고리], 機莫古里[틀막고리]

莫古리는 ‘막고리’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의 ‘마구리’에 대응한다. 마구리는 ① 길쭉한 토막·상자 따위의 양쪽 머리의 면 또는 길쭉한 물건의 양쪽 끝을 막거나 덮어싸우는 쇠붙이. ② 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것 등을 이른다, 機莫古리는 ‘틀막고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탁지준절』에도 莫古里[막고리]로 표기하고, 『현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와 『상방정례』(2, 별례 상)에는 𠂇古里[마고리]로 표기되었다.

2.47. 之介·支介[지계], 合之介[맞지계], 之支[지지?]

之介·支介는 음이 ‘지계’이지만 ‘지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지계, 지계문’에 대응한다. ‘지계문’(-門) 마루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곳에 안팎을 두꺼운 종이로 바른 외쪽문을 이르는데, ‘지계’라고도 한다. 合之介는 ‘맞지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之支는 之介·支介[지계]의 오기로 보인다.

2.48. 屯太[둔테], 屯太木[둔테목], 上下屯太[상하둔테], 上屯太[상둔테]

屯太는 ‘둔테’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 ‘둔테’, ‘문둔테’에 대응하는 말이다. 문둔테는(門一)는 문장부를 끼는 구멍이 뚫린 나무로, 그냥 ‘둔테’라고도 한다. 屯太木은 ‘둔테목’, 上下屯太는 ‘상하둔테’, 上屯太는 ‘상둔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屯台[둔테]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屯太[둔테]로 표기되었다.

2.49. 抹樓·林樓[말루], 假林樓[헛말루/가말루], 退林樓[틔말루]

전남방언에 ‘말래, 말레’가 보고되고, 경기방언에 ‘말레’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抹樓·林樓는 ‘말루’의 한자 차용 표기라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마루’에 대응하는 말로, 집채 안의 널빤지로 바닥을 깔아 놓은 곳을 이른다. 『중종실록』(권87, 33년 6월 계해)과 『창경궁영건도감의궤』(실입)에는 抹樓로, 『세종실록』(권61, 15년 8월 임인)에는 末樓로 표기되었다. 『여유당전서』의 『아언각비』에는 ‘東語, 凡棧板所鋪 謂之抹樓’라고 하였다. 마루(退-)는 원칸살 밖에 달아 낸 마루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林樓[말루]로 표기했다.

2.50. 春舌[춘혀], 春舌抹樓心[춘혀말루심], 春舌靺防[춘혀뎃방]

春舌는 ‘춘혀’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의 ‘춘혀(飛簷 춘혀<역보 12>)’에 대응한다. 춘녀는 처마 네 귀의 기둥 위에 끝이 번쩍 들린 크고 긴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를 이른다. 春舌抹樓心은 ‘춘혀말루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춘혀말루’는 현대 국어의 ‘추녀마루’에 대응한다. 장기인(1998: 155)에서 ‘추녀마루(春舌屋脊): 지붕귀에 있는 마루. 귀마루. 귀내림마루라 하고, 春舌抹樓心[춘혀말루심]은 ‘추녀마루의 중심’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실입, 경춘전)에는

“春舌宗心四箇 抹樓宗心七箇”라 하여 ‘추녀종심’과 ‘말루종심’이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녀마루: 당마루에 이어 추녀를 기와로 덮은 부분. 활개장마루’라 했다, 春舌靺防은 ‘춘혀뎃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春舌[춘혀] 卵春舌[알춘혀]로 표기했다.

2.51. 靺防 · 加防[뎃방], 春舌靺防[춘혀뎃방], 柱加防[기둥뎃방]

靺防 · 加防은 ‘뎃방’, 春舌靺防은 ‘춘혀뎃방’, 柱加防은 ‘기둥뎃방’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장기인(1998: 390)에서 “뎃방(-枋): ① 뎃대는 나무. 뎃방나무. ② 뎃대는 인방. 가지방(加地榜)”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한국한자어사전』(권1: 624)에는 “加榜(가방): 加地榜의 준말”이라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뎃방(-枋): 가지방(加地枋)”, “가지방(加地枋): ① 작은 창문을 내기 위하여 하인방(下引枋) 위의 벽선 사이에 뎃대는 짧은 중인방(中引枋). ② 문설주 안으로 뎃댄 문지방. ㄴ가방02(加枋) · 뎃방(-枋)”이라 했는데, 靺防뎃방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의 “衝椽加靺防中椽六介長十六尺”에서 확인되는 加靺防 · 加叱防[더뎃방?], “扇椽靺防朴只一尺八寸釘十二介…… 中道里加叱防浮朴只一尺五寸釘六介 舍羅加叱防朴只一尺六寸釘六介”에서 확인되는 靺防 · 加叱防[뎃방], “加叱方朴只八寸頭釘八介”에서 확인되는 加叱方[뎃방],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의 “木只靺方朴只一尺三寸釘十六介”에서 확인되는 靺方[뎃방] 등의 표기를 볼 때, ‘뎃방’은 서까래 끝에 뎃대는 나무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2.52. 大廳[대텅 > 대청]

大廳은 ‘대텅 > 대청’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에서 ‘대텅(廳 대텅〈번소 10: 28〉, 대텅(筴 竹中衣 대텅〈물명 3: 4〉), 대청(廳堂 대청〈오륜도 4: 27〉)’으로 실현

되었다. 대청(大廳)은 한옥에서,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로, 대청마루를 이른다.

2.53. 蛇羅[사라]

蛇羅는 '사라'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 '사래'에 대응한다. 겹처마의 귀에서 추녀 끝에 잇대어 부연을 받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舍羅사래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斜羅사래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과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沙乃[사느] > 사래로 표기되었다.

2.54. 散防·散方[산방]

散防·散方は '산방'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 '산방(散枋)'에 대응한다. 집의 추녀 겹의 도리 위에 서까래를 걸기 위해 한쪽 머리는 두껍고 한쪽 머리는 얇게 깎아 붙이는 나뭇조각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散方[산방],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 등에 散防[산방]으로 표기되었다.

2.55. 耳機[귀틀], 長耳機[장귀틀/긴귀틀], 短耳機[단귀틀/더른귀틀]

耳機는 '귀틀', 長耳機는 '장귀틀' 또는 '긴귀틀', 短耳機는 '단귀틀' 또는 '더른귀틀'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귀틀'에 대응한다. 마루를 놓기 위하여 먼저 굵은 나무로 가로세로 짜 놓은 틀을 이르는데, 가로로 들이는 것을 동귀틀, 세로로 들이는 것을 장귀틀이라 한다. 長耳機장귀틀/긴귀틀은 현대 국어의 '장귀틀(長-)', 短耳機단귀틀/더른귀틀은 현대 국어의 '동귀틀'에 대응한다. '장귀틀(長-)'은 세로로 놓는 가장 긴 마루 귀틀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 대어 동귀틀을 받으며 마루

널을 끼우게 된다. ‘명귀틀’이라고도 한다. ‘동귀틀’은 마루의 장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가로로 걸쳐서 마루널을 끼는 짧은 귀틀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抹樓長耳櫪[말루장귀틀], 短耳櫪[단귀틀/더른귀틀], 歸櫪[귀틀]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同耳櫪[동귀틀], 立耳櫪[선귀틀]로 표기했다.

2.56. 長床伊[장상이]

長床伊는 ‘장상이’의 한자 차용 표기로, 현대 국어 ‘장선(長線)’에 대응한다. 마루 밑에 대어 마루청을 받치게 된 나무를 이르는데, 사람에 따라 ‘장산에[장사네]’라고도 하고,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長山[장산],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과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長散里[장산리] → 장산에 등으로 표기된다.

2.57. 障子[장즈 · 장지 > 장즈 · 장지], 間障子[셋장즈 · 셋장지 > 셋장즈 · 셋장지]

障子は ‘장즈 · 장지 > 장즈 · 장지’, 間障子は ‘셋장즈 · 셋장지 > 셋장즈 · 셋장지’의 한자 차용 표기로, 근대국어의 ‘장지(고모 장지 세살 장지<고시조, 창 내고져, 창구)’ 또는 ‘장즈(榻扇 고모 장즈<한청 9: 28), 고모 장즈 세살 장즈<고시조, 한숨아 세한숨아, 창구)’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의 ‘장지’에 대응하는데, 방의 아랫간이나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가리어 막은 문으로, 미닫이와 같이 되었으나 운두가 썩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되어 있다.

3. 結論

지금까지 『文禧廟營建廳謄錄』의 차자 표기 중 재목류 어휘의 차자 표기에 대해서 해독하고 그 뜻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재목류 어휘의 목록과 해독음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대신한다. 아울러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몇 어휘를 과제로 제시한다.

櫟들보·보, 大櫟대들보, 櫟·襯보, 長櫟장보, 合長櫟맞장보>맞장보, 短櫟
[더른보·더른보, 從櫟종보, 退櫟뒷보, 櫟木보목] // 柱기둥, 柱木기둥목, 高柱
[높은기둥], 平柱평기둥, 童子柱동즈기둥 // 昌方·昌陴창방 // 道里도리, 仇兀
道里구을도리·굴도리, 平道里평도리, 柱道里기둥도리, 退道里뒷도리, 短道里
[더른도리]

長舌[당혀>장혀] // 立기입귀, 初立기초입귀, 無立기무입귀, 單立기단입귀
// 櫟阿미보아제 // 草기초궁>초궁, 案草기안초궁>안초궁 // 行기행궁 // 臺
기·大기딴궁·대궁>딴궁 // 小罍소루>소루 // 柱頭기둥머리 // 畵引壁화인벽

中陴등방, 短中陴단등방, 引陴인방, 引中陴인등방, 短引陴단인방/더른인방,
長引陴당인방>장인방/긴인방, 分閤引陴분합인방 // 檀單·宣單[선단>선단]

壁植벽선, 分閤壁植분합벽선, 門壁植문벽선, 土壁植토벽선, 左右壁植좌우벽
선, 同介壁植동개벽선 // 同介동개 // 分閤분합, 西分閤서분합, 抹樓分閤말루
분합

中衿등깃 // 信陴신방 // 仇累臺[구루대] // 平交臺[평교대], 加平交臺·韶平交
臺[덧평교대]

盖板·蓋板[개판], 盖板蓮峯[개판연봉], 散子板산즈널, 風遮板[풍차판/풍차널],
班子廳板[반즈청판/반즈청널], 龍脂板용지판/용지널, 楸板추판/가래널, 椶板가판
/헛널, 栢子板백즈판/백즈널, 班子板반즈널, 邊板가널/변판, 廳板청판, 廉隅·
廉隅板여모·여모널, 初廉隅초여모, 壁板벽널, 懸板현판/걸이널

櫟셋가래/연, 長櫟장연, 短櫟단연, 付綴부연, 執介櫟집게셋가래/집게연, 方
櫟방연, 長方櫟장방연, 馬蹄櫟물굽셋가래/마데연, 椶木[연목]

欄干난간 // 法首법수 // 累里슈누리개 // 木只모끼 // 散子산즈 // 連衿연
합 // 松竹솔대 // 斜材사목>사목 // 懸任掌걸임장 // 朴기박궁, 月乃朴기들

너박공>달너박공, 短朴工단박공/더른박공 // 西乞서슬>서슬

賊心덕심, 樅心양심꺠, 中心등심, 抹樓心·林樓心말루심, 四面抹樓心스면말루심, 春舌抹樓心춘혀말루심 // 椽枕杌木연침누뭉 // 班子[반즈] // 班子大欄반즈대란, 童多欄·童大欄동대란, 小欄쇼란, 月箭小欄들살쇼란 // 斜窓[사창/빗창], 廣窓광창, 合廣窓합광창/맞광창, 獨窓(독창), 雙窓(쌍창), 箭窓살창, 舉乙窓[들창] // 先佐耳선좌귀·선자귀

月里[드리]>다래, 蘆簾月里노름드리>노름다래, 穢月里장드리>장다래, 流音月里흘림드리>흘림다래, 上流音月里웃흘림드리>웃흘림다래 // 齡骨[엇골], 於骨[얼골], 於骨[얼골]·엇골, 齡乙骨[얼골], 門齡骨문엇골 // 地方·地防디방, 上地方·上地防웃디방/상디방, 下地方알디방/하디방, 上下地方상하디방, 門上下地方[문상하디방] // 亏里우래 // 莫古里막고래, 機莫古里틀막고래

之介·支介지게, 合之介맛지게, 之支지지꺠 // 屯太둔테, 屯太太둔테뭉, 上上屯太상하둔테, 上屯太상둔테 // 抹樓·林樓말루, 假林樓헛말루/가말루, 退林樓뒛말루 // 春舌[춘혀], 春舌抹樓心춘혀말루심, 春舌罷防춘혀뒛방 // 罷防·加防뒛방, 春舌罷防춘혀뒛방, 柱加防기둥뒛방 // 大廳대텅>대청 // 蛇羅사래 // 散防·散方산방 // 耳櫪귀틀, 長耳櫪장귀틀/긴귀틀, 短耳櫪단귀틀/더른귀틀 // 長床伊장상이 // 障子장즈·장지>장즈·장제, 間障子셋장즈·셋장지>셋장즈·셋장제

한편 다음의 것들은 차자 표기로 보이는데, 확실히 구명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과제로 남겨둔다.

ㄱ) 障子所排大叉釘四介……間障子中舉乙金排具四介……呼禿只中叉釘四介『文禧廟營建廳謄錄』(56ㄴ)

ㄴ) 井盖二坐次補階板五立(90ㄴ)

呼雋只是 ‘호도기’의 한자 차용 표기로 보이는데,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고건축사전이나 국어사전류에서 음상도 확인할 수 없다. 井蓋도 ‘정개’라 읽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확실하지 않다. 이외에 古土甍고샐이 古甍고샐에 대응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刀叱兒돛스 > 돛으?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엮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연구원 엮음(2001)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 두산동아.
- 김연주(2004) 「영건의궐(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광우(1995) 『고금한한자전』, 인하대학교출판부.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92~1996) 『한국한자어사전』 권1~권4.
-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 박사 학위 논문.
- 손희하(2004) 『새김 어휘 자료 말 뭉치』 1.5판.
- 오창명(1995) 「조선 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2001) 「물명의 차자 표기 연구(1)-『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 오창명(2003) 「『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의 차자 표기 연구」,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 오창명·손희하(2005) 「『西闕營建都監儀軌』의 차자 표기 연구-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소 발표문.
- 오창명·손희하(2005) 「『西闕營建都監儀軌』 飜譯과 차자 표기의 解讀 오류에 대하여: 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36집.(예정).
- 오창명·손희하(2005) 「『文禧廟營建廳謄錄』의 차자 표기 연구(1)-철물류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사학회 제1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장기인(1998) 「신편 한국건축사전」, 『한국건축대계』 IV, 보성각.
- 황금연(1997) 「의궤류의 한자 차명 표기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윤 정 수

梅花女子大学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분리, 시민참여의 확대 등 새로운 정부기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중앙정부권한의 대폭적인 축소와 함께 지방권한의 확대와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기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문제는 사회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의 이전에 정부간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방분권을 둘러싼 제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지면적 한계로 본고에서는 지방분권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보에 이르기까지의 유사관련 사안에 대한 변천 과정과 실태를 참여정부 하에서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참여정부는 최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화와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고 관련입법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예산 중 사회복지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온 중앙정부 보조금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방분권이 복지재정의 형성에 미치는 배

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복지재정의 운영실태를 통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2장에서는 참여정부 하에서의 지방분권과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재정의 위기 속에 진행되는 지방분권과 복지재정의 변화에 관점을 두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배경과 지방분권과 더불어 제기된 복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지방정부와 복지재정의 실태를, 그리고 4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와 민간재원의 법적근거와 조달 방법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방정부와 복지재정의 당면 과제를 정리하였다.

2.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2.1. 지방분권화의 배경

우리나라는 전후 반세기에 걸쳐 경제성장과 군비확장이라는 양대 과제를 통해 중앙집권과 집중을 유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구체화시켜 가는데 필요한 복지재정의 확장도 중앙 집중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 집권화와 중앙 집중화를 묵인하면서 정부조직 또한 ‘거대한 정부’로 변모하였고, 비대해진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막대한 경비의 팽창이 복지국가에의 걸림돌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20세기 말의 ‘복지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와 시점이 요구되었고 그 핵심이 지방정부와 재정에 대한 관계정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 원년이라 할 수 있는 1995년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방분권화에 적응하여 오다가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배경에는 과거 경제성장정책에서 나타난 국가의 불균형적 발전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의 관계는 단일국가와 연방 국가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독일의 형태를 닮은 일본과 유사한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지방재정은 지방세의 과세권이 거의 없어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의 원조재원으로 충당하여 행정의 자립도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와 지침하달보다는 지방분권 하에서의 구성원의 복지제도 운용에의 참여가 보다 용의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의 소지도 내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모색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복지사회는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을 포함한 제3섹터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의 책임을 동반한 균형, 세제와 시장개방의 범위 등 실질적인 전환을 통한 분권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2.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참여와 분권’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그는 대통령후보 당시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지방화시대의 구현을 공약하면서, 지방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가균형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이의 법적근거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분권법’의 제정을 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 교부세율의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지방화시대 구현을 위한 공약실천의 일환으로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의 정체성을 ‘참여정부(2003년~2007년)’로 규정하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지방분권화시대를 열어나갔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지방분권화 로드맵 가운데 복지

와 재정에 관련된 일정만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정부의 복지관련 지방분권 및 재정이양추진 로드맵

구분	현행	참여정부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세분화, 종류과다 - 3억원 미만사업 13.1% - 법정보조율사업31%에 불과	- 보조금정리 및 자주재원화 (2003~5)
지방교부세법정을 인상	- 현행교부세율 15%	- 단계별인상 추진(2004~05)
지방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발행승인제	- 지침유지, 사전승인제유지	- 폐지(2004~05)
중복감사 문제 주민감사청구제	- 과다 중복감사 - 감사청구인수: 20세 이상 1/50 이상	- 중복감사 개선(2003~04) - 감사청구 활성화방안 마련 (2003~04)
주민소송제	- 없음	- 도입방안 검토(2004)
주민소환제	- 없음	- 도입방안 검토(200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없음	- 법제정방안 마련(2004)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의 특징으로는 우선 다양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거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지방교부세 또한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하며, 기존의 지방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채 발행승인제도 폐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중복된 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히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꾀하고,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원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권한과 재정의 분권을 이양하되 지역주민의 참여와 결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정부의 분권화시도와 무산에 대한 비판여론이 참여정부의 국정 기조 설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방분권화 열기가 지방의 재정분권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재정분권과 부패가능성의 문제, 재정분권과 형평성문제, 지역경제의 안정성문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이 충분히 논의 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진행 될 지방분권화 과정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방분권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재고를 꾀하려는 노력이 지방정부의 사회전반에 걸친 전환에의 인식부족이나 예측불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는 복지재정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2.3. 지방정부와 복지재정

전후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와 민간의 복지법인 설립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다가, 197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충원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질적 복지욕구의 분출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장기요양보험(가칭)’등은 강제징수 방식인 사회보험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의 대부분이 세금이 아닌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의 조세제도 개념인 소득재분배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계산된 ‘지역의존형 복지형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시작된 지역복지의 주체 및 복지재정에 관한 논의는 정치, 경제, 사회를 망라한 사회구조전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즉, 지금의 복지재정의 위기는 정치권이 사회권보호를 위해 구축한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전체의 전환인식이란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위한 분권이자 재정확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복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의 3주체에 의한 재정적 역할을 일컬어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보장기금은 ‘독립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이 중앙집권 및 집중에의 일조와 복지재정의 비대화 등에 일정분의 정치적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리통제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유럽국가의 사회보장기금의 대표자 선출과 자율적 운영제도와는 대조적인 형태로 참여정부의 복지재정이양에 관련된 정책수립에 필요한 선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진국가에서도 연방국가인 미국이나 독일은 재정분권화체제이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중앙 집중체제를 유지하며, 우리의 제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지방재정의 세출비중은 높지만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나 규제로 행정의 자립성은 궁핍할 뿐 아니라 자주과세권은 거의 없어 엄밀히 말하면 분권적 집중형이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지방정부와 복지재정 실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인데 비해 광의의 복지예산은 15.4%에 이르렀다.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8.7%의 증가율을 보였고, 생활보호, 재해구호, 북한동포구호 등의 공공부조는 연평균 28.4%라는 높은 증가율로 6년에 무려 세 배에 가까운 예산증액을 확보한 것인데 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복지예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의 큰 틀을 답습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는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의 증가를 보더라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준으로 2002년에 주춤하던 비율이 다시 상향곡선으로 나타나 2004년에는 2.9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대에 이르고 있다.

〈표 2〉 일반회계예산 중 복지예산의 변화추이

(단위: 억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부예산(A)	755,800	836,900	887,400	991,200	1,096,300	1,116,600	1,175,400
복지예산(B) (98년=100)	31,498 (100)	39,370 (125)	53,105 (169)	74,202 (236)	77,243 (245)	83,527 (265)	92,569 (294)
B/A(%)	4.2	4.7	6.0	7.5	7.0	7.5	7.9

〈표 3〉 국민 1인당 GDP 1만 불 소득대의 복지예산 지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연도	1995/2000	1981	1978	1987	1977
GDP대비(%)	5.05/9.14	10.65	13.62	20.78	24.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OECD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진제국과 같은 조건인 GDP 1만 불 소득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열악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의 1만 불 소득대의 복지예산이 1995년에 GDP대비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와 노숙자 그리고 가정와해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재차 1만 불대에 들어선 2000년에는 80% 이상 증가한 9.14%를 기록하지만, 선진제국의 복지예산에는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예산의 문제는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열악한 비율뿐만이 아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중앙에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사업의 대응예산이 주를 이뤄 수동적 복지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국세가 80%이고 지방세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세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으며, 심지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전체 시, 군의 61%에 이른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자세히 보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중앙의존도를 2001년 지방세입 구조를 통해 보면, 각 도는 평균 58.4%, 시는 38.9%, 군은 71.3%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이전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확보를 가운데 복지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의 배포자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사회복지예산 평가 자료를 보면, 사회보장비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체예산 중 15.4%에 불과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비 전체예산 중 49.7%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이며, 12.5%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이전재정으로 충원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의 이전재정이 71.7%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직접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사회보장비 전체예산 중 3.4%에 지나지 않아 대응예산에 의한 복지재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편성의 주무부처가 여전히 경제관료 집단인 기획예산처라는 것이다. 이는 계량적 비용효과의 산출과 경제 성장 중심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한 순증주의(incrementalism)¹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복지재정의 현실적 조정이나 과감한 증액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화시대’란 명분으로 권한의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재정의 분권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지방정부의 행·재정의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 순증주의적 예산편성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년도 예산액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서 점진적 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배정을 둘러싼 이해세력들의 타협적 산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내재하며 통치권자의 정책 실천의지를 희석시키는 일면이 있다.

〈표 4〉 2001년 부천시의 사회복지예산²

(단위: 천원, %)

	국비	도비	시비	계
행정비용	5,000	0	1,228,907	1,233,907(2.0)
시 직접사업	228,526	302,432	1,878,573	2,409,531(3.4)
시설지원	4,885,644	2,776,349	10,915,243	18,577,236(31.0)
대상자지원	24,620,259	4,441,341	8,213,824	37,275,424(62.3)
임의단체지원	0	0	267,420	267,420(0.4)
계	29,739,429(49.7)	7,520,122(12.5)	22,503,967(37.6)	59,763,518(100.0)

출처: 김종해 『부천시2001년도 사회복지예산평가』.

4. 지역사회복지와 민간재원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회복지관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도 사회복지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스스로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전국 364개(2005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2년 당시 전국평균이 54.6%였으며, 서울이 95.6%, 수도권이 82.1%, 기타지역이 44.3%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의 재정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민간재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³

이러한 재원의 보충을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2 부천시는 서울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인구 864천명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컨셉으로 표방하고 있다.

3 사회복지관은 이 외에도 2005년 현재 노인복지관 137개소, 장애인복지관 116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라고 사회복지관을 정의하여,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모금회의 분배를 통한 재정확보와 자체 개발 사업에 의한 재정확보이다.

공동 모금회는 중앙조직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모금위원회와 배분업무를 담당하는 배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제국과 달리 지역배분방법을 제외한 기관배분형과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어, 적극적 소수의 참여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소극적인 대다수의 참여를 포기하는 일면이 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단체를 축으로 하는 적극적 지원자의 개발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광범위한 지지층 개발을 위한 양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민간재원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자체 개발 사업으로는 개인후원 및 단체후원을 개발하거나 시설대여 및 도서출판 등의 수익사업, 그리고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자칫 자위적 행사에 역량이 소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기관의 구성 및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 구속력이 없고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선진외식의 결핍으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5. 맺음말: 지방정부와 복지재정의 과제

지방분권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전이 주는 장점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확보 및 세출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자생력을 강화시

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감지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을 능동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에산책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에산책 확보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복지재정의 권한 및 예산을 이전 받은 지방정부의 복지사회구현에의 인식의 차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 또는 복지 불균형 및 불평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책임 있는 복지계획과 실천에 대한 인적자원의 부족도 현실적으로 우려되어 자칫 지역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지방분권화’라는 미명 아래 최저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체제 마저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고,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개혁의 결과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고부담금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확보에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에 제정된 개호보험제도(介護保險制度) 실시 이후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의 불균형이 현실화되면서 그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은 이미 민간자본 활용에의 과대의존된 상태로 국가책임 하에서 지역복지가 육성되는 ‘공적복지제도의 확립’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보 및 실무이양에 대한 배경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분권의 효율성과 공적책임이 함께 하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적책임의 부분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와 함께 향후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재정확보 및 세출의 능동적 집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재원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제도와 집행기관의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사업집행을 위한 복지재정의 확보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재원의 유입을 위해 영리 비영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율성과 공적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의 공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양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두 단계 행정시스템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슬로건처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모색과 더불어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지역분권과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한 첩경일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복지지출 추계」 각년도.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2.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和田八束(1999) 「21世紀の福祉と財政」, 『分権時代の福祉財政』, 敬文堂.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한반도 영세 중립

이 재 봉

원광대학교

1. 머리말

2000년 6월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¹ 그러나, 정상 회담 이후 남북 사이의 교류가 여러 부문에서 크게 늘고 있지만, 5년이 흐른 2005년 8월 현재까지 통일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통일 방안이랄 수 있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에서 상대방의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공통성을 찾고도 이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사이에 통일을 이루기는커녕 통일에 관한 논의조차 진전시키기 어려운 배경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 듯하다. 첫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한편, 북쪽에서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바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다. 둘째, 남쪽 내부에서의 반발이 몹시 크다. 정상

1 「남북 공동 선언 전문」 제2항.

회담 전후로 불거졌던 이른바 ‘남남 갈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보수-극우 정치인들과 언론 시장을 거의 독점해온 보수-극우 신문들이 「남북 공동 선언 전문」 제2항에 심한 거부감을 보여 온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극우 계층의 위세에 눌려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셋째, 주변 강대국들도 사상과 제도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부터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남쪽을 지지하는 편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북쪽을 편드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에서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의 영세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남쪽이 제안한 국가 연합 아래서든 북쪽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래서든, 어느 한 쪽이 특정한 나라에 치우친 대외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 또는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연합이나 연방 내부에서 갈등이나 모순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국가 연합이나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중립 노선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2005년 2~3월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균형자 역할의 대상과 방법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생길 수 있겠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막거나 조정하겠다는 의도에는 누구든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국력을 지니고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한반도의 영세 중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한 가지로 한반도의 영세 중립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무현 대통령과 남한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5년 2~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관련하여 남한의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해 노대통령이 약 1달 사이에 공식 연설을 통해 적어도 4차례나 언급했으니 요즘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비추어 상당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된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월 25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국정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셋째,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우리 국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3월 30일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관한 주장이 2005년 2~3월 갑자기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3년 2월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안보 전략 기조 가운데 한 가지로 내세워진 것이다. 참고로 ‘참여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기조는 평화 번영 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 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 국방 추진, 그리고 포괄 안보 지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균형적 실용 외교’는 “대외 관계에서 우리가 동시에 실현해나갈 대립되거나 상이한 목표와 요구들 간의 균형을 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²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주 국방과 한미 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므로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때는 ‘균형자’라는 말 대신 ‘지렛대’라는 말을 사용한 게 다를 뿐이다.

3.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대상과 방법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이다. 첫째, 무엇을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이에 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참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외교는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 협력’,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 ‘국가와 국가’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와 국익의 균형은 평화, 인권, 주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국가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동맹과 다자 협력의 균형이란 한미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되 다자 안보 대화 및 협력 정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의 균형은 개방적인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가의 고유한 특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가의 균형은 대외 관계에서 협력적 수평적 호혜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³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한국, 중국, 일본은宿命적 동반자로서 이 3자 사이에 발생한 양자적 갈등 및 위협성을 우리가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게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고, 동북아시아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간의 세력 균형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향후 중국과 일본간 갈등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앞에 소개한 노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다른 목표와 요구들 사이의 균형

2 국가안전보장회의(2004: 23~24).

3 국가안전보장회의(2004: 26).

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이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는 데 편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둘째, 균형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가? 이 역시 앞에 소개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군사적으로 작전권을 되찾아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권을 돌려받음으로써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가 되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에 무턱대고 끌려가지 않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미국에만 편들거나 의존하는 경직된 외교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4.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

위와 같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대해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남한과 미국에서 주로 보수-수구 성향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남한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국제정치학의 ‘세력 균형 이론’을 끌어들여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균형자’라는 국제정치학 용어를 좁게 해석하면 그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력 균형’은 한 나라 또는 국가 집단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나라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나 정책 또는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나라 또는 두 국가 집단 사이에서 자국의 힘을 어느 한 쪽에 보태 줌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균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영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나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힘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한이 적게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크게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 사

이에서 약한 쪽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강한 쪽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남한의 힘이 두 나라 또는 두 집단 사이에 생기는 차이의 힘보다 커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을 A, 일본을 B, 또는 중국 및 러시아를 A, 미국 및 일본을 B라 하고, 남한을 C라고 하면, $A+C>B$ 또는 $B+C>A$ 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력을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남한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 사이에서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균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노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국군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하고, “경제력도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커졌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와 함께 미국의 힘을 능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력이 워낙 커서, 특히 세계 군사비의 거의 절반을 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온 세계가 힘을 합쳐야 미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외 정책 관련 책임자들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세력의 균형자가 아닌 평화와 협력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책이나 사안에 따라 다른 나라와 협력과 공조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국제정치학의 ‘세력 균형 이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개념이 좀 다르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강성 권력(hard power)만을 지칭하지만, 21세기적 의미의 힘은 거기에 정치력, 외교적 조정력, 문화적 친화력, 도덕적 정당성이나 매력 등 연성 권력(soft power)이 덧붙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에 의한 균형자 역할보다는 협상과 중재에 의한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일종의 웅색한 해명이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노대통령은 분명히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거론하며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북미 갈등이 심화하고 미국의 폭격이나 침략 위협이 증대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노골

적으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마당에 시의 적절하게 바람직한 대외 정책 노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수구 성향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의 억지 섞인 비판에 뚝뚝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해명이나 변명을 내세우는 배경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기득권층에는, 심지어는 ‘참여 정부’의 대외 정책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관리들 가운데도, “미국인들보다 더 친미적”이며 미국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고 미국의 비위에 거슬러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보수 세력은 다음의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 궁급하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겨도 미국을 추종해야 하는가? 미국이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도 미국을 비판할 수는 없는가? 한미 동맹이 남북 사이의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굳이 학술적 또는 이론적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균형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수구적인 여론 주도층의 억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용어 자체가 쓸데없는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의 ‘조정자’ 역할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 혼란이나 비판을 조금이라도 덜 받지 않았을까.

5.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한 가지 대안: 한반도 영세 중립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든 조정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든 한미 동맹이 그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인들보다 더 친미적이거나 미국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비판을 우려하여, 남한 정부는 자주 국방

도 한미 동맹 속에서 이루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도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수행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2000년대로 접어든 뒤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미국의 패권 추구인데, 어떻게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상대국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촉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성 권력이든 연성 권력이든 상대적으로 적은 국력을 지니고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반도의 영세 중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의 ‘근본 원칙’ 및 통일 국가의 ‘외교 강령’ 가운데 하나로 영세 중립을 못 박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통일 논의를 주도해온 일부 민간 통일 운동 단체들이 영세 중립을 주장해왔다. 또한 2004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구상할 때마다 한반도의 중립화를 고려했듯이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형이나 감축 또는 철수를 계획하면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할지 모른다. 더구나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에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집권 정당인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63%가 앞으로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꼽은 반면 26%가 미국을 들고 있기 때문에,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머지않아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계속되어온 북미 사이의 갈등과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도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사이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형이나 철수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인데, 북미 사이의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은 미군들의 주둔

4 『중앙일보』 2004.5.7.

명분을 없애거나 악화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라 안팎의 정세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

6. 중립의 의미와 종류 및 목표와 조건

중립(neutrality)이란 본디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3국이 교전 당사국에 무력 지원은 물론 각종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 나라가 다른 국가들이나 집단들에 군사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므로써, 그리고 자주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불참함으로써, 자국의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립은 일반적으로 약소국들이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소극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전쟁에는 교전국들이 분명한 열전(hot war)뿐만 아니라 전쟁 당사국들이 분명하지 않는 냉전(cold war)과 심리전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중립의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⁵

중립은 크게 통상 중립(customary neutrality)과 영세 중립(permanent neutrality)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대개 전쟁 중에만 해당되는 일시적 상태를 가리키고, 후자는 전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평시에도 적용되는 영구적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영세 중립은 중립을 원하는 국가가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하여 자국의 독립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국제법상의 지위인 것이다.⁶

영세 중립의 목표는 국제적 분쟁의 주체가 되거나 최소한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나라가 세력 균형의 수단으로 지역적 대립을 방지하고 전쟁을 회피하며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게 일반적이다. 첫째, 중립을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

5 강종일(2001) ; Hwang In Kwan (1987, 1990).

6 강종일(2001) ; Hwang In Kwan (1987, 1990).

이 중립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녀야 한다. 정치 외교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중립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립을 원하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 나라가 중립국이 되면 관련국들의 이익도 증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나라로는 신생 약소국, 분단된 독립국,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적 간섭을 받기 쉬운 나라, 주변 강대국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중립국을 원하는 나라는 주변 관련국들과의 협정을 통해 중립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넷째, 중립국이 되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쉽게 침략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지녀야 한다.⁷

7. 한반도 중립화론의 역사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곳이어서 오랫동안 그들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아왔다. 이러한 터에 19세기 말부터 나라 안팎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를 편의상 조선 시대와 해방 이후로 나누어 시대 순으로 몇 가지만 소개한다.

7.1. 조선 시대의 한반도 중립화론

첫째, 1882년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속셈으로 중국에 조선의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 조선을 중립화하자고 제의했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둘째, 1884년 일본이 지원한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중국의 지지를 받은 수구파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과 일본

⁷ 강종일(2001) ; Hwang In Kwan (1987, 1990).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자, 1885년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인 부들러(Buddler)가 고종에게 조선의 중립화를 건의하였다. 조선이 스위스처럼 중립을 선언하여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 및 전쟁의 화를 피하라고 권하였지만,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대신들이 그 제안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는 정치적 식견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1883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길준이 1885년 유럽을 거쳐 귀국한 뒤, 조선이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이 될 것을 주장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고종 정부는 여전히 국제 정세에 어두운데다 중국이 반대하여 조선의 중립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넷째, 1900년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막기 위하여 1901년 조선의 중립화를 일본에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다. 러시아는 1902년 러시아, 미국, 일본의 보장 아래 조선을 중립화하자고 일본에 다시 제안하였지만, 일본은 다시 거부하였다. 다섯째,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는 조선 정부가 일본에 파견된 특사들을 통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열강들에게 조선의 중립화를 제안해줄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을 통해 러시아를 치려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조선은 일본에 국방을 맡기고 내치에나 전념하라”고 대꾸했을 뿐이다.⁸

7.2. 해방 이후의 한반도 중립화론

첫째, 1945년 원불교 2대 종법사였던 송정산은 「건국론」을 통해 “우리는 공평한 태도와 자력의 정신으로 연합국에 똑같이 친절할지언정 자기의 주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일개 국가에 편부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려는 이 어리석고 비루한 생각은 절대로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립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라며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으로 일어설 것을

8 강종일(2001) ; 유길준 「조선중립론」(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16~22) ; 허만 부들러 「청일전쟁에서 조선의 중립을 위한 제안」(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23~30).

주장하였다.⁹ 둘째, 1947년 미군정하의 한국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의 웨드마이어(Wedemyer) 장군이 트루먼(Truman) 대통령에게 만약 한반도에서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철수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영세 중립을 보장하도록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¹⁰ 셋째, 1952년 재미교포 김용중이 남북 당국과 유엔에 한반도의 중립 통일 방안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포위되어 있어 엄정 중립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비동맹국들로 이루어진 중립국 위원단이 선거를 통해 단일 정부를 구성하면 외국군들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¹¹ 넷째, 1953년 휴전 협정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중립화를 내용으로 한 연구보고서 「중립과 한국의 안보」를 작성하여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였지만,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의 중립화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다.¹² 다섯째,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주필을 지내며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바람에 1951년 일본으로 쫓겨 갔던 김삼규는 1953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월간지를 통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남북 정부를 세운 미국과 소련이 남북 총선거를 감시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입된 UN의 감시 아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이하였다.¹³ 여섯째, 1953년 미국의 놀랜드(Noland)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한반도가 유엔의 신탁 통치를 받기보다는 독립국이 되어 중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에 의해 적대적 도약대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중립은 반드시 미국과 일본의 보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곱째, 1960년 미국의 맨스필드(Mansfield)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로 해결할 것을 고

9 송규 「건국론」(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64~85).

10 Hwang In Kwan (1987, 1990).

11 한호석 「김용중의 민족자주, 통일운동」(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123~154).

12 Hwang In Kwan (1987, 1990).

13 김삼규 「통일독립 공화국에의 길」(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155~167) ; 김삼규 「중립화 통일론을 해명한다」(강종일·이재봉 편저, 2001: 168~183).

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버클리대학교의 스칼라피노(Scalapino) 교수는 한반도가 오스트리아 식으로 중립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중립화를 모색할 만하다고 했다. 여덟째,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일본에 망명했던 김삼규가 귀국하여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내세웠고, 혁신 정당들이나 사회단체들도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내세우며 활발하게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¹⁴ 이홉째,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김철 통일사회당 위원장,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박순천 전 한민당 당수, 조선의 김일성 주석, 미국의 카터(Carter)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황인관, 브레진스키(Brezinski), 헨더슨(Henderson), 라이샤워(Reischauer), 영(Young), 갈통(Galtung) 등의 국내외 학자들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고려하거나 주장하였다. 또한 김수영, 신동엽, 최인훈 등 문인들은 시나 소설을 통해 중립화 통일을 지지하였다.¹⁵

이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며 관련자들에게 한반도 중립화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무부 관리, 정치인, 학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한반도 중립화와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면 한반도가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권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한반도 중립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국인 남북의 지도자들이 중립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욱 고무적이다. 먼저 남한에서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김대중은 선거 유세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주변 4대 강국의 보장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1989년 6월에는 재야인사로 광주에서 가진 시국 강연에서 “장차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 식 영세 중립 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다. 한민당 당수를 지냈던 박순천은 1978년 신년 소감에서 남

14 강종일(2001) ; Hwang In Kwan (1987, 1990) ; Lee Jae-Bong (1994).

15 Lee Jae-Bong (1994).

한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영세 중립국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⁶

한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제안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 군사적 동맹이나 뿔력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 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 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 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고 주장했다.¹⁷ 나아가 1993년 4월 발표한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도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 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며, “범민족 통일 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 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뿔력 불가담적인 중립 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⁸

8. 한반도 영세 중립 통일의 당위성

한반도가 왜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지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 4대 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접해 있으며 바다 건너로는 일본과 미국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하여 국력이 너무 약하다. 국력을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비로 나누어본다면, <표 1>에서 보듯이,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들의 국력 합계를 100으로 잡았을 때 남북이 통일을 이루더라도, 영토는 0.6%, 인구는 3.7%, GDP는 3.0%, 군사비는 3.0%로 국력의 중요한 요소에서 모두 4%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16 최봉윤 「나의 조국 통일론」(강종일·이재봉 편저(2001: 212~230) ; 강종일(2001).

17 노중선(1996: 218) ; 심병철(2003: 31~33, 89).

18 노중선(1996: 518~519) ; 심병철(2003: 31~33, 89).

〈표 1〉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의 국력 비교

국 가	영토(만km)	인구(백만명)	GDP(억달러)	군사비(억달러)
미 국	936(25.6%)	271(14.2%)	104460(60.5%)	3485(69.0%)
중 국	960(26.3%)	1300(68.0%)	12370(7.2%)	510(10.1%)
일 본	38(1.0%)	127(6.6%)	40000(23.2%)	395(7.8%)
러시아	1700(46.5%)	144(7.5%)	10690(6.2%)	508(10.1%)
한 국	10(0.3%)	48(2.5%)	4760(2.8%)	131(2.6%)
조 선	12(0.3%)	23(1.2%)	296(0.2%)	20(0.4%)
한반도	22(0.6%)	71(3.7%)	5056(3.0%)	151(3.0%)

자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London),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국방부, 『국방백서 2004』; www.state.gov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 “countries and regions,” 2005년 8월 27일 검색).

셋째,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무려 700회나 외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다섯 차례나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기도 하였다.¹⁹ 넷째, 무엇보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에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놓고 있는 미국이다. 특히 남쪽에게는 둘도 없는 맹방이라는 미국이, 북쪽과 ‘이와 입술’처럼 가까운 중국을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시장 민주주의 체제로 이끌겠다는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주의 한반도를 반대할 테고, 북녘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으려는 중국은 자본주의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어도 2015~2020년까지 또는 한반도가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²⁰ 중국은 조만간 또는 늦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 주한미군

19 Kang Jong Il(1997) ; 강종일(2001)에서 재인용.

이 철수되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금의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2030년이면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맞설 수 있게 되리라는 전망이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²¹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과거 소련을 대신해서 미국과 패권을 겨루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이를 겨냥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는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북한의 남침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미국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휴전 협정이 맺어진지 거의 반세기가 흐르고 세계적 냉전이 끝난 지도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련된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국인 유럽의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소련이 사라지고 소련이 이끌던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없어진 마당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여 이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한다. 미국이 NATO를 앞세워 유럽-대서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주둔시키는 데는 러시아를 견제하며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듯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맞닿 통일 한반도

20 William S. Cohen (1997: 1~4).

21 World Bank (1996: 134).

에 미군들이 주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더구나 남쪽 안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자주권 침해 및 각종 범죄 행위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1980년대부터 대학생들을 포함한 진보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반도 안팎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잃을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쉽게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킬 중국 사이에서, 남북한은 어떻게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며 중립화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영세 중립 통일의 당위성은 북쪽 당국이 1980년 발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잘 다듬어져 있듯이,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력사적 경험과 현실적 요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아래에 소개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건지하여야 할 활동 원칙은 자주, 민주, 중립, 평화이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에서 중립 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련방 공화국이 중립 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 하나는 련방 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두 지역 사이의 련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련방 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 사이의 련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 군사 동맹이나 뿔럭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 국가 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련방 국가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련방 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우에 형성되는 것만큼 대외적으로 중립 로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 국가로 되여야 하는 것은 이런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에도 기인된다. 국제 관계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리해 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있고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다. 이런 형편에서 통일 국가가 자기의 존립을 보존하고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외적으로 중립 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어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 국가이다. 세계에 련방 국가들은 많지만 대외적으로 중립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련방 국가가 대외적으로 중립 로선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련방 국가가 존립하는 한 항구적으로 중립 국가로 되어야 한다.²²

9. 한반도 중립화의 실현을 위한 제안

앞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어렵다는 미국과,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군사 동맹과 병력 주둔을 끝내도록 이끌어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지향할 수 있을까?

먼저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일 자체를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급속한 통일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시기를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30년으로 잡는다면, 앞으로 20년을 전후하여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날카롭게 맞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에 의한 새로운 냉전 체제에 따라 남북한 역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지 모른다.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더라도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 때문에 말이다. 북한은 주체와 자주를 앞세워 중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을지라도, 남한이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22 심병철(2003: 31~33, 89).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에 남북은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적어도 냉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통일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통일을 이루기 전이든 통일이 된 다음이든 주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자주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반도의 중립화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중립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20~30년 사이에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앞지를 수 있는 힘을 갖추기는 어렵다. 이를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싶다면, 우리의 잠재력과 주변 강대국들의 능력을 비교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면서 또는 통일을 이룬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와 더 가까이 지내는 게 바람직할지 미리 생각해보자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냉전의 틀 속에서 흑백논리에 익숙해진 탓이다. 둘 다 취하면 중립이 없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아왔고, 가운데 서거나 중립을 취하면 좌우파 사이의 회색분자라고 매도당해 왔기 때문에 말이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립을 꾀하면서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며 새로운 냉전 체제로 돌입하기 전에, 안으로는 국가 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고 밖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를 지향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방해나 반발 없이 통일을 이루고 자주와 평화를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가안전보장회의(2004) 『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
강종일(2001) 「한반도 영세 중립 통일 방안 연구」, 『국제정치논총』 41집 1호, 93~116쪽.
강종일·이재봉 편저(2001)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들녘.

- 노중선 엮음(1996) 『연표 :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 50년』, 사계절.
- 심병철(2003)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출판사.
- Cohen, William S. (1997)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
- Hwang, In Kwan (1987) *One Korea Via Permanent Neutrality : Peaceful Management of Korean Unification*, Cambridge: Schenkman.
- Hwang, In Kwan (1990) *The United States and Neutral Reunited Korea: Search for a New Basis of American Strateg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 Kang, Jong Il (1997) "A Power Politics Analysis of Korea's Loss of Autonomy: Korea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1871~1905."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 Lee, Jae-Bong (1994) "Cultural Representation of Anti-Americanism: The Negative Images of the United States in Sou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1945~1994."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Hawaii.

중국연변조선족의 한국유입어사용 현황에 관하여

- 어휘사용을 중심으로

전 영 남

大阪大學

1. 서론

사회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적지 않은 사회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어원이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정치, 경제, 역사 등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 변화할 수 있다.

연변의 조선어와 한국어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연변과 한국은 1945년에 조선반도가 분단된 이후부터 1992년 중한수교가 이루어지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 있어서 거의 내왕이 없었다. 따라서 연변조선어도 한국어와 같은 어원에 속하지만 수 십 년 동안 교류가 두절된 탓에 서사, 어휘, 표현 등 여러 면에서 그 차이를 직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제일 민감히 반영하는 어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중한수교 이후 중한 양국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와 더불어 한국이라는 존재는 중국대륙에서 급속히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조선족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근 십여 년 간 대량의 한국기업들의 연변진출, 연변지역에서의 한국관광객의 급속한 증가, 많은 연변조선족들의 노무수출, 한국방문 등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연변조선어도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연변의 신문, 방송, 출판 등 매체물의 언어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청년

층을 중심으로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용어가운데서도 한국유입어¹ 사용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중국조선족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유입어 사용현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연변과 한국의 언어사정, 규범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순수한 우리말’²사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연변에 들어오고 연변조선족들의 일상생활용어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는 한국유입어 사용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연변조선어에 유입되고 매체들의 언어로, 또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용어로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는 한국유입어사용에 대한 연구는 금후 연변조선어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연변의 주요 조선어신문매체들의 한국유입어 사용실태와 한국유입어가 연결시를 중심으로 한 연변조선족들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침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변의 주요 조선어신문들의 한국유입어 사용실태

현재 연변에는 수십 여종의 조선어로 된 간행물이 있다. 아래에 연변의 간행물 중에서 주요 조선어신문들의 한국유입어 사용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1.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본고는 2005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변일보』³와 『연변라지오텔레비신』

1 중한 수교를 전후로 한국어에서 연변조선어에 유입된 어휘의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외래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연변조선어를 가리킴.

3 중국조선족 신문 중에서 발행역사가 제일 긴 신문이다. 또한 정부의 조선어기관지로서 매주 6일 간 발행한다.

문』⁴에 실린 한국유입어를 주요 대상으로, 기타 신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어휘를 일부 첨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유입된 어휘인기는 기준에 관해서는 한국의 『우리말 큰 사전』, 또는 〈야후 코리아〉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출판한 『조선말 사전』,⁵ 『조선어규범집(수정보충판)』⁶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선정한 대부분의 단어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어이다.

그러나 [미디어와 같은 어휘는 1996년에 출판한 『조선어규범집(수정보충판)』에 수록되어 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어로부터 유입된 어휘로 필자가 판단해서 선정범위에 넣었다.

그리고 ‘주장’, ‘동아리’ 등 단어에 관해서는 『조선말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본 뜻과 차이가 있거나 한국유입어의 영향으로 복귀된 어휘로 판단했을 경우에 분석범위에 넣기로 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005년 7월 22일 「연변일보」에 실린 한국어어휘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플래시, 바리케이드, 실크로드, 로무일군제테크, 조깅, 다이어트, 바캉스, 헤어로션, 에션스, 타월, 헤어팩, 스타타월, 샴프, 에어컨, 파운데이션, 파우더, 오렌지색, 섹시(한), 글로스, 립스틱, 립글로스 등(21개)

4 서민을 주요 상대로 한 주간지로서 텔레비전프로 안내 외에 연예계정보, 생활지식, 사회뉴스 등 다방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선어신문이다.

5 15여만 어휘가 수록된 『조선어 사전』은 중국조선족 실정에 맞춘 중국조선족언어사용의 기준으로 되는 사전이다.

6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에 의하여 심의 채택된 것으로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중국의 모든 기관, 학교, 기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조선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이다.

2.2. 분석과 고찰

2.2.1. 한국유입어의 주요방식

연변에 들어온 한국유입어의 주요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의 기존어휘⁷

예: 다방, 관광성수기, 홍보, 동아리

② 한국외래어이용⁸

예: 애니메이션, 짬뽕, 브랜드

③ 한국어의 새말이용

예: 노래방, 짬질방

④ 혼종어이용

i 한국기존어+외래어

예: 열성+팬, 생일+파티, 아리랑+저널

ii 외래어+한국기존어

예: 스타+양성 마케팅+전략 디지털+도시

iii 연변조선어의 외래어+한국외래어

예: 텔레비존+드라마

2.2.2. 한국유입어에 의한 연변조선어어휘의 변화방식

① 연변조선어어휘에 없었던 새로운 어휘가 유입되었다.

예: 더치페이(똑같이 돈을 품김), 돈까스

7 고유어휘와 한자어휘를 포함함.

8 한국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의 경우를 말한다. 본 문에서는 외래어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들어온 어휘로 판단한 경우에 한국어로 분석대상에 넣었다.

연변조선어어휘에 없었던 새로운 어휘들의 증가는 연변조선족의 한국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양식의 도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② 기존 연변조선어어휘가 한국어유입어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예: 관광안내원 → 가이드

③ 중국어어휘를 음역하거나 의역 혹은 음차하여 사용하던 데로부터 한국어유입어를 사용하고 있다.

i 중국어음역을 사용하였던 어휘가 한국어유입어로 바뀐 경우

예: (축구)대장 → 주장

ii 중국어의역을 사용하였던 어휘가 한국어유입어로 바뀐 경우

예: 공기조절기 → 에어컨

iii 중국어를 음차하여 사용하던 데로부터 한국어유입어를 쓰는 경우

예: 軟件 → 소프트웨어

④ 방언어휘의 관계로 연변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던 어휘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예: 이주머니 → 이쭈마

⑤ 연변조선어표기가 한국어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i 연변조선어기존어휘표기가 한국어표기로 되어 있는 경우

예: 런쇄점 → 연쇄점

ii 연변조선어외래어표기가 한국어외래어표기로 되어 있는 경우

예: 로봇트 → 로봇, 페지 → 페이지

2.2.3. 한국어유입어의 의미에 따른 분류

한국어어휘가 어느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가를 알기 위해 선정대상에 오른 어휘를 각 분야별로 갈라 보았다. <표 1>은 한국어유입어 의미별 분류표이다.

그 결과를 보면 경제, 유행, 생활에 관한 어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표 1〉 한국유입어 의미별분류표

분야	주요 영역	합계(%)	
생활	용품, 공간, 식품, 음료, 행사, 행동	40	(15.9%)
사회	현상, 사건, 교육, 교통, 조직, 인물	16	(6.4%)
경제	정책, 경제조직, 직업, 상품, 현상, 판매형식	102	(40.6)
문화	역사, 문학, 어학, 예술, 종교	11	(4.4%)
유행	예능, 영화, 게임, 드라마, 만화, 캐릭	49	(19.5%)
레저	여행, 관광지, 출판, 스포츠	23	(9.2%)
그외	일반동사 형용사 등	10	(4.0%)
합계		251	(100%)

① 연변조선어의 경제 용어는 지금까지 중국어의 음역, 의역 등을 많이 따랐다.

그러나 중국어의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크기에, 이러한 한자 2자 혹은 3자로 구성된 단어를 직접 조선어로 음역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휘가 적지 않다. 경제용어 면에서 한국어유입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연변지역과 한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 외에 연변지역의 신문매체들이 한국어의 경제어휘들을 직접 받아들여 연변조선어어휘의 공백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볼 수 있다.

② 유행방면의 어휘사용에 대해서는 근년의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한류 붐과 더불어 연변조선족들이 한국 텔레비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현재 연변지역에서는 정부의 산하에 있는 연변텔레비전방송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위성프로를 시청하는 가정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연변의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의 연예계정보를 중국의 연예계정보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신문들이 유행방면의 한국유입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 측면을 말해 주고 있다.

- ③ 생활면에서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연변조선족의 한국방문자수의 증가와 연변지역에 있어서의 한국인장기거주자의 증가, 백화, 음식점 등 한국 기업의 연변 진출로 말미암아 연변 조선족이 생활양식, 소비관념 등 면에서 한국의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그 외에 많은 조선어신문들에서 한국의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과 일부 신문편집들의 개인적인 언어사용취향도 신문에서의 한국유입어의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하면 ‘모험’, ‘비단의 길’과 같이 한자 어휘거나 중국어의 의역을 사용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도 ‘리스크’, ‘실크로드’등 연변 조선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고 결국에 그 뒤에 ‘리스크(모험)’, ‘실크로드(비단의 길)’라고 해설을 덧붙이는 현상도 존재하고 있다.

3.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용어에서의 한국유입어 사용실태

연변의 조선어신문매체들에서 사용하는 한국유입어에 대해서 연변조선족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래부분에서는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연변조선족의 한국유입어사용실태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유입어 사용실태를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하여 연변조선어, 중국어어휘사용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기로 한다.

3.1. 조사개요

본고의 자료는 이하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다.

9 본고의 한국유입어 어휘사용실태조사는 한국유입어, 연변조선어, 중국어어휘가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서 절대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용어에 차지하는 비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용어에서 차지하는 한국유입어의 비중은 아직도 매우 적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① 조사방법: 질문법

인포먼트와 직접 만나서 필자가 묻고 인포먼트가 대답하는 방법을 취했다. 보다 일상생활용어에 가까운 용어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식의 번역법을 취하지 않고 인포먼트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서 필자가 얻고자 하는 어휘를 찾아내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가운데서 인포먼트의 제일 처음 반응에서 나타난 어휘만을 골라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질문 예: 1 “주말은 어떻게 보냅니까?” (예상되는 어휘: 노래방, 쇼핑, PC방 등)

② 조사 어휘에 관하여

- i. 어휘는 연변의 조선어신문에 올려있는 한국어 어휘들 중에서 한국어, 연변조 선어, 중국어의 선택이 가능한 20개 어휘를 골랐다. 일상생활용어로서 출현도가 낮다고 예상되는 단어는 될수록 피하고 출현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많이 선택 하였다.
- ii. 연변에 들어온 한국어 어휘에는 한국어 외래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선정한 어휘도 그 대부분이 한국어 외래어이다.

③ 인포먼트에 관하여

인포먼트는 세대별 조사대상으로 10명 지역별 조사대상으로 16명을 선택하였다. 남녀 1명이 각각 세대별, 지역별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조사인수는 24명이다.

세대별 조사대상으로 10대로부터 50대까지의 남녀 각각 1명을 선정하였다. 10명은 전부가 연변지역에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의 영향도 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예상되는 연길시거주자로서 연길시거주력이 제일 짧은 사람도 9년 이상의 거주력을 갖고 있다.

지역별 조사대상 16명은 전부가 10대 대학생들이다. 타 지역의 언어영향을 적게 받았다고 예상되는 연변 각지로부터 연길시의 모 대학에 입학한 남녀 각각 8명에게

의뢰하였다. 연결시 출신을 제외하고 연결시에 온지 일주일 미만의 대학생들이다.

④ 조사기간

2003년 8월 24일~26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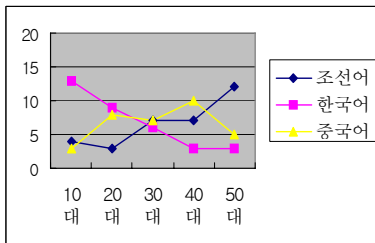
3.2. 분석과 고찰

3.2.1. 한국유입어사용의 세대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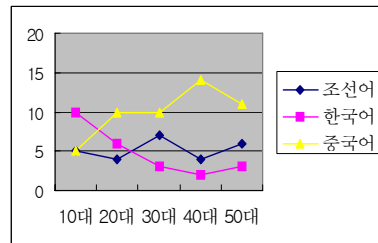
젊은 층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외래문화에 대한 접수력이 빠르다고 한다. 언어를 제외하고 단지 연변에 유행되는 복장, 헤어스타일, 음악 등을 보더라도 젊은 층의 받는 한국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언어 면에서는 어떠할까?

〈그림 1〉 여성세대별 어휘사용결과



〈그림 2〉 남성세대별 어휘사용결과



〈그림 1〉은 여성세대별 어휘사용조사결과를, 〈그림 2〉는 남성세대별 어휘사용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

〈그림 1, 2〉로부터 한국유입어는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 20대 층의 여성, 10대 층의 남성은 연변조선어, 중국어보다 한국유입어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층이 올라감에 따라 한국

유입어 사용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40, 50대에 들어서면 한국어유입어 사용률은 2할 미만이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의 새로운 한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인터넷의 사용 등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장년층에 비하여 외래문화에 대한 접수력이 높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대 이상의 남성과 20대로부터 40대까지의 여성은 한국유입어, 연변조선어보다 중국어 어휘를 많이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변조선족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업단체에서 일하는 연변조선족들은 가정에서는 연변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밖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조례에 따르면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단체들에서는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생활이 위주인 10대 조선족과 회사생활이 위주인 20대 이상의 조선족이 어휘선택이 서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50대를 넘어서면 남녀 모두가 중국어보다 연변조선어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른 세대에 비하여 연변조선어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점 외에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접수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여성의 한국유입어, 연변조선어의 어휘사용은 남성을 초월하고, 반면에 남성의 중국어어휘사용은 여성의 중국어어휘사용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변조선어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변조선족남성들의 민족을 벗어난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교제와 연변조선족여성들의 조선족가정을 중심으로 한 좁은 교제범위가 그들의 언어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나 생각한다.

이상의 연변조선족의 한국유입어, 연변조선어, 중국어어휘사용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유입어는 10대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어는 중년층에서, 연변조선어는 50대 이상의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한국유입어사용의 지역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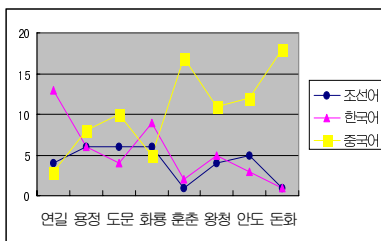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8개 현과 시가 있다. 그 중에서 연길, 용정, 도문, 화룡의 조선족인구는 총 인구의 절반을 초월하고 있지만¹⁰ 돈화, 안도, 왕청, 훈춘의 조선족 인구는 총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돈화시의 경우는 조선족 인구가 총 인구의 5%미만에 불과하다.

3.2.1.에서 연길시 남녀세대별 한국유입어사용 정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유입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10대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연변의 8개 현과 시의 한국유입어 어휘사용정황은 어떠할까? 조선족거주인구의 차이, 한국과 교류의 차이는 각 현시 젊은 층의 언어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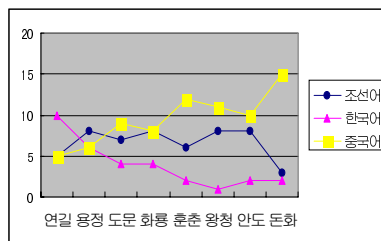
〈그림 3〉은 각 지역 여성의 어휘사용조사결과를, 〈그림 4〉는 각 지역 남성의 어휘사용조사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 그래프의 지역순은 지역의 총인구에서 조선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 시 순으로 되어 있다. 단지 연길시의 경우, 총인구 중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용정시보다 적지만 조선족전체인구가 용정시보다 많고 연변의 한국과의 교류의 창구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정시 앞으로 하였다. 이 순은 각 현시의 소재지로부터 연길시와의 거리 순과도 비슷하다.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연변지역의 어휘사용은 지역과 비교적 큰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인구가 많고 연길시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그림 3〉 여성지역별 어휘차이도표



〈그림 4〉 남성지역별 어휘차이도



10 2000년도 『연변통계년감』을 참조.

조선족인구가 적고 연길시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한국유입어의 사용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돈화시의 경우 한국유입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변지역의 8개 현, 시를 놓고 볼 때, 텔레비전, 신문 등 매체들의 영향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단지 한국어를 듣고 한국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한국사람과 직접 교류하고 한국문화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한국유입어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의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이 많고 한국 투자상들도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시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하지만 돈화시, 안도현의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찾아오는 손님이 적고 한국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어휘사용의 차이는 신문 매체들의 영향보다 개개인의 생활환경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남녀를 비교해 볼 때 같은 10대라 할지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유입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연길시, 용정시를 제외하고 한국유입어 사용율이 40% 미만이다.

그리고 남성의 어휘사용보다 여성의 어휘사용에 지역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한국유입어 혹은 중국어어휘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언어사용 지역차이는 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길시와 돈화시를 제외하고 연변조선어와 중국어는 40% 좌우에 안정되어 있다. 여성이 언어접수력이 높고 변화가 빠르는데 비하여 남성의 언어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한국유입어의 사용도에 관하여

〈표 2〉는 조사어휘를 한국유입어의 선택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표 2〉 조사어휘의 사용도

	조사어휘	한국유입어	연변 조선어	중국어
1	다방	■	—	△
2	노래방	■	△	△
3	드라마	■	▲	△
4	컴퓨터	■	—	■
5	가이드	▲	△	■
6	비디오	▲	■	▲
7	PC방	▲	△	■
8	샴프	▲	△	■
9	코미디	△	■	△
10	탤런트	△	▲	■
11	쇼핑	△	■	▲
12	노트북	△	△	■
13	메뉴	△	△	■
14	매니큐어	△	△	■
15	스킨	△	△	▲
16	메이크	—	■	△
17	비디오방	—	■	■
18	로션	—	■	■
19	티슈	—	△	■
20	레드카드	—	△	■

■ 많이 쓴다(10회이상) ▲ 자주 쓴다(5회~9회) △ 가끔 쓴다(1회~4회) — 쓰지 않는다

〈표 2〉를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유입어가 ‘다방’과 ‘노래방’이다. ‘다방’과 ‘노래방’이 연변조선족의 일상생활용어에서 사용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어휘를 살린 한국유입어가 연변에 정착하기 쉽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크’, ‘티슈’ 등은 연변의 조선어신문에도 올려 있는 어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 마지막에 이런 단어를 아는가는 필자의 물음에 모른다고 대답한 인포먼트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신문에서 사용하는 한국유입어와 서

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가 서민들이 일상생활용어로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표 2〉에서 연변조선어의 ‘록상기’는 한국유입어 ‘비디오’보다 사용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록상기’만을 가리킬 때는 이 어휘를 사용하지만 록상기에 사용하는 테이프를 가리킬 때에는 ‘록상테프’보다 ‘비디오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인포먼트도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근년에 한국드라마 비디오 테이프 임대가 연변에서 인기와 관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많은 임대점들에서는 ‘록상테프임대점’이라는 간판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 그대로 ‘비디오 임대점’이라는 간판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유입어의 연변지역에서의 정착은 유입배경 및 유입시기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중한 수교 이래 연변조선족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유입어 사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문매체와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 도심부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유입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예컨대 한국유입어로 인하여 연변조선어의 언어사용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근심은 없다고 본다. 현재 연변조선족언어사용의 제일 중요한 구성부분은 연변조선어의 기존어휘와 중국어의 음역 의역을 이용한 어휘들이다. 수십 년에 거친 연변지역조선족학교의 교육체제, 연변지역에 있어서의 한국어의 보급도, 연변조선어와 한국어의 규범의 차이점 등 요소들을 생각할 때 한국유입어가 연변에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한다.

금후 연변지역의 인터넷 보급과 한국과의 교류가 깊어짐에 따라 연변조선족사회에 있어서 한국유입어는 경제, 유행, 생활 등 방면의 용어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다. 유입된 한국어어휘들을 정리하고 사용도가 높은 어휘는 인정하고 적극적

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기중(2000a)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어에서의 새말 산생과 조선어규범화작업」, 『중국조선어문5기』.
- 김기중(2000b)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어에서의 새말 산생과 조선어규범화작업」, 『중국조선어문6기』.
- 김미선(1998) 「大阪市 生野區 定住 在日코리안 一世의 日本語 運用」, 『국제고려학』 제4호.
- 연변사회과학원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사전』 1, 연변인민출판사.
- 연변사회과학원언어연구소 편(1995) 『조선말사전』 2·3, 연변인민출판사.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편(1996) 『조선말규범집』, 연변인민출판사.
- 장흥권(1993a) 「개혁개방과 조선말외래어」, 『중국조선어문』 2기.
- 장흥권(1993b) 「개혁개방과 조선말외래어」, 『중국조선어문』 3기.
- 장흥권(1999) 『조선어, 한어, 일본어 현대어휘와 그 변이에 대한 연구』, 민족출판사.
- 전영근(2001) 「중국조선어어휘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 석사논문.
- 지수용(2000) 「한국에서의 외래어 범람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5기.
- 최경남(2001) 「중국에서의 조선어어휘사용 현황과 전망」, 『중국조선어문』 1기.
- 최균선·권정옥(1997) 「외래어규범화의 전제」, 『중국조선어문』 3기.
- 최윤갑·전학석(1993)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차이에 대한 연구』.
- 홍만호(1998) 「우리 언어생활에 대한 서울말의 영향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5기.
- 植田晃次(2000), 「1990年代の中国の朝鮮語規範化と語彙規範の問題点」, 『言語文化研究』, 大阪大学.
- 大村益夫(1997), 「中国の朝鮮族とその言語状況」, 『ILT NEWS』,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 吳碩官(1991), 「領域, 角色与語碼轉換」, 『語言, 文化, 社会』, 中国社会科学院語言文字応用研究所.
- 真田信治(1990), 「世代と言葉」, 『日本語学9期』.
- グニエル・ロング(2003), 「日本語と外来語の使い分け」, 『朝倉日本語講座 9 言語行動』.
- 全永男(2005), 「延辺の朝鮮語は韓国語に変容するのか」, 『日本語研究』 第20輯, 中央大学校.

曹喜澈(1994), 「韓国における「国語醇化運動」と日本語」 明治書院.

林成虎(2004), 「在中朝鮮族の母語能力の低下」 『日本研究』 第19輯, 中央大学校日本研究所.

중국 조선족 음식문화심리 탐구

최 영 금

중앙민족대학

1. 서론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한것은 필자의 다년간 욕망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아직까지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를 심리학의 각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음식문화를 심리학의 각도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또 기타 민족의 음식문화와의 비교속에서 그 어떤 민족특색과 사회적 의미를 갖고있는가를 알고싶은 욕망에서 비록 참고문헌이 매우 결핍한 상황이지만 여러 면의 조사와 료해, 면담 등 방법을 통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와 분석을 가하고저 한다.

2. 본론

한 민족의 심리특점은 그 민족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제약을 받은 결과이며 또한 그 민족문화의 축적과정이다. 쓰딸린이 지적한바와 같이 <<민족이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공동한 언어, 공동한 지역, 공동한 경제 생활 및 그 공동한 민족문화특점에서 표현되는 공동한 심리소질의 안정한 공동체이다>>.¹ 여기서 말하는 공동한 문화속에서의 공동한 심리특점이 바로 민족문화심리

1 民族出版社(1990: 28).

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민족심리는 민족문화의 감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내적의미가 바로 민족문화이다. 하여 습관상에서 민족심리를 민족문화심리라고 한다. 음식문화는 문화의 한개 구성부분으로서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 즉 민족성과 시대성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기타 분류의 문화와 다른 음식문화의 특별한 특점을 갖고있다. 음식문화 역시 그 민족의 사회생산생활방식 레하면 음식습성, 생활습성 역시 그 민족의 사회생산생활방식 레하면 음식습성, 생활습성, 교제방식, 도덕행위, 생산행위, 문화상품 등 일정한 방식으로 그 민족의 심리특점을 재현시키고있다.

음식문화심리란 한 민족이 일상생활가운데서의 음식의 구조, 배합방식, 주식, 부식, 제작과 향용(享用), 제사, 손님접대 및 그에 상관되는 행위, 습관 등 음식문화 특점에서 표현되는 문화음미심리를 놓고 말한다. 음식문화심리는 장기적인 사회력사 발전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한 민족의 사회경제와 문화생활의 측면적이 반영이다. 우리는 여러 민족의 부동한 음식문화를 통해 매개 민족의 다른 문화예술조예수준과 독특한 민족풍격을 엿볼수 있을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화정력과 사회생산방식, 민족의식, 민족감정과 개성심리특점을 찾아볼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음식은 성별 또는 인동(认同)을 대표한다고 인정하고있다. 그 원인은 아이와 어머니의 첫 접촉형식은 젖을 먹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인생초기에 건립된 음식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정도로 금후 객관사물에 대한 태도 즉 금전과 기타 재부, 절약과 인심(慷慨) 등에 영향을 준다.² 갇지 않은 음식규칙과 풍습은 여러 민족의 부동한 사회발전단계와 문화 및 생산기술수준을 대표하며 이에 의해 형성된 여러 민족의 다른 문화추구, 민족성격, 민족의식 등 민족심리와 개성심리를 반영할뿐만아니라 음식문화는 이렇게 독특한 심리색채를 띠게 되었다. 중국조선족은 그 특유한 사회력사배경과 발전으로 음식습관, 종류, 규칙과 풍습 등 면에서 그 나뉠대로의 민족심리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중국조선족만의 독특한 음식심리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음식의 심리인동감, 심리귀속감과 사회화라는 세개 측면으

2 谭光广(1988: 420).

로 나누어 중국조선족음식문화 심리특색을 찾아보려 한다.

2.1.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 인동감(认同感)

인동감이란 군체성원들이 여러 문제와 사건에 대한 공동한 인식과 평가를 보존하는것을 놓고 말한다. 민족의 심리인동감은 민족성원들의 인식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하는 정향(定向)작용을 한다. 민족심리학에서는 모종 특정된 음식에 대한 장기적인 식생활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본 민족의 독특한 음식생리와 심리적응을 이루어 민족의 음식풍습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레하면 장기적으로 목축업 종사하는 몽골족, 까자흐족(哈萨克族), 허그저족(柯尔克孜族), 장족 등 민족의 음식에는 육류와 우유가루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몽골족은 드넓은 초원에서 장기적으로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으로서 하루 세끼의 음식은 우유, 유제품(奶酪, 奶豆腐, 奶油)과 고기(소, 양)를 떠날수 없다. 목축구역에서 생활하는 이런 민족들은 소, 양고기를 장기적으로 식용한 결과 소, 양고기에 대한 소화능력과 흡수능력이 점차 형성되어 이런 음식을 제한한 외의 다른 음식으로서는 배를 볼릴수 없는 특수한 음식풍속을 이루고있다. 한편 농업구역에서 생활하는 한족이나 조선족 등 기타 민족들은 매일 소, 양고기를 먹으면 소화불량이거나 내분비문란을 일으켜 병증세가 일어난다. 음식은 또 생리적응에 따라 심리상에서도 점차 적응되어 어떤 음식에 대한 편식과 편애가 이루어지며 그 음식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데 의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서와 감정체험을 뚜렷이 나타낸다. 음식문화는 바로 음식의 특수한 사회수요를 만족시키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화의 내화(内化)과정이다. 문화의 내화과정이란 문화가 모종 방식과 경로를 통해 민족성원의 심리구조에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피아제의 관점에 의하면 문화는 《동화》와 《순옹》을 통해 민족성원의 《인식구조》에 스며들어 모종 특정된 《인식구조》를 구성하며 일정한 민족심리를 나타낸다. 중국의 조선족은 동화와 순옹방식으로 점차 특유한 음식생리와 심리적응을 이루어 독특한 풍격의 음식심리구조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서 개고기를 제일 즐기는 민족이 바로 조선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부이족(布依族)도 개고기를 즐겨먹는 민족의 하나이지만 원래는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홍수재해를 입은 부이족들은 점차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매년 6월 6일 부이족의 전통명절에는 집집마다 개를 잡아놓고 명절을 축하한다. 이와 반면에 만족은 개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다. 이는 선조때부터 장기적인 수렵생활로 인해 개는 그들의 생산도구와 생활의 벗으로 된 점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개가 만족의 선조인 누르하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전설에 의해 만족의 수호신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력사에서 개고기는 일찍 춘추, 전국시기로부터 당, 명,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문헌에 기재되어있다. 《서안 반파유적에서 발견된 개의 골식(骨殖)에서도 알수 있는바 중국화하(华夏)민족이 개고기를 먹은 력사는 이미 5000~6000년이나 넘는다. 주(周)나라, 진(秦)나라, 량한시기에 개는 6축(六畜)에 속했고 개고기를 맛좋은 음식으로 간주하고 수수쌀과 함께 식용했는데 양고기, 돼지고기보다 더욱 인기를 끌었다. 개의 간장은 주나라 왕궁(宮廷)음식의 하나인 팔진(八珍)중의 주요원료였다. 한나라에 와서 개고기 혹은 개내장으로 만든 음식으로는, 구해갱(狗醢羹), 구고갱(狗苦羹), 견협구(犬脇羹), 견간구(犬肝炙) 등이 있었다》. 《왜냐하면 개는 대규모적인 사양이 어렵고 사료가 많이 들기때문에 돼지, 양을 사양하기보다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며 근대까지만 해도 개고기는 민간에서만 식용이 가능하고 큰 좌석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³ 하여 당시 개고기는 지양류(地羊肉)라 불리웠으며 대중육류중 돼지고기(이슬람교 제외)가 으뜸으로 꼽히였고 그다음으로 소, 양, 말고기였으며 개고기는 이렇게 대중육류에 속하지도 못했다. 음식문화의 변천에 의해 개고기가 점차 영양가가 높은 요리를 해서 먹을수도 있다는 육류로 관념이 전변된 것은 개 한마리의 구매값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20세기 50년대만 해도 흑룡강, 길림, 료녕 등 동북3성에서의 개 한마리의 값은 아주 싸서 개고기를 즐기는 조선족들은 부담없이 개고기를 먹을수 있었으며 대개 입쌀 10~15근으로 개 한마리

3 王学泰(1993: 41~42).

를 바꿀수 있었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족친구들한테 개를 무료로 얻을수도 있었는데 대신 개가죽만은 한족 개입자한테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 동북지역의 한족들은 개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더러운 음식으로 간주하였고 개를 잡을 경우 오직 개가죽만을 겨울에 쓰는 모자나 방에 끼는 요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개고기는 조선족들한테 주거나 아예 던졌다고 한다. 후에 와서 조선족의 영향을 받아 한족들도 점차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으나 그것도 허벅지고기만 맹물에 삶아서 간장이나 소금을 찍어 먹었었다. 80년대초부터 특히 개혁개방이후 사람들은 개고기에 대해 인식이 급속도로 개변되었는데 동북지역에서 한족이나 다른 민족(만족을 제외)들도 조선족들을 본따서 개고기를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여기고 늘 개머리나 개다리고기 혹은 개간 등으로 병구완에 썼다. 이런 변화로 개의 판매값도 변화를 가져와 개 한마리에 인민페 150원이나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조선족음식이 전국으로 널리 전파되어 민족의 인동이 가심화됨에 따라 개의 판매값은 대폭 올라 보통 크기의 개라도 인민페 200~300원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개고기는 한근 값은 인민페 9~11원으로 되어 다른 고기보다 평균 4~6원이나 비쌌으며 한때 제일 비쌌던 돼지고기보다도 한근에 인민페 4~5원이나 비싸다. 이런 역사적인식 과정과 사회적변화과정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개고기가 조선족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음식으로 꼽히게까지 되었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다른 민족도 개고기를 즐겨 먹거나 개고기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지만 2003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대부분은 조선족들처럼 개고기음식을 맛나게 요리하지 못하며 아직까지 개고기를 물에 삶아서 간장이나 소금을 넣어 무침하여 요리하는 습성을 보존하고있고 조선족들처럼 개장을 끓일줄 모르며 대부분이 조선족음식점에 가서 개고기음식을 사서 먹거나 또는 개를 사서 조선족친구집에 찾아가 잡아먹는다. 이 점이 바로 다른 민족이 같은 음식에 대한 부동한 민족적인 심리인 동감의 표현이라 볼수 있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조선족은 개고기를 몸보신에 으뜸가는 음식으로 여기고 날씨가 무더운 삼복철에 개를 잡아 귀한 손님과 친구를 접대했다. 《개고기를 먹으면 신선이 되어서 서지 못한다》라는 속담은 개고기에 대한 조선족성원지간의 공동한 심리경향과 심

리인동감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민족학자들은 한 민족의 풍속습관의 형성은 음식습관과 그들이 거주하는 자연환경, 지리적위치, 기후와 경제생활특점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최초의 민족문화형태의 결정적요인은 자연환경이었다. 즉 그 민족이 처한 지리위치, 기후 및 자연자원이 그 민족공동체의 인구, 생산과 생활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인구, 생산과 생활방식은 또 그 민족공동체의 경제수준 및 사회조직형태 즉 문화형태를 결정한다. 문화형태와 자연환경은 그 민족집단으로 하여금 통일되고 안정적이며 유사한 심리과정과 개성심리특점을 형성시킨다. 즉 한 민족의 음식은 그 민족문화 심리형태의 물질화(物化)된 반영이며 또한 그 지방의 자연환경과 기후, 지리적위치 등 객관조건의 산물이기도 하다. 레하면 중국의 몽골족은 통양고기(手把肉)를 즐겨먹는데 이는 그들의 장기적인 유목생활생산방식과 갈라 놓을수 없고 운남의 다이족(傣族)은 찰대통으로 밥을 지어먹는데 이는 그곳의 수많은 죽림자원과 그들의 생활경력과 관련되며 흑룡강하류 우수리강상류의 허저족(赫哲族)은 물고기회(물고기를 잡아서 생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를 즐겨먹는데 이는 그들이 대대손손 어업생활을 한 생활방식과 그 특유한 자연환경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19세기중엽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해 와서 처음에 중국조선족은 밭을 붙이고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이동이 심했다. 이는 자연환경과 사회적환경의 원인도 있겠지만 주로는 그 당시 중국의 반동세력의 압박과 수탈 그리고 《고려(高麗)》라는 민족시기가 심한데 있었다고 본다. 조선족은 벼농사를 주요한 재배업으로 삼았고 가는 곳마다 수전을 개간하여 벼농사를 하였다. 지금도 동북3성에서의 방방곡곡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이런 수전은 거의가 조선족선조들에 의해 개척된것이다. 또한 조선족집거지는 거의가 산 좋고 물 맑았으며 기후 역시 습윤하고도 한랭하였다. 이런 적합한 자연환경과 생산방식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산나물을 즐겨 먹고 입쌀을 주식으로 하며 매운 것을 즐겨 먹는 음식풍습을 양성시켰다. 조선족이 즐겨 먹는 산나물에는 고사리, 도라지, 더덕, 미나리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산나물채는 늘 조선족의 밥상에 올랐고 지금도 흔히 볼수 있는 조선족특색이 있는 음식들이다.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생산방식은 조선족 음식배치에서 입쌀을 주요로 하고 입쌀을 즐겨 먹는 민족풍습을 형성시켰으며 한랭한 기후, 습윤한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매운 고추를 먹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음식습성은 계속 유지되어 중국조선족가운데서 입쌀밥과 고추를 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족의 유명한 시인 김철선생님은 《북방의 미소》라는 시에서 생명의 빛갈로 떠오르는 빨간 고추를 조선족으로 상징화하여 노래하였다.⁴

.....

찬서리를 맞받아
불타는 고추
생애의 종지부를
진하게 찍자고
숫불처럼 떠오르는
생명의 빛갈!
준엄한 계절에도
대지를 장식하고
추녀마다 줄줄이
자랑을 드리웠다.

독을 쓴다, 빨강게
맵싸게 살자고
너는 진정 만년의
웃음을 불태운다.
북방의 미소!

.....

우의 시에서 볼수 있는바 조선족의 고난의 력사와 불요불굴의 민족정신 및 조선족의 희망찬 미래를 빨간 고추에 기대하였다. 고추는 조선민족의 또 하나의 상징이다. 고추가 없이는 밥을 먹은것 같지 않고 쌀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다고 할수

4 흑룡강신문(1983년 1월 29일).

없을 정도인데 이것이 입쌀과 고추에 대한 조선족의 특수한 감정과 심리경향이며 일치한 심리적인동감이다. 이런 심리적특점은 조선족이 장기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긴 민족음식습관이라 할수 있다. 같은 음식풍습은 본 민족성원지간의 생활방식, 심리지향과 심리인동감을 쉽게 형성시킨다. 물론 고추는 중국의 다른 민족들도 즐겨 먹는다. 특히 사천과 호남에서 고추를 아주 즐겨 먹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천에서 먹는 树椒 혹은 天椒라는것인데 모양이 아주 작고 맵다. 사천에서는 어른뿐만아니라 4-5살 나는 애들까지도 즐겨 먹는다. 사천음식가운데서 사천량 피가 아주 이름있는데 그 특색이 매운 맛이 주류를 차지한다. 사천사람들의 강한 성격과 사나운 성미는 어느 정도 조선족과 비슷한데 이는 음식습성이 류사한 까닭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한다.

조선족들의 음식은 맵고 달큰하며 시큰것이 특색이다. 고추를 먹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는데 청고추를 장그릇에 담아 밥가마에 찌서 먹거나 생고추를 따다 씻어 된장 또는 고추장에 찍어서 먹고 된장국에 넣고 끓여 얼큰한 맛이 나는 된장찌개를 해서 먹으며 고추가루, 된장가루에다 쌀죽을 끓여 넣고 엿물과 섞어 고추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추를 잘게 썰어 가마에 찌내어 말린 고추떡을 해서 먹는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고추장은 특색있는 음식으로서 맛이 맵고도 달큰하다. 고추장은 다른 민족들이 전혀 생각해내지도 생각할수도 없는 음식이다. 지금 한족들도 《고추장》을 만들어 먹지만 그들이 만든 고추장은 빨갛게 익은 고추를 사서 가위로 잘게 썰어서 거기에다 마늘, 사탕가루, 맛내기 등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골고루 저어서는 인차 먹을수 있는것인데 달큰한 맛이 특색이다.

한 민족내부에서 민족성원지간의 후각, 미각 등 감각에 의해 형성되는 음식에 대한 인식과정, 그에 대응한 감정적인 내심체험, 또 새로운 음식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그 민족의지와 분위기 등 모두가 민족성원지간 음식에 대한 공동한 심리적 경향과 심리적추구이며 아주 쉽게 심리적인동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로부터 한 민족의 음식문화는 그 민족의 생존방식과 사회력사문화를 뚜렷이 나타내며 본 민족의 민족의식, 민족감정과 민족습관 등 문화심리특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2.2.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 귀속감

집단성원지간의 래왕에서 서로 관심하고 도우며 심리기분이 좋고 공동한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자신이 항상 이 집단에 속한다고 의식하는것이 바로 귀속감이다. 한 집단내에서 민족성원들은 본 민족정체를 구성하고 그 특수한 사회환경과 생산방식을 이루어 본 민족의 특유한 심리경험과 심리경험과 심리의식을 점차 형성하며 기타 민족과 부동한 행위방식과 심리활동특점을 나타낸다. 레하면 중국의 오른존(鄂伦春族)족은 세세대대로 중국의 대흥안령에서 생활했다. 이 지대는 산이 높고 삼림이 울창하며 야수가 경상적으로 드나들고 기후가 한랭하여 인적이 매우 드물었다. 1964년전만 해도 대흥안령은 개발하지 않은 원시삼림지대였다. 이런 지리와 기후조건은 오른존족의 수렵과 채집만을 하는 간단한 생산, 생활방식을 결정하였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오른존족은 집체사냥과 평균분배하는 원시사회형태를 보존하고 있었고 문자와 수자개념이 없고 단 꼬나폴로 기사(記事)하며 상업무역이 없는 물물교환의 간단한 경제형식을 취하였다. 이 모든것은 오른존족의 생활공간과 《심리장소(心理场)》를 조성시켰고 기타 민족과 부동한 행위와 심리활동특점을 나타낸다. 현재 오른존족은 삼림지역에서 나와 기타 민족과 접근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민족의 집거구 혹은 향의 형식으로 공동생활체를 구성하고있고 행위방식과 심리특점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다른 민족에 비해 여전히 선명하고 특유한 민족특점을 띠고있다. 이는 심리행동구조 및 습관성형성은 변의성을 갖고있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그 계승성과 안정성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즉 본 민족에 대한 강렬한 민족자부심과 심리귀속감을 갖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상용적인 심리귀속감은 음식문화방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며 본 민족성원지간의 심리상의 공명과 귀속감을 쉽게 불러일으키고 행위방식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나타낸다. 중국의 조선족은 그 특유한 사회력사배경과 발전경력으로 기타 민족과 구별되는 사회생활과 생산기능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음식문화방면에서도 기타 민족과 유다른 강렬한 심리적상용과 심리귀속감을 갖고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일제의 극도의

유린과 잔혹한 압박을 받아 《선개(先蓋)》로 불리웠고 부득이 조국과 고향땅을 버리고 중국으로 이주해왔다. 동북에 이주온후 또 그 당시 국민당반동통치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 《고려(高麗)》라는 민족시기를 받았다. 이런 이중적압박은 조선족으로 하여금 심신 두 면에서 심한 유린과 타격을 받아 조선족 성원지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민족정서와 민족감정을 쉽게 불리일으켰고 민족성원지간에 굳게 뭉쳐야 할 수요가 동기를 형성시켰다. 이런 강렬한 민족수요와 심리적동기는 민족성원지간 서로 의지하고 방조하며 더욱 응집력이 있는 민족단체를 구성하고 자아불굴의 민족정신과 고도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이루어 강렬한 심리적귀속감을 나타내며 이로 인한 민족단체의 행위의 류사성과 동질성을 나타낸다. 단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거주특점을 봐도 이 점을 설명해주는바 조선족은 자치주, 자치향, 자치촌 등 형식으로 집거하는것을 위주로 비록 한족 또는 다른 민족과 잡거하는 지방일지라도 어느 집중된 구역의 형식(례하면 한개 생산대 혹은 집집끼리)으로 거주규모를 이루어 민족의 습성과 민족특색을 유지해 나가고있다. 조선족들이 살고있는 곳곳마다에서는 그 거주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민족의 전통음식인 찰떡, 개고기, 랭면, 순대, 묵, 산나물 등 음식들을 찾아볼수가 있고 랭면, 찰떡, 고사리, 도라지, 갯가지 김치무침 등은 설명절이나 길사, 상사를 막론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주식으로 된다. 도라지음식을 말할때 우리 민족이 도라지를 식용한 력사는 아주 이른바 민족학가 황유복교수의 《중국 조선족사회와 문화연구》에서 《조선의 력사학기들의 인정에 따르면 조선족은 전 2000년 청동기시기 부계씨족때부터 도라지를 식용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또 《17세기 조선선조왕때에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가운데는 속방(俗方)을 인용하여 도라지는 산나물을 만들어 사시로 상식한다》고 썼다. 이 책에 도라지 반찬의 종류를 쓴 것을 보면 도라지나물, 도라지생채, 도라지 장아찌…… 그밖에도 도라지와 다른 채소를 섞어서 만든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에 와서 도라지생채는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의 밥상에만 오르는 채소가 아니다. 동북3성의 료녕성의 심양, 대련, 길림성의 장춘시, 흑룡강성의 할빈, 치치할, 목단강, 가목사 등 큰 도시뿐만아니라 조선족이 적은 상해, 남경, 란주, 성도, 우룸치, 우란호트 등 큰 도

시의 장거리에서도 도라지생채를 파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및 여러 민족의 밥상에도 오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며 중국조선족의 경제발전과 음식전파에도 마멸할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흰색을 숭상하는 우리 조선민족의 겨레치고 백도라지타령은 누구나 다 부를줄알며 오락장소에서나 출판에서 도라지타령노래나 혹은 음악만 나오면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다 같이 춤을 춘다. 중국에서 한족이나 기타 민족들은 도라지노래를 조선족음악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정화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족의 상징으로 여긴다. 중국의 한족들은 조선족과 모인 오락장소에서 가끔 조선어의 음을 따서 도라지노래를 부르는것으로 민족지간의 깊은 우의를 표시 한다. 비록 그들은 도라지노래의 력사적함의와 가사에 담겨진 내적의미를 알수 없겠지만 오늘에 와서 도라지노래는 중국의 조선족뿐만아니라 기타 민족들에게 날로 익숙해지는 노래가락으로 전파되고있다. 레를 들면 2003년 4월초부터 6월말까지 필자는 미국 카얼튼대학의 2명 학생(할빈공업대학 류학생임)과 함께 할빈시 도리구, 동력구 조선족소학교, 아성시 성거조선족소학교, 묵단강시 조선족소학교 등 잡거구와 녕안, 계림촌, 상지시 하동향 자치촌 등 집거구 조선족소학교의 이중언어 교학조사를 한 결과 잡거구 조선족 대부분 어린이들(특히 소학교 1~2학년생)은 한어수준이 아주 높은 반면에 조선말을 조금 알아듣거나 겨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형편이지만 도라지 노래는 아주 잘 부르고 춤도 제법 잘 추었다. 이 지방의 타민족들은 조선족 어린이들을 보면 도라지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나 도라지 춤을 출것을 요구한다. 이는 타민족들이 도라지타령과 춤을 통하여 조선족어린이들을 귀여워하게 된 민족지간의 깊은 우애정신의 표현이라고 보겠다. 그럼 여기서 도라지타령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바구니 반 실만 되노라
 에헤요 데헤요 에헤요
 어이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간장 스리살살 다 녹인다

도라지 캐러 간다고
 요리 핑계 조리 핑계 하더니
 뒤동산에 올라서
 정든 님 만나서 속삭인다
 ……

이 노래를 통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도라지를 즐겨 먹고 《도라지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학적인 구상을 안겨주며…… 우리 민족의 생활속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⁵⁾는 점을 알수 있으며 간거한 사회력사와 민족이 걸어온 험한 발자취를 찾아볼수 있다. 도라지를 먹고 도라지타령을 부르며 명절놀이나 여러 유익한 사회 활동을 벌릴 때 민족특색을 띤 여러가지 음식(찰떡, 개고기, 랭면, 순대, 묵 등)은 심신 두 면에서 민족성원지간의 민족의 감정적색채와 우의를 다지고 사상을 교류하며 음식문화전통으로 인한 민족의 더없는 자부감과 문화인식심리의 일치성을 추진하고 본민족의 친합력과 향심력을 강화시킨다.

민족심리의 귀속감은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시킨다. 음식문화에서의 심리귀속감은 그 민족의 원유의 응집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완벽화한다. 이는 한 민족의 공동한 음식생리특점과 음식수요의 만족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정서, 일치한 감정 체험과 갈라놓을수 없다고 본다. 중국의 오론훈족(鄂伦春族)은 소,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며 채소를 아주 적게 먹는다. 그들은 남새는 소, 양, 말의 먹이라 여기기에 한족들이 채소를 즐기는 점에 대해 리해를 못한다. 같은 도리로 한족은 음식배합에서 보면 밀가루음식이 주식으로 되는바 조선족이 하루 세끼 입쌀밥을 먹는 음식배합에 대해 리해를 못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부동한 민족은 음식의 부동한 배

5 황유복(1996:155).

합과 규칙방식, 조리방법을 갖고있으며 이에 상응한 자기민족의 귀속감을 갖고있는 것이다. 이는 본 민족 성원지간에는 늘 동등한 음식구미와 음식습관을 갖고있으며 본 민족의 음식에 대해 일종 특수한 호감과 감정체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의 귀속감은 어느 특정된 시기와 조건하에서 모종 음식에 대한 공동한 심리추구와 감정색채를 나타낸다. 2005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필자는 고향에 다녀간 기회를 타서 연수현 중화진 민광촌의 만 70세이상의 로인 23명(그중 90세 1명)과 만나서 조선족이 개고기를 아주 즐겨먹지만 왜 제사상에는 올려놓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 면담을 가졌는데 그 이유로는 《귀신이 개고기를 싫어하기때문이다》든가 《개곡기는 재수가 없다》든가 《조선전설에 따르면 개는 충신이기때문이다》든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가 제사상에 오르는 풍습이 이미 실현되었기때문이다》든가 등 여러가지 관점이 제기되었다. 이상 면담결과를 통해서 개고기에 대한 조선족성원들의 특수한 감정색채와 특정시기의 공동한 민족풍습 등을 엿볼수 있다. 그리고 아이 돌잔치나 결혼잔치나 환갑잔치나를 막론하고 꼭 국수를 먹는데 이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라는 의미에서 먹으며 동지날에는 팔과 찹쌀로 동지팔죽을 써서 먹는데 이는 악마를 몰아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먹는것이다. 또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집집마다 남녀로소 모두가 《귀밝이술》이라는 뜻에서 술을 마시고 저녁에는 대추, 콩, 밤, 팥, 입쌀 등 여러가지 곡식을 넣어 《오곡밥》을 해서 먹은후 로인들을 모시고 달구경을 한다. 이런 모종 음식에 대한 심리적귀속감은 다른 민족과의 비교가운데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랭면을 놓고 말할때 무더운 여름철 조선족들은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하고 시원하며 구미를 돋구는 조선랭면을 선택하지만 동북지역의 한족들은 보통 물밥(水飯)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물밥이란 음식은 옥수수와 땅콩을 푹 삶아서 찬물에 담가 놓았다가 먹는 음식인데 물밥은 동북지역 한족들이 여름철더위를 푸는데 제일 좋고 시원한 음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한족 또는 기타 민족들도 랭면을 즐겨 먹지만 음식배합에서는 조선족들처럼 보편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는 부동한 민족은 자기 민족특색의 음식생리습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족의 고유

특성은 상당한 안정성과 보편성을 갖고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된장국을 좋아하는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족의 음식은 그 독특한 색, 향, 미와 민족풍격으로 조선족의 음식생활심리 상태, 음식행위수양과 문명, 과학적인 음식의식을 길러주고있다. 조선족이 로인을 존경하는 문명행위는 음식문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명절때나 성대한 연회를 차릴때는 꼭 제일 년로한 로인을 상석에 모신다. 설명절때나 귀한 손님을 접대할때는 상점에서 술을 사다 접대하는 외에 탁주 즉 막걸리로 각별히 접대한다. 평상시 젊은이들은 로인들앞에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그리고 음식상은 로인상, 젊은이상, 아이상 등의 형식으로 연령의 배치가 뚜렷하다. 오늘에 와서 비록 많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조선족이 고유한 민족음식습관의 기본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우수한 음식행위수양도 유지되고있다. 레하면 술좌석에 로인이 있을 경우 술을 먼저 권하되 술을 마실때는 꼭 몸을 절반 돌려 보이지 않게 마시고 엄지손가락과 식지로 담배를 숨겨 피워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로인이 먼저 수저가락을 들은후에야 먹는다.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먼저 로인에게 드린다. 이런 문명하고 도덕적인 음식문화행위는 조선족의 민족수양과 문명한 음식의식을 길러주고있다.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는 조선족의 민족심리를 강렬히 반영한다. 조선족 음식문화심리의 귀속감은 조선족성원기간에 서로 화목평등하고 신임존중하는 량호한 민족심리분과 민족감정, 민족의식과 민족응집력을 형성하는 제일 좋은 《윤희제》와 《접촉제》이다.

2.3.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 사회화

사회심리학에서 보면 사회화란 개체가 사회화의 호상작용을 통하여 사회문화에 적응되고 흡수되며 합격된 사회성원으로 성장되는 과정을 말한다. 한 민족의 사상관념, 공동한 행위방식, 풍습습관과 개성심리특점은 바로 그 민족단체의 장기적인

사회화결과이다. 사회화는 민족개성, 민족풍습, 민족의식과 민족감정을 형성하는 결정적요소이다. 음식문화는 사회문화의 한개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매개 사회성원의 사상, 관념, 심리과정, 행위방식과 사회생활실천 등 방면에서 자연적으로 사회의 요구와 해당 준칙에 부합되게 하며 동등한 민족의식, 민족감정과 개성심리를 갖추어 사회화과정에서 특유한 사회효익을 발휘하도록 한다.

중국 조선족의 음식풍습, 음식관념과 행위방식은 조선민족단체의 장기적인 사회화결과이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가정음식에는 매끼마다 고추, 고추장, 김치 등 매운 음식이 오른다. 물론 한반도에 고추가 처음 들어온것은 임진왜란이후이고 나중에 점차 일반화된것임에 틀림없지만 어째서 고추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족의 음식에서 떠날수 없는 주요한 먹을거리로 정착되었겠는가 하는데는 조선반도는 산이 많고 습윤한 기후 즉 그 자연자원조건과 지리적제한에 의한 생산방식과 절대 갈라놓을수 없다고 본다. 고추를 먹으며 일정하게 기아를 덜고 추위를 막아내며 개운한 기분이 나고 심리상에서 폭발력을 강화시킨다. 고추가 조선반도에 일반화된데는 조선족이 처한 그 특유한 사회력사배경에서의 간거한 생활상태와 민족의 생존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식생활에서의 적응이라 하겠다.

음식문화 역시 기타 문화형태와 마찬가지로 일단 형성되면 그 특유한 방식으로 사회 각 방면에서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성원과 사회사물의 기능을 제약하고 영향준다. 중국에서 비록 사천료리나 호남료리가 맵기로 이름이 있지만 과거에 동부지역의 한족 대부분은 고추가 들어있는 음식을 아주 적게 먹거나 전혀 입에 대지도 못했다. 비록 동북지역의 한족들은 고추를 먹기는 했으나 대체로 큰 고추(피망)라는 고추를 먹었는데 이런 고추는 사람의 주먹처럼 둥글고 살집이 두껍고 맵지 않으며 오히려 달큰하다. 이런 고추는 빨갭게 익기전에 따서 돼지고기 등 육류나 닭알과 함께 기름에 볶아서 먹는다. 이 고추로는 고추가루를 만들수 없다. 오늘에 와서 한족들은 기타 민족과의 사회화과정에서 음식습성방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도 한족들은 여전히 큰 고추를 많이 먹지만 조선족들이 먹는 고추도 요리하여 먹으며 고추가루를 만들고 그것으로 가끔 매운 음식도 해서 먹는다. 특히 조선족과

잡거하는 지방의 한족들은 조선족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 배추김치를 담가놓고 먹는다. 2003년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흑룡강성 연수, 아성, 상지, 오상, 방정, 할빈시, 치치할시, 가목사시 등 잡거지방의 한족들이 보편적으로 이 특점을 띠고있었다. 이와 반면에 중국에 사는 조선족은 한족, 만조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酸菜(더운물에 데쳐 시큼하게 발효시킨 채소)라는 음식을 담가먹는다. 酸菜는 배추를 깨끗이 다듬어 씻은후 독에다 골고루 편후 한충한충 소금을 약간 쳐놓고 물을 적당히 담가둔후 거기다 酸菜鲜이라는 맛내기를 넣고 독을 덮어놓는다. 약 30일 좌우면 먹을수 있는데 그 맛에 독특한 향기가 있다. 이런 음식구조의 변화는 조선족음식과 기타 민족 음식이사회화과정에서 서로 흡수되고 영향주면서 사회음식문화발전을 추진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 해주고있다.

중국에서 조선족음식점은 조선민족음식문화의 뚜렷한 상징이다. 중국의 북경, 상해, 대련, 란주, 흑호트, 우룸치 등 큰 도시에서 음식점을 찾으면 대개 《북경식당》, 《할빈식당》 등 식으로 간판이 걸려있지만 조선족음식점만은 간판에는 꼭 《조선족 식당》 또는 《XX조선족료리》라고 조선글로 뚜렷이 써여져있는 외에도 개고기, 랭면, 찰떡, 된장국 등 대표적인 음식이름으로 음식점을 장식시켰다. 흑룡강성에서 대도시로 꼽히는 할빈, 치치할, 목단강, 가목사시 가운데서 할빈시에는 300여개의 조선족 음식점이 있고 치치할시에는 100여개, 목단강시에는 300여개, 가목사시에는 200여개, 도합 1000여개의 조선족식당이 있다. 조선족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손님들중 한족이 95%를 차지하고있다. 물론 이에는 인구비율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한족손님들이 조선족식당을 선택하는데는 주로 개고기, 랭면, 떡, 조선족 김치, 순대 등 조선족특색의 음식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조선족음식이 이미 기타 민족들에 의해 접수되고 환영받고있기때문이다.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는 사회생산력의 발전변화에 따라 그 심리구조도 끊임없이 조절되고 완벽화되며 갱신되고있다. 특히 사물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선진 의식 형태가 민족성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접수되고 심리구조에로 내화되어 한개 구성부분으로 될때 음식문화심리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것이 바로 사회화 결과

이다. 개혁개방후 중국의 발전은 음식문화의 발전을 추진시켰다. 중국의 조선족은 본 민족의 음식특색을 발취하여 도시나 현진에 나가 조선족식당을 하거나 조선족김치를 파는것으로써 조선족음식이 더욱 중국의 각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갖가지 김치는 국제시장에까지 이름을 떨치고있다. 조사에 의하면 감숙성 랴주에는 조선족 인구가 140여명인데 조선족식당이 20여개나 되고 이 20여개의 식당마다 손님들로 붐비여 여름철 어떤 사람들은 랭면 한그릇을 먹기 위해 한시간씩 줄을 서야 할수 있으며 앉을 자리도 없어 창문턱이나 밥상의 한 끝에 선채로 먹고 나서 간다 고 한다. 또한 랴주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조선족은 40여명인데 하루에 김치를 인민페 400~500원어치 팔수 있다고 한다. 이는 상품경제의 영향하에서 조선족의 음식문화의식이 개변되고있고 조선족특색의 음식이 기타 민족에 의해 점차 흡수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족의 경제와 생활제도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지금 중국의 조선족은 55개 형제민족과 함께 민족의 사회화를 통해 본 민족의 전통적인 도덕규범, 가치관, 음식문화심리특점과 민족개성을 여전히 유지하고있으며 기타 민족의 음식문화특점을 흡수하여 새로운 중국 조선족특색을 띠고 있다. 지금 중국의 조선족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장을 끓이는것만 봐도 원래 조선반도의 북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지손들 주로 료녕성내의 평안도,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흑룡강성 목단강지구의 함경도사람들이 개장을 끓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개고기를 삶은 물에 개고기를 실오리 모양으로 찢어서 넣고 거기에다 소금, 고추가루와 마늘을 넣는다. 이렇게 끓인 개장은 기름이 많고 느끼하여 먹은후 잘 소화되지 않고 배탈이 쉽게 난다. 다른 한 부류는 흑룡강성의 연수, 아성, 수화, 탕원, 가목사 그리고 할빈의 조선족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제외한 기타 길림성지역의 조선족들인데 대다수가 경상도 사람이여서 개장을 끓일 때 개고기를 끓일 때 개고기를 찢어서 넣고 거기에다 시라지 혹은 고사리, 된장, 고추장, 파, 생강, 大料(붓순나무의 열매)등 여러가지를 넣어서 끓인다. 이렇게 끓인 개장국은 맛이 향기롭고 느끼하지 않아 개장을 즐기는 사람들은 한끼에 4~5그릇이나 먹는다. 개장 끓이는 이 두가지 방법은 오늘에 와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함

경도식이 경상도식으로 넘어가고있으며 다른 민족의 음식구미에 맞추어 향채나 樹椒나 두부 등 여러가지 맛내기와 채소를 넣어 성분을 낮추고 경제효익을 높일뿐만 아니라 한족의 요리기술을 받아들여 개고기무침, 개고기찜, 개고기신선로 등 여러 가지 특색으로 변해가고있다. 그러나 조선족음식이 갖춘 원 개고기맛과 매운 특점은 버리지 않고있다.

조선족 음식문화의 사회화 실질은 바로 조선족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의 교류와 융합과정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중국의 조선족은 동화와 순응방식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본 민족의 음식문화특색을 보존하는 기초에서 부단히 사회수요, 인식방식, 가치관념과 문화전통의 변화에 발 맞추어 조선족 음식문화를 더욱 완비화하고 승화시키고있다. 조선족은 한족의 발달된 요리기술과 음식조각예술을 흡수하여 조선족음식이 색, 향, 미, 형(形), 기(器), 질(質)을 한몸에 지니게 하였고 음식구조와 조리방법은 기타 민족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족의 음식상에는 볶음채소나 찜채소, 炯채소가 있는가 하면 무침이나 생채가 있고 입쌀이 주식이던 데로부터 점차 밀가루음식, 잡곡이 합리하게 배합되고있으며 한족의 물만두, 수제비 등도 가끔 음식상에 오르고있다.

동북 그리고 북경 등 지역에서 가장 환영을 받고있는 음식점이 바로 조선족 랭면 점인데 고객중 한족이 조선족을 초과하고 있다. 반면 흥미있는것은 조선족이 물만두(餃子)를 먹을 경우 꼭 한족식당을 택한다는 점이다. 조선족의 98%가 한족이 빚어 파는 물만두를 상점에서 사다가 삶아 먹거나 한족이 꾸린 물만두 전문집을 찾아가서 먹기도 하는것이다. 이 흥미있는 현상은 바로 조선족의 음식문화와 기타 여러 민족음식문화지간의 사회화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3. 맺는 말

현대 문명사회에서 음식은 물질생활의 향수일뿐만아니라 정신문화생활의 향수이기도 하다. 한 민족의 음식풍습, 음식생활상태와 표현은 그 민족의 도덕, 성격, 감정

과 의식행위의 고도의 체현이기도 하다. 고상하고 우아하며 민족특색이 풍부한 음식문화의 실질은 음식추구에 대한 물질문명, 정신문명과 현대적심미의 대융합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문화의 새로운 경계이다. 현재 중국 조선족의 음식문화심리는 다원화문화사회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띠고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경계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황유복(1996)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연구』, 민족출판사.
한국문화인류학회(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흑룡강신문』 1983년 1월 29일.
潘龙海·黄有福(2002) 『跨入二十一世纪 中国朝鲜族』, 延边大学出版社.
孙玉兰·徐良玉(1990) 『民族心理学』, 知识出版社.
王学泰(1993) 『华夏饮食文化』, 中华书局.
民族出版社(1990) 『斯大林论民族问题』.
谭光广(1988) 『文化学辞典』, 中央民族学院出版社.

남북 문장 부호의 통일에 대하여*

최 호 철

고려대학교

1. 머리말

남북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우리말의 규범은 크게 표기에 관한 것과 발음에 관한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단어 표기(맞춤법), 문장 표기(띄어쓰기), 문장 부호가 속하고, 후자에는 발음법이 속한다. 이들에 대한 남북의 합의를 전제하면 그 방법은 어떠한 간에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둘을 하나로 규정하는 규범의 통일과 적절히 둘을 다 인정하는 규범의 통합이다.

남북의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규범의 통일보다는 규범의 통합이 설득력이 있겠으나, 통합이 규범의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남북 사이에 나타나는 규범의 차이가 상호보완적인 경우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남북의 규범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규범은 어디까지나 한 언어 공동체에서 한 가지로 약속하는 것이므로 남북의 규범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른 둘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표기에 관한 것 중에서 남북의 문장 부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국제고려학회 제7차 KOREA학 국제학술토론중국 심양 金華賓館, 2005.9.21~22)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

2. 분단 이전의 문장 부호

문장 부호의 시작은 「龍飛御天歌」의 권점(圈點)에서 비롯된다(金敏洙 1984: 212). 지금의 쉼표에 해당하는 중권점과 마침표에 해당하는 우권점이 그것인데(불휘기픈 남근。브르매야니뫼썩。), 개화기에 모점(、)이 나타나서 중권점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성경에서 고유명사 표시로서 인명에 외줄, 지명에 쌍줄을 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문장 부호와 함께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문장 부호’이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세로쓰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1937년 수정안에서 가로쓰기를 위한 부호가 일부 추가되었다.

(1) 附錄 二 文章 符號(1933, 1937)

文章에 쓰는 重要的 符號는 大略 다음과 같이 定한다.

1. 。 文章의 끝난 것을 나타낼 적에 그 끝에 쓴다.
* (1) 。 (.) 文章의 끝난 것을 나타낼 적에 그 끝에 쓴다. (1937)
2. ・ 西洋의 同一 人名이나 地名 사이에 쓰기로 한다.
3. 、 停止하는 자리를 나타낼 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4. : 대체로 對等의 말을 並列할 적에 그 사이에 쓴다.
5. ; 한 文章이 끝났으나 다음 文章과 意味上 連絡이 있을 境遇에 그 사이에 쓴다.
6. 『 』 引用을 나타낼 적에 쓴다.
* (6) 『 』 (“ ”) 引用을 나타낼 적에 쓴다. (1937)
7. 「 」 二重 引用을 나타낼 적에 쓴다.
* (7) 「 」 (‘ ’) 二重 引用을 나타낼 적에 쓴다. (1937)
8. ! 感歎을 나타낼 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9. ? 疑問을 나타낼 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10. = 單語의 中絶된것을 나타낼 적에 쓴다.
11. — 「 곧 」 (即)의 의미로 쓴다.
12. — — 우의 말을 다시 解釋하고 넘어갈 적에 쓴다.
13. ……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 적에 쓴다.
이 밖에도 () [] { } 等 符號를 쓴다.

14. 固有名詞를 表示하고자 할 적에는 縱書에서는 左傍에 單線을 긋고, 橫書에서는 下線을 긋는다.
15. 疊用을 表示할 적에는 筆記에 限하여 쓰되, 縱書에는 ˙를 쓰고, 橫書에는 ˋ를 쓴다.
16. 長音票는 두 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字典이나 聲音論 같은데에 聲音符號로만 쓴다.
 例: 발: 말: 경성(鏡城)
 但 行文에서는 長音 符號를 特別히 表示하지 아니함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外來語나 模倣語等を 特別히 表示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홀소리를 거듭 쓴다.

이어 1940년의 개정안에서는 ‘문장 부호’를 ‘부호’로 그 외연을 확대하여 문장용과 더불어 인쇄용까지 39개 항목으로 보충하고, 각각의 부호에 대하여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이름을 밝혔으며, 끝에 이외의 부호 43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문장 부호’의 외연을 확대하여 ‘부호’로 한 것은 문장 부호가 본디 갖는 기능을 재고할 문제를 남겨 두었다. 문장 부호는 띄어쓰기와 함께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문장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에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句讀點이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句讀點의 기본 개념과 도입에 대해서는 金敏洙 1988 참조). 따라서 일반 문장이 아닌 일정 서식이나 도표 또는 국어사전의 표제어 기술에 필요한 부호까지를 그 범위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附錄二 符號(1940) * 부호와 설명 생략.

符號 앞의 이름은 文章에서 쓰는 이름이요, 符號 아래의 이름은 印刷上의 이름이며, 符號가 돌인 것은 앞엿것은 가로글씨(橫書)에, 뒤엿것은 내리글씨(縱書)에 쓰는 것임.

文章에 쓰는 符號는 大概 다음과 같이 定한다.

- ① 마침표(終止符) (온점) (고리점)

- ② 그침표(中止符) (포괘점) (쌍점)
- ③ 머무름표(停留符) (포괘꽂지점) (쌍모점)
- ④ 쉬는표(休息符) (꽂지점) (모점)
- ⑤ 물음표(疑問符)
- ⑥ 느낌표(感歎符)
- ⑦ 따옴표(引用符) (개발툇점) (겹낫표)
- ⑧ 작은따옴표(內引用符) (새발툇점) (낫표)
- ⑨ 붙임표(接合符) (외줄붙임표) (쌍줄붙임표)
- ⑩ 긴소리표(長音符) (머리스줄) (윈덧점)
- ⑪ 홀스이름표(固有名詞符) (밑줄) (윈덧줄)
- ⑫ 드러냄표(特示符)
- ⑬ 떼냄표(切去符) (반토막)
- ⑭ 도로쌈표(襲用符) (온토막)
- ⑮ 동안표(引續符) (줄표)
- ⑯ 말바꿈표(換言符) (줄표)
- ⑰ 풀이표(解釋符) (맞줄표)
- ⑱ 줄임표(省略符) (종종이)
- ⑲ 말없음표(無言符) (점줄)
- ⑳ 방향표(方向符) (화살표)
- ㉑ 같음표(等票) (쌍줄표)
- ㉒ 큰말표(大語符) (가랑이표)
- ㉓ 작은말표(小語符) (거꿀가랑이표)
- ㉔ 보탬표(加票) (십자표)
- ㉕ 빠짐표(缺字符) (가새표)
- ㉖ 숨김표(隱匿符) (궁공)
- ㉗ 자거듭표(疊字符) (가로겹자점) (내리겹자점)
- ㉘ 말거듭표(疊語符) (개미허리)
- ㉙ 가지런표(同上符) (꼬불쌍점)
- ㉚ 지움표(抹消符) (꺾자)
- ㉛ 거침표(經由符) (치칠꺾자)
- ㉜ 끼움표(插入符) (가로끼움표) (세로끼움표)
- ㉝ 백분표(百分符) (쌍방울표)

- ㉔ 날값표(單價符) (동그람에이)
- ㉕ 도수표(度數符) (어깨고리점) (빗점) (쌍빗점)
- ㉖ 고로표(歸結符) (삼발점)
- ㉗ 까닭표(理由符) (거꿀삼발점)
- ㉘ 각설표(却說符) (갈구리표) (큰동그라미)
- ㉙ 묶음표(括弧) (손톱묶음) (겹손톱묶음) (활짚묶음) (꼭쇠묶음)

이 밖에 印刷上에서 視覺上 注意를 끌기 위하여나, 무슨 區別을 보이기 위하여나, 또는 여러 가지 必要로 아래와 같은 符號들을 使用한다.

동그라미	엔담	마늘모	마름
겹동그라미	겹엔담	겹마늘모	겹마름
검정동그라미	검정엔담	검정마늘모	검정마름
구멍동그라미	구멍엔담	구멍마늘모	구멍마름
모알동그라미	모알엔담	모알마늘모	모알마름
알동그라미	알엔담	알마늘모	알마름
가새동그라미	가새엔담	가새마늘모	가새마름
반달표	별표	꽃표	잠자리표
손표	테	쌍줄	더부줄
꼬불줄	날개표	마디줄	아지랑이줄
고리줄	사슬줄	용수철줄	

그 밖에 여러 가지 줄 및 화변 따위.

3. 분단 이후의 문장 부호

분단 이후 남측의 문장 부호는 1948년의 한글판과 1958년의 용어 수정판, 그리고 문교부의 1969년판을 거쳐 현행의 1988년판으로 이어져 왔고, 북측의 문장 부호는 1948년, 1954년, 1966년의 규정을 거쳐 현행의 1987년판으로 이어져 왔다.

3.1. 남측의 문장 부호

1948년 한글판의 ‘부호’는 1940년 개정안과 그 내용에서 차이가 없으며, 1958년 용어 수정판에서는 39개 항 이외에 규정한 부호 43개를 삭제하였다. 1958년판에서 43개의 부호를 제외한 것은 그나마 문장 부호의 본디 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개 항목에는 진정한 문장 부호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서 장차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문교부의 1969년판에서 획기적으로 수정되었다. ‘획 기적’이라 함은 문장 부호의 대폭적인 삭제와 더불어 세로쓰기의 부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문장 부호 사용법(1969)

1. 쉼표〔休止符, comma〕(,)
2. 마침표〔終止符, period〕(.)
3. 가운뎃점〔同位符〕(·)
4. 쌍점〔中止符, colon〕(:)
5. 쌍반점〔停留符, semicolon〕(;)
6. 물음표〔疑問符, question mark〕(?)
7. 느낌표〔感歎符, exclamation mark〕(!)
8. 줄표〔換言符, dash〕(—)
9. 따옴표〔引用符, quotation mark〕(“ ”)
10. 작은 따옴표 (‘ ’)
11. 붙임표〔接合符, hyphen〕(-)
12. 밑줄〔固有名詞符〕
13. 괄호(括弧) (()) 손톱뭉음, (()) 겹손톱뭉음, { } 활쌍뭉음, [] 꺾쇠뭉음

이는 기존의 부호 39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대폭 줄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1940년판에서 삭제된 가운뎃점(·)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국어사전 기술에서나

필요한 ‘붙임표(-)’를 그대로 둔 것이 문제이고, ‘폴이표(— —)’는 ‘줄표(—)’와 통합한다 치더라도 ‘홀이름표, 드러냄표, 줄임표, 말없음표, 숨김표’는 문장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삭제는 지나친 간략화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문교부의 1988년판에서 다시 수정되었는데, 그것은 삭제한 ‘드러냄표, 줄임표, 말없음표, 빠짐표, 숨김표’와 세로쓰기 부호의 규정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겹손톱묵음’과 ‘쌍반점’ 및 고유명사 표시 부호 ‘밑줄이 빠지고 ‘빗금’과 ‘물결표’가 추가되었다.

(4) 문장 부호(1988)

1. 온점 . 고리점 。
2. 물음표 ?
3. 느낌표 !
4. 반점 , 모점 、
5. 가운뎃점 ·
6. 쌍점 :
7. 빗금 /
8. 큰따옴표“ ” 겹낫표『』
9. 작은따옴표 ‘ ’ 낫표「」
10. 소괄호 ()
11. 중괄호 { }
12. 대괄호 []
13. 줄표 —
14. 붙임표
15. 물결표 ~
16. 드러냄표 °, ·
17. 숨김표 ××, ○○
18. 빠짐표 □
19. 줄임표 ……

1988년판에서는 필요한 부호가 일부 추가되었으나 ‘쌍반점’의 삭제, 세로쓰기 부호 규정의 부활, 문장에서보다는 일정 서식이나 도표 등에서 쓰이는 ‘붙임표’와 ‘물결표’ 및 ‘빠짐표’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3.2. 북측의 문장 부호

북측은 1948년 『朝鮮語 新綴字法』에서 문장 부호를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1940년판에 있던 세로쓰기의 부호 규정을 삭제하였고, 39개의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대폭 줄였다.

(5) 第2節 符號(1948)

第64項. 文章에 쓰는 符號는 大概 다음과 같이 定한다.

- 1) 終止符 . 文章의 끝남을 보일 때 쓴다.
- 2) 中止符 : 한 文章이 大體로 끝나면서 다음 文章과 意味上 連絡됨을 보일 때 쓴다.
- 3) 停留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깐 쉬여 머물러야 할 자리에 쓴다.
- 4) 休息符 , 意味가 좀 中斷되므로 읽을 적에 잠깐 쉬는 것이 좋을 자리에 쓴다.
- 5) 疑問符 ? 疑心이 나 물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6) 感歎符 ! 느낌이나 부르짖음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 7) 引用符 “ ” 다른 말을 따다가 쓸 때 그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
- 8) 內引用符 ‘ ’ 다른 말을 따다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말을 본따 따온 것이 있는 때 그 본디 따온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
- 9) 接合符 - 單語의 끊어진 자리를 이어 붙이는 뜻을 보일 때 쓴다. 한 單語가 두 줄에 걸쳐서 적힐 경우는 위 ’ 줄의 끝에 쓴다.
- 10) 疊語符 < > 두 자 혹은 두 말을 거듭 쓸 때 그 거듭 쓰는 대신에 쓴다.
- 11) 括弧 (), 《 》, < > , [] 어떤 부분을 한 덩이로 묶을 때 이를 各各 適當히 쓴다.

이는 남측에서 1940년판 이후 규정되었던 수많은 부호를 거의 삭제하여 남측의 1969년판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임표, 말거듭표’를 그대로 둔 것이나, ‘홀이름표, 드러냄표, 말바꿈표, 풀이표, 줄임표, 말없음표, 숨김표’ 등을 삭제한 것은 문제로 남는다.

이어 개정한 1954년판에는 이전에 빠진 ‘풀이표’가 살아났으며, 부호의 명칭과 인용부와 같은 일부 부호가 달리 나타나게 되었다.

(6) 제8장 문장 부호(1954)

제56항. 문장에 쓰는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점 . 문장이 끝남을 보일 때 또는 략자, 략어임을 보일 때 쓴다.
2. 두점 : 한 문장이 대체로 끝나면서, 뒤에 오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설명으로 될 때 쓴다.
3. 반점 , 의미가 중단되어 읽을 때 잠깐 쉬는 것이 좋을 때 쓴다.
4. 반두점 ; 의미가 중단되는 곳에서 반점과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당할 때 쓴다.
5. 의문표 ? 의문의 뜻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6. 감탄표 !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 그 말의 다음에 쓴다.
7. 인용표 《 》 다른 말을 따다가 쓰는 데 그 말의 앞뒤에 갈라서 쓴다.
8. 거듭 인용표 〈 〉 다른 말을 따다가 쓰는데 그 안에 또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앞 뒤에 갈라서 쓴다.
9. 이음표 - 합성된 단어에서 그 구성 부분을 보이기 위하여 또는 한 단어를 두 줄에 걸쳐 적을 때 쓸 수 있다.
10. 횡선 — 동격어, 총괄어 또는 삽입어의 앞뒤에, 또는 서술이 중단되거나 생략되었음을 보일 때 쓴다.
11. 점선 … 서술이 중단되거나 생략되었음을 보일 때 쓴다.
12. 괄호 (), (()), [], { } 어떤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을 때 이들을 각각 적당히 쓴다.

이어 1966년판에서는 ‘줄임표, 드러냄표, 숨김표’가 살아났으며, 괄호의 일부 삭

제와 함께 ‘같음표, 물결표’가 새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문장에서보다는 일정 서식이나 도표 등에서 쓰이는 ‘붙임표’와 ‘물결표’에 대한 추가는 남측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1987년판에서는 부호의 명칭을 달리 한 것 이외에는 큰 변함이 없다.

(7) 문장부호법(1987)

총칙

1. 현대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
2. 이 문장부호법은 가로쓴 현대조선말의 글에서 쓴다.

제1항. 문장부호의 종류와 이름

.	점	《 》	인용표
:	두점	〈 〉	거듭인용표
;	반두점	()	반달괄호
,	반점	[]	끼쉬괄호
?	의문표	(____, ~~~)	밑점(밑줄, 물결줄)
!	감탄표	○○○, ×××, □□□	숨김표
-	이음표	"	같음표
—	폴이표	~	물결표
…	줄임표		

4. 남북 문장 부호의 대비

현재 남측의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마침표 3종류, 쉼표 3종류, 따옴표 2종류, 묶음표 3종류, 이음표 3종류, 드러냄표 1종류, 안드러냄표 3종류이다. 그리고 ‘조선말

규범'의 한 부분인 북측의 문장 부호는 총칙과 20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총칙, 우리 글에서 쓰는 부호의 종류와 이름(제1항), 각 부호의 규정(제2~13항, 제15~18항), 인용표와 괄호 안에서의 부호 사용법(제14항), 제목글에서의 부호 사용법(제19항),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제20항)이다.

여기에서 남북 문장 부호를 보면 전체 종류에서 남측은 19종류를, 북측은 17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남측에는 북측의 '반두점, 같음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북측에는 남측의 '가운뎃점, 빗금, 중괄호, 빠짐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남측은 세로쓰기에 필요한 별도의 부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북측은 내려쓰기에 필요한 별도의 부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칭과 부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부호가 나타내는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남북의 문장 부호를 비교해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현행 남북 문장 부호의 비교

	남		북	
	부호	이름	부호	이름
1	. 。	온점 고리점	.	점
2	?	물음표	?	물음표
3	!	느낌표	!	느낌표
4	, 、	반점 모점	,	반점
5	·	가운뎃점		
6	:	쌍점	:	두점
7	/	빗금		
8	“ ” 『 』	큰따옴표 겹낫표	《 》	인용표
9	‘ ’ 「 」	작은따옴표 낫표	〈 〉	거듭인용표
10	()	소괄호	()	쌍괄호
11	{ }	중괄호		
12	[]	대괄호	[]	꺾쇠괄호
13	—	줄표	—	풀이표
14	-	붙임표	-	이음표

15	~	물결표	~	물결표
16	°, ´	드러냄표	(┘, ~~)	밑점(밑줄, 물결줄)
17	xx, ○○	숨김표	○○○, xxx, □□□	숨김표
18	□	빠짐표		
19		줄임표	...	줄임표
20			∶	반두점
21			〃	같음표

표에서 보듯이 남북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일반 문장에서가 아닌 일정 서식이나 도표 등에서 사용되는 부호를 문장 부호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다음은 남북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임의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남북 양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붙임표, 물결표’나 남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빠짐표’, 북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음표’나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는 문장 부호의 규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아래 네 개를 모두 인정하고 명칭과 부호는 ‘이음표-, 물결표~, 빠짐표□, 같음표〃’로 하였으며, 최호철(2002)에서는 ‘이음표’의 명칭만 ‘붙임표’로 하였었다.

(9) 삭제할 문장 부호

남	88	붙임표-	69	붙임표-	58		48		40		37	=	33	=
북	87	이음표-	66	이음표-	54	이음표-	48	接合符-						

남	88	물결표~			58		48		40		37		33	
북	87	물결표~	66	물결표~	54		48							

남	88				58		48		40		37		33	
북	87	같은표 "	66	같은표 "	54		48							

남	88	빠짐표□			58	가새표×	48	가새표×	40		37		33	
북	87		66		54		48							

후자의 경우에는 크게 세로쓰기의 부호 규정과 부호의 모양, 부호의 명칭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가로쓰기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그대로 세로쓰기에 적용할 경우 그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이는 가로쓰기나 세로쓰기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부호로 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후자의 부호의 명칭은 이름 짓는 실마리, 즉 모양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모든 부호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남북의 공통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명칭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대원칙에 입각하여 문장 부호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남북의 통일 문장 부호를 규정해 보도록 할 것이다.

① 마침표 .

남	88	온점. 고리점.	69	마침표.	58	온점. 고리점.	48	온점. 고리점.	40	온점. 고리점.	37	.	33	.
북	87	점(끝점).	66	점.	54	점.	48	終止符.						

부호의 모양에서 남측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호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나, 점(.)의 모양도 세로쓰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로쓰기의 고리점을 삭제해도 좋겠다. 그리고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마침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명칭을 ‘온점’으로 하였으며, 최호철(2002)에서는 ‘마침표’로 하였었다.

② 물음표 ?

남	88	물음표?	69	물음표?	58	물음표?	48	물음표?	40	물음표?	37	?	33	?
북	87	물음표?	66	의문표?	54	의문표?	48	疑問符?						

이는 남북 공히 같은 부호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③ 느낌표 !

남	88	느낌표!	69	느낌표!	58	느낌표!	48	느낌표!	40	느낌표!	37	!	33	!
북	87	느낌표!	66	감탄표!	54	감탄표!	48	感歎符!						

이는 남북 공히 같은 부호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④ 쉼표 ,

남	88	반점, 모점,	69	쉼표,	58	꽂지점, 모점,	48	꽂지점, 모점,	40	꽂지점, 모점,	37	,	33	、
북	87	반점,	66	반점,	54	반점,	48	休息符,						

부호의 모양에서 남측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호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나, 반점 (,)의 모양도 세로쓰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로쓰기의 모점을 삭제해도 좋겠다. 그리고 명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쉼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명칭을 ‘반점’으로 하였으며, 최호철(2002)에서는 ‘쉼표’로 하였었다.

⑤ 쌍점 :

남	88	쌍점:	69	쌍점:	58	포갠점: 쌍점..	48	포갠점: 쌍점..	40	포갠점: 쌍점..	37	:	33	:
북	87	두점:	66	두점:	54	두점:	48	中止符:						

남	88		69	쌍반점;	58	포갠꽂지점; 쌍모점、	48	포갠꽂지점; 쌍모점、	40	포갠꽂지점; 쌍모점、	37	;	33	;
북	87	반두점;	66	반두점;	54	반두점;	48	停留符;						

‘반두점’은 현행 남측 규정에는 없고 북측 규정에만 있는데, 그 기능은 ‘섬표’로써 충분하므로 문장 부호의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쌍점(두점)’의 모양은 남북이 같고 그 명칭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부호의 모양은 두 점이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단순히 ‘두점’이라 일컫는 것보다는 그 모양의 뜻을 잘 나타내 주는 ‘쌍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 최호철(2002)에서는 명칭을 ‘두점’으로 하였던다.

⑥ 풀이표 —

남	88	줄표—	69	줄표—	58	줄표—	48	말바꿈표—	40	줄표—	37	—	33	—
북	87	풀이표—	66	풀이표—	54	횡선—	48							

부호의 모양은 남북이 같고 그 명칭에서 차이가 있는데, 명칭은 부호의 기능을 기준하여 ‘풀이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⑦ 겹모괄호 <>>

남	88	큰따옴표" " 겹낫표『』	69	따옴표" " "	58	개발툇점" " 겹낫표『』	48	개발툇점" " 겹낫표『』	40	개발툇점" " 겹낫표『』	37	『』	33	『』
북	87	인용표<>>	66	인용표<>>	54	인용표<>>	48	引用符“ ”						

부호의 모양에서 남측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호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남북의 부호 가운데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다 고려하여 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것은 북측의 부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원칙에 따라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북측의 부호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명칭은 모양을 기준으로 아래 ⑧의 부호와 짝을 이루는 ‘겹모괄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이는

남북 양측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명, 지명, 책명’ 등 고유명을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 ”를 취하여 명칭을 ‘계발돋점’으로 하였으며, 최호철(2002)에서는 ‘겹따옴표’로 하였었다.

⑧ 홀모괄호 〈 〉

남	88	작은따옴표‘ ’ 낫표「 」	69	작은따옴표‘ ’	58	새발돋점‘ ’ 낫표「 」	48	새발돋점‘ ’ 낫표「 」	40	새발돋점‘ ’ 낫표「 」	37	「 」	33	「 」
북	87	거듭인용표〈〉	66	거듭인용표〈〉	54	거듭인용표〈〉	48	內引用符‘ ’						

남	88	드러냄표·°		58	드러냄표- ·°	48	드러냄표~ ·°	40	드러냄표 ·°、	37		33	
북	87	밑점… …	66	밑점…	54		48						

인용 부호의 모양에서 남측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호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남 북의 부호 가운데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다 고려하여 두루 사용하기에 좋은 것은 북측의 부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원칙에 따라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북측의 부호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명칭은 모양을 기준하여 위 ⑦의 부호와 짝을 이루는 ‘홀모괄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이는 남북 양측에서 규정하지 않은 책 속의 작품이나 논제를 표시하는 부호나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드러냄표’ 대신에 남측은 ‘ ’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북측은 ≪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드러냄표(밑점)’은 문장 부호의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 ’를 취하여 명칭을 ‘새발돋점’으로 하였고, 최호철(2002)에서는 ‘홀따옴표’로 하였으며, ‘드러냄표’는 ·°를 취하여 그대로 인정하였었다.

⑨ 둥근괄호 ()

남	88	소괄호()	69	손톱묶음()	58	손톱묶음()	48	손톱묶음()	40	손톱묶음()	37	()	33	()
북	87	쌍괄호()	66	반달괄호()	54	괄호()	48	括弧()						

남	88	중괄호{ }	69	활판묶음{ }	58	활판묶음{ }	48	활판묶음{ }	40	활판묶음{ }	37	{ }	33	{ }
북	87		66		54	괄호{ }	48							

남	88	대괄호[]	69	꺾쇠묶음[]	58	꺾쇠묶음[]	48	꺾쇠묶음[]	40					
북	87	꺾쇠괄호[] 【 】	66	꺾쇠괄호[]	54	괄호[]	48	括弧[]		꺾쇠묶음[]	37	[]	33	[]

괄호에 대하여 남측은 3종류로, 북측은 2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명칭 또한 각각 다르다. 그런데 북측에 없는 []는 일정 서식이나 도표가 아닌 일반 문장에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문장 부호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남북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역시 그 기능이 단순하여 굳이 ()와 구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이 부호 역시 문장 부호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문장 부호는 () 하나로 한정하고, 그 명칭은 모양을 기준한 ‘둥근괄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 최호철(2002)에서는 세 종류를 다 인정하되 명칭은 각각 ‘손톱괄호, 활괄호, 꺾쇠괄호’로 하였었다.

⑩ 가운데점 .

남	88	가운데점 .	69	가운데점 .	58		48		40		37	.	33	.
북	87		66		54		48							

남	88	빗금/			58		48		40		37		33	
북	87		66		54		48							

북측의 규정에는 없고 남측의 규정에만 있는 가운데점과 빗금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는 까닭에 이를 통합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부호는 전통성을 고려하여 ·으로 한정하고 그 명칭은 ‘가운뎃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⑪ 숨김표 ○

남	88	숨김표× ○			58	공공○○	48	공공○○	40	공공○○	37		33	
북	87	숨김표 × □ ○	66	숨김표 ○ □	54		48							

부호의 모양에서 남측은 ×와 □ 두 가지를, 북측은 ×와 □ 및 ○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화하여 ○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 명칭은 남북 공히 사용하는 ‘숨김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 최호철(2002)에서는 ×와 ○ 둘을 다 인정하였었다.

⑫ 줄임표 …

남	88	줄임표……			58	종종이…	48	종종이…	40	종종이 …	37	……	33	……
북	87	줄임표…	66	줄임표…	54	점선…	48							

명칭은 ‘줄임표’로서 남북 공히 같고 모양에서 차이가 있는데, 부호의 모양은 더 간단한 …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홍종선·최호철(1998)에서는 ……를, 최호철(2002)에서는 …를 취하였었다.

5. 맺음말: 남북 통일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띄어쓰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띄어쓰기의 상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 부호는 전적으로 일정 서식이나 도표 등에서 사용하는 부호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

기 때문에 문장 부호는 일반적인 문장의 작성이나 이해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의 문장 부호를 검토하고 그 통일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남측의 19개 문장 부호 가운데에서 7개를 삭제하고(빗금, 중괄호, 대괄호, 붙임표, 물결표, 드러냄표, 빠짐표), 북측의 17개 문장 부호 가운데에서 6개를 삭제한 것을(꺾쇠괄호, 이음표, 물결표, 밑점, 반두점, 같음표) 통합한 결과 12개의 문장 부호로 한정하였다.

(10) 통일 문장 부호

- ① . 마침표 ② ? 물음표 ③ ! 느낌표 ④ , 쉼표
- ⑤ · 가운데점 ⑥ : 쌍점 ⑦ < > 겹모괄호 ⑧ < > 홀모괄호
- ⑨ () 둥근괄호 ⑩ - 풀이표 ⑪ ○ 숨김표 ⑫ … 줄임표

참고로 현행 남북의 문장 부호와 통일 문장 부호를 대비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남북 문장 부호와 통일 문장 부호

	남		북		통일	
	부호	이름	부호	이름	부호	이름
1	. 。	온점 고리점	.	점	.	마침표
2	?	물음표	?	물음표	?	물음표
3	!	느낌표	!	느낌표	!	느낌표
4	, ٫	반점 모점	,	반점	,	쉼표
5	·	가운데점			·	가운데점
6	:	쌍점	:	두점	:	쌍점
7	/	빗금			삭제	

8	“ ” 『 』	큰따옴표 겹낫표	《 》	인용표	《 》	겹모괄호
9	‘ ’ 「 」	작은따옴표 낫표	〈 〉	거듭인용표	〈 〉	홀모괄호
10	()	소괄호	()	쌍괄호	()	등근괄호
11		중괄호			삭제	
12		대괄호	[]	꺾쇠괄호	삭제	
13	—	줄표	—	풀이표	—	풀이표
14	-	붙임표	-	이음표	삭제	
15	~	물결표	~	물결표	삭제	
16	°, ·	드러냄표	(__, ~)	밑점(밑줄, 물결줄)	삭제	
17	xx ○○	숨김표	○○, xx, □□	숨김표	○	숨김표
18	□	빠짐표			삭제	
19	……	줄임표	…	줄임표	…	줄임표
20			;	반두점	삭제	
21			”	같음표	삭제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5)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金敏洙(1984) 『國語政策論(再版)』, 서울: 塔出版社.
- 金敏洙(1988) 「句讀點에 대하여」, 「井山柳穆相博士 華甲紀念論叢」, 서울: 中央大學校 中央文化研究院出版部.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2) 『조선말규범집 해설』(197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동경: 학우서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동경: 학우서방.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편(1956) 「조선어 철자법 사전」,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 조선 어문 연구회(1950) 「조선어 신철자법」, 평양: 조선 어문 연구회.
- 최호철(2002) 「남북한 언어 통일과 정보화」, 홍윤표 외, 『한국어와 정보화』, 서울: 태학사.
- 한글 학회(1989)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1980)』, 서울: 한글 학회.
- 홍종선 · 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투고규정

Notes for Contribute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한글”, 영어일 경우는 “Word”로 입력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한글” or “Word”.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区舟橋町2-2 OIC Center

國際高麗學會「國際高麗學」編輯委員會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본부임원

회장	정 광(한국 고려대학교)
부회장	李先漢(중국 北京大學)
	김정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최광식(한국 고려대학교)
	연재훈(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朴 一 (일본 大阪市立大學)
편집위원장	김진우(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宋南先(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宋在穆(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尹靖水(일본 梅花女子大學)
	태형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원장)
특별고문	윤덕홍(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崔應九(중국 北京大學)
상임고문	吳清達(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學)
	강화웅(미국 University of Hawaii)
고문	Mikhail N. Park(러시아 Moscow대학)
	Hao Bin(중국 北京大學)
	安炳浩(중국 北京大學)
	Helga Picht(독일 Humbolt대학)
	김민수(한국 고려대학교)
	瀧澤秀樹(일본 大阪商業大學)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각지부임원

아시아분회	회장	李先漢(北京大學)
	사무국장	崔順姬(北京言語大學)
일본지부	회장	朴 一 (大阪市立大學)
	사무국장	裴光雄(大阪教育大學)
서울지부	회장	최광식(고려대학교)
	사무국장	정태현(고려대학교)
평양지부	회장	김정영(사회과학원)
	사무국장	이민우(사회과학원)
유럽지부	회장	연재훈(SOAS, University of London)
	사무국장	Stefan Knoob(SOAS, University of London)
북미지부	회장	김진우(University of Illinois)
	사무국장	박찬웅(The Ohio State University)

국제고려학 제11호

발행일 2007년 12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정 광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國際高麗學會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TEL: +81-6-6768-8425 FAX: +81-6-6763-5080

Email: info@isks.org HP: <http://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82-2-718-6252

ISSN 1347-7307

2007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